

사서들의 책 이야기

2017 경기도사서서평단 서평활동 모음집

2017



2017 경기도사서서평단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김보라	화성시 시립도서관
김새롬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김정미	오산시 초평도서관
김현주	수원시 지혜샘어린이도서관
박지원	안성시 중앙도서관
송미선	화성시 태안도서관
안미나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엄정란	시흥시 정왕어린이도서관
유향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유현미	평택시 시립도서관
이가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이병희	안성시 보개도서관
이선희	성남시 중앙도서관
이수경	평택시 장당도서관
이시영	군포시 산본도서관
이연수	수원시 태장마루도서관
이연순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이윤정	평택시 지산초록도서관
조이소하	남양주시 별빛도서관
홍미정	화성시 병점도서관

사서서평 기획 및 편집

정은영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서평공모전 수상자

우수작	조정현 (성남시) 신창덕 (고양시)
장려작	김선애 (파주시) 신창덕 (고양시) 박은혜 (화성시) 김경미 (부천시)

사서들의 책 이야기

2017 경기도사서서평단 서평활동 모음집

지성, 문명, 미래를 위한 설계자 : 사서

도서관계에 있어서 2017년은 역동적인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22일 저녁 7시, 첫 번째 “사서릴레이 대토론회”가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서배치기준(안)을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 현장의 사서들이 목소리를 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서들의 목소리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다를 수 있었지만, 한 가지로 모으자면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도서관에 대한 전문가가 마땅히 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적정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적정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니 현실성 있게 줄이는 것이 적절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SNS에서는 #도서관을도서관답게 #사서배치기준 #사서릴레이대토론회 #도서관에사서를 #사서를사서답게 등의 해시태그도 등장 했고,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국민청원으로 공공도서관 사서배치기준(안) 철회가 제안되기도 했습니다. 본 제안에 5천5백여명의 서명이 있기도 했습니다.

사서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조금씩 내기 시작하니 여기저기 조금씩, 동조해 주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SNS에서 동조를 표하기도 하고, 신문지상 기사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정모 서울과학관장님은 독일 유학시절 경험했던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서가 먼저다”라는 칼럼도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감동적이었던 것은 서두에 쓴 저 문구입니다. **《지성, 문명, 미래를 위한 설계자 : 사서》**, 지난 10월 24일 한겨레신문에 22면 하단에 빨간색 테두리가 쳐진 광고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싶었습니다. 광고의 하단에는 “도서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원하는 이들”이라고도 쓰여 있었습니다. 도서관에 애정이 있는 사람들 모두가 궁금해 하고, 가슴 설렘을 느꼈습니다. 궁금해서 수소문해보니 정말, 순수하게 도서관에 대한 애정이 있는 이용자들이 사비를 털어 올린 광고라고 하더군요. 이에 화답하여 경기도사서협의회, 서울시공공도서관협의회도

《사서들은 우리 사회에 평등과 민주주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광고를 동일한 신문 12월 4일자에 실었습니다.

조용하고, 부드럽고, 소심하기만 하던 사서들이, 천상 선비라던 사서들이 목소리를 낸 한 해입니다.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사서들이 낯선지 어떤 사람은 '무섭다'면서 손사래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서들이 목소리를 내니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생겼고, 화답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묵묵히 내 일만 열심히 하면 언젠가 누구라도 알아주고, 도서관을 소중히 여겨줄 것이라는 소심한 태도만으로는 역시 뭔가 부족했나 봅니다. 도서관에 사서가 필요하다고, 사서가 사서답게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니, 그 주장들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9년 전 처음 사서들의 서평집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를 내면서 “도서관 전문가로서 사서의 자리를 매김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었습니다.”라는 발간사가 떠오릅니다. 운동가처럼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사서로서, 도서관과 책에 대한 전문가로서 경기도 사서들은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9번째 서평집 『사서들의 책 이야기, 2017』을 선보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목소리도 필요하지만 책을 소개하며, 도서관의 유익함을 나누며 사서들의 목소리를 높여봅니다. 도서관과 책을 사랑하는 사서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차례

813.8 사서, 어린이책을 말하다. 2017

어린이 그림책 / 10

어린이 문학 / 112

어린이 비문학 / 206

사서들이 찾은 도서관책. 2017

청소년을 위한 책 / 228

성인을 위한 책 / 254

책 권하는 사서들. 2017

서평자 소개 / 300

서평공모전 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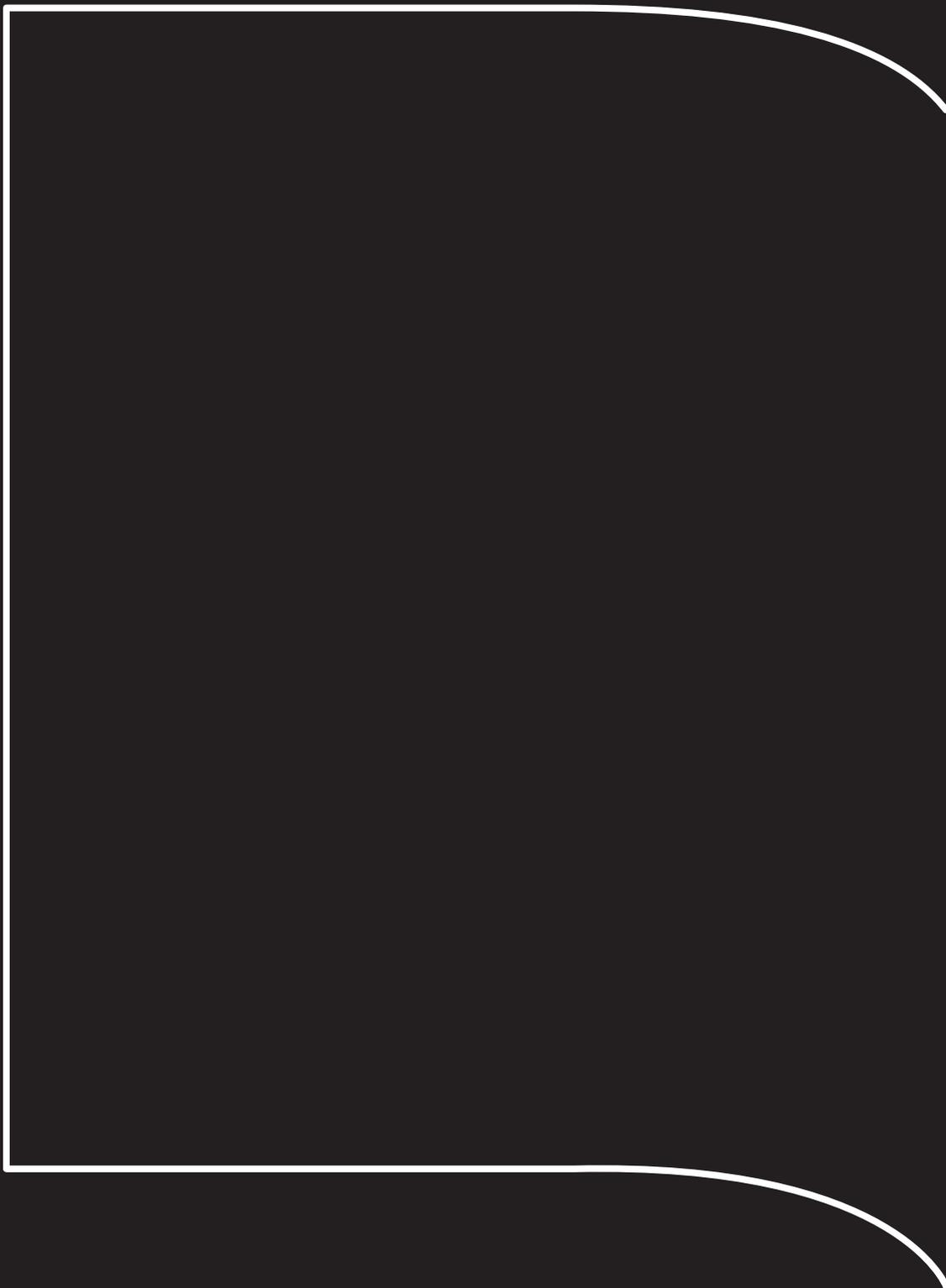
내가 권하는 어린이 책 / 326

색인

도서명별 / 348

저자별 / 350

서평자별 / 351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한다.
2017

어린이 그림책

Zero 영 / 캐드린 오토시 저	공정자 · 안성시 중앙도서관
고양이 손을 빌려드립니다 / 김채완 저	김현주 · 수원시 지혜샘어린이도서관
고작해야 364일 / 황선미 저	이연수 · 수원시 태장마루도서관
그 나무가 웃는다 / 손연자 저	김정미 · 오산시 초평도서관 박지원 · 안성시 공도도서관
나 홀로 버스 / 남강한 저	이선희 · 성남시 중앙도서관
나는 기다립니다 / 다비드 칼리 저	조이소하 · 남양주시 별빛도서관
나는 죽음이예요 / 엘리자베스 헬란 라슨 저	이윤정 · 평택시 지산초록도서관
나는 지하철입니다 / 김효은 저	이가영 · 평택시 안중도서관
나무도장 / 권윤덕 저	이연수 · 수원시 일월도서관
나의 엄마 / 강경수 나의 아버지 / 강경수	유현미 · 평택시립도서관
너였구나 / 전미화	이윤정 · 평택시 지산초록도서관
너희 집은 어디니 / 김성은 저	안미아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넌 괜찮은 줄 알았어 / 윤지연 저	이연순 ·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덤벼! / 김성은 저	이윤정 · 평택시 지산초록도서관
두더지의 소원 / 김상근 저	김현주 · 수원시 지혜샘어린이도서관
디지털 / 패트릭 맥도넬 저	공정자 · 안성시 중앙도서관
레스토랑 sal / 소윤경 저	안미아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로리스의 특별한 하루 / 바르바라 취렌 저	공정자 · 안성시 진사도서관
마음은 어디에 / 토네 사토에 저	이연순 ·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만점짜리 도시락 / 구스노키 시게노리 저	안미아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모자를 보았어 / 존 클라센 저	안미아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비비를 돌려줘 / 권오준 저	김현주 · 수원시 지혜샘어린이도서관

사랑해 꼭꼭꼭 / 김이자 저	김새롬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산딸기 크림봉봉 / 에밀리 젠킨스 저	공정자	안성시 진사도서관
생쥐 가족의 하루 / 조반나 조볼리 저	김새롬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수박대장 수박동네 / 히라타 마사히로 저	이연순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수박 만세 / 이선미 저	송미선	화성시 태안도서관
알사탕 / 백희나 저	김현주 이가영	수원시 지혜샘어린이도서관 평택시 안중도서관
야호! 바다 / 린다 애쉬먼 저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어느날 아무 이유도 없이 / 다비드 칼리 저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어딤지 요깃지 / 김현주 저	이연순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엄마는 해녀입니다. / 고희영 저	김새롬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왜냐면 / 안영달	이가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우리는 쌍둥이 언니 / 염혜원 저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우리동네 정원만들기 / 다이안 디살보 라이언 저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일기쓰기 딱 좋은 날 / 정신 저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잘 가, 안녕 / 김동수 저	이가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조랑말과 나 / 홍그림 저	유현미	평택시 시립도서관
차마고도를 넘어 / 유재숙	홍미정	화성시 병점도서관
책고치는 할아버지 / 김정호 저	김현주	수원시 지혜샘어린이도서관
천만의 말씀 / 스텔라 노리타케 저	이윤정	평택시 지산초록도서관
천하태평 금금이의 치매엄마 간병기 / 김혜원 저	이수경	평택시 장당도서관
할머니 엄마 / 이지은 저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힘이 센 장수풍뎡이야 / 김진 저	김새롬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Zero 영

캐드린 오토시 글, 그림, 이향순 옮김.

북뱅크, 2017.

ISBN : 978-89-6635-060-5

그림책

유아

숫자, 수세기, 자존감, 영, Zero

자신감을 가져봐!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유아를 대상으로 수세기 그림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대부분의 수세기 책은 숫자를 세는 법을 알려준다. 이에 반해 이 책은 단순히 수세기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숫자 0을 통해 자신감과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까지 다루고 있다.

숫자 “0”은 멋있는 다른 숫자들처럼 모양을 바꾸고 싶어서 밀고 당기고 늘여도 보고 모양을 바꿔보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다른 숫자들처럼 하나, 둘, 셋 등 수세기도 되지 않아 속상하다. 이런 0에게 숫자 7은 ‘아무 것도 아닌 숫자란 없어. 너도 자신의 좋은 점을 한번 찾아봐’라고 조언을 해 준다. 이후 0은 자신감을 얻고 다른 숫자와 같이 여러 숫자를 만들고 십 단위, 백 단위, 천 단위 등 다양한 숫자를 만들어 본다. 처음에 몸 한가운데 구멍이 뚫려 허전했던 숫자 0은 마지막 글에 몸 한가운데에 빛이 가득 찬 느낌을 갖는다.

책 속 그림은 숫자 0에서 9까지의 다른 색깔을 가진 숫자로 표현되었고, 글이 숫자 그림과 더불어 이야기를 잘 이끌어간다. 단순한 소재일 수 있는 숫자로 이야기를 잘 이끌어가는 좋은 그림책이다. 숫자 0은 회색으로 표현되었고 숫자 7을 빨강색을 사용하였다. 다른 숫자들은 무지개색 등 유채색이다. 숫자 0이 자신감이 없어

0은 날마다 다른 숫자들이 1, 2, 3 ...
세면서 노는 게 부러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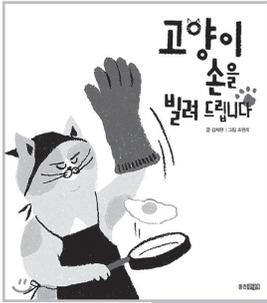
나도 셀 수 있는 숫자면 좋을 텐데.....



할 때까지 흰색 바탕색을, 숫자 0이 다른 숫자들과 더 큰 숫자를 만들어갈 때는 검은색 바탕색을 사용한 것이 특이하다.

작가는 이미 숫자 그림책 『One 일』을 먼저 출판해서 상을 많이 탔었다. 이 책은 그 다음에 출간된 작가의 두 번째 숫자그림책이다. 하양색 표지 『One 일』과 검은색 표지 『Zero 영』은 숫자와 색깔로 내용을 이끌어가는 구성이 비슷하다.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색은 빨강이고 행운의 숫자는 7이라고 하는데, 국내에 출간된 『One 일』과 『Zero 영』에서 작가의 취향을 알 수 있다.

수세기 그림책 중 숫자 “0”을 소재로 한 다른 책 <숫자 0의 마술>도 함께 읽어 보면 좋겠다. 『숫자 0의 마술』(잔니 로다리, 2012)에서도 숫자 0이 다른 숫자와 합해서 더 큰 숫자를 만들어가며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Zero 영』과는 다른 느낌을 주는 책이다. 자신감이 부족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적다고 느껴질 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좋은 점을 찾아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다.



고양이 손을 빌려 드립니다

김채완 글, 조원희 그림, 웅진주니어, 2017.

40p. : 삽화 ; 25cm.978-89-01-21705-5 74800 : 12,000

어린이책 (그림책)

수원시 지혜샘어린이도서관 (혜813.8 김82 7)

유아~초등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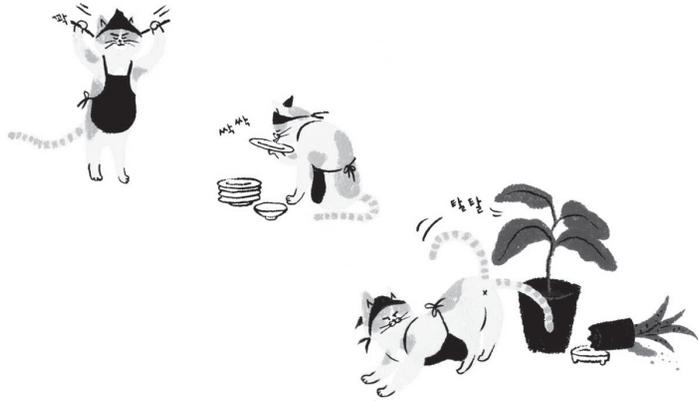
📌 엄마가 힘겨워 보일 때 / 성 역할에 대한 편견을 잡아줘야 할 때

가족은 서로 돕는거래요~

김현주 (수원시 지혜샘어린이도서관 사서)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엄마 혼자서 짊어지고 있는 가사노동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앤서니 브라운의 『돼지책』을 예로 든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한편의 책을 더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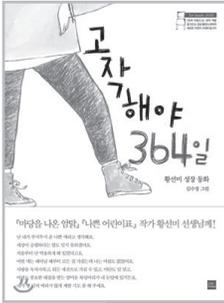
김채완 작가의 『고양이 손을 빌려 드립니다』의 주인공은 아주 바쁜 엄마이다. 엄마는 첫 장면부터 장바구니를 든 채 바쁘게 뛰어다닌다. 너무 바빠 좋아하는 산책도 할 수 없어 고양이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고 한탄하는 엄마의 모습이 짝하다. 우리 속담에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는 말이 있다. 정신없이 바빠 작은 도움이라도 받고 싶다는 의미일 텐데 이 책에서는 천연덕스럽게 진짜로 손을 빌려주겠다는 고양이가 등장한다. 고양이는 서툴지만 열심히 집안일을 하고 오랜만에 좋아하는 산책을 마친 엄마는 크고 싱싱한 고등어를 고양이에게 상으로 준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고양이는 본격적으로 집안일에 나서게 된다. 그런데 엄마가 이상하다. 고양이가 집안일을 해줘 시간이 남은 엄마가 여유를 부릴수록 고양이로 변하고 만다. 문제는 여기서 나타난다. 엄마가 고양이가 되어갈 동안 바쁜 아빠는 그걸 알아



채지 못한다. 결국 고양이로 변한 엄마를 마주한 아빠. 이제 아빠가 변할 시간이다. 아빠는 집안일을 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온 엄마. 이 가정의 행복을 찾아준 대가로 고양이는 계속 맛있는 고등어를 먹을 수 있고 엄마와 아빠는 함께 손을 잡고 산책을 다닌다.

‘고양이가 정말로 손을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라는 재밌는 상상에서 시작된 이야기도 흥미롭지만 따뜻한 색감을 살린 그림도 눈길을 끈다. 특히 노란색 고양이가 페이지마다 등장하며 따뜻한 느낌을 전달해주고 엄마와 아빠가 서로를 이해하는 장면에도 노란색 배경을 사용하여 행복한 결말을 이야기한다.

이 책은 작가가 지친 엄마를 위해 쓴 그림책이라고 한다. 엄마를 위한 위로와 가족들에 대한 바람이 깃든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소중한 것은 사라지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자. 얘기하지 않는다고 힘들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바쁜 엄마를 도와주는 즐거운 가족이 되어보는 건 어떨까? 주말이 되면 쇼파와 한 몸이 되는 아빠들에게 권해주고 싶은 책이다.



고작해야 364일

황선미 글, 김수정 그림. 포북차일드. 2015.

115p. : 삽화 ; 24cm

ISBN : 978-89-93418-97-2 : 10,000

그림책

813.8 황54 7

초등고학년

성장동화

364일과 3초!

이연수 (수원시 태장마루도서관 사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책표지에서 제목과 그림 중 무엇을 먼저 볼까? 나 같은 경우는 책 제목이 먼저 들어온다. ‘고작해야 364일’ 이란 제목도 간결하지만 간절함이 느껴지는 제목으로 눈을 사로잡았다. 그런데 왜 364일까? 1년은 365일인데…

책 제목 아래 쓰인 한 줄 “아, 이러다 진짜 내가 뺨 터져 버리고 말걸!” 은 더욱 간절함과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으며, 표지 그림은 더욱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한다. 허리부터 발까지만 그려진 모습, 발에 신은 운동화는 색깔이 다른 각각의 운동화이다.

책의 첫 장을 읽고는 왜 364일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된다. 364일은 주인공 명조와 윤조의 태어난 날의 차이였다. 사실 형제간의 차별을 다룬 동화는 많이 있었기에 내용이 비슷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은 형제 간 차별 뿐 아니라, 할머니와 함께 살며 생기는 가족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부모가 성장기 때 마음껏 하지 못한 것을 자식의 앞날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강요함으로 부자간에 생기는 갈등을 보여준다. 이 책은 요즘 세태에서 가정에서 이러날 수 있는 모든 갈등을 보여주고 있어 아이들 뿐 아니라 부모님이 읽어도 좋은 내용이다.



364일 먼저 태어난 형, 윤조 때문에 명조는 항상, 여러 가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할머니의 사랑도 윤조 형이 독차지할 뿐 아니라, 신고 싶어 노래를 불렀던 컨버스 운동화도, 하고 싶었던 보이 스카우트도 모두 윤조 형에게만 돌아간다. 모든 것이 윤조가 중심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지만 더욱 화가 나는 건 명조에겐 간절함이 모든 것을 윤조는 시큰둥해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 책 표지에 쓰여 있는 “아, 이러다 진짜 내가 뺨 터져 버리고 말걸!”이란 구절은 명조의 마음을 표현한 것일 테다. 이런 명조의 마음을 동생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것이다. 이렇게 한쪽의 마음만을 이해하게 해 준다면 이 책이 그리 특별하지 않을 수 있다. 작가는 형인 윤조

의 마음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다뤄준다. 독자로 하여금 고작 364일 차이로 형이 되어 버린 윤조가 동생 명조와 다르게 많은 부담을 갖고 있겠다는 연민이 생긴다. 이러 마음을 불러일으키다니 역시 황선미 작가는 남다르다.

윤조는 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할머니 사랑을 받는다. 할머니방을 함께 쓰고,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챙기는 할머니의 지나친 관심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또한 말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윤조 의사와 상관없이 아버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게 만든다. 계획을 짜놓아 아버지 방식에 따르게 하는 것도 윤조는 불편할 뿐이다. 오히려 관심과 사랑에 조금 물러나 자유로운 명조가 부러울 것이다.

작가는 운동화라는 소재를 통해 명조로 하여금 형에 대해 몰랐던 속마음을 알게 하고 고작 3분 차이로 쌍둥이가 된 자매가 운동화와 엮이면서 364일이 참 큰 차이 라는 것을 명조 뿐아니라 독자에게도 환기시키는 반전을 보여준다.

동생으로 태어나 억울하고 속상한 어린이들에게 그리고 형제를 가진 부모님들에게 추천하고 싶으며, 자매 간의 비슷한 심리를 다룬 양인지 작가의 「얕미운 내 꼬리」도 함께 추천한다. 더불어 동생으로 태어나 속상한 어린이들에게는 신채연 작가의 「또 형 거 쓰라고?」도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듯하다.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는 책들이 많아져서 반갑다.

그 나무가 웃는다

손연자 글, 윤미숙 그림, 시공주니어, 2016.
48p. : 삽화 ; 22cm.
ISBN : 978-89-527-8251-9 74810 : 12,500
어린이책 (그림책)
오산시 초평도서관(아동 808.9 생11서 v.20)
초등 저 ~ 성인
📖 따뜻함과 위로가 필요한 아동과 성인



“호오 호!” 내가 고쳐줄게.

김정미 (오산시 중앙도서관 사서)

우리가 느끼는 나무는 항상 푸르고 늘 거기에 있는 변함없음을 상징한다. 혹은 나무와 사람의 인생을 비교하여 생명 순환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희생과 곧은 성품을 나무에 비교하는 옛 성인들의 기록은 나무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준다. 이처럼 이야기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바로 나무다.

이 책 역시 나무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풍성한 초록 잎을 가득 머금은 나무와 빨간 열매하나, 그리고 나무위의 새, 나무에 속해있는 모든 곤충과 꽃송이와 푸른 잎은 참으로 따뜻하고 편안하다. 표지는 한 땀 한 땀 자수로 표현되어 그 시간과 정성을 가늠할 수 있다. 저자가 의도한 정성과 기다림이 결실을 맺는 듯하다.

앞부분의 면지는 벌레에게 시달려 누렁고 승승 뚫린 잎에 빗방울이 떨어진다. 빗물을 머금은 나뭇잎이 어떻게 될지 기대되는 시작이다. 뒷부분의 면지는 하얀 꽃과 노란 새싹으로 면지를 가득 채워 내 마음마저 풍성하게 한다.

볼품없어 무시당하는 것 같고, 스스로 보호할 힘조차 없이 무기력한 존재로 삶의 의미를 잃어갈 때쯤 엄마 없이 단둘이 사는 아빠와 꼬마 아들이 바위대문 집으로 이사 온다. 처음으로 나무와 마주 선 아이는 얼굴을 찡그리지만 나무가 아프다는 아빠의 말에 엄마 생각이 나는지 금세 울음을 터뜨린다. 아빠와 아이는 그날부터 나무에게 정성을 쏟는다.

“호오 호!”

“나무야, 걱정 마. 내가 얼른 고쳐줄게.”

“시원하니?”, “기분 좋지?”, “예쁘다!”, “애썼다!”

우리가 일상에서 듣고 싶었던 말이 아닐까? 진심으로 걱정하는 말 한마디에 울컥하고, 나를 위해 주고 믿어주는 사람에게 내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가슴이 몽클해지는 따뜻한 말을 통해 힘을 내고 그 사람을 위해 또 나를 위해 참고 견디며 더 단단하게 삶을 맞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새잎이 돌아나고, 봉오리가 터지고, 기다리고, 수줍은 듯 열매를 맺은 나무의 이름을 알게 된 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며 어느 새 훌쩍 커버린 아이와 나무는 긴 기다림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 존재로 성장하게 된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위로와 응원이 필요한 날이 있다. “밥 먹었니”, “수고했다!”, “아프진 않니?” 이런 말을 입 밖으로 꺼냈을 때 우리는 더 큰 위로와 힘을 얻는다.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좋아하고 위로가 될 따뜻한 그림책이다.

이 책에 그림을 그린 윤미숙 작가는 우리나라 최초로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팔죽할멈과 호랑이』로 라가치 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콜라주 작업을 통한 그림을 많이 그렸으며, 최근에는 『웃음은 힘이 세다』를 작업했다. 독특한 그만의 기법은 그림책을 예술적 작품으로 승화시키며 이야기에 깊이를 더해준다. 우울하고, 기운이 없을 때 이 두 책을 함께 읽는다면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피며 힘이 날 것 같다.

그 나무가 웃는다

손연자. 2016. 시공사
ISBN : 978-89-52782-51-9
그림책
영유아
초등저,중,고
청소년
성인 중 추천대상 기재



그 나무가 웃는다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병든 식물을 본 적이 있는가? 볼품없고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나무나 풀들을. 가지가 앙상하고, 잎이 노란 식물들은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맛있는 열매를 맺지도, 발목 사이를 간질이지도, 꽃으로 하여금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병들고 늙은 식물들을 좋아하지 않고 사라져주어서 다시 그 자리에 새 식물이 틈워주었으면 하고 소망하기도 한다.

이 책도 그런 병든 나무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가지가 앙상하여 무더운 여름 날 그늘이 되어주지 못하고 비탈 쪽 뿌리는 볼품없이 드러나 있어서 벌레들도 막지 못하는 병든 나무. 참새, 다람쥐 벌레들까지도 해코지를 해대서 그 나무의 나이에 예는 퍼렇게 멍이 들어있다. 그런 나무를 가엽게 여기는 파랑부리새는 나무를 돕기 위해 착하고 다정한 아빠와 꼬마 아들을 그 나무로 별스럽게 행동하며 데려왔다. 그들은 다른 이들과 다르게 나무를 무시하지도 해코지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나무

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주며 나무의 반점 낙엽병을 치료해주기 위해 표주박으로 시냇물을 길어다주고 찌꺼기 한약재를 거름으로 만들어 나무 밑에 묻기도 하며 나무를 정성껏 돌본다. 그들 덕분에 나무의 병이 나았고 꽃을 피웠으며, 빨갛고 예쁜 열매를 피웠다. 나무가 사과나무였기 때문에 달디 단 사과가 났는데 아빠와 아들이 이 사과를 엄마의 제사상에 올리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 된다.

생각해보면 비단 병들고 늙은 식물들에게만 온갖 것들이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러한 인간들도 경시한다.

책을 읽으면서 자식들에게 버림받는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이 절로 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는 우리에게 쓸모없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생각보다 더 잔인한 일들을 행한다.

번번이 뉴스에 나오는 친족 살해 사건들이 그 예시가 될 수 있겠다. 아프고 약한 자들을 더 돕는 게 당연하거늘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 이 짧고 따뜻한 동화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결국 종내에는 모두 행복하게 끝이 났다. 이런 해피 엔딩처럼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뜻도 희망일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보고 서로를 챙기게 될 수 있다는 희망, 그게 이 이야기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일 것이다. 이 책은 짧지만 굵게 특유의 분위기를 전달하고 가슴 깊이 전해져 오는 따뜻함을 선사한다. 또 책에 그려져 있는 그림들은 아기자기 하고 귀여워서 이야기를 읽는 재미와 감동을 더해주고 있다.

이 책을 읽으러 조그마한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손잡고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우선 짧기 때문에 읽는 데에 큰 부담도 없을 뿐더러 재미있고 뜻 깊어 보고 나서는 잔잔한 여운이 오래도록 남을 것이다.

나 홀로 버스

남강한 저자 글, 그림, 북극곰 출판사, 2016.

17 p. : 삽화 ; 크기 2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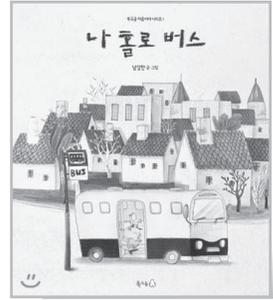
ISBN : 979-11-86797-38-9 : 15,000

어린이책 (그림책)

성남시 분당도서관 (유813.8ㄴ944-1)

유아 및 초등

📖 낯선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는 아동·성인 / 처음으로 심부름을 할 예정인 아동



겉모습에 속지 않기로 해요

이선희 (성남시 중앙도서관 사서)

남강한 작가는 대학교에서 미술을 공부하고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면서 록밴드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조금은 특별한 이력의 작가다. 아이와 어른이 함께 볼 수 있는 그림책을 꿈꾼다는 작가의 전작들은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 혹은 소외된 이들을 따뜻하고 신비롭게 표현한 ‘아빠는 외계인’, ‘아빠는 알로봇’ 등이 있다.

『나홀로 버스』는 꼬마돼지의 첫 여행 모험담이다. 엄마의 배웅을 받으며 버스에 오른 꼬마 돼지는 버스 요금을 내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소중한 초콜릿이 늑대 아저씨의 손에 들려있는 것을 알게 된다. 초콜릿을 돌려달라고 말해 볼까? 하지만 아저씨는 너무 무섭고, 금방이라도 큰 소리로 혼낼 것 같이 느껴진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시선을 돌려 보지만 아무도 관심 없고, 무섭게만 느껴진다.

설레었던 첫 버스 여행은 무시무시한 것으로 바뀌게 되고, 버스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무섭게만 느껴진다. 혼자 고민하던 꼬마 돼지는 용기를 내어 늑대 아저씨

에게 초콜릿을 구해내지만 곧 자신의 오해임을 깨달게 된다. 무시무시하던 늑대 아저씨는 조금은 다정한 보통 아저씨가 되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은 끝난다.

『나 홀로 버스』는 이야기는 짧지만 꼬마 돼지의 감정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화는 그림은 꼬마돼지가 느끼는 낯선 사람에 대한 무서움, 이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함, 늑대 아저씨에 혼날까하는 걱정스러움 등이 색채와 그림의 변화들로 잘 표현되어 있어 아직 글을 읽지 못하는 유아가 보아도 장황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히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 여기서 대상에 관계없이 그림책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무엇을 처음 시도 해본다는 것은 모든 이에게 설렘도 있지만 두려움이 더 큰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어떤 이는 경험의 부족으로 두려움을 느낄 테고, 어떤 이는 지난 실패의 경험으로 새로운 것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 이 책은 두려움이 별거 아니라고, 찬찬히 보면 내가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 책은 어린이, 어른 모두 좋아할 만한 책이다. 일러스트는 그림처럼 아름답고 많은 얘기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며 또한 두려움을 견어내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준다. 두려운 현실 앞에 놓인 누구에게나 추천한다.

나는 기다립니다.

다비드 칼리 글, 세르주 블로크 그림, 안수연 옮김.
문학동네어린이. 2016.(2007 초판)
ISBN : 978-89-54603-27-0



나는 기다립니다. 무엇을?

조이소하 (남양주시 별빛도서관 사서)

『나는 기다립니다』 무엇을? 제목에서 유발된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속표지에 놓인 빨간 털실을 따라 가게 만든다. 손짓하듯 놓인 실을 따라 책장을 넘기면,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삶의 여정을 경험하게 해주는 그림책이다,

빨간 털실을 장난스럽게 쭉 잡아당기는 아이는 마치 손을 잡아끄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아이는 쑥쑥 크기를 기다리고, 부모님의 보살핌을 기다리고, 좋은 날씨와 축제와 사랑을 기다리며 어른이 되고, 그리고는 삶의 모퉁이 모퉁이에서 좋은 일들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며 나이 들어간다. 한 때 아이였으나 이제 부모가 된 그/그녀는 아이들이 잘 자라기를, 가끔이라도 얼굴을 볼 수 있기를 기다리고, 그 기다림이 이어지기를 기다리다 삶의 매듭을 짓는다. 마지막 장면의 실타래는 마치 하나의 삶을 단정하게 말아놓은 것처럼 보인다.

다른 그림책도 그렇지만 이 책 『나는 기다립니다』는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음미하며 볼수록 좋다. 책장을 넘기는 일이 그 자체로 기다림의 행위가 되는, 느리고 깊

은 호흡으로 경험하는 그림책. 잠들기 전 엄마 아빠가 읽어주고, 성장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고, 어른이 되어서는 머리맡에 두고 삶을 반추하며 읽기에도 좋은 책이다.

세르주 블로크(Serge Bloch)가 어린이 잡지에 영웅 만화 ‘Samsam’을 연재하던 중 글 작가 다비드 칼리와 함께 작업한 이 책은 2005년 발표되자마자 바오밥상, IBBY상 등을 수상하며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출판되었다. 이어 사막에 홀로 남겨진 두 군인의 상황을 통해 전쟁의 본질을 명료하게 담아낸 『적』 그리고 어디서 잘라낸 작은 선을 모티브로 평생을 선과 함께 한 예술가의 인생을 몽클하게 표현한 “어느 날 길에서 작은 선을 주웠어요.” 등의 작품에서 일관되게 눈에 띄는 것은 간결한 선이다.

핵심만 남겨놓고 단순성을 추구하는 그림 덕분에 독자는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개입시켜 적극적으로 그림을 읽어낼 수 있다. 검은 선과 빨간 털실의 어울림도 재미있다. 자칫 무거워질 수 있는 주제를 털실 쪼가리, 영킨 털실, 이렇게 저렇게 모습을 바꾸며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털실이 경쾌하게 끌고 간다. 덕분에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시선으로 읽을 수 있다.

『나는 기다립니다』의 글을 쓴 다비드 칼리(Davide Cali) 역시 톡톡 튀는 상상력과 유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탈리아의 작가다. 만화, 동화, 시나리오, 연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의 대표작으로는 “세르주 블로크”와 함께 작업한 이 책과 『적』 외에도, 2006년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라가치상을 받은 『피아노 치기는 지겨워』 등이 있다. 다른 그림 작가와의 만남이 또 어떤 멋진 책을 낳았을지 찾아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될 것 같다.

나는 죽음이예요

엘리자베스 헬란 라슨 글; 마린 슈나이더 그림; 장미경 옮김.
마루벌, 2017.

48 p. : 천연색삽화 ; 26 cm.

ISBN : 978-89-5663-574-3 77850 : 11,000

어린이책 (그림책)

평택시 지식초록도서관 (유859.8-ㄹ188ㄴ)

초등 저학년

🔍 “죽음이 뭐예요?” 대답이 곤란한 상황



나는 죽음이예요

이윤정 (평택시 지식초록도서관 사서)

책 제목을 보면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짐작할 수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나는 죽음이예요』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머리에 예쁜 꽃을 단 주인공이 등장하면서 시작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등장하면서 죽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이 삶인 것처럼 죽음은 그냥 죽음이지요.” 맞습니다. 죽음은 그냥 죽음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망설입니다. “죽음이 뭐예요?”라는 질문을 들으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혹여나 죽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어린 아이들이 알고 상처받지는 않을까, 아직 이런 단어를 알기에는 어린 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이가 죽음에 대해 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죽음은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든 찾아가고, 언제든, 어디든 찾아간다고. 그 중에서도 죽음은 오래 살아 주름이 많은 사람들을 자주 찾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삶을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다정하고 친근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놀라지 않게 죽음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또한, 죽음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찾아가지 않으면 뿌리와 새싹이 자라날 자리를 마련해줄 이가 누구인지, 자신이 사라진다면 이 땅에 태어나는 생명의 자리를 마련해줄 이는 누구인지. “삶과 나는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땅에 씨앗을 심고 나무가 자라고 잎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떨어지고 잎이 떨어지고 다시 봄이 오면 잎이 돋아나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고 원하는 삶을 살면서 나이가 들고 삶을 떠나보내는 건 무섭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있습니다. 삶과 죽음은 늘 함께합니다.

이 책은 죽음에 대해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이해하기 쉽고 친근하게 들려줍니다. 죽음이 주인공이 되어 나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니 겁낼 이유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죽음이 두렵다면 그 답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삶이고 죽음은 사랑이고 죽음은 바로 이 책을 읽는 당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을 덮고 나면 누구든 죽음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죽음은 바로 나 자신이고, 우리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뭐예요?”라는 질문에 더 이상 대답을 회피하지 말고, 이 그림책을 아이에게 읽어주세요. 죽음은 그냥 죽음입니다.

나는 지하철입니다

김효은 글, 그림. 문학동네, 2016.
ISBN : 9788954642491
그림책
초등중학년 이상



지하철은 칸칸이 특별한 삶을 싣고 달린다

이가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사서)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지하철은 남녀노소, 빈부의 차이를 떠나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다. 『나는 지하철입니다』는 이처럼 지하철이라는 교통수단이 갖고 있는 속성을 주제로 삶에 대한 작가의 생각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의 제목 『나는 지하철입니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의 화자는 ‘지하철’ 자신이다. 그래서 이 책의 화자는 매일매일 같은 역에서 같은 시간에 지하철에 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화자인 지하철의 소개로 시작해서 등장인물 개개인의 자세한 이야기로 이어지는 책의 내용은 같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 개개인에게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예쁜 딸을 조금이라도 더 보기 위해 항상 달리는 회사원 완주씨. 딸과 그 딸의 딸이 좋아하는 문어, 전복을 바리바리 이고 지고 지하철에 타는 제주도에서 올라온 할머니. 어릴 적 자신과 같이 겁보, 울보, 잠보였던 두 아이를 품에 안은 유선씨. 사

랍들의 고장 난 신발을 말끔하게 고쳐주는 재성아저씨. 학원으로 가득 찬 건물을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처럼 기분도, 성적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나운이. 지하철에서 빠질 수 없는 다양한 물건을 파는 구공철 아저씨. 그리고 질그릇 도에 옥구슬 영자를 쓰는 도영씨. 이 책에 등장한 7명의 평범한 등장인물은 지하철이라는 익명성 안에서는 그냥 아주머니, 아저씨, 학생에 불과하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한 명 한 명에게 담겨 있는 삶과 인생은 누구와 비교할 것 없이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이다.

결국 『나는 지하철입니다』에서는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의 일상에는 이 세상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 따뜻한 이야기를 등장인물마다 특징을 살린 그림체와 다채로운 채색을 통해 표현하고 있어 책이 전하려는 의미가 독자에게 더욱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세밀하게 그려진 그림에서 등장인물들의 따뜻한 모습을 찾아보는 것도 『나는 지하철입니다』를 읽는 작은 즐거움으로 작용한다. 바다에서 아이와 물놀이를 하는 엄마와 아빠,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챙겨주는 재성아저씨, 학원 공부를 끝내고 달빛을 받으며 걸어가는 나운이의 모습 등에 집중해서 다시 읽어본다면 나름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무도장

권윤덕 글 그림. 평화를 품은 책 2016.

60p : 삽화 : 24cm

ISBN : 979-11-85928-08-1 : 16,800

그림책(어린이 문학) 800

813.8 권66L

초등고학년, 청소년

 한국 현대사, 제주4.3사건이 궁금할 때



도장에 새겨진 아픈 기억

리연수 (수원시 일월도서관 사서)

몇 년 전 제주를 관광하다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제주 송악산 해안가 동굴을 가보고 알게 된 것이다. 동굴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자연 동굴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것으로 일제 강점기, 일본군이 미군과 싸우기 위해 무기를 숨겨두는 용도로 제주 주민들을 동원하여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 때 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제주에 대하여 참 나는 아는 게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었는데 권윤덕 작가님의 나무도장을 읽으면서 또 한 번 제주도에 대하여 나의 무지함을 체감하였다. 변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학교에서 한국역사를 배울 때에는 현대사는 교과서에 가장 끝부분에 있고 학년이 끝나는 시점이라 어영부영 넘어간 걸로 기억한다.

책 앞면에 '제주 4.3사건으로 희생된 모든 분께 바칩니다.'라는 헌정사가 이 책의 내용을 미리 짐작하게 한다. 책 면지 그림은 제주 푸른 바다와 한라산의 모습이 펼쳐지고, 표지 들어가기 전 그림은 해방을 맞아 제주도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희망에 들뜬 모습과 희망에 들뜬 모습으로 관덕정에 모인 사람들이 총탄에 맞아 죽는 장면

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앞으로 펼쳐질 내용이 조금은 무겁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어머니는 손때가 묻은 나무 도장을 주머니에 넣고 13세 소녀 시리를 데리고 산자락 검불을 헤집고 동굴로 들어간다. 몇 줄의 도입부는 미스터리한 이야기가 펼쳐지나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동굴 속에서 어머니는 시리에게 시리의 세 살 때 이야기를 한다. 시리 어머니가 갖고 있던 나무도장과 관련된 이야기다. 시리가 세 살 때 제주는 일본군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육지경찰, 서북청년단, 군인들이 들어와 서로 다른 이념으로 서로를 학살하게 되는 4.3사건이 시작 되었다.

시리 어머니네 가족은 서북청년단의 토벌을 피해 산으로 올라갔으나 빨갱이라는 이유로 모두 학살을 당하였다. 시리 어머니만 시리 외삼촌이 육지 경찰이어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시리 외삼촌은 다른 경찰들과 군인들과 함께 산속의 동굴에 숨은 사람들을 찾아내 빨갱이라는 이유로 총을 쏘았다. 그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아이가 시리였으며 외삼촌은 시리를 누나에게 맡기고 키워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그 누나는 지금의 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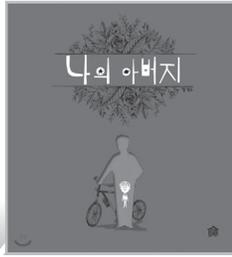


어머니이고 나무도장은 죽은 시리 가족이 남긴 유품이다. 13세 소녀가 감당하기엔 참 버거운 이야기이다. 아니 소녀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감당하기에 버거운 이야기라 할 수 있겠다. 현대사의 혼란기에서 명령에 의해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외삼촌도, 그 외삼촌을 좋아했던 시리도, 정확히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산으로 도망갔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려 가족의 죽음을 지켜보고 자신만 살아남은 어머니도 모두 제주 4.3사건으로 피해자고 버거운 삶을 살아갔으리라.

권윤덕 작가님은 『꽃 할머니』라는 작품을 통해 일제 강점기에 희생당한 위안부 할머니의 가슴 아픈 역사를 이슈화하여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실에 대하여 다뤄주었는데 이번 『나무도장』 또한 우리가 몰랐던 제주도의 아픈 역사와 더불어 한국 현대사 중 알려지지 않은 사건을 그림을 통해 함축적으로 표현하였다는 점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작업을 하신 작가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

그림과 간결한 글로 표현되어 모든 어린이들이 볼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초등 고학년 또는 청소년이 보면 더욱 이해하기에 쉬울 거라 생각된다. 이 책을 읽었던 즈음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찬반으로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이 서로 다른 이념 대립이 최고조에 다할 때여서 읽고 나니 당초에는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인데 왜 서로 같은 민족끼리 비방을 하고 격해지는 건가 70년 전 제주의 현실이 지금 현실과 조금은 닮아 있는 것 같아 심란했다.

작가가 이 책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으며,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는지가 책 뒷면에 수록된 점도 객관적으로 묘사하려는 작가의 노력이 보인다. 이 책은 그림책이지만 한 권의 역사책으로 보아도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작가의 말 중에 ‘7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가 묻어 두었던 이야기, 빠트리거나 애써 지워 버린 이야기들 속에서 그 파편들을 찾아내 우리의 꿈으로 복원해야한다’ 문구가 지난날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현재 우리가 있는 지금, 세대 간 소통 불협화음으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현재에 꿈으로 얼마나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



나의 엄마 / 나의 아버지

나의 엄마 / 강경수 글, 그림. 그림책공작소, 2016.

ISBN : 979-11-86825-05-1

나의 아버지 / 강경수 글, 그림. 그림책 공작소, 2016

ISBN : 979-11-86825-04-4

어린이책 (그림책)

평택시립도서관 (유 813.8 7237L)

언제 불러도 애뜻한 말, 나의 엄마, 나의 아버지

유현미 (평택시립도서관 사서)

아이가 맨 처음 만나는 사람이 엄마이듯, 가장 먼저 배우는 말도 ‘엄마’ 이다. 아이에게 ‘엄마’는 하나의 단어이지만 세상 모든 말이기도 하다.. 배가 고파도, 기분이 좋아도, 갖고 싶은 게 있어도, 개가 쫓아와도, 무서운 꿈을 꾸어도 아이는 ‘엄마’를 부른다. 아이에게 ‘엄마’는 만능해결사 다.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아이의 하루는 엄마를 부르며 시작해 엄마와 함께 잠이 든다.

어린아이에게 아빠는 못하는 게 하나도 없는 영웅 같은 존재다. 자전거도 잘 타고 연도 잘 날리고 물수제비도, 수영도 수준급이다. 아이에게 아빠는 ‘정말 대단한 분’이다. 아이는 아빠한테 많은 걸 배우며 자란다. 모든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할 때면 아이는 아빠로부터 차츰 멀어져 간다. “아빠 거기 있어요?” 라고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는다. 하루 종일 엄마를 찾던 아이가 친구들이나 다른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면 점차 ‘엄마’를 부르지 않는다. 그렇게 아이들은 부모를 떠나 어른이 된다. 비로소 잊고 있던 엄마와 아빠를 뒤 돌아 보았을 때는, 커다랗고 힘 있던 아버지 대신

늙고 흐름한 모습의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가 계실 뿐이다. 때로는 함께 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음을 미처 깨닫기도 전에, 예기치 못한 이별과 맞닥뜨리게 된다. 설 새 없이 엄마를 찾던 아이들은 자라서 엄마가 된다. 자신이 그랬듯 아이는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맘마’를 부른다.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작은 눈망울을 마주한 아빠는 아이에게서 그 옛날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이제 그들은 부모가 되어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사랑을 온전히 아이들에게 되돌려 주게 될 것이다. 자신들로부터 멀어져 가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언제까지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그림책을 읽다 보면 우리의 삶이 탄생과 성장과 이별과 죽음의 순환 고리로 연결되어 있음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그 연결고리 어디쯤에서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애뜻한 딸로서, 또 저편에서는 자식의 뒤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엄마로서 존재하는 자신을 만나게 된다. ‘엄마’라는 하나의 단어가 각자의 삶 안에서는 수많은 의미와 감정을 가진 수천의 단어로 증폭되기 마련이다.

이 두 권의 그림책을 사람들 앞에서 읽어주다 보면, 어느 순간 왈카 눈물을 쏟아내는 이들과 종종 마주친다. 따뜻한 그림 속 행간에서 저마다의 삶에 묻어 두었던 부모에 대한 오랜 그리움과 회한, 지난 시절에 대한 애도 등을 찾아냈기 때문이리라.

두 권의 그림책을 각각 단 권으로 읽어도 좋지만 ‘엄마와 아빠’ 짝으로 읽으면 좋겠다. 표지가 독특한데 『나의 엄마』는 할머니에서 손녀로 이어지는 운명의 순환을 묘사한 듯 한 띠지가 이채롭다. 저자가 띠지 속에 수수께끼를 숨겨놓고 독자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 보인다. 『나의 아버지』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표지에 아버지 형상의 구멍을 뚫어 속표지의 작은 아이가 드러나도록 만들었다. 아버지(그림자) 안에 아이를 배치함으로써 존재의 근원에 대한 암시 혹은, 아이가 아버지에서 나와 아버지의 그림자를 딛고 성장하는 존재라는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겠다. 마지막 면지에 담긴 ‘세상 모든 아버지들’의 모습도 인상적이다.



너였구나

전미화 글, 그림 문학동네, 2017.

52 p. : 천연색삽화 ; 27 cm.

ISBN : 978-89-546-4474-7 77810 : 12,800

어린이책 (그림책)

평택시 지산초록도서관 (유813.8-자278나)

유아

바쁜 일상 속 무언가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였구나

이윤정 (평택시 지산초록도서관 사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으며 살아가는 걸까?” 많은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생똥맞게 웬 공룡? 으로 시작해서 마음에 강한 울림을 주는 이 책은 어린 이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이들에게도 강한 울림을 주는 책입니다.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나는 현재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잊으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딩동딩동’ 벨소리와 함께 공룡 한 마리가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공룡이 인사를 합니다. “안녕! 오랜만이야!” 분명 처음 보는 공룡인데 오랜만이라는 인사를 건네며 마치 여러 번 와본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 방으로 들어와 짐을 풀니다. 나는 공룡과 밥을 먹고 잠도 같이 자고 영화도 봅니다. 영화를 보면서 공룡은 시답지 않은 장면에서 엄청 웃거나 눈물을 쏟아내 나를 창피하게 만듭니다. 나는 공룡과 함께 일상을 보내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공룡을 신기해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나는 공룡에게 물어봅니다. “너 누구야?” 그 질문을 한 날 공룡은 밥도

먹지 않고 하염없이 앉아만 있습니다. 나는 공룡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함께 놀이동산을 가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잊혀지는 게 힘들까? 잊는 게 힘들까?” 공룡이 말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심장이 쿵. 하는 느낌을 받은 구절이었고 오랫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잊혀지는 것도 잊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잊고 살았고, 또 누군가에게 잊혀진 채로 지내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느 순간 나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생각합니다. ‘나만 어른이 되었다.’ 나를 기억하는 공룡, 나의 집을 기억하고 나의 방을 기억하는 공룡. 공룡은 나와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고 간직한 채 살아왔고 나에게 찾아와 짧은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나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 공룡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많은 것들을 잊었고, 당시에는 가장 소중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또한 어른이 되면서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여행은 기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공룡의 말처럼 기억 저편 잊고 살았던 무언가를, 누군가를, 그 시간을 기억하고 짧은 여행을 다녀와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짧은 여행 속에서 한때는 가장 찬란했고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소중한 그 기억 속으로의 여행은 지금 삶에서 소중한 무언가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희 집은 어디니?

김성은 글, 그림. 북극곰, 2016.

40p. : 삽화 ; 25cm.

ISBN : 9791186797471 : 11,900

어린이책 (그림책)

성남시 중앙도서관 (유 813.8 778나)

유아

🔦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고 싶은 유아 / 우정에 대해 생각해보고 싶은 유아

같은 먹고 싶은데, 어디 있니?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호기심 많은 눈빛을 가진 초록 악어와 눈꺼풀이 한껏 내려앉은 졸린 눈의 노란 새의 표지가 눈길을 끄는 『너희 집은 어디니?』는 인천콘텐츠코리아랩 그림책 작가 양성과정을 통해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김성은 작가의 데뷔작이다. 단색들을 사용하여 간결한 선으로 표현한 캐릭터들처럼 단순하지만, 위트가 넘치는 그림책이다.

맛있는 저녁을 먹고 싶은 악어는 집 앞마당에서 수확한 당근으로 케이크를 만든다. 막 오븐에 넣고 베스트셀러를 보면서 맛있게 구워지길 기다리고 있던 찰나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쿵 앞으로 떨어진다. 새의 집을 찾아주고 싶은 악어는 이것저것 살던 곳의 특징을 물어보고, 배고픈 악어가 상상할 수 있는 곳들을 찾아내지만, 새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악어는 당근케이크가 다 구워져 나눠먹으려고 했지만, 새는 사라지고 만다.

『너희 집은 어디니?』는 글과 그림의 연계성을 떼어놓고 볼 수 없는 그림책의 묘미를 알려주는 책이다. 글만으로는 재미가 감하게 되며, 글과 함께 배치된 그림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는 상황들의 연속이다. 특히 책의 먼지까지 꼼꼼히 읽어야 이 책의 숨은 뜻을 이해하기 쉽다. 새의 집을 찾아주고 싶은 악어의 스무고개는 이어지고, 배고픈 악어의 스프 안이나 치즈저울, 접시 위, 악어의 입속으로 이어지는 집 찾기가 시작된다. 새는 집을 찾기는커녕 육식동물인 악어의 밥이 될까 무서워 스스로 집을 찾아가는 유쾌한 마무리이다. 특히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악어가 보고 있던 베스트셀러이다. 『맛있는 식탁의 비밀 3가지』와 연결되는 상황들과 악어의 진심을 알 수 있는 숨은 키이다. 작가의 유머와 반전미가 느껴지는 포인트이기도 하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육식성인 악어가 텃밭에서 당근을 키워 당근케이크를 먹는 모습을 보며, 고개가 가우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섭게 생긴 악어가 같은 사는 쥐에게도, 손님인 새에게도 작은 식탁과 식기를 준비하는 따뜻한 동물이라는 점에서 편견 없이 상상력이 커지게 된다. 이처럼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어 유아들에게 추천한다. 책의 뒤쪽에는 영어 번역문이 실려 있어, 함께 읽어보아도 도움이 될 듯하다. 친구가 필요했던 악어의 마음처럼, 언젠가 새도 마음을 열고 열린 식탁에 함께였으면 하는 바람이며, ‘작지만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고 삶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이 담긴 책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작가의 차기작이 기대된다.



넌 괜찮은 줄 알았어

윤지연 글, 김현주 그림. 별뿔별, 2016.

ISBN : 978-89-6383-508-2 74800

인성 그림책

초등저

⑩ 참다운 양보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싶은 엄마 / 양보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갈 초등생

“양보”가 뭐지?

이연순 (수원 반달어린이도서관 사서)

착하다는 말이 칭찬의 말이기는 하나 어느 면으로는 부담스런 말이기도 하다. 말을 잘 듣거나 양보를 잘한다는 뜻인 반면 ‘바보같다’거나 ‘쉬어보인다’는 욕으로 들리기도 한다. 나 또한 이 ‘착하다’는 말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며 더 이상은 그런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오랜 세월을 보냈던 기억이 있더라 책의 주인공 희원이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되었다.

희원은 아이스크림을 쏟은 친구에게 자기 것을 같이 먹자고 하고, 사탕을 떨어뜨린 친구를 위해 자신의 막대사탕을 내주기도 하며, 빈 그네를 동시에 잡은 친구에게도 그네를 양보한다. 둘째 딸인 자신이 뽀뽀하기로 되어 있는 날에 자신을 밀치고 먼저 엄마에게로 가는 언니를 우두커니 바라보며, 자신의 양보로 행복해하는 주위사람들의 모습이 좋기도 하고, ‘착하다’는 말이 듣기에도 좋았지만 왠지 슬퍼지는 자신을 발견한다. 어느날 엄마에게 선물 받은 화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던 희원은 친구들이 다가와 화분의 꽃을 따가고, 마지막 남은 꽃도 달라는 요구 앞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안돼!’를 외친다. 자신의 흥분된 행동에 가슴은 뛰고, 친

구들이 화낼까 불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가슴이 후련해지고 자신이 늘 양보만 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친구들에게 알리는 기회를 맞는다.

흔히 부모들이 아이에게 ‘착하게 살아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배려하는 아이가 되어라’고 말하며 훈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막연하고 무모하기까지 한지, 자칫 자신은 없고 남만 생각하게 되는 혼란과 실수를 부추기는 것일 수도 있다.

이 책은 ‘양보는 좋은 것이지만 나도 행복하고 기쁜 양보를 해야 하며, 내게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고, 꼭 양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양보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인성 그림책이다.

마지막 페이지에 실은 자녀가 자칫 착한아이 증후군으로 성장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표현할 줄 아는 건강한 아이로 자라도록 돕는 부모를 위한 ‘마음 들여다보기’ 지침도 참고할만하다.

아이들이 마주치게 될 무수한 마찰과 갈등 속에서 자신을 지키면서도 남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양보를 배울 수 있는 구체적이고 밝은 이야기, 엄마와 초등저학년 아이들이 함께 읽는다면 엄마와 아이가 함께 성장할 것 같다.



뎃벼!

김성은 글, 장준영 그림. 책고래, 2016.
32p. : 천연색삽화 ; 25cm.
ISBN : 979-11-87439-07-3 77810 : 12,000
어린이책 (그림책)
평택시 지산초록도서관 (유813.8- 7778ㄷ)
초등 저학년
📖 할머니 댁에 가는 게 지루한 아이 / 명절

외갓집이 심심하다고?!

이윤정 (평택시 지산초록도서관 사서)

『뎃벼!』 책 제목만 보고는 그 내용을 상상하기가 조금 힘든 책입니다. 처음 책을 집어 들었을 때 든 생각은 ‘이 책은 용감한 한 아이의 이야기일까?’였습니다. 그렇게 책을 서가에서 빼내 표지를 보고 든 생각은 ‘이 책은 곤충을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의 이야기일까?’였습니다. 책을 펼쳐 첫 페이지를 보자마자 상상했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뎃벼!』는 시골에 있는 외갓집에 놀러간 아이가 심심함을 이기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는 이야기로 아이, 부모 할 것 없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외갓집은 심심해.’ 할머니와 엄마가 주방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옆에 거실에서 아이가 소파에 앉아 하품을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외갓집에 놀러갔을 때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같은 시골이어도 항상 사촌들이 바글바글한 친가와와는 다르게 외갓집은 늘 조용했고, 심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심심한 아이는 혼자 밖으로 나오지만 할머니네 강아지는 잠을 자고 다른 집 강

아지는 사납게 짓고, 시골길을 따라 걷다 보면 길가에 똥을 밟기도 하고 풀숲을 탐험하기도 합니다. 여느 시골의 풍경과 다르지 않아 아이에게는 외갓집을 떠올리게 하고, 부모에게는 어렸을 적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풀숲에 들어온 아이는 여러 곤충 친구들을 만나지만 아이의 목소리에 모두 날아가 버리고 사마귀만 남았습니다. “야, 덩벼!” 아이는 사마귀와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냅니다. 심심해하던 아이는 사라지고 어느새 외갓집은 재미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외갓집은 집에서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보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 외갓집에 가면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고 심심하지만, 알고 보면 즐거운 일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이가 다시 심심해지려고 할 때쯤 아빠가 데리러 오셨습니다. 밖에 나가 한껏 뛰놀다 지쳐 집에 돌아와 쉬다가 다시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쯤 아빠의 차 소리가 들리고 다 같이 집으로 돌아가던 모습도 공감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아이는 재미있던 외갓집의 기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는 차를 타고 집에 가면서 엄마, 아빠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외갓집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다 말하고 나면 어느새 집에 도착해 있을 것만 같습니다.

『덩벼!』에 나오는 아이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저자는 아이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림책을 읽다보면 어느새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외갓집에 도착하면 심심해 엄마를 보채다가 혼자 밖으로 나가 이것저것 새로운 것들을 보고 몇 시간을 훌쩍 보내다 돌아오던 때가 생각납니다.

이 책은 외갓집을 지루해하는 아이들에게 공감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림책이며, 어른들에게는 어린 시절 향수를 자극하는 그림책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읽으며 공감할 수 있는 책입니다.



두더지의 소원

김상근 글, 그림 사계절, 2017.1책. : 삽화 ; 26cm.

ISBN : 979-11-6091-004-6 : 13,000

어린이책 (그림책)

수원시 지혜샘어린이도서관 (813.8 김52ㄷ)

전연령

📖 가족의 사랑을 생각할 때 / 할머니가 그리울 때 /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을 때 / 좋은 어른이 되고 싶을 때

좋은 어른이 되는 법

김현주 (수원시 지혜샘어린이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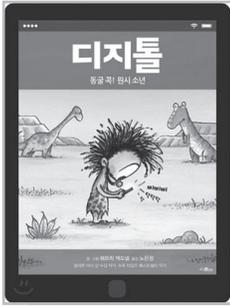
달력은 이미 3월의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지만 바람은 차가운 요즘. 『두더지의 소원』에 나오는 눈이 아직 낫설지 않은 시기이다. 이 책은 표지에서부터 하얀 눈을 연상하게 한다. 띠지에 소개된 문구도 “첫눈처럼 아름답고 설레는 동심의 세계”이다. 빨간 모자와 장갑을 끼고 가방을 멘 두더지는 눈발에 홀로 있는 눈뭉치를 바라보고 있다. ‘안녕’하고 인사를 건네 보지만 말없이 들어주기만 하는 눈덩이. 이 둘 사이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첫눈이 온 날 두더지는 혼자서 집에 가고 있다. 아무도 없는 눈길에 있는 작고 하얀 눈덩이에게 인사를 건네 본다. 두더지는 이사 온지 얼마 안 되어 친구가 없다. 외로운 마음을 눈덩이에게 털어놓아 본다. 새로 사귄 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쉽지가 않다. 같이 버스를 타고 싶은 마음에 친구의 변신을 도와보지만 어른들의 눈에는 다르게 보일 뿐이다. 어느덧 밤이 되고 마음 착한 사슴아저씨 버스를 타게 된 두더지와 친구는 따뜻한 버스 안에서 잠이 들어 버린다. 잠든 사이 친구는 사라져버리고 두더지는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향한다. 두더지의 이야기

를 들은 할머니는 따뜻한 품으로 위로를 건넨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의 목소리를 따라 나가본 바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별똥별은 두더지의 소원을 들어주었을까?

이 책에서 인상 깊은 점은 무엇보다 할머니의 태도이다. 할머니는 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아 낯선 곳에서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는 손주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준다. 아이의 이야기를 허무맹랑하다 무시하지 않고 그 마음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는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또 사슴아저씨처럼 아이의 동심을 인정해주는 어른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아이들에게 따뜻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아이다울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좋은 어른들이 많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두더지의 소원』은 첫 그림책 『두더지의 고민』으로 사랑을 받은 김상근 작가의 작품으로 어린 두더지가 처음 ‘친구’라는 존재를 통하여 순백의 감정을 알아가는 이야기라고 한다. 『두더지의 고민』도 친구를 찾아가는 두더지의 재미난 여정이 담겨있으니 같이 보아도 좋겠다. 작가의 다른 책으로 『가방 안에 든 게 뭐야?』(한림출판사, 2015)도 있다.



디지털

패트릭 맥도넬 글, 그림. 노은정 옮김 스킨라, 2016.

ISBN : 978-89-6247-734-4

ISBN : 978-89-6247-733-7(세트)

그림책

유아

📱 디지털기기 중독에서 벗어나기

디지털기기 보다 좋은 세계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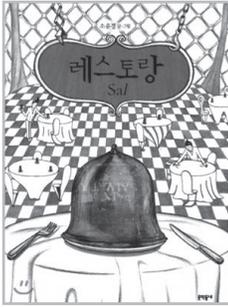
스마트폰을 누구나 사용하면서 대부분 어린이들이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손에 놓지 못하고 기기에 빠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외에 텔레비전, 게임기, 컴퓨터 등 각종 디지털기기는 사람들의 삶을 다르게 바꿔놓았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각종 디지털기기가 주는 유익을 많다. 이러한 유익보다 요즘은 이런 디지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단절,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부족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 어떻게 어린이들을 책의 즐거움과 자연과 같은 다른 세계에 대해서 골고루 안목을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이 책의 주제는 각종 디지털기기에 빠져있는 어린이들에게 자연의 신비로움에 대해 눈을 돌리라는 메시지가 있다. 이 책의 제목인 주인공 디지털은 태블릿 컴퓨터, 게임기, 스마트폰에 푹 빠진 어린이이다. 디지털은 밤낮 디지털기기에 빠져 동굴 안에서만 지낸다. 디지털을 염려한 친구들과 부모님의 꾀를 내어 디지털을 억지로 밖으로 나오게 한다. 외부 세상을 접한 디지털은 색다른 세계를 접하고 친구들과

과 함께 놀며 자연을 탐색한다.

보통 그림책 판형과 달리 이 책은 스마트 폰의 이미지를 따서 책 표지와 내용이 구성된다. 책 표지도 두껍고 스마트 폰에 있는 무선 표지와 배터리 사인도 동일하다. 앞면지에 비밀번호 입력, 타이틀 화면에 ‘디지털’을 입력하면서 본 내용으로 들어간다. 책 내용 속 그림에는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이모티콘도 등장한다. 이야기가 진행되며 배터리가 점점 약해지더니, 디지털이 동굴에서 나오게 만들기 위해 화산이 폭발하고 디지털이 동굴 밖으로 나오자 스마트폰에서 배터리가 나가는 모습과 같이 전원이 꺼진다. 이후 책의 그림은 스마트폰의 틀에서 벗어나 자연의 신비함에 빠진 디지털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진다.

이 책의 작가 패트릭 맥도넬은 『내 친구 제인』으로 2012년 칼데콧 아너 상을 받았다. 작가는 각종 디지털 기기에 빠져 있는 어린이들이 바로 원시소년라는 것을 뒤집어서 암시한 것 같다. 디지털 기기에 빠져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이와 유사한 주제로 텔레비전을 좋아했던 형제가 자연의 아름다움과 살아있음을 새롭게 알아가는 『요술정원』(주니어김영사, 2010)이 있다. 또한 텔레비전에 빠져있던 고양이를 주인공으로 한 『스파게티 고양이』(미래아이, 2011)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스파게티를 먹던 고양이가 점점 스파게티와 같이 변하다가 주인처럼 책을 좋아하는 고양이로 변하는 풍자적인 책도 있다. 스마트폰 중독과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알려주는 국내 작품으로는 『스마트폰 괴물이 나타났어요!』(하늘콩, 2014)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다.



레스토랑 Sal

소윤경 글, 그림. 문학동네어린이, 2015.

48p. : 삽화 ; 33cm.

ISBN : 9788954620987 : 15,800

어린이책 (그림책)

성남시 중앙도서관 (유 813.8 s436□ v.5)

초등 전학년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 궁금한 어린이

허영과 탐욕의 한 접시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나 『찰리와 초콜릿 공장』처럼 환상적이지만 섬뜩한 한편의 그림책이 있다. 바로 홍익대학교에서 회화를, 파리구립8대학에서 조형예술을 전공한 소윤경 작가가 쓰고 그린 『레스토랑 Sal』이다. 포털사이트에도 일러스트레이터로 소개되는 소윤경 작가는 『거짓말 학교』, 『난 쥐다』, 『일기 감추는 날』, 『내가 형이랑 닮았다고』 등 다수의 동화나 그림책에 작업을 하였으며, 소년한국일보 일러스트레이션 특별상, 한국어린이도서 일러스트 부문 특별상을 수상하였다. 『레스토랑 Sal』은 소윤경 작가의 삶의 의식과 철학이 담겨있는 책으로 독자들에게도 잔상을 남기는 그림책이다.

엄마와 아이는 “어디에도 맞볼 수 없는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레스토랑 Sal』을 찾아간다. 레스토랑의 지배인인 듯 한 화자는 “레스토랑 Sal”은 고객의 만족을 위해 요리사와 스태프는 잠시도 멈추지 않으며, 요리에 알맞은 재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모든 재료를 최상의 컨디션으로 관리한다고 자신한다. 거기에 더해 “행복한 재료들이 최상의 맛을 내는 법”이라고 덧붙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화장실에 들

른 아이는 우연히 비밀통로로 떨어져 철저한 보안과 관리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보
관되고 있는 『레스토랑 Sal』의 맛의 비법을 마주하게 된다.

“혼돈과 질서를 거둬하며 요리가 완성됩니다.

마침내 이 순간, 천상의 세계가 눈앞에 열립니다.

본 아빠띠!

당신과 나 모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작가는 모든 비밀을 알아버린 독자들에게 다시 한 번 화자를 통해 “당신과 나 모
두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인간이 가진 잔혹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마치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즐길 거잖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어
른이라면 마음이 불편하다. 특히 작가의 내공만큼 깊숙하게 남은 일러스트는 이야
기의 잔인함을 배가시키며 환상인 것처럼 느껴지게 한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
으며 서로 잡고 잡아야하는 체스판 위의 레스토랑, 잔인한 표정의 조리도구들, 탐
욕스러운 인간 입, 두려움에 가득 찬 동물들, 깨끗하게 비워진 엄마의 접시에 작가
의 많은 의도가 숨겨져 있다.

“접시 위의 음식들에 대한 미안함과 곤란함이 나를 이 기묘한 레스토랑으로 이
끌었나 보다. 사람들의 사치와 욕심이 지구를 삼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는 작가
의 말처럼 식량인 동·식물을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무차별적으로 생산하는 현실을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의 재료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우
리에게 공급되는지 아이들과 이야기해보고, 동·식물의 고통뿐만 아니라 인공적인
방법들로 인한 인간의 피해와 환경 파괴 등도 함께 생각해보았으면 한다.



로리스의 특별한 하루

바르바라 취렌·파스칼 헤일러 글, 마르틴 망부르 그림, 조경수 옮김, 스킨라, 2016.

ISBN : 978-89-6247-749-8

ISBN : 978-89-6247-656-9(세트)

그림책

초등저

👤 장애인, 자폐증, 다름

자폐증을 가진 나의 이야기를 들어 볼 래?

공정자 (안성시 진사도서관 사서)

이 책은 자폐증을 가진 주인공 로리스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로리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저절로 자폐증 증상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예를 들면 “나는 자폐증도 있어. 아빠가 그러는데 자폐증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왔고 ‘자신에게 매우 관계되어 있다’라는 뜻이래.”와 같다. 장애 유형 중 자폐증 친구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다.

주인공 로리스는 계산을 매우 잘하고, 정확한 것을 좋아하지만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소음을 싫어한다. 수업시간 과제를 위해 친구들과 모였을 때 마이어 아줌마의 고양이를 찾게 되면서 관찰력이 뛰어난 모리스가 새끼를 난 고양이 알베르토를 발견한다. 자폐증 환자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지 주인공이 직접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이야기하므로 자폐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이해할 수 있다.

표지 그림처럼 빨간 셔츠를 입은 로리스는 그림 속에서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흑백으로 그려져 있어 상황에 따라 인물의 감정을 표현한다. 숫자

를 좋아하는 로리스를 표현하여 위해 숫자가 많이 나오는 그림과 등장인물의 특징을 잡아 간략히 상징적으로 그린 그림이 인상적이다. 앞면지에 한 마리의 큰 고양이 뒷면지에는 세 마리 새끼 고양이를 가진 고양이가 그려져 있어 그동안 고양이가 새끼를 낳은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책의 부록으로 “로리스를 이해하기 위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알기”가 있어 자폐증 증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 이해를 돕는다. 아쉬운 점은 출판사에서 책을 제본하면서 앞면지에 바로 발행사항과 타이틀 화면을 인쇄하고, 뒷면지에는 출판사의 책을 소개하여 면지를 여유 있게 그림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지 못한 점이다.

글 작가들은 심리 및 행동치료를 하는 전문가이며, 이 책은 건강 관련 간행물이 객관적으로 옳은지 목표 집단이 적합한지 여부와 방법적 다양성을 평가하는 독일 건강재단에서 인증을 받은 작품이라서 신뢰가 간다. 자폐 어린이를 주제로 지은 읽어볼 만한 다른 책으로 『자폐아이 제노의 뒤죽박죽 하루』(한울림스페셜), 『내 친구 로이는 혼자가 아니에요』(상상스쿨)가 있다. 『로리스의 특별한 하루』에서는 자폐아인 로리스가 화자가 되고 『내 친구 로이는 혼자가 아니에요』는 같은 반 친구가 관찰하는 이야기 방식이다. 『자폐아이 제노의 뒤죽박죽 하루』에서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좋아하는 제노가 가장 친한 친구 조쉬가 갑자기 배가 아프면서 이 상황을 이해 못하는 갈등을 통해 자폐아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자연스럽게 알려준다.

처음 자폐증을 앓고 있는 친구를 만나면 정상인과 다르기 때문에 당황할 수 있다. 자폐아를 다른 주제를 통해 다른 장애인 친구들의 삶에 대해 이해를 넓히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책으로 추천한다.



마음은 어디에

토네 사토에 글, 그림. 봄봄, 2017.

26p : 삽화 ; 22cm.

ISBN : 9788991742901 : 11,000

어린이책 (그림책)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U808.9 봄45보 v.61)

유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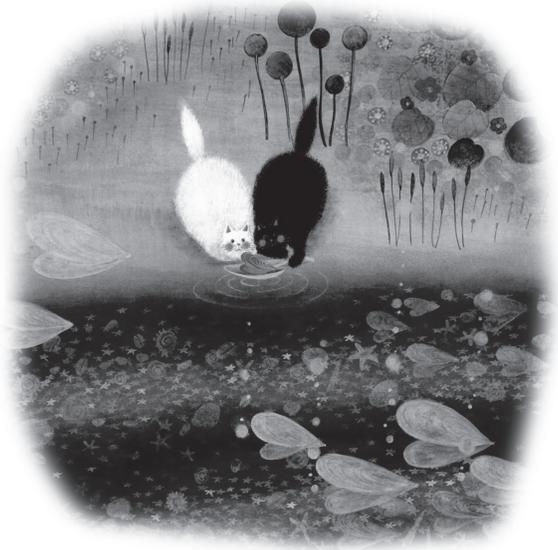
📖 자연의 빛이 아름다움을 알려주고 싶은 부모 / 마음을 전하고 싶은 경우

마음은 어디에

이연순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사서)

토네 사토에는 동물과 자연을 즐겨 그리며 독창적인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발견한 독특한 생각과 영감을 꿈꾸듯 부드럽고 아름다운 색채로 표현하는 작가입니다. 작가의 또 다른 책 『커다란 당근』에서도 이 그림책에서 볼 수 있는 둥글고 몽환적인 그림들이 상상력을 더해 표현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검은 고양이 쿠로는 흰 고양이 시로를 데리고 숲속 호숫가로 가서 호숫가에 비친 아름다운 빛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빛을 잡으려고 호수의 나뭇잎과 조개껍데기와 해파리를 들어올리고, 낚시를 해서 물고기와 커다란 문어를 잡았지만 빛은 잡을 수 없었어요. 답답해진 쿠로는 빛을 잡으려고 마침내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러나 물속은 차갑고 깜깜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울면서 물 위로 올라온 쿠로는 빛을 잡을 수 없다는 생각에 슬펐어요. 시로는 빛이 물속이 아니라 별들에게서 온 것을 알고는 살며시 웃으며 쿠로를 위로해주었어요. 그리고 함께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표지부터 마지막 책장까지 온통 환상적인 남빛이 펼쳐집니다. 한 가지 남빛으로 수 십 가지의 다채로운 색상과 느낌이 표현되고 나무와 꽃, 별과 나뭇잎, 물방울들이 부드러운 외곽선으로 표현되어 더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아름다운 빛을 선물하고 싶은 쿠로의 마음과 그 빛을 주지 못해 속상해하는 쿠로를 위로하는 시로의 마음이 섬세하고 잔잔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자연과 빛의 아름다움, 색깔의 다채로움, 마음을 나누는 방법과 가치를 알게 해주는 책입니다.



만점짜리 도시락

구스노키 시게노리 글, 이토 히데오 그림, 유문조 번역. 스킨라, 2016.

32p. : 삽화 ; 27cm.

ISBN : 9788962477320 : 11,000

어린이책 (그림책)

성남시 중앙도서관 (유 808.9 7571s v.3)

유아, 초등 저

📌 엄마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유아, 아동 /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싶은 유아, 아동

엄마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돌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엄마의 도시락이 그리지 않나요?
소풍이나 체육대회가 되면 당연하게 기다리던 엄마의 도시락.

『만점짜리 도시락』은 엄마와 도시락에 얽힌 이야기이다. 주인공 나오는 만화 속 주인공이 되었다가 동물들이 되었다가하는 숨씨 좋은 엄마의 도시락이 큰 자람이자 즐거움이다. 소풍 전날 엄마의 멋진 도시락을 기대하지만, 엄마가 아픈 것을 보고 고민하게 된다. 엄마가 걱정된 나오는 새벽에 일어나 편의점 도시락을 사오고, 그 도시락을 들고 당당하게 소풍에 가는 이야기이다.

“내가 혼자서는 도시락 못 싸니까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사 왔어.

엄마는 열이 나도, 어지러워도 내 도시락은 꼭 싸 줄 거잖아.

그런데 이 도시락이 있으면 엄마가 안 일어나도 되잖아……”

“난 엄마가 소중한니까……”

친구들에게 엄마의 도시락을 자랑하고 싶지만, 너무 소중한 엄마가 아픈 모습을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나오는 돼지저금통을 털어 새벽에 혼자서 외출해 도시락을 사오지만, 부모님께 들키고 만다.

“나오야, 오늘 소풍에는 이 도시락을 들고 가.

이 도시락은 나오가 엄마 생각하는 마음을 가득 담은 세상에서 제일 착한 만점 짜리 도시락이야.”

하지만, 부모님은 나오가 혼자 외출한 것에 대한 훈계보다는 소중한 엄마가 자신의 도시락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싫어 혼자 외출했던 마음을 이해해주고,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편의점도시락을 자랑스럽게 가지고 갈 수 있게 독려한다.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 주어 가족 간에 끈끈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책이며,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행동에 나선 나오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듩직한 아이로 성장한 모습에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멀리서 보면 모자이크처럼 생긴 표지가 무서워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시락을 여러 가지 재료로 꾸민 모습이어서 재미있고, 울긋불긋 강렬한 색채감이 뛰어난 그림책이다. 특히 첫 장과 마지막장에 도시락을 꾸미는 요소들을 설명하고 있어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으며, 부모와 아이 간에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돋보이는 책이다. 함께 읽은 후 도시락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통해 부모와 아이의 마음을 서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모자를 보았어

존 클라센 글, 그림. 시공주니어, 2016.

50p. : 삽화 ; 28cm.

ISBN : 9788952782328 : 12,000

어린이책 (그림책)

성남시 중앙도서관 (유 808.9 L59 v.248)

유아

👁 함께의 의미를 알고 싶은 어린이 / 간절히 원하는 것의 의미를 알고 싶은 어린이

함께이기에 행복한 것들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모자를 보았어』는 2011년 『내 모자 어디 갔을까?』와 2013년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의 존 클라센의 세 번째 모자시리즈 책이다. 전작으로 뉴욕타임스의 올해의 그래픽책에 선정, 칼데콧 아너 상과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을 수상한 저자의 힘을 느낄 수 있는 『모자를 보았어』는 전작들이 그러하듯 책을 덮은 후 더 많은 생각거리를 남기는 그림책이다.

3장으로 구성된 이야기 중 《1장 모자를 보며》에서는 단조로운 사막에서 한 개의 모자를 함께 발견한 세모등 거북이와 네모등 거북이가 등장한다. 누구의 것인지 보다 이 새로운 물건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자신들에게 어울리는지 서로 확인해 준다. 둘 다 어울리는 모자를 한 사람만 가지면 마음이 안 좋을 거라며 모자를 그냥 놔두고 못 본 걸로 하기로 하지만, 《2장 지는 해를 보며》에서 지는 해를 함께 바라보던 둘은 각자의 생각에 빠져든다. 《3장 잠을 자며》에서는 함께 잠들려고 하던 찰나에 네모등 거북이는 꿈을 꾸게 되고 세모등 거북이에게 꿈 속에서는 우리 둘 다 모자가 있다고 이야기해준다. 이제까지 모자를 보고 정신이 온통 쏠려있던 세모등

거북이는 가만히 네모등 거북이 옆에서 잠이 든다.

『모자를 보았어』는 글과 그림을 따로 읽을 수 없는 그림책이다. 글로만 내용을 확인했을 때는 단순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림과 글을 함께 읽으면 글과는 반대로 가는 거북이의 마음을 엿보며 이야기를 결말을 유추해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의 묘미는 반전이다. 독자는 한 개의 모자에 마음을 뺏긴 거북이의 눈동자와 행동들로 보아 그 모자를 누군가 소유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둘 다에게 어울리는 모자, 함께 발견한 모자를 사이좋게 모두 가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 곳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세모등 거북이의 이치이다.

이 책은 개인의 소유 욕구와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존 클라센이 가디언 인터뷰에 밝혔듯 모자는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아니다. 하지만 이 물건을 간절히 원하게 된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욕망과 욕구가 씨워진 물건을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일 뿐 타인에 대한 배려는 후순위로 밀려나기 쉽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함께 얻을 수 있다면,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남긴다. 이러한 이야기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간결하고 감각적인 캐릭터와 색감이다. 눈동자만으로도 생생한 마음을 표현한 거북이 캐릭터가 독자의 속마음도 함께 드러내는 듯하다. 또 낮과 밤 사이의 석양을 그라데이션한 듯한 색감이 거북이들의 우정에 따뜻함을 더해준다. 아이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과 함께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을 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또한 존 클라센의 다른 모자 시리즈도 비교해보고 이야기 나눠보길 권한다.



비비를 돌려줘!

권오준 글, 전민걸 그림. 한림출판사, 2017.

42p. : 삽화 ; 26cm.

ISBN : 978-89-7094-970-3 77810 : 13,000

어린이책 (그림책)

수원시 지혜샘어린이도서관 (해813.8 권65보)

유아~초등 저

아이들과 자연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욕심으로 바꿀 수 없는 것

김현주 (수원시 지혜샘어린이도서관 사서)

『비비를 돌려줘!』의 주인공은 닭이다. 그런데 책표지부터 한 장 한 장 넘길 때 마다 뭔가 다른 새가 눈에 띈다. 색깔도 모양도 다른데 섞여있는 닭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이들 사이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어느 시골 농장에 욕심쟁이 암탉 한 마리와 착한 암탉 세 마리, 키 큰 수탉 한 마리가 살고 있다. 욕심쟁이 암탉 한 마리는 그림에서도 바로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똥똥하고 무섭게 생겼다. 욕심쟁이 암탉 꼬꼬는 닭장의 무법자다. 다른 암탉이 낳은 알도 빼앗아 가고 힘도 세고 심술꾸러기다. 하지만 꼬꼬는 병아리를 무척 좋아한다. 병아리를 얻기 위해 스무날 넘게 알을 품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닭장 바로 옆에 멧비둘기 부부가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다. 그런데 그만 멧비둘기 알 하나가 꼬꼬의 둥우리 속으로 떨어지고 만다. 꼬꼬의 둥지에서 태어나버린 비비를 보고 멧비둘기 엄마는 자기 새끼라고 말해보지만 욕심쟁이 꼬꼬에겐 어렵도 없는 일이다. 비비는 닭 모이도 먹지 못하고 심지어 날기까지 한다. 날기 시작하자 비비의 노란 털이 빠져버리고 꼬꼬는 더 이상 우길 수가 없어진다. 진짜 부모를

찾아 떠나버린 비비. 더 이상 심술을 부리지 않게 된 꼬꼬. 닭장 안에 평화가 찾아 오고 어릴 적 추억을 찾아 비비도 찾아온다.

이 책을 쓴 작가 권오준은 생태 작가이자 생태 강연자로 활동하고 있다. 오랫동안 새를 관찰하여 생태동화를 써왔으며 쓴 책으로는 『날아라, 뽀뽀아!』, 『꼬마물떼새는 용감해』, 『홀로 남은 호랑지빠귀』 등이 있다.

작가는 이 작품을 실제 멧비둘기 둥지를 보고 생각했다고 한다. 멧비둘기 어미가 새끼에게 ‘피전 밀크’(Pigeon Milk)를 토해주는 걸 인상 깊게 본 후 닭장에서 통통한 암탉 한 마리를 보는 순간 이 책이 탄생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 책은 암탉 꼬꼬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전해준다. 또 멧비둘기의 생태적 습성을 자연스럽게 알게 해주는 장점도 있다. 또 낳은 정기른 정에 대한 이야기 거리를 제공해준다. 알과 둥지 얘기에서 빠지지 않는 빠꾸기 얘기도 함께 나눠보면 좋을 듯 하다.

생태그림책들은 우리가 모르는 자연의 세계를 이야기를 통해 쉽게 전해준다. 아이들과 공부가 아닌 재밌는 자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께 이 책을 권하고 싶다.



사랑해, 똑똑똑

김이자 글 ; 조아름 그림. 고래이야기, 2016

32p. : 천연색삽화 ; 26cm.

ISBN : 978-89-91941-58-8 : 12,000

유아용 창작그림책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아동 808.9-고293모-33)

영유아

📖 병상에 계신 아픈 엄마가 가족의 사랑으로 기적처럼 / 깨어난 이야기입니다.

사랑해 똑똑똑

김새롬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사서)

첫 장을 넘기면 휴대폰 가게 앞 ‘쿵!’하는 소리를 내며 쓰러진 규하의 엄마와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규하가 있다. 아마 엄마에게 밤낮으로 휴대폰을 사달라며 조른 규하의 성화에 못 이겨 휴대폰 가게에 들른 길이었을 것이다. 그 즐거운 외출 길에 엄마는 ‘쿵’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그리곤 깨어나지 못하는 엄마를 구급차가 싣고 가 버렸다. 규하는 엄마가 들어간 수술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다시는 핸드폰을 사달라고 조르지 않을 테니 엄마를 살려달라고 말이다. 수술 후 병상으로 옮긴 엄마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이 자기 탓인 것만 같은 규하는 깨어나지 못하는 엄마를 붙잡고 연신 말을 건다. 그래도 여전히 엄마는 잠만 잔다. 할머니가 매일 아침 규하를 깨우기 위해 책을 읽어주었던 것처럼, 규하도 엄마를 깨우고 싶어 엄마가 누워있는 침대 앞에서 책을 읽는다. 할머니가 읽어주면 엄마가 더 빨리 잠에서 깰 것 같지만 부끄러운 할머니는 나중에, 나중에 읽어주겠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은 규하가 읽는다. 조곤조곤 엄마에게만 들리도록 말이다. 자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깨지 않도록… 엄마는 잠꾸러기가 되었는지 규하의 이런 노력에도 좀처럼 깨어나지 않는다. 규하가 보고 싶지도 않은지 무심한 엄마는 여전히 잠만 잔다.



어느 날 규하는 의사선생님께 잠꾸러기 엄마를 어떻게 깨울 수 있는지 물어본다. 의사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이번에는 꼭 통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엄마가 이번엔 꼭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규하는 아빠에게 달려가 말한다. 엄마의 손바닥을 푹푹 누르고 ‘사랑해’라고 세 번 말하라고.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아빠도 부끄러운지 나중에, 나중에 말하겠단다.

마음이 저려오는 장면은 규하가 할머니에게 책을 읽으라고 했을 때,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세 번 말하라고 했을 때 규하 앞에서는 하지 않았지만 엄마와 둘만 있을 때에는 규하와 같은 마음으로, 기적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엄마에게 책을 읽어주고 사랑한다고 세 번 말하는 부분이다. 할머니와 아빠도 규하가 믿어 의심치 않는 것처럼 엄마가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간절히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장면. 단어 하나 없이 책을 읽어주는 할머니의 모습, 누워있는 엄마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아빠의 모습. 그림만 있는 그 장면이 내 마음을 몽클하게 한다. 어린이가 알 수 없는 어른의 마음. 누워있는 엄마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

는 규하처럼 겉으로 드러내서 표현할 수 없는 착잡한 어른들의 마음을 어른의 눈으로 책을 읽는 내가 그 심정을 십분 이해했기에 마음이 아프다.

규하와 아빠, 할머니는 매일매일 엄마 손바닥을 푹푹 세 번 누르고 “사랑해”하고 말한다. 무려 100일이라는 시간 동안 말이다.

기적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엄마가 언젠간 깨어날 것 이라는 규하의 믿음에 엄마가 100일 만에 답했다. 세 사람의 사랑고백에 100일동안 대답 없던 엄마가 침묵을 깨고 드디어 사랑한다고 대답한 것이다. 영화나 소설에 나올 법 한 기적이 말 그대로 ‘기적처럼’ 일어난 것이다. 규하에게는 엄마가 깨어나는 일이 기적은 아니었을 것이다. 당연한 믿음이었으리라. 다만 엄마가 깨어나지 않던 100일간 마음 아파했을 규하를 생각하니 안쓰럽기 그지없다. 휴대폰을 사달라고 졸랐던 자신이 매우 미웠을지도 모를 일이다. 병상에 누워있던 엄마도 본인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규하가 안쓰러워 어서 빨리 눈을 뜨려 노력했을 것이다. 100일의 시간은 규하 가족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엄마가 깨어날 것을 의심하지 않았던 이 가족에게 드디어 남들이 말하는 기적은 현실이 되었다. 특별할 것 없는 날, 여느 때와 다르지 않던 날,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 않던 날에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규하네 가족은 100일간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이 이야기는 실제 작가의 친구가 뇌출혈로 쓰러져 있는 동안 친구를 위해 그림 책을 읽어주고 친구의 손바닥을 세 번 푹푹 누르며 사랑한다고 말했던 친구 남편과 본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였다.

기적을 믿지 않는 당신 주변에서도 규하가 보여준 기적은 어디에서든 일어나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할 뿐이다.

산딸기 크림붕붕

에밀리 켈킨스 글, 소피 블래콜 그림, 길상호 옮김.
씨드북. 2016.

ISBN : 979-11-85751-91-7 77840

그림책

초등저

 디저트, 요리, 후식, 생활사



산딸기 크림붕붕을 먹고 싶다

공정자 (안성시 진사도서관 사서)

우리나라 전통 음식 중 후식은 대표적으로 떡과 한과를 들 수 있다. 요즈음은 서양에서 들어온 후식이나 디저트를 더 많이 먹는 것 같다. 이 책은 영국과 미국에서 오래 전부터 먹었던 디저트를 소재로 하였다.

서명인 ‘산딸기 크림 붕붕’은 미국에서 즐겨먹는 디저트로 번역자는 원래 blackberry를 ‘산딸기’로 이 책에 나오는 후식이 우리나라에 통용되는 명칭이 없어 ‘크림 붕붕’으로 번역했다고 한다. 부제는 ‘수백 년이 흘러도 한결같은 맛 산딸기 크림붕붕의 비법을 공개합니다.’로 300년 동안 산딸기 크림 붕붕을 소재로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같은 구조이다.

시대는 영국 라임의 1710년을 시작으로 1810년의 미국 찰스턴, 1910년의 보스턴, 2010년의 샌디에이고 등의 지역이다. 그림 작가는 시대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타이틀 화면에서 집 모양, 뒷 면지 바로 앞에 우유의 거품을 내기 위해 젓는 기계, 뒷 표지에 산딸기 크림 붕붕을 담은 양푼을 들고 있는 어린이들을 시기별로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책 내용은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 산딸기 및 우유 구하기, 거품 내

는 방식, 요리과정, 저장방식, 식사 등 시대마다 다르게 변해 왔음을 자연스럽게 알려준다.

그림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의상, 가구, 식기 등도 비교해 가며 볼 수 있다. 등장인물은 1710년, 1810년, 1910년은 모녀가 등장하다 2010에는 부자가 등장하며 디저트를 만드는 그림을 보며 작가가 얼마나 꼼꼼하게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고자 했는지 엿볼 수 있다. 100년마다 산딸기 크림봉봉을 만드는 주인공과 배경, 방법이 다르지만 반복되는 것은 어린이가 양푼에 남은 것을 훑아 먹고 ‘살살 녹아요, 녹아!’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면지는 직접 블랙베리를 으깨 즙으로 색을 칠했다고 한다.

책의 뒷부분에 있는 글 작가와 그림 작가의 노트를 보면 책을 정확하게 쓰기 위한 자료조사 과정이 소개되어 책에 대한 신뢰를 더 한다. 그림 작가 소피 블래콜은 『위니를 찾아서』로 2016년 칼데콧 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 책은 서양에서 오랫동안 즐겨 먹어왔던 디저트를 소재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생활사를 알려주는 접근방식이 독특하다. 대부분의 책은 요리 주제만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각 시대별로 이야기 구조가 잘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반복되어 이야기에 통일감이 있다.

책을 다 읽고 나면 산딸기 크림 봉봉은 어떤 맛일까 궁금해지고 한번 만들어 먹고 싶은 마음이 든다. 책의 후반기에 “산딸기 크림봉봉 만드는 법”에 대한 레시피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생쥐 가족의 하루

조반나 조볼리 글 ; 시모나 몰라차니 그림. 한솔수북, 2017

25p. : 천연색삽화 ; 3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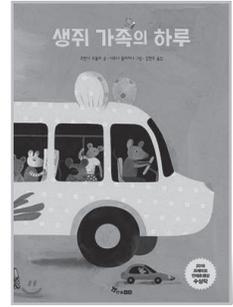
ISBN : 9791170281344 : 11,000

유아 그림책(이탈리아 창작동화)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유아 8883조45생)

유아, 아동

📖 우리가족의 하루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침, 저녁에만 잠깐 보는 가족들이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에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생쥐 가족의 하루

김세롬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사서)

『생쥐 가족의 하루』는 2016년 이탈리아에서 프렐미오 안테르센상을 수상한 책입니다.

생쥐의 삶에 대한 이야기일까 생각하고 집어든 이 책은 잘 들여다보면 인간의 하루, 인간이 모여 이룬 가족의 하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쥐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죠. 이 책을 읽으며 ‘우리가족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저처럼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었어요.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지 말입니다. 문득 엄마의 안부가 궁금해진 저는 수화기를 들어 전화를 겁니다. “엄마, 저예요. 어디계세요?”

함께여서 마냥 좋은 생쥐 가족

생쥐가족의 하루는 가족들 간의 뽀뽀로 시작합니다. 엄마생쥐는 식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 아침밥을 준비하고 부랴부랴 아이들을 깨웁니다. 일어나는 시간은 저마다 다르지만 동그란 식탁에 언제나 함께 앉아 아침밥을 먹습니다. 즐거운

아침식사를 마치고 나면 자기가 먹은 그릇정리 정도는 자기가 한 후, 누구는 씻기 위해서 욕실로, 누구는 옷을 고르기 위해 옷장으로 흩어집니다.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한 아기생쥐를 제외한 모든 생쥐 가족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줄 알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것을 당연하게 즐깁니다.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싶은지, 어떤 신발을 신고 싶은지는 자기 자신만이 아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아침 학교에 가기 위해 예쁘고 단정한 옷을 입었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고른 옷인가요, 엄마나 아빠가 골라준 옷인가요? 스스로 옷을 고른 친구에게는 칭찬을 해주고 싶군요. 그리고 오늘아침 엄마나 아빠가 옷을 골라준 친구가 있다면, 내일 입을 옷은 자기 스스로 정해보고 오늘 저녁에 미리 머리맡에 두고 잠자리에 들어봅시다. 부모님이 골라준 옷을 입을 때 보다 더 뿌듯한 마음으로 등교하게 될 거예요.

아침준비를 다 마친 생쥐가족은 서로 작별인사를 나눈 후 저마다 가야할 곳으로 떠납니다. 생쥐아빠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터로, 생쥐언니와 오빠는 공부를 하기 위해 학교로, 생쥐할아버지는 밭을 일구기 위해 텃밭으로 말이지요.

생쥐가족은 하루의 대부분을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냅니다.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가족 이외 다른 생쥐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요. 아침에 잠깐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보고 학교로 왔고, 다시 저녁 먹을 시간이 되어야 온 가족이 다시 집으로 모일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 있는 시간에 우리 가족들은 저마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엄마는 회사에 나가셨을까요? 회사에서 누구와 점심을 먹을까요?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동안 가족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수업시간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열심히 뛰어노느라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을 수 있겠네요. 오늘 저녁에는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인 저녁식탁에서 엄마와 아빠가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굳이 부모님



이 아니더라도 나의 동생, 나의 할머니, 나와 함께 저녁을 먹는 이웃에게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바깥에서 보낸 오늘의 하루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평범한 하루는 아니었을지도 모를 일이지요. 가족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우리 식구들이 어떤 하루를 보냈을지 알 수 있겠네요. 누구에게는 힘들었을 하루, 누구에게는 행복했을 하루일 겁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우리 모두 서로에게 고생했다, 수고했다고 다독여주는 소중한 저녁 시간을 가지길 바라봅니다.

생쥐가족의 시끌벅적한 저녁식사가 끝나면 창문 밖에 어둠이 찾아오고 생쥐 가족은 잠자리에 듭니다.

생쥐가족은 내일도 어김없이 뽀뽀로 하루를 시작하겠지요. 그리고 아침을 먹고 저마다 바빠 일터로, 학교로, 텃밭으로, 시장으로 외출을 할 겁니다. 오늘과 똑같은 것만 같은 평범한 내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 맞이하는 새롭고 낯선 하루입니다. 여러분의 낯선 내일을 새롭고 활기찬 일들로 가득 채운 후, 내일 저녁시간에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우길 바랍니다.



수박 동네 수박 대장

히라타 마사히로 글 ; 히라타 케이 그림. 북스토리아이. 2017.
24p. : 삽화 ; 25cm.

ISBN : 978-89-97279-43-2 74080 : 12,0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U808.9책68부 v.22)

유아

한여름 덥고 땀이 많이 나며 무언가를 먹고 싶을 때 / 나눔에 대한 교훈을 알려주고 싶을 때 / 어떤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알릴 방법을 고민할 경우

수박 동네 수박 대장

이연순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사서)

‘히라타 마사히로’와 ‘히라타 케이’는 일본 가나가와현 미우라시에 살면서 글과 그림을 쓰고 그리는 작가 부부입니다. 글쓴이 마사히로가 쓴 재미있는 글을 히라타 케이가 글에 맞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질은 푸른색과 검은 줄무늬의 수박이 가득한 표지와 빨간 수박씨가 박혀있는 속지는 시작부터 침샘을 한껏 자극합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면 바다가 보이는 넓은 해안가 마을이 한눈에 들어오는데 수박밭이 즐비하네요. 수박으로 살아가는 동네에 수박을 좋아하는 아이와 가족, 동네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행복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수박의 색인 초록과 빨강의 조화, 그리고 수박 마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수박에 대한 이 마을의 사랑과 관심을 짐작하게 합니다.

또한 수박을 알리기 위한 세상의 모든 아이디어는 다 모아놓은 듯합니다. 민박집 수박, 주식회사 수박버스교통, 호텔수박, 수박맨, 어서오세요 수박해변, 수박상점, 수박COOL택배, 수박투어버스, 명품수박직판장, 친환경수박, 수박달력, 수박

밭 셔틀버스 ‘그녀는 수박 따기 체험 후 돌아가는 길’, 수박튜브, 수박티셔츠, 꿀수박, 1일 1수박, 수박주스, 날치수박밭‘날렵하게 꿀수박 따기 체험장’, 수박빙수, 수박 무늬 넥타이, 수박열쇠고리, 수박한조각 메밀국수집, 수박축제, 초등학교 수박 깨기 대회…

아마도 일본에 실제로 존재하는 어느 마을의 모습이 아닐까도 생각합니다. 수박으로 특화된 마을의 묘책과 풍경이 재미있고 흥미롭네요.

아이는 수박 한 덩어리를 혼자 다 먹고 싶었지만 가족과 함께 나눠 먹는 것을 배웁니다. 수박이 그려져 있는 양증맞은 티셔츠를 입고 대청마루에 누워 조금 전 푸푸 벨은 수박씨가 자라 마당과 지붕까지 가득 차는 행복한 상상에 젖어드는 아이의 모습이 한가롭기만 합니다.

마지막 책장을 덮을 때 당장이라도 수박매장으로 달려가야 할 것 같은 식감까지 느끼게 해줍니다. 여름의 무더움을 시켜주는 수박의 청량감이 느껴지는 마무리가 참 좋은 그림책입니다.



수박만세

이선미 글, 이선미 그림, 글로연, 2017

40p. : 삽화 ; 27cm

ISBN : 978-89-92704-52-6 77810

어린이책 (그림책)

화성시 태안도서관(813.8 053s)

초등 저학년

📖 신나는 여름을 맞이하며 읽을만 한 책 / 걱정이 많은 아이들이 읽으면 좋은 책

걱정하지 마, 수박!

송미선 (화성시 태안도서관 사서)

수박을 좋아하는 아이가 수박씨를 꿀꺽 삼키고 나서 혹시 뱃속에서 수박이 자라면 어쩌나 걱정한다. 걱정이 깊어지는 순간 ‘엇!’ 아이의 입에서 짹이 돌아나고 잎이 자라더니 어느새 수박이 주렁주렁 열려버렸다. 다음 날 아침, 할 수 없이 수박을 달고 학교에 간 아이는 교실에서 포도넝쿨, 살구나무 등 과일을 주렁주렁 달고 온 또 다른 아이들을 만난다. 아이들은 각자 포도 씨앗을 꿀꺽 삼켜서 포도 미라가 되어 버릴까봐, 살구 씨앗을 꿀꺽 삼켜서 꿈쩍도 못하는 살구나무가 되어 버릴까봐 걱정한다. 저마다의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반 친구들이 하나둘 모인다. 친구들은 한참 동안 아이들의 걱정을 들어주었고, 딸기, 체리, 키위, 홍시, 참외, 자두 등 지금까지 삼킨 씨앗에 대해서도 한참 동안 이야기 한다. 그리고 씨앗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말한다. 그러자 ‘핑’하고 아이들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친구들의 진심어린 공감과 위로가 아이들의 걱정을 말끔히 씻어낸 것이다.

어릴 적 꼭 한 번쯤 해봄직한 상상을 이야기로 풀어 낸 책이다. “혹시 뱃속에서 수박이 자라면 어떻게 하지? 수박은 내 주먹보다도 크고 축구공만한데 내 뱃속에서 수박이 자라서 내 배가 불룩 튀어나오지는 않을까?” 걱정 어린 마음으로 어른들

에게 물어보면 어른들은 ‘큰일 났다’며 더욱 겁을 주곤 했다. 어린 아이에게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큰 걱정인데 말이다. 포도 씨앗을 삼켰을 때도, 살구 씨앗을 삼켰을 때도 아이들은 상상력을 발휘한다. 이러한 아이의 걱정을 덜어주는 건 역시 친구다. 반 친구들은 마치 제 일인 양 아이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준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나눈다. 다양한 과일의 씨앗을 먹었지만 아무런 탈 없이 지내왔다는 이야기, 책을 펼쳐 보이며 우리 몸에서 씨앗이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아이들은 한 순간에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바로 공감의 힘이다.

때로는 아이들의 걱정이 어른들 시선에서는 허무맹랑해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마다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바라는 것은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것이다. 아이의 마음을 아이의 시선에서 이해할 때 아이와 어른과의 풍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과 동심을 해치지 않는 좋은 어른이 곁에 있다면 참 좋겠다. 곧 다가올 여름, 온 가족이 둘러 앉아 수박 한 조각씩을 나누어 먹는 모습을 상상해본다. 수박 씨앗에서 시작해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꿈과 상상의 나라를 떠날 바란다.

함께 읽으면 좋은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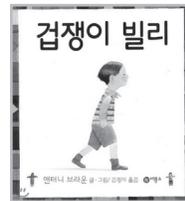
수박 수영장
안녕달 글그림. 창비, 2015
60p. : 삽화 ; 27cm

ISBN : 978-89-364-4681-9 77810



수박 씨를 삼켰어
그렉 피줄리 글그림,
김경연 옮김. 토토북, 2014
32p. : 삽화 ; 26cm

ISBN : 978-89-6496-191-9 77840



겁쟁이 빌리
앤서니 브라운 글그림,
김경미 옮김. 비룡소, 2006
28p. : 삽화 ; 28cm

ISBN : 978-89-491-1163-6 77840



알사탕

백희나 글, 그림. 책읽는곰, 2017.

48p. : 삽화 ; 25cm.

ISBN : 979-11-5836-037-5 : 12,000

어린이책 (그림책)

수원시 지혜샘어린이도서관 (미소장, 추가예정)

전연령

👁 친구가 사귀고 싶을 때 /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 상대방의 마음이 궁금할 때

말해주세요~ 들어주세요~

김현주 (수원시 지혜샘어린이도서관 사서)

구름으로 만든 빵을 먹고 하늘을 나는 아이들, 동네 목욕탕에서 요구르트를 먹는 선녀님, 바쁜 엄마를 위해 아이를 돌보아주는 이상한 선녀님. 백희나의 그림책에는 항상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 마법 속에 항상 따뜻한 가족애가 있고 힘든 일상을 위로해주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백희나의 책은 출간되자마자 뜨거운 반응을 얻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본다.

2017년 백희나의 신작 『알사탕』(책읽는곰, 2017)은 쓸쓸한 놀이터 장면으로 시작된다. 요즘 아이들은 학원과 공부에 밀려서 놀 시간이 없다. 동동이네 동네 놀이터에도 아이들은 없고 낙엽과 나뭇가지만 뒤굴어 다닌다.

“나는 혼자 논다.” 동동이의 첫마디는 놀이터의 쓸쓸함과 합쳐져 보는 이의 마음을 ‘쿵’하게 만든다. 혼자 구슬치기를 하며 놀던 동동이는 새 구슬을 사러 문방구에 간다. “어, 못 보던 구슬이다.” 구슬 대신 알사탕을 사오는데 그 모양과 색깔이 가지각색이다. 첫 번째 사탕을 먹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거실에 있던 쇼파가 말을 한단다. “이거 정말 이상한 사탕이다!” 두 번째 사탕은 늙은 개 구슬이를

닭았다. 까칠하게 생긴 세 번째 사탕은 잔소리꾼 아빠의 사탕인가보다. 그런데 아빠의 진심은 잔소리와는 다르게 들린다. 이렇게 시작된 사탕 마법은 그리운 할머니와도 만나게 하고 나무의 이야기도 들려준다. 마지막 남은 투명한 사탕. 동동이는 이 사탕으로 누구를 만나게 될까? 마지막 장면은 첫 장면의 쓸쓸한 놀이터와 대비되어 동동이의 일상의 변화를 말해준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걸 어색해 한다. 특히 가족에겐 더욱 그렇다. 동동이는 마법의 사탕으로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진짜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까칠까칠한 수염과 말투로 한 페이지 가득 잔소리를 늘어놓는 아빠의 마음속 외침이 몽클하다. 여학교 때 친구들을 모두 만나 즐겁게 지내고 계실 할머니의 목소리를 언제든 듣기 위해 알사탕 속 풍선껌을 식탁 밑에 붙여 놓는 동동이의 마음이 참 이쁘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을 한다. 내 곁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해보자. 아마 평소 들리지 않았던 상대방의 마음도 전해오지 않을까.

독특한 작업스타일로 유명한 백희나는 2005년 『구름빵』으로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픽션 부문 올해의 작가로 선정되었고, 2012년과 2013년에는 『장수탕 선녀님』으로 한국출판문화상과 창원아동문학상을 수상하였다. 그 외 작품으로 『이상한 엄마』, 『꿈에서 맛본 똥과리』, 『달 샤베트』, 『어제 저녁』, 『삐약이 엄마』 등이 있다.



알사탕

백희나 글,그림 책읽는곰, 2017.
48p. : 천연색삽화 ; 26cm.
ISBN : 9791158360375 : 12,000
어린이책 (그림책)
평택시립 안중도서관 (아813.8-ㅁ7420)
유아 ~ 성인

이 시대의 모든 ‘동동이’를 위하여…

이가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사서)

요즈음 유행하는 말 중에는 혼밥(혼자 먹는 밥), 혼술(혼자 먹는 술), 혼행(혼자 가는 여행) 등 어떤 단어 앞에 ‘혼자’ 라는 말이 붙어 생긴 단어들이 많다. 그만큼 혼자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의 주인공 또한 혼놀, 즉 혼자 노는 어린이이다. 어떤 이유에서 혼자 놀게 되었는지는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주인공 ‘동동이’는 혼자 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한다. 그 다음 문장에 친구들은 구슬치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서 혼자 놀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친구들과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동동이의 표정은 전혀 밝지 않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혼자 하는 것의 즐거움도 있지만, 오로지 혼자서 살 순 없다. 혼자 무엇을 함으로써 느끼는 즐거움과 가족, 친구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나’와 다른 사람들 속에서의 ‘나’의 존재는 전혀 다르다. 타인과의 대화나 감정적인 교류가 없다면 타인의 요구는 물론 내가 무

엇을 원하는지 조차 잘 알지 못하게 된다. 주인공인 동동이 또한 문구점에서 구입한 6가지의 사탕을 하나씩 맛보면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게 된다.

책 속 내용처럼 사탕 하나를 먹음으로써 내가 듣고 싶은 사람의 마음을 듣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 아빠가 자주 앓는 소파의 마음, 돌아가신 할머니의 마음, 잔소리에 담긴 아빠의 마음은 동동이가 우연히 갖게 된 알사탕이 없었다면 알지 못하고 넘어갔을 마음들이기 때문이다. 등장인물들을 비롯하여 책 속에 담긴 모든 장면들이 직접 제작한 인형과 소품으로 채워져 있는 것 또한 책의 내용을 더욱 생동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장치로 작용한다. 동동이가 입고 있는 청바지도 실제 청바지로 만들어져 질감이 살아 있고, 강아지 구슬이와 대화할 때 구슬이의 행동과 입모양이 변화하는 장면을 모두 삽입한 부분도 『알사탕』이라는 그림책이 마치 한 편의 애니메이션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까칠해 보이는 사탕을 먹었을 때 들리기 시작한 사랑 듬뿍 담긴 아빠의 잔소리도 내용을 더욱 생동감 있게 느끼게 해 주는 부분이다. 띄어쓰기도, 줄간격도 없이 한 페이지 가득 채워 넣은 아빠의 잔소리는 아빠가 어떤 어조로 동동이에게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장면을 상상하게 되어 재미있다. 그림책 곳곳에 숨어 있는 백희나 작가의 타른 작품 속 등장인물을 찾아보는 것도 책의 재미를 한층 더 배가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다.

마지막에 남은 투명한 사탕을 먹은 동동이는 가슴 깊은 곳 한구석에 박혀있는 한 마디 말을 내뱉어 버린다. 투명한 사탕만큼 솔직한 동동이의 마음이 친구에게 전해진다. 마음을 활짝 열고 다가간다면 그 누구도 친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이 시대의 모든 ‘동동이’들이 깨달기를 바란다.



야호! 비다

린다 에쉬먼 글, 크리스티안 로빈슨 그림. 그림책공작소, 2016.

30p. : 삽화 ; 26cm.

ISBN : 9791186825068 : 12,000

어린이책 (그림책)

성남시 중앙도서관 (유 808.9 c99g v.8)

유아

☞ 날씨에 따라 기분이 변하는 유아 / 비 오는 날이 너무 좋은 유아

흐린 날도 맑은 날도 즐거워요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물웅덩이에서 폴짝하는 깜찍한 어린이의 모습이 표지인 『야호!비다』는 에즈라 잭 키츠상을 수상한 그림책이다. 글 작가인 린다 에쉬먼은 미국에서 아동 평론가와 뉴욕 타임스에서 극찬을 받았으며, 그림작가인 크리스티안 로빈슨은 『행복을 나르는 버스』로 2016년 뉴베리상과 칼데콧 아너상을 받은 유명작가이며, 『레오, 나의 유령 친구』 등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에즈라 잭 키츠가 그랬던 것처럼 흑인어린이가 주인공이며 색칠과 오려붙이기 표현이 인상적인 그림책이다.

어느 비오는 날, 같은 도시에 사는 한 남자와 한 꼬마는 각각 다르게 하루를 보내게 된다. 한 남자는 잔뜩 찌푸린 하늘처럼 불편한 장화, 끔찍한 비옷, 귀찮은 모자, 물웅덩이 등을 걱정하며 비오는 날을 불평한다. 하지만 한 꼬마는 좋아하는 개구리 우비를 입고 엄마를 따라 나르고, 카페에서 한 남자와 마주친다. 비오는 날도 신나게 보낼 수 있음을 한 꼬마가 한 남자에게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로 발랄한 그림과 표현들이 미소 짓게 만드는 책이다.

매일매일 즐거운 꼬마에게 비는 더더욱 신나는 일 인듯하다. 비가오지만 『야호! 비다』의 제목 글자의 한 글자, 한 글자가 색이 다르듯, 무지개 빛깔처럼 꼬마의 마음은 들떠있다. 한 남자와 한 꼬마가 똑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다르게 생각하는 지 색감과 글의 대비로 극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한 남자애겐 끔찍한 상황이 한 꼬마에게 글자도 툴루랄라 춤추게 만들만큼 신나는 일이다. 남자와 꼬마가 만나는 곳은 “흐린 날 또는 맑은 날 카페”이다. 카페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인생에는 이런 날도 저런 날도 있는 것이고,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하루가 한 달이, 일년이 천차만별임을 암시하고 있다. 분명 “이제야 다 왔군.”이라고 생각하는 남자의 반나절과 “벌써 다 왔네!”라고 생각하는 꼬마의 반나절은 다를 것이다. 남자를 반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가는 아이가 남자의 행동을 미러링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거울처럼 남자의 행동과 표정을 똑같이 해보여 남자를 부끄럽게 만든다.

아이의 순수함에 동화될 수 있는 귀엽고, 재미있는 그림책이다. 한번 읽으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두, 세 번 읽으면 점점 더 보이기 시작하고, 꼬마의 말을 운율에 따라 읽어보아도 즐겁고, 밖에 물웅덩이가 있다면 발로 침범침범 담구고 싶게 만드는 책이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우산 쓰는 것도, 장화 신는 것도 귀찮아하는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다음부터는 신나게 개구리 흉내를 내며 나갈 것 같은 발랄함을 주어 추천한다. 또한, 비를 좋아하는 아이들이나 일반 어른들에게도 비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방향에서 긍정의 힘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큰 장점이자, 행복에 좀 더 가까워 질수 있는 방법임을 일깨워 줄 수 있어 함께 읽어도 좋은 그림책이다.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다비드 칼리 글, 모니카 바렌고 그림, 유영미 번역. 책빛, 2017.

32p. : 삽화 ; 21cm.

ISBN : 978-89-6219-239-1 : 12,000

어린이책 (그림책)

성남시 중앙도서관 (아883 ㄱ368ㅇ)

초등 저, 중학년

🔍 친구들과 다른 점 때문에 고민하고 아등 / 이해받지 못해 외로운 아등

반짝반짝 빛나는 나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는 스스로의 가치와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철학적인 그림책이다. 바오밥 상과 볼로냐 라가치 스페셜 상 등 수많은 상을 탄 세계적인 작가인 다비드 칼리와 실제 부부인 일러스트레이터 모니카 바렌고가 함께 만든 두 번째 그림책으로 갈색 톤의 그림이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을 주며, 섬세한 색연필선으로 표현한 주인공의 상황들이 간결하면서 세련된 느낌을 준다.

어느 날 아침, 아무 이유도 없이 나다 씨의 등에 날개가 한 쌍 돌아났다. 의사선생님은 이런 일은 처음 본다면서 아무런 약도 주지 않고, 친구는 공기가 나빠서 생긴 일이라고 하고, 어머니는 여태껏 날개 달린 친척을 없었다고 한다. 철물점 주인은 싹뚝 잘라 주겠다고 하고, 사장님은 날개를 달고 일할 수 없으니 당장 뜯어버리라고 호통을 치기만 한다. 마을의 가장 지혜로운 할아버지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으니, 날개가 생긴 것에도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로 나다 씨를 혼란스럽게 한다. 하지만, 지나가던 풍선아저씨의 칭찬 한마디에 자신의 날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되고, 다른 날개를 가진 갈색 머리의 어여쁜 아가씨를 만나 사랑에 빠

지게 된다.

“여봐요, 당신은 아주 멋진 날개를 가졌군요!”

다비드 칼리는 학창시절 동급생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별난 아이였고, 늘 혼자였다고 한다. 하지만 결국 삶에서 바라던 일을 이루고, 친구들도 많이 생겼는데, 이 책을 통해 ‘네가 아무리 특이하고 별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에는 네 자리가 있고, 누군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고 한다. 삶의 어려운 상황에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자신의 기준으로 상황을 판단하려고 한다. 모두가 불행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날개’가 풍선아저씨에게는 너무나 아름답고 부러운 부분이었던 것이다. 이 인정하는 한마디로 인해 나다 씨가 자신이 날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닫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 다른 날개를 가진 아가씨가 나타나 서로의 날개를 인정하고 함께 손을 맞잡는다.

철학적인 소재로 초등 저학년과 중학년에게 추천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는 즐거이뿐만 아니라 책을 다 읽은 후 그림책 속에 숨겨진 빨간 색의 물건들과 이 물건들의 의미를 다시금 알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서점에 등록된 출판사 서평을 읽어보길 권한다. 또한, 성인이 이 책을 읽는다면, 나다 씨를 무조건 믿고 사랑하는 존재인 닥스훈트에 대해서도 어린이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장 자끄 상삐의 『얼굴 빨개지는 아이』도 함께 읽어 나와 주변을 바라보는 시선을 넓혔으면 한다.



어디지? 요기지!

김현주 글, 강근영 그림, 마루별, 2016.

32p. : 천연색삽화 ; 24cm.

ISBN : 978-89-566-3566-8 77800

유아책 (그림책)

반달어린이도서관 (U 813.8-김76ㅇ)

유아, 엄마

 이제 막 오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유아와 그 엄마

어디지? 요기지!

이연순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사서)

곰 인형을 안은 천진스러운 아기가 통통한 두 발바닥을 마주한 채 푸른 이불을 뒤집어쓰고 있는 표지 그림이 사랑스럽다. 많이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싶지만 고함 칠 때가 더 많아 속상하고 미안하다는 고령엄마 김주현 작가의 마음이 담겨 있다. 아이들의 꼬물거리는 손가락발가락을 즐겨 그리는 강근영 작가에 의해 더 풍부하게 표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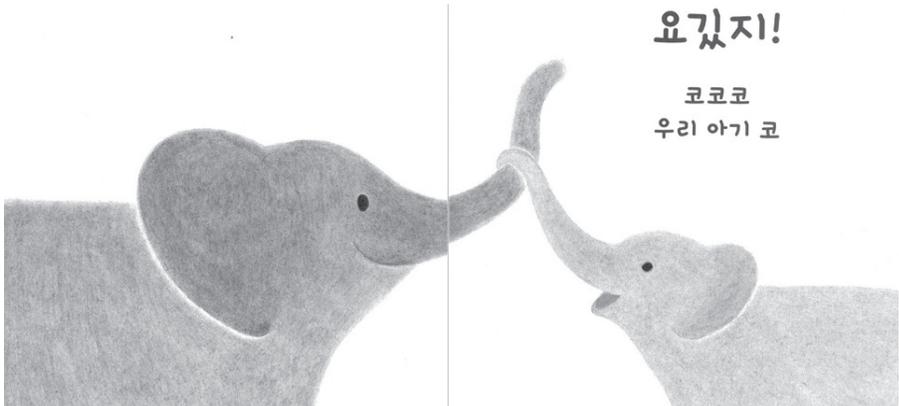
반짝 반짝 가만가만 엄마와 눈 맞추는 강아지도, 덜 자란 부드러운 코를 단단한 엄마의 코에 툇 걸친 아기코끼리도, 작고 여린 부리로 엄마에게 입 맞추는 병아리도 어여쁘지만 웃는 입을 반달처럼 크게 벌리고 아장아장 걷는 아기는 더없이 사랑스럽다.

책을 읽고 난 후 아기에게 “반짝반짝 우리 아기 눈 어디지?”를 질문해보자. 아이 스스로 짚게 한다면, 자신의 신체부위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반복되는 “어디지? 요 지!” 단어는 노래하는 듯 리듬감을 준다.

유아는 본인과 사물을 인식해 가면서 성장한다. 이 책은 본인의 신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부모와 스킨십을 통해 애착을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책이 없더라도 충분히 아이들과 할 수 있는 행동이지만, 책을 읽어주고, 놀이를 즐긴다면 시각적 자극과 더불어 본인의 신체나 사물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신체의 각 부위가 다른 동물들에게도 존재하며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인지시켜줄 수 있다

이 책은 한국출판진흥원의 “2016년 세종도서 문학 나눔 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

동물뿐 만 아니라, 아이 스스로에 대한 소중함도 느끼며 변함없이 함께하는 엄마의 존재도 알아가게 하는 마음 따뜻해지는 책, 이제 막 자신의 오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유아와 엄마에게 추천한다.





엄마는 해녀입니다

고희영 글 ; 예바 할머니 그림. 난다, 2017

48p. : 천연색삽화 ; 21x29cm.

ISBN : 9791196075156 : 13,500

유아 그림책(국내 창작동화)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유아 813.8-고97업)

유아, 아동

엄마는 해녀입니다.

김새롬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사서)

제주 바다에 사는 우리 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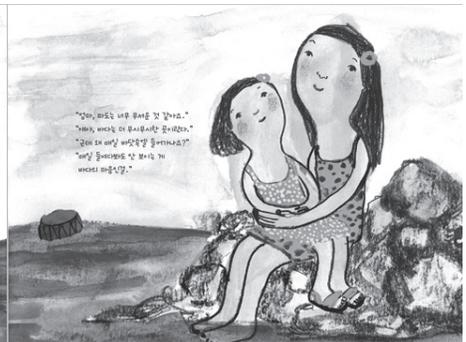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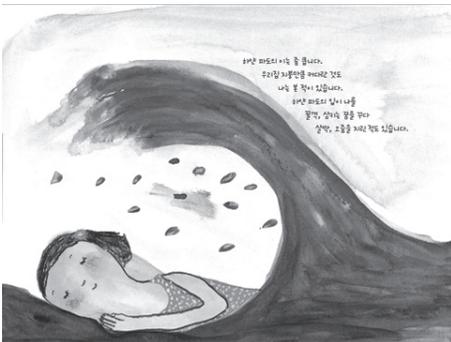
소녀는 매일같이 바다에 나가는 엄마가 걱정스럽습니다. 바다에 일렁이는 하얀 파도는 소녀의 집을 삼킬 만큼 키가 클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녀의 이런 마음을 아는 엄마는 바다에 나갈 때마다 꽃테왁을 챙겨 나갑니다. 꽃테왁은 꽃무늬 천을 두른 해녀들의 동그란 튜브입니다. 소녀는 바다로 나간 엄마가 걱정될 때마다 꽃테왁을 보며 안심을 합니다. 멀리서도 엄마를 알아볼 수 있어 소녀는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소녀의 눈에는 엄마가 바다 속 대장입니다. 잠수를 잘해서 잠수대장, 물고기를 잘 건져서 건지기 대장, 전복도 잘 따서 따기 대장, 미역도 잘 줍기 때문에 줍기 대장입니다. 소녀의 집 목욕탕보다도 넓고 깊은 바다 속에서 엄마는 숨을 잘도 참습니다. 숨을 잘 참는 덕분에 잠수 대장, 건지기 대장, 줍기 대장이 되었을 겁니다. 이런 엄마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소녀의 할머니입니다. 소녀의 할머니는 엄마보다 키도, 손도, 몸집도 작지만 바다에서 건져낸 그물은 언제나 엄마보

다 더 목직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했던 소녀에게 할머니는 ‘바다님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단 한 번도 바다를 떠나지 않았던 할머니에게 바다님이 주는 선물은 언제나 그물 속에 가득이지요. 엄마는 소녀가 태어나기 전, 바다가 싫어 육지로 떠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지에 있는 미용실에서 일을 했던 엄마는 육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바다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엄마가 있는 그 바다를 말이지요. 엄마는 할머니가 평생을 살아온 바다, 할머니를 바다에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그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누구도 아닌 할머니처럼 그렇게 살고 싶어 졌습니다. 해녀의 딸로 태어났으니 자신 역시 바다로 돌아가는 것이 숙명처럼 느껴졌던 엄마입니다. 그렇게 우리엄마는 제주 바다에 살게 되었습니다.

바다가 주는 만큼만 가져오자는 해녀들의 약속

여느 때처럼 할머니와 엄마는 바다에 나가 열심히 물질을 했습니다. 그날 엄마는 바다 깊은 곳에서 주먹 두 개보다 더 큰 커다란 전복을 발견했습니다. 숨이 탁 막히고 가슴이 조여 왔는데도 그 전복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손을 더 뻗어 바다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는 눈앞이 흐려지고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하고 생각했을 때, 근방에서 물질을 하던 할머니가 엄마를 힘겹게 물 밖으로 건져 올렸습니다.



바다는 해녀에게 언제나 풍요로운 일터입니다. 오늘 전복을 캐어도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은 쉽 없이 베풀어주는 바다의 넓은 마음 덕분입니다. 다만 바다는 인간의 욕심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해녀보다 조금 더 벌기 위해 욕심을 부리다가는 바다가 그녀의 목숨을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주기위해 바다가 정해놓은 규칙이기도 합니다. 큰 전복을 따기 위해 평소보다 더 오래 숨을 참던 엄마는 바다로부터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인간의 지나친 욕심은 인간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엄마는 전보다 더 바다 앞에서 겸손해지기로 다짐합니다.

다음날, 어제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는 듯 태연하게 할머니와 엄마는 바다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해엄을 잘 치기 위해 물갈퀴를 챙기고, 물살을 잘 넘보기 위해 큰눈이도 챙깁니다. 바다 속에 잘 가라앉을 수 있도록 돌허리띠도 잊지 않고 챙깁니다. 소녀는 할머니에게 스킨스쿠버처럼 공기통을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바다 속에도 오래 머무를 수 있지 않겠냐고 이야기 합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소녀에게 이야기 합니다. ‘바다가 주는 만큼만 가져오자는 것이 해녀들만의 약속’이라고 말이지요. 소녀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해녀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바다로 향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바다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렇기에 산소마스크나 공기통 같은 인위적인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녀는 넓고 깊은 바다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욕심내지 않고 자신의 숨만큼 주어진 수확에 감사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엄마와 함께 바다로 나가며 오늘도 매일하는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욕심내지 말고 딱 너의 숨만큼만 있다 오거라.

왜냐면...

안녕달 글·그림, 책읽는곰, 2017.
52p. : 천연색삽화 ; 23cm.
ISBN : 9791158360382 77810 : 13,000
어린이책 (그림책)
평택시립 안중도서관 (유 813.8-01930)
유아 이상.
📖 항상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는 궁금한 것이 정말 많아!

이가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사서)

“엄마, 비는 왜 와요?” 이렇게 묻는 아이의 질문에, “대기중의 수증기가 0.2mm 이상의 물방울이 되어 지상에 떨어지는게 바로 비야.” 이렇게 대답하거나, “작은 물방울인 구름 알갱이들이 뭉치고 뭉쳐서 커지고 무거워지게 되면 더 이상 공중에 떠 있지 못하고 아래로 떨어져 내리는데 그게 바로 비란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질문한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직 이 세상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질문에 질문을 거듭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 어렵고도 쉬운 질문에 대해 『왜냐면...』 속 현명한 엄마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아주 재치 있는 답들을 내놓는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되는 아이의 질문에 엄마는 귀찮을 법도 하지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답변을 내놓는다. 아이들은 세상에 태어난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모르는 것, 신기한 것 투성이일 것이다. 때문에 질문이 많을 수밖에 없다. 어른들이 보기에 평범한 물건, 상황이라도 아이들의 흥미

와 관심을 끌 수도 있고, 호기심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가 오는 이유는 하늘에서 새들이 울어서 그렇다는 엄마의 말과 함께 삽화에서는 각기 다른 모습의 새들이 각자의 울음 소리로 우는 모습이 그려진다. 영영영 하고 우는 새, 훌쩍거리는 참새 등 울고 있는 새들에게 웃으면서 더럽다고 놀려대는 바닷속 물고기들의 모습도 재밌게 그려졌다. 거기에 간지러움을 참지 못하고 물고기 목욕탕으로 입장하는 물고기들, 물고기 세신사에게 때밀이를 부탁하는 모습 등이 의인화되어 그려져 있어 익살스럽게 느껴진다. 물고기와 효자손이 식당에서 같이 앉아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은 많은 등장인물들을 의인화로 그려내고 있는 이 책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매운 물고기 밥, 매운 내 바지, 그리고 놀림을 받고 우는 새들의 상황과 맞춰서 삽화 속 간판 이름을 ‘맵시 옷가게’, ‘울보네 고추기름’으로 정한 것도 작가의 센스가 돋보이는 부분이다.

또한, 책의 표제지에 제목과 지은이 이외에 어린이가 다니고 있는 바닷가 유치원의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러 온 엄마에게 전해주는 종이봉투의 정체가 무엇일까 계속 궁금해 하며 책을 읽었는데 2번을 읽을 때 까지도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세 번째 읽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왜냐면...』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무릎을 탁 치게 되었다. 그에 대한 답은 독자의 재미를 위해 이 서평에서는 밝히지 않겠다.

위에서 서평으로 작성한 내용 외에도 이 책은 내용도 좋지만 삽화 안에서 많은 것을 이야기 하고 있기에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따뜻한 마음이 들게 해준다. 정겨운 바닷가 마을의 모습, 바닷가에서 좌판을 벌이고 각종 물고기들을 팔고 있는 상인들의 모습, 거의 모든 삽화마다 등장하는 누렁 강아지, 효자손으로 등을 긁고 있는 여러 명의 할아버지, 가게에 앉아 졸고 있는 장독대 가게 주인 등 쉽게 지나치기 쉬운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을 담고 있는 『왜냐면...』이 재미있게 읽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담겨 있는 듯하다.

우리는 쌍둥이 언니

염혜원 글, 그림, 비룡소, 2016.
ISBN : 978-89-491-1267-1 74800
ISBN : 978-89-491-1000-4
그림책
유아
쌍둥이, 자매, 가족, 시기, 질투



쌍둥이에게 동생이 생겼다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우리나라 옛이야기 중 『재주 많은 일곱 쌍둥이』에서 쌍둥이가 등장한다. 대부분의 그림책에서 주인공은 여자 어린이, 남자 어린이나 형제를 소재로 하는 경우가 많고 쌍둥이를 소재로 한 책은 많지 않다. 이 책은 쌍둥이의 생활이야기를 사실적으로 풀어낸다. 이야기의 첫 부분에서 쌍둥이의 삶을 다음과 같이 잘 드러내준다. “우리는 쌍둥이야. 그래서 뭐든 두 개씩 있지. 침대도 두 개, 물방울무늬 원피스도 두 개, 인형도 두 개, 인형 유모차도 두 개야.”

볼로냐 라가치 상, 에즈라 잭 키츠 상을 수상한 바 있는 염혜원 작가는 2013년에 그림책 『쌍둥이는 너무 좋아』을 낸 바 있다. 이 책은 3년 뒤 발간한 두 번째 쌍둥이 이야기로 첫 권에 나왔던 인물과 배경이 유사하다. 『쌍둥이는 너무 좋아』에서 나왔던 언니와 동생, 같은 침대와 이불과 인형이 『우리는 쌍둥이 언니』에서 같이 나온다. 이외에 앞면지가 분홍색, 뒤 면지는 노란색을 같이 사용하여 다른 두 책이지만 같이 연결하여 볼 수 있는 통일감 있는 이야기이다.

쌍둥이는 엄마가 동생을 낳으면서 언니가 된다. 동생이 생기자 엄마 손을 같이

잡을 수 없고 엄마는 아기를 돌보느라 쌍둥이끼리 서로 놀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갖게 될까? 쌍둥이는 아기를 돌보는 엄마를 도우면서 이젠 서로 유모차를 밀겠다고 싸운다. 쌍둥이에게 엄마도 한 명이듯 동생도 한 명이어서 서로 독차지하려고 신경전을 벌인다. 앞표지의 쌍둥이는 동생을 가운데 두고 쳐다 보기만 하는데 뒤 표지에는 쌍둥이가 동생을 서로 손잡고 있는 모습이 이야기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화자는 쌍둥이로 대부분 왼쪽과 오른쪽 페이지로 나누어 이야기가 전개된다. 흰 바탕에 쌍둥이, 엄마, 동생 등 네 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그림은 배경이 없이 인물을 위주로 그렸으며 각 인물을 크고 작게 그려가며 쌍둥이 위주로 이야기를 잘 끌어가고 있다. 우리 생활 속에 겪게 될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글과 그림이 잘 전달하고 있다. 쌍둥이 자매간에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마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등 심리묘사가 생생하다.

이 책은 쌍둥이는 특히 공감할 수 있으며 쌍둥이가 아니더라도 형제가 여럿이 있는 어린이들이 가족 간에 겪을 수 있는 이야기에 공감이 갈 것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책을 읽어주기에 좋은 책이다.

우리 동네 정원 만들기

다이언 다살보 라이언. 나무상자. 2017.

ISBN : 979-11-877-0302-0

그림책

초등생



우리 동네 정원 만들기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동네에 버려진 공터를 본 적이 있는가? 쓰레기가 나뒹굴며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땅을 말이다. 보통 이런 땅은 사람들이 가길 꺼린다. 보통 그러한 곳은 관리할 사람도 없을 테니, 사람들이 발길이 뚝 끊기기 마련이다.

이 경우, 그런 땅은 사람들의 골칫거리가 되고는 하는데 이 책은 그러한 땅에게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뜻깊고, 재미있게.

책 속 주인공인 꼬마 숙녀 마시는 빈터에 관심이 많은 아가씨이다. 빈터는 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던 곳인데, 그 건물은 오랫동안 빈 채로 닫혀 있었고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철거되었다.

마시는 봄이 되면 늘 로사 할머니와 강통에 식물을 심곤 했는데, 올해에는 그 빈터에 심기로 했다. 빈터는 도시의 재산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빈터를 빌려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 서명을 받았고 이는 성공적이었다. 빈터는 마을 사람들이 쓰기로 했고 마을 사람들 모두 빈터에 있던 쓰레기를 치우고 이웃들의 도움

으로 빈터를 예쁘게 단장했다.

이웃들 전부 빈터에 무얼 심을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심지어는 그 빈터를 사용하는 걸 반대했던 해머 할아버지도 빈터에 화단을 가꾸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빈터에 아름답게 꽃이 피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이 책의 마지막 쪽에는 마을 공동체 정원 가꾸기, 이렇게 시작하자! 라고 적힌 장이 있다. 책의 주인공 마시처럼 마을의 빈터를 정원으로 가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는데, 특히나 인상 깊었던 점은 서울, 경기도, 인천, 대구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체의 이름과 주소 등을 수록해 놓았다는 점이다.

이를 적어둠으로써 책을 읽고 생각만 하고는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할 것만 같았던 일을 행할 수 있게끔 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마시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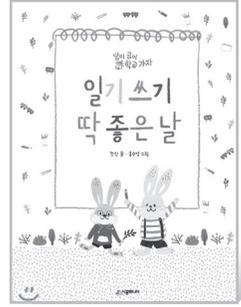
가장 좋았던 점은 이웃들 간에 돈독함이 있다는 것이다. 마시가 빈터를 가꾸겠다고 마음을 먹고 서명을 돌리고, 청소하는 것들을 자발적으로 도와주겠다 한 것은 모두 그녀의 이웃들이었다. 또 빈터에 놓을 울타리를 제공하고 그 울타리에 바를 페인트를 제공한 것 또한 이웃들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걱정되는 점 또한 그것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이사를 가면 떡을 돌리고 하면서 이웃과의 정을 도모하지 않는다.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사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 마시와 같은 일을 행한다면 가장 어려운 일은 그 사람을 도울 이웃이 없다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가져본다.

그를 통해서 이웃들 간에 정을 도모할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그런 희망을. 이 책을 마시와 같은 나이 대의 아이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마시처럼 버려진 공터를 쓸모 있게 만들면서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일기쓰기 딱 좋은 날

정신. 시공주니어. 2017.
ISBN : 978-89-527-8494-0
그림책
초등저



일기쓰기 딱 좋은 날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공통으로 반기지 않았던 것들의 존재는 다양하다. 책 읽기부터 숙제, 받아쓰기까지 어떤 이들은 활동에 즐거움을 붙였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좋아하지 않았던 것들이다. 대개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뜻으로 했던 것들. 그 중 하나인 일기의 사전적 정의는 이러하다.

‘날마다 그날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따위를 적은 개인의 기록’.

남들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나는 어린 시절 일기를 쓰는 것에 아주 골머리를 앓았다. 이러한 일기를 쓰는 과제는 이 책의 주인공인 담이와 곰이도 피해 갈 수 없다. 엄마가 시킨 일기를 쓰기 싫어 일기를 안 쓸 방법을 찾는 담이와 곰이의 온종일을 담은 책이 바로 『일기 쓰기 딱 좋은 날』이다.

“아아, 그냥 놀고 싶다. 일기 안 쓸 방법은 없을까?”

“오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돼.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구나! 넌 머리가 좋아! 쌍둥이 토끼 담이와 곰이는 엄마가 며칠 전부터 시키기 시작한 매일매일 일기 쓰기를 하기 싫어한다. 일기 같은 건 왜 쓰는 거냐며 즐라 보지만, 엄마는 너희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일기 쓰기를 시키는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다음 날 일기를 보여 달라 말한다.

일기가 너무나도 쓰기 싫었던 곰이와 담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기를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정말 그 하루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보내기로 한다.

그러나 그 날 따라 하루를 평범하게 보내지 못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난다. 곰이가 실수로 바지에 실례를 해 설설이에게 놀림을 받는다든가, 울던 중 오소리 아줌마가 사탕을 준다든가, 엄마가 물이 풍덩 빠져버린다든가 하는 일들 말이다. 당근 사탕을 먹으면서 담이와 곰이는 오늘은 일기를 안 쓸 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엄마가 물에 빠졌다는 소리를 듣고 생각이 확실해진다. 그리고 아이들은 집에 와서 오늘의 일기는 열 줄을 넘을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한다.

이 책을 읽고 나는 어릴 적 일기 쓰기를 했던 때에 기억이 생각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때도 나는 담이와 곰이처럼 일기가 쓰기 싫어 쓰지 않을 방법을 열심히 구상하곤 하였는데 언제나 방학숙제로 빠지지 않던 것이 일기 쓰기라 안 쓸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났다.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자신의 과거 추억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또한 들었다. 처음 일기 쓰기를 시작한 그 순간 또는, 있지도 않을 일을 지어내 일기장의 칸을 채우는 자신의 모습 말이다. 이 책의 주인공인 담이와 곰이가 한 고민 같은 것들을 우리 또한 했고 우리는 일기 쓰기라는 수단을 통해 하루를 되돌아보며 자신이 한 일을 곱씹고 저지른 잘못을 반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일기 쓰기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으니 말이다. 이 책을 추천할 사람을 고르라면 아무에게라도 추천할 수 있을 것 같다. 본래 어린이들이 읽는 도서이지만 예상 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읽는다면 다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 책의 매력은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든가 하루가 평범하지 않다는 교훈을 준다는 것에서 끝까지 않는다. 그림책인 만큼 이 책은 표지에서부터 그 특성을 볼 수 있다. 귀여운 그림체로 그려준 분홍색 노란색 토끼 두 마리는 자신들이 이 책을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듯하며 책 내에서도 문장의 이해를 돕는 그림들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을 다시 읽는다면 그때에도 나는 이러한 점들에 똑같이 웃음이 나지 않을까 싶다.



잘 가, 안녕

김동수 글,그림, 보림, 2016.

46p. : 천연색삽화 ; 26cm.

ISBN : 978-89-433-1050-9 77810 : 12,000

어린이책 (그림책)

평택시립 안중도서관 (아 813.8-7713주)

초등 저 ~ 성인

 로드킬 당한 동물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이

죽은 동물들에게 보내는 치유의 편지

이가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사서)

출퇴근길을 다니다보면 도로 한가운데에 로드킬(Road kill) 당한 동물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고양이, 개를 비롯해서 심지어 고라니까지... 많은 동물들이 길에 죽어있는 것을 보면 가슴 한켠이 아려온다. 한국로드킬예방협회에 따르면 도로에 뛰어들어 목숨을 잃는 동물이 연간 30만 마리에 달한다고 한다. 길을 달리다가 발견한 죽은 동물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담당 부서에 연락해 주는 일이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뿐이다. 나와 같이 로드킬 당한 동물들에게 마음의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별 생각 없던 사람들 모두에게 로드킬 당한 동물들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책이 바로 이 책 『잘 가, 안녕』이다.

이 책은 표제지가 나오기 전부터 책의 내용이 시작된다. 책의 제일 겉표지를 열면 강아지가 트럭의 바퀴 아래 깔린 그림과 함께 ‘퍽. 강아지가 트럭에 치여 죽었습니다.’ 라는 구절로 책이 시작된다. 자로 잰 듯 정확하고 단단하게 생긴 트럭 앞에 바퀴보다도 훨씬 작은 강아지는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이다.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강아지를 할머니가 혀를 끝끝 차며 거두어들인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의

방 안에는 강아지와 같은 방식으로 목숨을 잃은 야생동물들이 누워있고, 할머니는 로드킬 당한 동물들의 상처를 적당한 방법으로 꿰매고 고쳐준다.

몸이 네 동강 난 뱀, 깃털이 다 빠지고 배에 큰 상처가 난 부엉이, 바퀴에 깔려 납작해진 개구리, 아까 트럭에 치인 강아지, 옆구리 터진 고라니, 꼬리가 없어진 족제비 등 인간의 잘못으로 무고하게 이 세상을 등진 야생동물들과 그들의 상처를 돌봐주는 할머니. 인간은 본인들이 편하게 살기 위해 야생동물의 서식지나 이동통로를 파괴할 뿐, 앞으로도 파괴된 그 공간에서 삶을 이어 나가야 하는 동물들의 입장은 먼지만큼도 고려하지 않는다. 현실에서 인간들은 자신들만의 이동 통로를 몸으로 기억하고 있는 야생동물의 생존을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데에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지만, 『잘 가, 안녕』에서는 그 반대이다.

몸이 다 터져서 내장이 몸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납작해진 동물들에게 할머니는 나쁜 말을 건네지 않는다. 동물들이 아직 살아있는 듯이 따뜻하고 다정한 말을 건네고, 부드럽고 정성스러운 손길로 봉대를 감아준다. 할머니의 술 많은 머리 뒤에 감춰진 눈은 도로에서 죽어간 야생동물들을 보며 슬퍼하는 자신의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 하는 모습일지도 모른다. 생태계를 마구잡이식으로 개발하는 인간들의 현실과 묘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인다. 『잘 가, 안녕』을 읽는 사람들이 평소에 생명과 삶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와 책에 나온 할머니의 태도를 비교하며 나를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듯하다.

책의 마지막에서는 야생동물들의 상처 많았던 이승에서의 삶이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로 잘 꿰매져 꽃과 함께 배에 태워진다. ‘하이얀’ 오리들은 ‘노오란’ 부리로 배와 이어진 끈을 물고 연꽃이 만들어준 길을 따라 죽은 동물들을 극락왕생의 세계로 인도한다. 도로에서 죽어간 동물들이 저승에서는 평온한 삶을 찾기를 바라며…



조랑말과 나

홍그림 글 · 그림. 이야기꽃, 2016.

44p. : 삽화; 23 x 21 cm.

ISBN : 978-89-98751-17-3 77810 : 12,000

어린이책 (그림책)

평택시립도서관 (아 813.8 ㅎ919즈)

유아 ~ 초등 저

👁️ 용기가 필요한 아이에게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유현미 (평택시립도서관 사서)

표지 가득 미소 띤 아이와 조랑말의 얼굴이 귀엽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아이와 조랑말이 함께 책을 읽고 한 이불아래 잠드는 모습이 사랑스럽습니다. 동글동글 행복해 보이는 아이와 조랑말의 모습은 보는 이들까지 절로 미소 짓게 합니다.

햇살 좋은 어느 날 아이와 조랑말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새와 구름도 아이의 발걸음도 경쾌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여행길에도 맑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느닷없이 이상한 녀석이 나타나 조랑말을 향해 “뽕!”하고 총을 쏘아댁니다. 조랑말은 산산이 부서지고 아이는 깜짝 놀랍니다. 하지만 용감한 아이는 곧바로 정신을 수습하고 망가진 조랑말을 주워 모아 꿰매 줍니다. 그리고는 다시 방긋 웃는 얼굴로 조랑말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떠나는 아이와 조랑말 뒤에서 망연 자실 쳐다보고 있는 ‘이상한 놈’의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여행길 곳곳에서 출몰하는 이상한 놈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호시탐탐 조랑말을 망가뜨리기 일쑤입니다.

밤이라고 절대 고난이 멈추란 법이 없지요. 하지만 아이와 조랑말은 어떤 고난이 이어져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툭툭 털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 이상한 놈들도 만만치 않아서 우주 끝까지라도 쫓아올 기세입니다. 바다 속 여행을 즐길라치면 악어로 출몰하고 우주인으로 분해 광선을 쏘아대는가 하면 해골바가지로 변신해 ‘쉬리릭~’ 내 조랑말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상한 놈들(어쩌면 삶의 고비들)은 신출기몰 변화무쌍하게 나를 겁주고 내 조랑말을 망가뜨립니다. 그 때마다 아이는 어김없이 일어나 조랑말을 껴매고는 다시 방긋 웃으며 길을 떠납니다.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아이와 조랑말은 두 주먹 불끈 쥐고 보무도 당당하게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이가 호기롭게 외칩니다.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내 조랑말은.”

조랑말은 아이의 분신일 수도, 친구일 수도 혹은 아이가 꿈꾸는 그 ‘무엇’일 수도 있겠지요. 어쨌건 조랑말과 함께라면 아이는 두벅두벅 여행을 계속할 것이고 햇볕과 바람으로 더욱 단단해 질 것입니다.

살다보면 우리네 삶에도 언제나 좋은 봄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느닷없이 이상한 녀석이 나타나 혹은 날리는가 하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쳐 까마득히 절망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겨우 마음을 추슬러 보지만 이상한 놈은 복병처럼 나타나 우리를 만신창이로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아이도 이렇게 씩씩한걸요. 우리도 못할 것 없지요!

아이와 조랑말이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씩씩하게 여행을 끝마칠 것이라는 믿음이 (책을 읽는) 아이들의 삶에도 자양분으로 자라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차마고도를 넘어

유재숙 지음·비룡소 2017
ISBN : 978-89-491-0187-3

📖 도서관에 대해 알고 싶을 때 / 도서관 이용자교육 때

역경을 헤치고 달을 향하여

홍미정 (화성시 병점도서관 사서)

유재숙 작가의 『차마고도를 넘어』는 참으로 간결하고 단정한 그림책이다. 앞표지부터 뒤표지까지 일관되게 짙 푸른색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이 책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군더더기를 찾아볼 수 없다. 등장하는 주인공들을 검은 실루엣으로 처리하여 마치 정교하게 잘 짜여진 한편의 그림자극을 감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코 정적이지는 않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오히려 생동감과 역동성이 느껴진다. 단순하고 깔끔한 그림체로 표현했지만, 친근한 캐릭터들과 더불어 긴장감·속도감을 적절히 구사한 작가의 능력과, 무수한 사연을 담고 있을 차마고도를 향한 작가의 애정이 들어있기 때문이라 짐작된다.

빛에 의한 실루엣만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그림자극은 그 특성상 늘 이면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게 하는데, 이 책 또한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어 ‘차마고도’의 숨은 매력과 그 곳을 내달리는 동물 친구들의 모험담에 대한 강하고도 지속적인 호기심을 연발하게 한다.

‘차마고도(茶馬古道)’는, 중국 서남부 윈난성·쓰촨성에서 티베트를 넘어 네팔·인도까지 이어지는 육상 무역로로, 중국의 차와 티베트의 말을 교환했다는데서 그 이름이 유래한다. 길이가 약 5000킬로미터, 평균 해발고도가 4,000미터 이상인 높고 험준한 길이지만 설산(雪山)과 강들이 수천 킬로미터의 아찔한 협곡을 이루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꼽힌다고 한다.

이렇듯 거칠고 험하지만 아름다운 길 ‘차마고도’에 영감을 받아 쓰여진 이 책은, ‘차마고도’에 얽힌 전설과 작가의 상상이 어우러져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림책으로 탄생하였다. 그림책에 등장하는 호랑이 강, 동굴, 산꼭대기 소금 호수 등은 모두 ‘차마고도’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의 장소로, 그 장소를 생생하고 역동감 있게 펼쳐낸 작가의 솜씨를 꼭 눈여겨보길 바란다.

아픈 엄마를 위해 찾이를 구하러 달에서 내려온 토끼 그리고 그런 토끼를 돕는 노새와 두꺼비의 여정은, 토끼가 은하수를 건너 달에 올라가는 장면에서 절정에 이른다. 이 장면은 영화 『E.T.』에서 자전거가 공중으로 떠오르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데, 푸른 배경, 둥근 달, 검은 실루엣의 일치뿐 아니라 친구를 집으로 무사히 보내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들까지 닮아있는 듯하다. ‘차마고도’에서 함께 역경을 헤치며 아마도 이들의 우정은 더 깊고 아름답게 영글어갔으리라.

『차마고도를 넘어』는 작가의 첫 책이지만, 작가는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어린이 책에 그림을 그리는 일을 오래 했다. 간결한 그림너머 담겨있는 풍성함과 다채로움은 이제껏 쌓아온 작가의 내공을 설명해준다고 할 수 있다. 시원하고 빠른 전개, 풍요로운 자연의 묘사, 개성있는 그림체로 호평을 받으며 2016년 황금도깨비상을 수상하였다.

이 책의 정교하고 짜임새 있는 구성은,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자료의 텍스트로서 바로 적용을 가능케 할 수 있다. 아이들의 연극이나 그림자극의 시나리오로, ‘차마고도’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한 사전 참고자료로, 친구간의 우정을 논하는 토의자료로 활용하는 방법 등이 그 예이다.



책 고치는 할아버지

김정호 글, 김주경 그림. 파란자전거, 2016.

36p. : 삽화 ; 29cm.

ISBN : 979-11-86075-63-0 : 11,900

어린이책 (그림책)

수원시 지혜샘어린이도서관 (813.8 김74초)

유아~ 초등저

📖 도서관에 대해 알고 싶을 때 / 도서관 이용자교육 때

“꼬마도서관” 지킴이 책 고치는 할아버지

김현주 (수원시 지혜샘어린이도서관 사서)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망가진 책들을 보는 것은 속상한 일입니다. 많은 도서관에서 훼손도서 전시도 하고 책보수 동아리도 운영하면서 이런 책들을 살려보려 하지 만 여전히 그 양은 줄어들지 않아요.

책을 좋아하는 또책 할아버지는 언제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곳은 당연히 도서관이죠. 날마다 도서관에 가서 책 정리도 하고 책도 실컷 읽는 때가 할아버지가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하지만 개구쟁이 아이들은 책을 함부로 보기도 합니다. “여럿이 보는 책이니까 더럽히면 안돼요~”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조용히 타일러 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망가진 책들 걱정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던 중 “내가 망가진 책들을 고쳐 볼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책 고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망가진 책들을 고치기 시작했지요. 다시 태어난 책들이 늘어나면서 할아버지는 도서관에서 유명해졌어요. “책 고치는 할아버지다!” 모

두 할아버지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고친 책들은 “꼬마도서관”에 꽂히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늘도 도서관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계시겠죠?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 난 책이 이세 히데코 작가의 『나의 를리외르 아저씨』(청어람미디어, 2007)입니다. ‘를리외르’는 필사본, 낱장의 그림, 이미 인쇄된 책 등을 분해하여 보수한 후 다시 꿰매고 책 내용에 걸맞게 표지를 아름답게 꾸미는 직업을 말합니다. 예술제본이 발달했던 프랑스에서는 지금도 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책 고치는 할아버지가 전문적인 직업인으로 책을 고치는 건 아니지만 책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이에 못지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도 같다고 할 수 있겠지요.

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체는 다양합니다. 공공일수도 있고 민간단체일 수도 있고 또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는 것만은 공통적일 것입니다. 요즘 책 고치는 할아버지와 같이 진심으로 책을 사랑하고 도서관을 위해 노력해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도서관들도 더욱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읽으며 저의 노후를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할머니’, ‘책 고치는 할머니’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



천만의 말씀

스즈키 노리타케 글, 그림; 김숙 옮김. 북뱅크, 2016.

36 p. : 천연색삽화 ; 25x25cm.

ISBN : 978-89-6635-058-2 77830 : 13,000

어린이책 (그림책)

평택시 지산초록도서관 (유833.8-스718 초)

유아

👤 친구를 부러워하는 아이

천만의 말씀

이윤정 (평택시 지산초록도서관 사서)

책의 겉표지에는 사자 한 마리가 턱을 괴고 누워있습니다. 책의 제목을 잘 표현해주는 표정으로 책을 읽는 사람을 바라보며 말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책의 겉표지를 벗겨낸 책의 표지에는 평범한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턱을 괴고 뚱한 표정으로 밖을 바라보고 있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대로 책을 펼쳐 첫 페이지를 보면 표지에 있던 한 소년이 턱을 괴고 말합니다. “나는 어디어산 만날 수 있는 아이.” 자신은 누구보다도 평범하고 그냥 그런 보통 아이라고 생각하는 한 소년은 코뿔소를 부러워합니다. 자신에게는 없고 코뿔소에게는 있는 것을 특별하다고 생각하며 부러워하는 소년을 시작으로 책 속에 나오는 동물들은 서로를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부러워하는 소년을 보며 코뿔소는 말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 왜 “천만의 말씀”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소년이 부러워하는 점을 코뿔소는 도대체 왜 부러워하는지 모르겠다는 어투로 말합니다. 그리고 코뿔소는 오히려 토끼를 부러워합니다. 자신을 부러워하는 코뿔소를 보며 토끼는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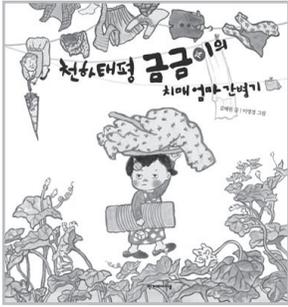
이 책에 나오는 한 소년과 동물들을 서로를 부러워하고, 자신을 부러워하는 이

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의 말씀.” 누구에게나 자신이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많은 고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좋은 점으로 보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학창시절 반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항상 부러움의 대상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부러움의 대상은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장난감이 많은 아이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꼭 좋은 점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계속해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장난감이 많은 아이는 부모님이 바빠 함께 놀아줄 수 없어 장난감을 많이 사주신 것일 수 있고,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는 집안형편이 어려워 다니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책상에 놔두었던 책을 다시 보니, 처음 표지를 보았을 때는 보지 못했던 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에는 한 소년과 7마리의 동물이 나옵니다.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소년만 보였던 처음과 달리 책 속에 등장한 동물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실 표지를 주의 깊게 봤다면 보였을 수도 있지만, 초점이 소년에게 맞춰져 있어 보이지 않았던 동물들을 책을 다 읽은 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없는 것들을 남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너무나도 잘 보이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나 스스로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알고 보면 다른 사람들도 내가 가진 것을, 나의 장점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힘든 점이 있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좋은 점들도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만 하기 보다는 나의 장점을 스스로 찾아보고 좋은 면을 보며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어쩌면 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일 수 있습니다.



천하태평 금금이의 치매엄마 간병기

김혜원 글;이영경 그림. 한겨레아이들. 2016.

ISBN : 978-89-843-1845-8

그림책

초등 저 ~ 성인

혼자 못 하면 나하고 하지

이수경 (평택시 장당도서관 사서)

저그 ‘충청 전라 어름’에 사는 부지런한 쪼글 할매와 ‘놀고 먹고 싸는 것만 으뜸’인 딸래미.

쪼글 할매는 “똥오줌을 잘도 누니 농사꾼의 딸이로다, 똥거름이 풍년이니 올 농사는 풍년일세.” 노래를 불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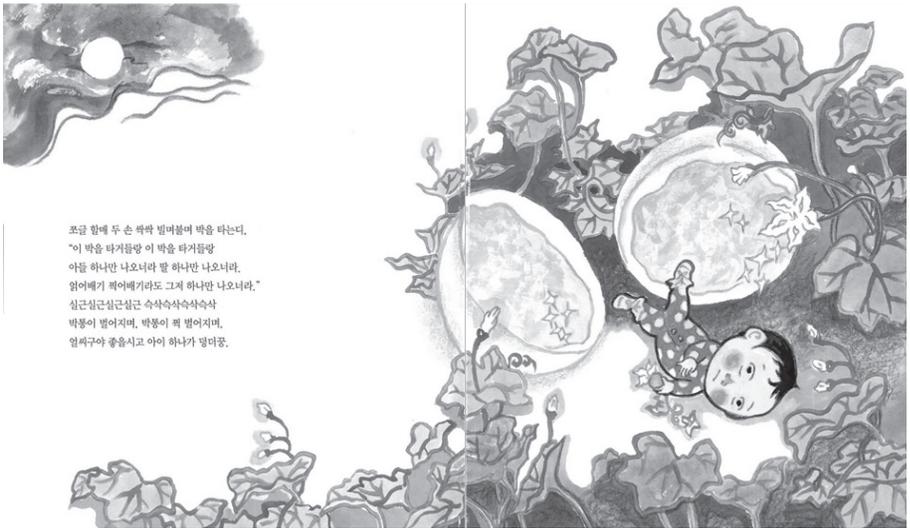
쪼글 할매는 금금이가 공부 잘 한다고, 말 잘 듣는다고 사랑하는 게 아녀. 지극정성 빌어 얻은 아이라 그저 귀한 거여.

금금이는 조금 알미워. 쪼글 할매는 여기 저기, 요기조기 다니며 부지런히 쓸고 닦는데 금금이는 암 것도 안하고 크지도 않아.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 쪼글 할매 병이 났는다,
깜박증이 요란하여 깜박깜박 뒤죽박죽,
쌀 찾다가 바닥 쓸고 바닥 쓸다 텃밭 매고
밭 매다가 말뚝 박고 말뚝 박다 거름 주고
거름 넣고 불을 때서 매운 연기만 몽클몽클 피워 올리네.

어쩔거나 쪼글 할매 눈물 콧물 흘리면서,
 “밥도 하나 못 허고, 죽을 일만 남었네.”
 금금이 이 말 듣고 부스스 일어나며,
 “혼자 못 하면 나하고 하지.”

어머, 금금이가 일어나서 밥도 하고, 물도 길고, 빨래도 해. 점점 병이 깊어가는 쪼글 할매 정신이 ‘들락날락, 날락들락’ 하다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 ‘놀고먹고 싸는 것만 으뜸’인 금금이가 어매를 찾아 ‘갈딱 고개 넘고, 풍당샘을 지나’ 강가까지 왔어. 어매를 그리는 마음 때문인가? 워~매~, 금금이가 ‘텃밭에 푸성귀처럼 쑥쑥이 자라나네.’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몸도 마음도 쑥쑥 자라나는 존재인가 봐. 우리 금금이, 쪼글 어매 찾아 세상을 방랑하며 어른이 되니 어매 같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 밥을 지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누군가를 먹이는 일인가 봐. 배고픈 사람을 위해 몸과 마음으로 다해 정성껏 짓는 밥. 배고픈 사람을 위해 짓는 밥이 쪼글 할매를 찾게 해줬어.



쪼글 할매 두 손 썩약 빌며불며 밥을 타는다.
 “이 밥을 타기들랑 이 밥을 타기들랑
 아들 하나만 나오니라 딸 하나만 나오니라,
 열이배기 짝이배기라도 그치 하나만 나오니라.”
 실근실근실근실근 속삭속삭속삭속삭
 박봉이 빌어지며, 박봉이 짝 빌어지며,
 얼레구야 종을시고 아이 하나가 떨어뜨.

‘얼씨구야 절씨구 우리 어매를 찾았네’

“둥둥둥 우리 어매 어화둥둥 우리 어매 오즘 싸서 이쁘고 똥을 싸서 이쁘고,
어매도 나 키울 제 내가 이리 이뻐던가, 똥거름이 풍년이니 올 농사는 풍년일세.“

이제 금금이 노래를 불러. 금금은 쪼글 할매를 돌보면서 성장하네. 가족도 마찬가지로 사회가 쪼글 할매처럼 병든 사람들을 잘 돌봐줬으면 좋겠어. 저 멀리 스웨덴은 갑자기 장애인이 된 사람과 가족을 위해 지역 정부가 집도 고쳐준다고 해. 휠체어를 쓸 수 있게 해준대. 쪼글 할매와 금금을 위해 우리 사회도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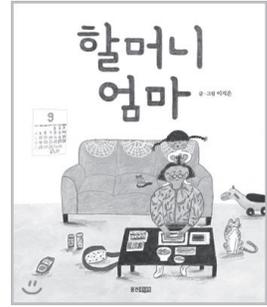
이 그림책 보고 평평 울었어, 사람들이 왜 울었냐고 나를 놀려, 어느 대목에서 울음이 나왔을까? ‘얼똥아기’가 된 쪼글 할매 ‘놀고먹고 싸는 것만 으땀’이지만 금금은 어매를 위해 노래를 불러. 쓸모에 상관없이 우린 그냥 귀한 존재야. 요즘 경쟁이 치열하고 생존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어. 병든 어매 간병하는 금금이, ‘얼똥아기’가 된 쪼글 할매, 쓸모에 민감한 나, 독서는 三讀(삼독)인가봐.

내용을 읽고, 저자를 읽고, 나를 읽어야 한 대. 그림책 보며 쓸모에 집착하는 내 마음을 보게 됐어. 다른 사람들은 이 책을 어떻게 볼까 궁금하네. 읽고 얘기 나눠 봐요.

‘쓸모’라는 잣대로만 세상이 움직인다면 얼마나 쓸쓸할까요? 쪼글 할매와 금금이의 파란만장 천하태평 간병기 우리 함께 보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할머니 엄마

📖 할머니와의 따뜻한 추억이 있는 유아, 아동 / 할머니에게 양육되는 모든 유아, 아동



할머니의 사랑은 포근해요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어린 시절 엄마를 대신해 할머니와 무언가를 한 적이 있나요? 나의 엄마는 직장맘은 아니었지만, 형제자매가 많아 혼자서 모두를 챙길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았다. 외할머니, 고모할머니, 이모할머니 등등의 여러 양육자들과의 에피소드는 지금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남아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소소하게 미소 짓게 만드는 일들이었다. 이런 경험을 가지고 제목만으로 선택하게 된 『할머니 엄마』는 한번 읽으면 뻥한 듯 보이는 전개이지만, 두 번, 세 번 읽다보면 아련한 그 때의 추억들과 지금의 감정들이 버무려져 아련한 그림책이다.

맛벌이 가정의 딸인 지은이는 엄마, 아빠가 출근 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할머니와 보낸다. 눈물로 엄마의 출근을 배웅한 후에는 할머니와 칼국수도 만들어 먹고,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엄마이야기도 들으며 행복한 일상을 보낸다. 하지만, 가족운동회에 엄마, 아빠 대신 가게 된 할머니는 달리기 시합에 출전해 넘어지게 되고, 지은이는 크게 실망하게 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항상 해왔던 그대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지은이를 달래준다.

『할머니 엄마』는 작가의 어린 시절 할머니의 양육에 대한 감사로 시작하는데, 연필로 스케치한 후 채색한 그림이 짹짹, 새우깡 등 다양한 옛 소품들과 어우러져 섬세하게 상황을 표현하고 있으며, 하나씩 찾아보며 과거로의 추억여행도 할 수 있다.

특히,

“아이고, 지은이 눈물에 엄마는 배 타고 회사 가겠네.”

“할머니, 물소리 나. 할머니 배에서.”

“당연하지, 할머니 배 속에 개울도 있고 숲도 있으니까.”

“진짜? 진짜? 또 뭐?”

“별 잘 드는 쪼매난 오두막에 지은이 엄마도 살았지.”

이와 같은 할머니가 들려주는 상황에 대한 다양한 표현력들은, 작가가 성장하며 할머니의 따듯한 감성을 물려받아 그림책작가와 인형작가로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또한 작가는 지은이의 양 갈래머리와 연필선을 이용하여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하고 있다.

손녀를 돌보는 고된 양육의 시간이지만, 할머니는 맛있는 음식과 자신의 딸의 감성을 손녀에게 전해주고, 지은이는 할머니에게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정적으로 엄마의 부재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할머니의 딸과 손녀가족에 대한 무한한 모성애를 느낄 수 있으며, 할머니에게 양육되고 있는 모든 유아들과 양육을 맡긴 부모가 함께 읽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내리사랑을 느낄 수 있어 이 책을 추천한다.

힘이 센 장수풍뎅이야

김진 글 ; 유승희 그림. 비룡소, 2017
44p. : 천연색삽화 ; 29cm.
ISBN : 978-89-491-0314-3 : 11,000
유아 그림책(국내 창작동화)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유아 408-비295물-11)
유아, 아동

🌿 자연생태그림책으로 장수풍뎅이의 삶을 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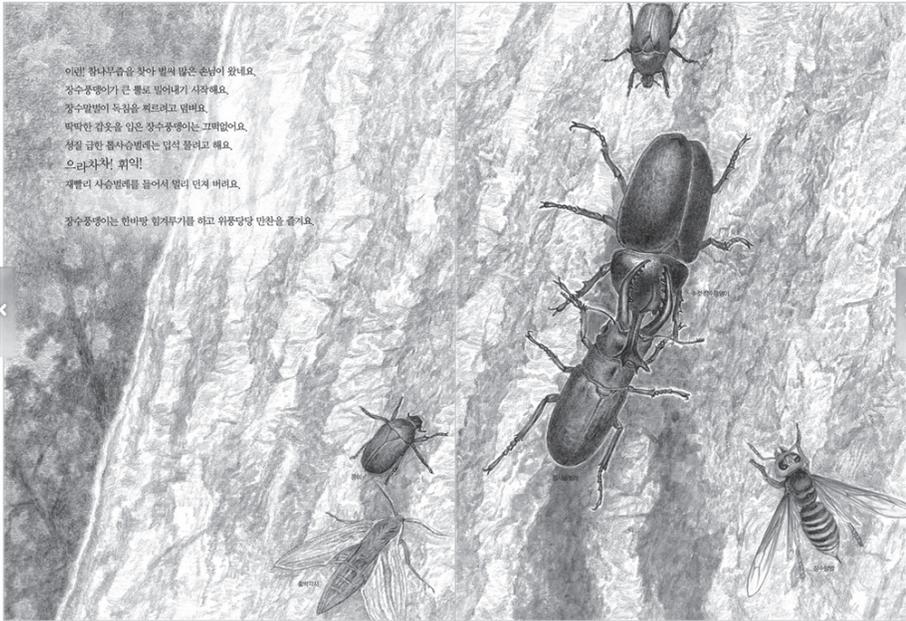


힘이 센 장수풍뎅이야

김새롬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사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어린 시절, 여름방학이면 선생님께서는 곤충채집 숙제를 내 주곤 하셨어요. 문구점에 들러 곤충채집 가방과 막대기를 사서 친구 몇몇과 어울려 근처 가까운 산이나 들로 곤충을 잡으러 나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매미가 울어대는 소리가 도서관을 에워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 크고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어느 샌가 작아진 매미 소리를 들으며 여름이 끝나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어렸을 적 그 기억이 떠올라 고르게 된 이 책은 장수풍뎅이의 삶의 시작과 끝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표현한 생태그림책입니다.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장수풍뎅이의 모습이 매우 자세하고 사실적이어서 사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장수풍뎅이의 한 살이를 자세하게 설명해준 덕분에 장수풍뎅이의 특징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책 한권만 가지고 곤충채집을 가더라도 여러 종류의 장수풍뎅이를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 이 책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런! 참나무즙을 찾아 벌레 많은 손님이 왔네요.
장수풍뎅이가 큰 뿔로 밀어내기 시작해요.
장수말벌이 목침을 찌려고 밀어요.
딱딱한 갑옷을 입은 장수풍뎅이는 끄떡없어요.
성왕 금란 톱사슴벌레는 겁먹 물리고 해요.
으리차차! 귀익!
재빨리 사슴벌레를 물어서 멀리 던져 버려요.

장수풍뎅이는 한바탕 힘겨루기를 하고 위풍당당 만찬을 즐겼어요.

장수풍뎅이의 한 살이

겨울잠에서 깬 장수풍뎅이가 좋아하는 나무는 참나무입니다. 참나무는 장수풍뎅이 뿐만 아니라 장수말벌과 톱사슴벌레도 좋아합니다. 서로 참나무 즙을 더 빨기 위해 다투지만 딱딱한 갑옷을 걸친 장수풍뎅이를 당할 곤충이 없습니다. 배가 부른 장수풍뎅이는 햇빛을 좋아하지 않아 짙은 나무나 낙엽 밑으로 몸을 숨겨 낮잠을 잡니다. 낮잠을 자는 동안 눈치를 보던 다른 곤충들이 몰려와 참나무 즙을 양껏 먹습니다. 다시 밤이 오면 장수풍뎅이는 짹을 찾아 헤맵니다. 수컷은 더듬이를 통해 자신의 짹을 찾아냅니다. 짹짓기를 한 암컷은 낙엽 사이에 알을 낳습니다. 작은 몸으로 100여개 정도의 알을 낳은 암컷은 곧 죽고 맙니다. 이것이 암컷의 숙명입니다. 쌀알보다 조금 작은 장수풍뎅이 알은 흙 속에 있는 물을 빨아들이며 몸을 키웁니다. 총 세 번의 허물벗기가 이어지고, 허물을 벗을 때마다 몸집도 두 배씩 커집니다. 이 때, 장수풍뎅이 애벌레는 땅 속에 사는 두더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두더지는

냄새로 애벌레를 찾아 사정없이 먹어치우기 때문이에요. 암컷 풍뎡이가 100여개의 알을 낳았지만 살아남은 애벌레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애벌레는 본인의 부모가 그랬듯이 긴 겨울잠에 들어갑니다. 겨울잠에서 깨면 멋진 성충이 되어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이에요.

봄이 되면 하얗던 애벌레의 몸은 노랗게 변합니다. 그리고 그 옷을 또 한 겹 벗어 내면 하얀 번데기가 되고, 그 번데기는 서서히 갈색 빛을 띠게 됩니다. 이제 여름입니다. 마지막 허물을 벗은 번데기는 장수풍뎡이의 모습을 갖춰갑니다. 한여름이 되면 장수풍뎡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본인의 아빠와 엄마가 그랬듯, 참나무 위에 올라 즙을 빨아먹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 아빠의 삶을 살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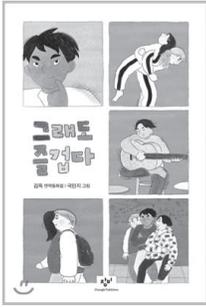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며

저는 이 책을 통해 장수풍뎡이의 한 살이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어요. 한여름에 잠깐 왔다가는 장수풍뎡이가 이 짧은 여름을 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을 보냈는지 알 수 있었답니다. 작은 곤충도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 납니다.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림 덕분에 마치 숲 속에 있는 느낌이 드는 책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곤충을 징그럽게만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장수풍뎡이를 만나게 된다면 반가운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책을 통해 장수풍뎡이를 좀 더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곤충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에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자세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문학

그래도 즐겁다 / 김옥 저	엄정란 · 시흥시 정왕어린이도서관
꼬불꼬불 눈 놀이터 / 미토 저	박지원 · 안성시 공도서관
나무는 정말 놀라워요 / 램니스케이트 저	김새롬 ·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나무쟁이! / 제이 오픈 저	이연순 ·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나의 진주드레스 / 송미경 저	박지원 · 안성시 공도도서관
난생 처음 히치하이킹 / 김아영 저	이연수 ·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내 동무 리구철! / 박영옥 저	박지원 · 안성시 중앙도서관
네모 돼지 / 김태호 저	엄정란 · 시흥시 정왕어린이도서관
누나라고 부르지 말랬지! / 고정옥 저	박지원 · 안성시 공도도서관
다 잘 될거야 / 기르스텐 보이에 저	김새롬 ·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동지아파트 이사 대 작전 / 폴라 세어 저	김새롬 ·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마녀를 잡아라 / 로알드 달 저	엄정란 · 시흥시 정왕어린이도서관
민서와 함께 춤을 / 이승민 저	박지원 · 안성시 공도서관
별나라 마트 습격 사건 / 김경민 저	박지원 ·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람이 뭐예요? / 문중훈 저	김새롬 ·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사춘기 가족 / 오미경 저	안미아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춘기 소녀의 성장 일기 / 조 오스람트 저	박지원 · 안성시 공도서관
생쥐 우체부의 여행 / 마리안느 뤼비크 저	김새롬 ·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소년 명탐정 정약용 / 한이 저	엄정란 · 시흥시 정왕어린이도서관
소에게 친절하세요 / 베아트리체 마시니 저	엄정란 · 시흥시 정왕어린이도서관

아빠는 외계인 / 박은교 저	박지원 · 안성시 공도도서관
어느날 구두에게 생긴 일 / 김려령 저	이선희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엄마 우리 이제 울지 마요 / 노경실 저	엄정란 · 시흥시 정왕어린이도서관
엄마 친구, 아저씨가 나타났다 / 박현숙 저	박지원 · 안성시 공도도서관
여섯 개의 점 / 쟈 브라이언트 저	박지원 · 안성시 공도도서관
열 네번째 금붕어 / 제니퍼 홀름 저	엄정란 · 시흥시 정왕어린이도서관
열세살, 불안해도 괜찮아 / 장희정, 송은하 저	이연순 ·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육대장 / 박현숙 저	엄정란 · 시흥시 정왕어린이도서관
우리 학교에 시리아 친구가 옵니다 / 카트린느 마쎌 저	이연수 · 수원시 일월도서관
위니를 찾아서 / 린지 매틱 저	엄정란 · 시흥시 정왕어린이도서관
위험한 게임 마니또 / 선자은 저	공정자 · 안성시 진사도서관
이게 정말 천국일까 / 요시타케 신스케 저	김새롬 ·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잔소리 로봇 / 김아로미 저	엄정란 · 시흥시 정왕어린이도서관
진실은 힘이 세다 / 필립 드레이 저	공정자 · 안성시 진사도서관
참 다행인 하루 / 안미란 저	박지원 · 안성시 공도도서관
플레이볼 / 이현 저	유현미 · 평택시립도서관
할머니 주름살이 좋아요 / 시모나 치라올로 저	김새롬 ·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호로로 히야 / 차나무 저	박지원 · 안성시 공도서관
호철이는 설날이 가장 즐거워요 / 이호철 저	엄정란 · 시흥시 정왕어린이도서관
희망을 찾는 아이, 러키 / 수전 페이트런 저	이연순 ·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그래도 즐겁다

김옥 글, 국민지 그림, 창비, 2015.

212p. : 삽화 ; 23cm.

ISBN : 978-89-36442-81-1 73810 : 9,8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군포시 산본도서관 (아808.9 창48ㄸ)

초등고학년

📍 친구의 우정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계기를 줌 / 새로 전학 가는 학교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

우리들의 우정이란?

엄정란 (시흥시 정왕어린이도서관 사서)

이 책은 ‘와장동’이라는 도시와 학교를 배경으로, 사고뭉치 삼총사와 전학생 정희재의 일상을 유쾌하게 그린 연작동화집이다. 열세 살의 일상 속 심리와 성장의 순간을 섬세하게 파고들어 10대 독자들의 공감을 자아낸다. 아이들이 구석구석 누비는 동네의 정겨운 풍경은 현장감을 더하며, 재미있고 위트 넘치는 단어선택과 담백한 문장이 책 속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이를 테면 ‘우주회’(비오는 날이면 만나서 술 마시는 사람들의 모임의 줄임말)라든지 ‘어서비어’(사고뭉치 주인공 원웅의 아버지가 차리고 싶은 맥줏집)라는 단어를 예를 들 수 있겠다.

의리파 조원웅, 멋쟁이 최진상, 순둥이 서민규는 와장초등학교 6학년 중 사고뭉치로 유명인사이다. 공부보단 항상 새로운 말썽피우기를 좋아하는 저마다 개성이 강한 아이들로, 여기에 새로 전학 온 정희재라는 여자아이까지 네 주인공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제1편은 원웅이 이야기로 「전학가기 전에 손 봐줘야 할 녀석들」이 부제이다. 단순하고 제멋에 사는 와장초등학교 대표 사고뭉치 조원웅은 부모님의 결정으로 갑

작스레 제주도로 전학을 가게 된다. 전학 사건으로 원웅과 진상, 민규 삼총사들은 지루한 일상에 왠지 모를 들뜨고 묘한 활기를 느낀다. 이들은 전학 가기 전 일주일을 특별하게 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20주년 미리 동창회를 열어 와장동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보내려고 한다. 하지만 원웅의 아빠의 대기발령이 끝나고 지방 발령이 나 제주도 이사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제2편은 민규 이야기로 「해골반지」가 부제이다. 민규는 희재를 남몰래 짝사랑하는데 진상이와 원웅이가 희재에게 해골반지를 받은 것을 보고 부러워한다. 민규와 희재가 서로 남모를 아픔을 나눠 가진 것을 알게 되자 그 둘은 급속히 친해지는데 결국 민규는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해골 반지를 선물 받게 된다. 선물 받은 삼총사들은 귀엽게도 희재와 사귀는다는 착각을 하며 풋풋한 연애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 남자아이들의 순수한 감정선이 작가의 문장으로 재기발랄하게 표현돼 있다.

제3편은 진상이 이야기로 「내 기타 봤냐?」가 부제이다. 춤 잘 추고 멋 부리기 좋아하는 진상은 기타 연주 솜씨를 뽐내 희재의 관심을 독차지한다. 무서운 형이 일주일간 집을 비운 사이 진상은 희재의 환심을 사려 무리하게 형의 기타를 빌려주었다가 희재의 실수로 기타가 망가져 형에게 혼날 위기에 처하지만 의리파 친구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기타 수리 대작전은 성공한다.

제4편은 희재 이야기로 「생기발랄 우리 모녀」가 부제이다. 엄마와 단둘이 사는 희재는 열심히 공부해 엄마를 행복하게 해 주겠다는 꿈이 있지만 남모를 아픔 때문에 엄마와의 사이는 점점 멀어져만 간다. 엄마는 어느 날 아빠가 준 놀이공원 이용권을 희재에게 내민다. 삼총사와 단짝 친구인 준희와 함께 그곳을 찾은 희재는 아빠와의 마지막 추억이 떠올라 마음이 혼란스럽기만 하다. ‘세상에 영원히 변치 않는 게 있을까’라는 물음을 항상 달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놀이동산에서 스스로 찾아가며 치유한 것이다.

성장기를 지나 사춘기로 들어서는 아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왜냐하면 친구들 간의 우정, 부모님과의 갈등, 짝사랑, 학교생활 등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이야기가 유쾌하면서도 산뜻하게 표현돼 있기 때문이다.



꼬불꼬불 눈 놀이터

미토 단버어린이. 2017.
ISBN : 9788963011295
동화책
초등학생

꼬불꼬불 눈 놀이터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눈이 펑펑 쏟아지는 겨울이 오면 우리는 하고 싶은 게 참 많다. 따뜻한 방안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싶을 수도,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트리를 꾸밀 수도 있다. 또 친구들과 만나 가득 쌓인 눈을 보며 눈싸움을 한다든지, 눈사람을 만들 수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로 각자 겨울을 기다린다. 이 책 속의 등장인물들인 원칙이, 낭만이, 멋쟁이, 걱정이 등등의 토끼 친구들의 겨울 이야기는 평범하지만 꽤나 특별하다.

별별 토끼 마을에 첫눈이 오면 토끼 친구들은 잠에서 깨기 시작한다. 어떤 토끼는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먹을 것을 챙겨 먹고, 어떤 토끼는 친구들과 놀 것이 기대 되어 당장 뛰어나간다. 또 다른 토끼는 무엇을 입고 나갈까 고민하며, 다른 토끼는 밖에 나갔을 때 춥지 않도록 옷을 여러 겹 껴입는다. 다들 자신들만의 갖가지 방법으로 친구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기대한다. 만나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 동안에도 친구들을 생각하고 만나서는 결국 즐겁게 뛰어 노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보고 있으면, 나는 어릴 적 눈이 오면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놀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든다. 그때가 그리워진다. 이런 생각들을 하며 책을 읽다보면 이야기는 어느새 끝이 난다. 친구들은 눈 속을 파헤치며 친구를 만나러 간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일상적인 이야기인가 하면서도 결코 그 평범한 일상이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든다.

어린 아이들의 시선에서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표현한 것도 마음에 들 뿐더러 과정을 나타내어주는 그림이나 『꼬불꼬불 눈 놀이터』를 제외하고도 있는 하나의 이야기 또한 꽤나 즐겁게 읽힌다.

제목은 「나도 상 받고 싶어!」라는 이야기로,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시작되며 그를 기념하기 위해 토끼들이 각각 알맞은 상을 선정해 서로에게 주는 것이다. 상을 받기위해 치사한 반칙을 쓰기도 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 장면들이 귀여워 보여서 좋았다. 결국은 다 같이 상을 받아 즐겁고 따뜻한 느낌으로 이야기가 끝나는데,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 모두 겨울과 새해라는 느낌이다.

책을 읽고 나선 겨울이 마냥 기다려지기도 한다. 이 책은 딱 초등학교 정도의 아이들이 읽는다면 즐겁고 흥미 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들이 담겨있다.



나무는 정말 놀라워요

렘니스케이트 지음 ; 남진희 옮김. 미디어창비, 2017

1책p. : 천연색삽화 ; 23cm.

ISBN : 979-11-8621-264 : 120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유아 873-렘198나)

유아~초등저학년

🔦 나무의 생애와 역할 등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책

나무는 정말 놀라워요

김새롬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사서)

이 책의 표지에는 평범한 나무 네 그루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이 평범해서인지 제목이 더 인상적으로 느껴집니다. 『나무는 정말 놀라워요』라는 제목의 이 그림책은 우리 주변에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의 생애를 다루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세월이 흐르면 어른이 되듯, 키 작은 묘목도 세월이 흐르면 키가 큰 울창한 나무가 됩니다. 누군가 설명해주시 않아도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터득한 이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생애가 그리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작가는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평범한 의미일 뿐인 나무에 주목합니다. 평범한 나무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계절의 변화, 나무의 변화

맨 처음 시작하는 나무 이야기는 나무의 계절에 따른 변화입니다. 겨울에는 이파리 옷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얇은 나뭇가지를 뻗뻗하게 뻗은 채 잠을 잡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잠을 자며 봄을 기다립니다. 이따금씩 내리는 눈송이에게 자신의 팔을

내어주기도 합니다. 눈송이가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봄이 되면 나무는 오랜 잠에서 깨어납니다. 나뭇가지마다 머금은 꽃망울을 보면 나무가 깊은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나뭇가지마다 형형색색의 꽃을 피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몇 개 없던 꽃망울이 하룻밤 사이에 수십 개의 꽃망울을 머금어 보는 이의 눈을 즐겁고 행복하게 합니다. 나무에 찾아온 봄기운은 겨우내 움츠려 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줍니다.

어느 샌가 나무에 달려있던 꽃들이 하나 둘 떨어지고 그 자리에 또 다른 생명이 찾아옵니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대부분 아직 익지 않아 먹을 수 없는 열매도 있지만, 벚나무의 버찌처럼 보랏빛의 잘 익은 열매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에 달린 열매를 보고 여름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곧 나무에 붙어 여름 내내 맴맴 울어대는 매미도 찾아오겠지요. 이윽고 가을이 되고, 알록달록 색깔 옷을 입은 나뭇잎들은 하나, 둘 떨어집니다. 새로운 계절이 올 때마다 달라지는 나무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물의 이치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낌없이 베푸는 나무

나무가 우리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이외에 지구 상 생명을 가진 많은 것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 책을 통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나무의 머리가 구름에 닿아 있다고 적힌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 그림에는 나무꼭대기에 집을 지은 까마귀네 가족이 등장합니다. 이 책이 계절에 따른 나무의 변화에 대해 설명할 때에 나무 이외에 등장했던 것이 바로 한 마리의 까마귀입니다. 대체 어디에서 왔나 했더니 어린 자식의 먹이를 챙겨주기 위해 등지를 떠난 어미 까마귀였네요.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집을 찾아 헤매는 까마귀에게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어줍니다. 또 땅속 깊이 내린 뿌리들은 흙 속에 사는 많은 생명들에게 영양분을 주기도 합니다. 그 덕에 토양은 더 기름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나무는 기름진 땅에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나무는 메마른 땅에 힘겹게 뿌리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흙이 아닌 강가에서 사는 나무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산을 보고 있노라면 낮은 곳부터 높은 곳까지 나무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

게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때로는 풍요롭게, 때로는 힘겹게 그 곳에서 살아갑니다.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그저 말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나무는 인간에게도 좋은 일을 합니다. 산업화, 사막화로 탁해진 공기를 힘껏 들이마셨다가 도리어 맑고 깨끗한 공기를 내줍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조금이나마 맑은 하늘아래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해가 짹짹 비치는 날이면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가는 할아버지에게 쉼터가 됩니다. 또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어린이에게 잠시나마 비를 피할 수 있는 소중한 곳이 되어줍니다.

끝없이 베풀어주는 나무에 대해 적고 있으니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제목의 책이 떠오릅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기만 하는 나무의 다양한 모습은 마치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숭고합니다. 나무는 정말이지 놀라운 존재입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말입니다.

나부맹이!

제니 오필 글, 크리스 아펠란스 그림. 봄나무, 2015.

32p. : 삽화 ; 24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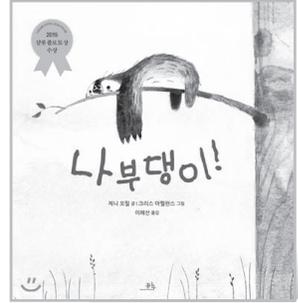
ISBN : 979-11-5613-074-1 77840 : 11,0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843 오898ㄴ)

초등저학년

📖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는 책 /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거나 앞으로 키울 계획이 있는 경우



나부맹이!

이연순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사서)

소녀는 반려동물을 갖고 싶고, 엄마는 반대한다.

꼬박 한 달을 조른 끝에 엄마의 허락을 받아내지만, ‘산책시키지 않아도 되고, 목욕시키지 않아도 되고, 먹이를 주지 않아도 되는 동물’을 찾아보라니,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동물이 있을까? 그야말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겠다는 엄마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소녀는 곧장 도서관으로 가서 사서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백과사전속의 ㄴ(니은)으로 시작되는 동물을 찾았다. 하루 16시간 잠만 자고 오랜 시간 동안 꿈쩍도 안하고, 나뭇잎과 이슬을 먹는 나무늘보. 빠른우편으로 도착한 나무늘보는 긴 여행에 지쳐서인지 48시간을 잤다. 본격적인 나무늘보 나부맹이와의 생활이 시작된다. 소녀는 나무늘보와 함께하는 어떤 놀이에서도 다 이길 수 있었지만 가만히 있기 게임에서만큼은 당할 수가 없다. 어느 날 같은 반 친구에게 나부맹이를 자랑한다. 메리는 잠만 자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나부맹이를 보고 묘기도 부릴 줄 모른다며 돌아간다. 속상하고 화가 난 소녀는 나부맹이와 함께 특별 공연을 준비한다. 관객은 엄마와 친구 메리, 학교 앞 건널목을 지키는 에드윈 아줌

마 단 3명이다. 1주일 내내 연습해서 보여준 공연은 어땠을까? 공연단장의 그 어떤 열정적인 제스처와 명령 아니 애절한 사정에도 나부덩이는 꿈쩍하지 않는다. 무안해진 에드윈 아줌마는 “털이 참 곱구나.”며 어색한 상황을 넘겨주려 하고, 메리는 더 실망해 가버린다.

실패한 공연 뒤에 남아있는 풍경은 어떨까? 어깨는 축 늘어지고 그래도 무대장치는 정리해야 한다. 아무 생각 없는 듯 천천히 쿠키를 먹고 있는 나부덩이에게 쿠키를 빼앗을 만큼 소녀의 심정은 참담하다. 저녁이 되었을 때 소녀는 나부덩이를 보러 갔다. 여전히 나무에 누워 있는 나부덩이를 보며 소녀는 손을 뻗어 나부덩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나부덩이, 넌 그냥 나부덩이야 나무늘보'라고 말하며, 나부덩이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게 된다.

나부덩이는 곧바로 잠이 들었어요.

나는 표지판을 만들어 나무 밑에 세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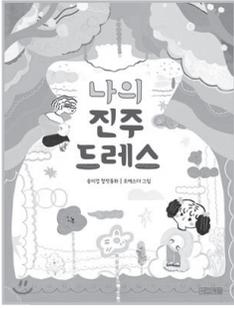


인상적인 것은 아이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주는 엄마의 태도다. 나무늘보라는 평범하지 않은 동물을 반려동물로 허락하고, 특별공연을 준비할 때도 격려와 지원을 해주는 모습에서 저자가 책머리에 ‘행복한 유년시절을 물려주신 부모님께’라는 책 헌사 사인을 달게 한 이유를 알게 한다. 또한 소녀가 만든 나무늘보 주의표지판과 특별공연 전단지 는 짙막한 표현에 재미와 창의성이 철철 넘쳐 도서관 행사에 참고해볼만 하다. 비록 엉뚱해 보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주인공 소녀의 모습과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들만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마음이 짙하다.

내용과 인물을 중심으로 굳더더기 없이 그려진 수채화 그림이다. 갈색톤으로 채색되어 차분하지만 결코 어두워보이지는 않는다. 2015년 미국에서 최고의 그림책에게 주는 샬롯 졸로토상을 수상했다.

한편, 사서로서 되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만약 이런 아이가 우리 도서관에 와서 내게 도움을 청했다면 이 그림책의 키클봄 사서처럼 참고봉사를 해주었을까? “아, 저기, 지금 청구기호를 출력해야 하거든요.” “집에 가서 엄마와 다시 의논해보고 귀여운 강아지 같은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떨까?, 엄마의 진짜 마음이 어떤 것인지도 좀 물어보고...” 이러지는 말아야지. 엉뚱한 질문에 한번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해보리라 생각하며,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앞으로 키울 계획이 있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을 배워가는 모든 사람에게 추천한다.



나의 진주 드레스

송미경. 사계절출판사. 2016.
ISBN : 978-89-5828-963-0
동화책
초등저학년

나만의 드레스, 나만의 꿈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다들 어릴 적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 봤을 것이다. 여자아이라면 더욱이 한 번쯤 꿀 수 있는 꿈. 자신만의 드레스가 가지고 싶다는 소박한 꿈들을 꿀 것이다.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흔한 원피스 말고, 나만을 위한 특별한 드레스 말이다. 동화 속에 나오는 공주님 드레스 같은 드레스를 특별한 날 입는 것이 작다면 작은 바람이다. 자신의 생일 같은, 일 년에 한 번뿐인 소중한 날에 누군가가 자신만을 위해 만들어준 하나밖에 없는 드레스를 입고 자신이 좋아하는 놀이공원에 가면 바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남들과 같이 어린 아이의 특권답게 자신만의 드레스를 입고 놀이공원에 가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나오는 『나의 진주 드레스』에 나오는 여덟 살 여자아이 소양이다.

이 책의 주인공인 소양의 어머니는 어린이 드레스 가게를 하신다. 파티나 음악 연주회 같은 날 입는 드레스들을 빌려주거나 팔기 위해 가게에 진열된 드레스들을 소양이는 어릴 적부터 가득 보고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언제나 딸의 피아노 연주회를 위해 매년 드레스를 한 벌씩 사 갔던 가게건물 주인아저씨가 이번에는 직접



만든 드레스를 사겠다고 말한다. 거기다 외국에 머물기 때문에 항상 우편으로 보냈던 드레스를 직접 찾으러 오겠다는 말도 한다. 이로 인해 공장에서 만든 드레스를 가져와 팔던 소양이의 어머니가 다시 한번 직접 드레스를 만들게 된다.

그렇게 소양이는 자신의 어머니가 드레스를 만드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보게 된다. 어머니가 드레스를 만드는 것은 소양이에게 큰 즐거움이었는데, 왜냐하면 평소에는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한숨만 쉬고 원체 성격이 말도 없고 무뚝뚝하기만 했던 어머니가 드레스를 만들기 시작한 후부터는 노래를 틀고 드레스를 만들거나 소양이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어머니가 드레스를 만드는 시간도, 어머니가 만드는 드레스도 좋았던 소양이는 아파서 한동안 보지 못했던 드레스를 완성한 모습을 보게 된다.

소양이는 그 드레스를 보고 난 후 아름다웠던 드레스 생각에 그 생각만 하게 되는데, 거기다 드레스의 주인은 찾으러 오지 않게 되자 소양이는 그 드레스를 주인이 가져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마저 하게 된다.

어머니가 만든 진주가 잔뜩 달린 드레스를 입고 자신의 토요일 생일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는 소양이의 소원은 이뤄질까? 어머니가 젊었을 적 드레스를 만드는 일을 다시 하게 되고, 드레스의 주인인 가게 주인아저씨의 선택 같은 것에서 이 책의 의미는 큰 것 같다. 거기에 드레스를 가지고 싶다는 소양이의 바람까지. 어머니는 비싸고 시간만 오래 걸려 사람들이 찾지 않게 된 수제 드레스를 다시 제작하기 시작하면서 즐거움을 얻었고, 소양이는 여태껏 가지고 싶은 드레스 하나 없었던 어머니의 가게에서 처음으로 정말 가지고 싶은 드레스가 생겼다.

이 책은 그런 소양이의 심리상태를 적극적이고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웃음을 주는 작은 요소인 것 같다. 어머니에게 자신의 생일을 맞아 진주 드레스를 가지고 싶다는 것을 표현하는 부분에서 그런 요소들이 드러난다. 소양이의 솔직함 후의 일이 걱정되기도 하다가도 후에 나오는 어쭙잖은 소양이의 걱정들에 웃음이 나오는 것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처지에서 존댓말로 독자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소양이의 마음들이 더 잘 표현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면에서 이 책은 소양이의 솔직함에서 오는 사랑스러움으로 읽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중간 중간 포함된 그림들에서는 당시의 상황이나 소양이의 상상들을 더욱 실감이 나게 독자의 생각으로까지 옮기기에는 어렵지 않으며 이해를 더 쉽게 한다. 이 책은 소양이 또래의 아이들부터 다른 연령대의 독자들이 읽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또래 아이들이 읽었을 때의 효과는 소양이의 마음을 공감하기 쉬운 것이며 다른 연령대의 독자이라면 이 책을 읽고 충분히 소양이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난생 처음 히치하이킹

김아영 글, 서영아 그림 문학과 지성사, 2017.

163p. : 삽화 ; 22cm.

ISBN : 9788932030067 : 10,0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수원시 태장마루도서관 (아 808.3 문78□ v.146)

초등고학년 ~

📍 입양아에 대한 관심이 있는 어린이 / 자신의 가정 환경이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어린이



난생 처음 가출

이연수 (수원시 태장마루도서관 사서)

엄마의 직장 문제로 아빠와 잠시 떨어져 미국 일리노이 주의 작은 시골 물린으로 오게 된 준하는 같은 반에서 만나게 된 한국인 입양아 베니를 알게 된다. 한국을 떠나 말도 낯설고, 사람도 낯선 준하에게 학교생활은 녹녹치 않다. 그런 준하를 위해 베니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히는 친구로부터 도와주기도 하고,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필기된 노트를 주기도 한다. 준하 또한 한국말을 배우려는 베니를 위해 한국말을 가르쳐주며 서로에게 의지한다.

베니에게는 어릴 때 각각 다른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이름도 얼굴도 생각이 안나는 누나가 있다. 커가면서 누나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가면서 누나를 찾기 위해 노력하던 중 누나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된다. 누나를 찾고 싶지만 양부모님은 허락하지 않아 누나를 찾으러가는 것은 힘든 일이다. 베니에게 도움을 받기만 하던 준하는 베니가 누나를 만날 수 있게 샌프란시스코로 함께 찾으러 가고 제안을 한다. 마침 준하네 옆 집에 사는 흑인 엠마 아줌마가 샌프란시스코로 잠시 다녀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니와 준하는 몰래 엠마 아줌마 트럭 뒷 칸에 숨게 된다. 누나를 찾으러 가기까지 평탄하지 않은 사건과 이야기는 책을 읽는 내내 아

이들의 엄마가 되어 걱정스러운 마음을 갖게 하며 읽게 된다.

과연 그 큰 미국 땅을 횡단하는 베니와 준하가 누나를 만날 수 있게 될까? 책을 읽는 내내 사건의 연속은 걱정과 안도를 교차시키며 읽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내내 조마조마하게 한다.

이 책은 제 13회 마해송 문학상 수상작으로 이 책의 저자 김아영씨는 이 작품을 시작으로 작가로서 첫 발을 내딛은 신인 작가이다. 신인 작가이지만 문학상 수상작답게 탄탄한 줄거리와 세심한 인물 묘사는 책을 읽는 동안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게 만들어 앞으로의 작품도 기대하게 된다. 사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동화는 많지만 해외에 입양된 한국인에 대한 동화는 많지 않기에 동화의 소재가 참신한 점도 눈길을 끌지만, 입양에 대한 생각을 아이들에게 언급하고 설명하기엔 다소 가볍지 않은 소재이기도 하다.

입양, 6.25전후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생긴 고아들이 입양아의 대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전쟁이 끝났음에도 해외 입양비율이 여전히 높다고 한다. 왜 그럴까? 그건 미혼모들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며, 또한 미혼모들이 스스로 아이를 양육할 수 없게 아직은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환경이 한국은 안정화 되지 않아 외국으로 많은 아이들이 아이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입양이 된다. 많은 입양아들은 편견과 성장통을 잘 이겨낸 아이들도 있지만 몇몇은 안타깝게 성장하는 아이들도 있다.

그런 아이들을 염두에 둔 것일까? 작가는 엠마 아줌마를 통해 ‘부모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될 지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거’라고 힘을 낼 수 있는 의미를 전해준다.

내 동무 리구철!

박영옥. 심어린이. 2016.
ISBN : 979-11-875-8000-3
동화책
초등중(3~4)학년



내 동무 리구철!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올해는 분단 72주년이 되는 년도이다. 분단 이후 수많은 시간이 지났고 강산이 바뀐다는 10년 또한 7번이 지나갔다. 한 사람이 아이에서 노인이 되기까지의 긴 시간이며 실감조차 나지 않는 세월이다. 우리는 그동안 길고 긴 이별을 해왔고 지금 또한 그러하다. 사람들은 아직도 이산가족의 슬픔을 느끼며 서로를 그리워하고 아파한다. 이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지만 통일은 쉬운 것이 아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 이별과 함께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분단과 이산가족들의 아픔 또한 통일로써 해결되어 없어졌으면 한다.

서울에 사는 흥시기가 멀고 먼 개성까지 멀미를 이겨내면서까지 생떼를 쓰지 않고 암전히 따라오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구철이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방학이 먼 고모할머니 댁으로 향하는 흥시기는 멀미가 심해서 구불구불한 산 고개를 넘고 논과 밭을 지나야 해서 어지럽고 속이 울렁이게 하는 먼 개성까지 오는 길이 힘들었다. 또 그곳에서 하룻밤이라도 자야 하는 날이라면 냄새나고 오물이 가득 찬 화장실은 더 더욱 싫었다. 그렇게 힘든 일 투성이인 고모할머니 댁이라도 흥시기가

언제나 별말 없이 따라오는 이유는 바로 구철이 때문이었다. 개성에 사는 구철이는 언제나 홍시기와 재밌게 놀았다. 홍시기의 서울 친구들과는 조금 달랐지만 홍시기와는 친하게 지냈고 둘만의 아지트도 있었다. 하지만 아지트에서의 놀이 도중 홍시기와 구철이는 작은 다툼을 하게 되고 제대로 화해도 못한 채 서울 집으로 돌아가고 만다. 다시 추석이 되고, 개성 가는 길에 통일되지 않았다면 구철이를 영원히 보지 못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면서, 기분이 이상해 졌다. 홍시기는 구철이를 서둘러 찾는다.

이 책은 아직도 통일이 되지 않은 우리나라 한국이 통일이 됐다면, 하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그 상상 또한 참신하며 서울과 개성에 사는 아이들이라는 완전히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아이들이 통일이 됐다면 만날지도 모르고 아주 절친한 친구가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게 한다. 책 속에서 구철이와 홍시기는 친한 친구가 되며 서로 조금은 놀이 방법이 다르지만, 각자에게 맞추어가며 함께 어울린다. 우리가 실제로 통일이 됐다면 지금쯤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며 아이들의 순수한 우정이 하여금 보는 이들을 웃음 짓게 만든다.

우리는 72주년이 되도록 통일은커녕 관계완화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통일에 힘쓰고 있으며 계속하여 더 노력하고 도전한다면 우리는 통일을 하여 정말 이 책의 내용같이 기차로 서울에서 개성까지 갈 수 있게 되며, 개성에 있는 친구도 사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한다.

네모돼지

김태호 글, 손령숙 그림. 창비, 2015.

117p. : 삽화 ; 23cm.

ISBN : 978-89-36442-82-8 73810 : 9,8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시흥시 정왕어린이중앙도서관(아808.9 창48초)

초등저학년 ~ 초등고학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책



동물들의 눈에 비친 세상은?

엄정란 (시흥시 정왕어린이도서관 사서)

2013년 제5회 『창비어린이』 신인문학상을 받으며 등장한 신예작가 김태호의 첫 동화집 『네모 돼지』는 총 일곱 편의 동화로 구성되어 있다. 동화 속 동물들은 인간과 같이 즐거움, 슬픔, 분노와 같은 감정을 가진 주체로서 각자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본 인간의 모습과 세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1편의 「기다려!」는 버려진 개가 주인공으로, 주인을 형으로 표현해 인간세계와 같은 친근감을 살렸다. 주인공은 “기다리고 있어! 형 갔다 올게!”라는 말만 믿고 집에서 하염없이 형을 기다린다. 나중에 형은 잠시 집에 돌아오지만 주인공 몸에서 털이 한 움큼 빠진 것을 보고 “기다려”란 말만 하고 도망치듯 매몰차게 떠난다. 동물들 간의 대화에서 공기 속에 나쁜 것이 섞여 버렸다며 사람들이 떠나고 주인공 몸에서 털이 한 움큼씩 빠지는 장면을 보면, 일본 대지진 속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주변 마을이 떠오른다. 필요에 의해 선택되고 버려지는 동물의 시선에서 인간의 이중성을 비판한 것이다.

2편의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들의 자유를 향한 열망을 표현한 「소풍」, 3편의 고양이를 버리는 현 세태를 풍자한 「고양이를 재활용하는 방법」, 4편의 분홍빛 냉장고처럼 생긴 「네모 돼지」, 5편의 풍선처럼 하늘을 날게 된 개에 대한 이야기 「나는 개」, 7편의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나타난 호랑이에 대한 「어느 날 집에 호랑이가 찾아왔습니다」 등 과감한 상상력을 통해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곱 편의 동화를 담았다. 이야기마다 동물의 눈에 비친 세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그려 냈다.

이 중 표제작인 「네모 돼지」는 철로 된 네모 상자에 갇혀서 키워지는 돼지들과 천국으로 가는 법을 알려주는 둥그런 돼지 오스터의 이야기이다. 오스터는 책을 읽을 줄 아는 유일한 돼지였는데 인간들이 오스터를 통해 돼지들을 살찌워서 결국은 높은 가격을 받고 팔게 하고자 하는 수단이었다. 오스터가 인간의 추악한 행태를 알고 결국은 돼지들에게 농장을 탈출해 숲으로 갈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것은 그가 늘상 이야기했던 천국으로 가는 길이었다. 벽돌처럼 포개 튼튼한 탑을 만들어 천국으로 가는 문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작가의 기발한 상상력이 놀랍다.

작가는 인간의 동물의 갈등에서 동물들이 약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에 주저앉지 않고 주체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그려냈다. 흔히 볼 수 있는 동화 속 동물들 이야기가 아니라서 더 신선하게 느껴진다.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고학년들까지 무난하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이 동물학대와 동물유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보며 인간의 이기심에 대해 많이 반성할 수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가정 아이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싶다.

누나라고 부르지 말랬지!

고정욱 글, 김이조 그림. 뜨인돌어린이, 2016.

ISBN : 978-89-58076-17-9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초등저학년



누나라고 부르지 말랬지!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우리 주변에는 다양하고 각기 다른 사람들이 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까지 수십억의 인구가 살아가는 지구에 사람들은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 어떠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의 대처 방법까지 모두 다 제각각이며 다른 결과를 불러온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좋을 수는 없을 것이다. 좋거나 매우 나쁘거나 아니면 조금의 감정도 없거나. 이렇게 관계가 매우 좋지 않은 경우는 대개 보통은 자신과의 생각이 맞지 않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과 겉모습 등이 달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런 다양한 경우에서 우리는 타인과의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한다. 자신과 생각이나 겉모습 등이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수많은 차별중 빈번하고 자연스레 일어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다룬 책이 바로 『누나라고 부르지 말랬지!』이다.

이 책은 주인공인 조해는 초등학교 2학년인 9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 그 이후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 2년 후 할아버지의 유언으로 인해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되면서 시작된다.

조해는 교통사고로 인해 팔다리가 부러졌을 뿐만 아니라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아픔까지 겪고 있다. 어느 날 집에서 요가를 하며 재활치료를 하던 중 할아버지가 임종 직전이라는 전화를 받고 할아버지를 뵈러 병원에 갔다. 그곳에서 조해는 다시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다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듣는다. 그로 인해 조해는 다시 학교를 다니게 된다. 다시 간 학교에서는 대다수의 아이들은 좋은 반응이지만 꼴렁 삼총사인 종현이, 우석이, 준호는 조해를 괴롭힌다.

이 책에서 조해는 꼴렁 삼총사의 놀림과 괴롭힘에도 굴하지 않고 미술시간에는 자신이 보이는 것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그린다면, 급식에 후추와 소금을 뿌려놓는 장난에도 꾀꿉이 먹는 등 당당하게 맞선다. 그런 부분에서 책이 아닌 현실에서도 이렇게 심한 장난들이 실제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의 차별과 억압 속에서 주눅이 들고 움츠러들기 마련이지만 그런 차별들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생각하며 자신감 있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조해의 모습은 당당하고 멋있어 보인다.

종현이와 우석이, 준호가 조해를 괴롭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남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였고, 자신과 남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되돌아 보게 된다.

나중에는 조해를 장난치고 놀리기만 좋아했던 종현이가 교통사고가 나면서 조해의 상황을 이해하고 조해에게 사과를 구하는데, 이유 없이 당하기만 했던 조해는 화가 나고 짜증이나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법도 한데, 조해는 그것을 아직 아이들이 남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누나라고 부르지 말랬지!”라며 시원스레 사과를 받아주는 장면은 통쾌하기까지 하다.

이 책은 아직은 자신과 다른 남을 이해하는 것이 서툰 아이들에게 추천하여 본 책으로 인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 잘될 거야

기르스텐 보이에 글, 안 비르크 그림, 유명미 옮김. 책빛, 2016

61p. : 천연색삽화 ; 19×24cm.

ISBN : 978-89-6219-233-9 : 12,0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아동 853-보68다)

초등 고학년

전쟁, 내전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할 때 참고문헌으로 사용



모두 다 잘 될 거예요

김세롬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사서)

『독일 아마존 어린이』에 최장기간 베스트셀러였고 독일 최고 권위의 잡지인 『슈피겔지』에 베스트셀러로 선정된 이 책은 시리아에 살던 라하프네 가족이 실제 겪은 전쟁의 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인칭 시점에서 전쟁의 참혹함, 쓸쓸함, 비참함을 담담한 구어체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책을 읽다보면 마치 백발의 할머니가 제 옆에서 조곤조곤 나지막한 목소리로 들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책의 마지막 장이 넘어갈 때 짝 가슴이 먹먹해져 오는 이유도 주인공의 경험이 저의 경험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이 이야기는 시리아내전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전쟁’이라는 단어와 그리 먼 사이는 아니지요.

남한과 북한 사이에 38선을 가운데 두고 종전(終戰)이 아닌 휴전(休戰) 상태에서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깐요. 우리 눈앞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또 어떻게, 얼마나 달라질까요? 이 책의 주인공인 라하프를 통해 전쟁의 아픔을 대리 경험해볼 수 있습니다.

상처로 가득한 시리아에서의 삶

시리아에 사는 라하프네 가족은 4층짜리 집에서 할아버지 내외와 삼촌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대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습니다. 학교를 가면 정다운 친구들이 있고, 집에는 개구쟁이 또래 사촌들이 있어 언제나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수시로 방공호에 대피하기 일쑤이고 하늘에 검은 전투기가 날아다닙니다. 하늘 아래 땅을 밟고 서 있는 아이들은 옹기종기 모여 놀다가도 전투기가 뜨고 총알이 여기저기서 날아오면 혼비백산한 얼굴로 두려움에 떨며 집으로 죽을힘을 다해 뛰어갑니다. 라하프의 동생 하산은 골목에서 친구들과 축구하는 것을 즐기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산발적인 내전이 시작된 후부터는 더 이상 축구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산에게는 다른 취미가 생겼습니다. 길거리에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탄피를 모으는 것이지요. 이런 하산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부모님은 결심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전쟁 통에서 벗어나기로 말이죠.

평화를 찾아 떠나는 험난한 길

라하프네 가족은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로 간 후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향합니다. 이탈리아로 향하는 작고 낡은 배에는 300명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모두 다 라하프네 가족처럼 피난을 떠나는 길입니다. 좁은 배 안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8일을 버텨 이탈리아에 도착한 라하프 가족은 다시 프랑스로, 독일로 떠납니다. 독일로 떠나기 위해 기차를 기다리는 라하프 가족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닥칩니다. 돈이 없는 라하프네는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몰래 기차를 타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다 검표원에서 들키고 만 것이죠. 라하프의 아빠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ですよ.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가족의 안위가 우선이었던 아빠는 라하프와 그의 동생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라하프 아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수군대며 쳐다보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하늘이 도왔는지 검표원은 라하프네 가족의 상황을 십분 이해하고 무임승차를 하도록 눈감아줍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딱하고 안쓰러웠기 때문이겠죠. 우여곡절 끝에 독일에 도착한 라하프 가족. 이제 그들에게도 따뜻한 봄이 찾아올까요.

모두 다 잘 될 거예요

독일에 도착한 라하프네는 임시거처가 마련되었습니다. 시리아에서 살던 집만큼 좋지는 않았지만 씻을 수 있다는 것에 라하프는 감사했습니다. 3개월 후 옮긴 임시거처에서는 라하프가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어를 모르는 라하프는 그리 즐겁진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엠마라는 친구가 라하프에게 먼저 말을 건네옵니다. 독일어로 말을 하니 당연히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그녀가 라하프를 기꺼이 친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굳이 말로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 라하프가 독일에 온 지도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라하프는 엠마와 단짝이 되었고 독일어도 많이 늘었으며 수업시간에 발표도 잘하는 아이가 되었죠. 아직까지 아빠는 직장을 얻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라하프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겨울의 끝에 봄이 오는 것처럼, 시련의 끝에는 희망이 있을 거예요.



동지아파트 이사 대작전

폴라 셰어 글 ; 스탠 맥 그림 ; 김상호 옮김. 씨드북, 2017

33p. : 삽화 ; 29cm.

ISBN : 97-91-1605-105-2 : 12,0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아동 808.9-씨27신-51)

초등학생

이웃과 조화롭게 사는 법,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을 배울 수 있는 동화

아! 머리아픈 층간소음

김새롬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사서)

여러분은 층간 소음으로 이웃과 얼굴을 붉힌 적이 있나요? 이 책은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이라는 문제를 재미있게 다룬 책입니다.

곰곰씨의 잠 못 드는 밤

동지 아파트에는 서로 다른 6가족이 용기종기 모여 사는 3층 집입니다. 1층에는 곰곰이네 가족과 그 맞은편에는 고양이 여사가 살고 있습니다. 2층에는 짹짹이네 가족과 꿀꾸르네 가족, 마지막 맨 꼭대기 3층에는 부엉 영감과 갓 결혼한 쾅거루 커플인 루루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잠을 자는 시간, 먹는 것, 하는 행동 등 공통점 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은 친구들입니다. 서로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진 동물들이 한 지붕 아래 같이 산다는 것 자체부터 층간소음문제는 예견된 것 일수도 있겠습니다.

곰곰이네는 내년 3월까지 겨울잠을 잘 생각입니다. 겨울잠을 길게 자기 위해 저녁밥을 든든하게 먹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옆집에 사는 고양이 여사가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란 곰곰씨네 가족은

동지아파트의 주인인 부영 영감의 집에 찾아갑니다. 밤늦은 시간에 부영 영감의 문을 두드리는 곰곰씨의 소리에 놀란 부영 영감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어서 곰곰씨의 불평불만이 이어집니다. 자신의 겨울잠을 방해하는 고양이사 때문에 못살겠다고 말이죠. 부영 영감은 2층의 돼지가족인 꿀꾸르네와 집을 바꾸라고 설득합니다. 마음씨 착한 꿀꾸르네 가족은 곰곰이네 가족에게 선뜻 집을 내어줍니다. 늦은 밤, 이삿짐을 옮기는 소리에 동지 아파트가 소란스럽습니다. 밤인지 낮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머지않아 조용해진 아파트 1층에서는 꿀꾸르네 가족이 늦은 저녁밥을 짓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맞은편에 살던 고양이사가 소리를 지릅니다. 2층으로 이사한 곰곰씨네도 위층에서 캥거루네가 뛰는 소리에 놀라 씩씩 거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고양이사와 곰곰씨가 부영 영감네로 향합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도저히 못살겠다고 말이지요. 부영 영감은 고요한 밤을 만끽하다가 또다시 봉변을 당한 셈입니다. 이번에도 부영 영감은 좋은 생각을 떠올립니다. 부영 영감의 제안으로 캥거루 가족은 2층의 짹짹이네로, 짹짹이네는 1층으로, 꿀꾸르 가족은 부영 영감네로, 꿀꾸르 가족이 살던 집에는 고양이사가 이사를 왔습니다. 이번에는 모두 다 만족스러운 밤을 보낼 수 있을까요?

부영 영감의 지혜가 다시 한 번 필요한 순간

이제 세입자들의 불평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부영 영감은 쉼쉼 잠이 들었습니다. 이미 잘 시간이 넘었지만 그래도 세입자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되었다고 생각하는 마음씨 좋은 부영 영감입니다. 그런데 웬걸, 이번에는 짹짹 선생 가족이 맞은 편 집에 살던 고양이사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뛰어 옵니다. 여러분도 애니메이션 『톰과 제리』를 보았다면 고양이와 쥐는 서로 친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겁에 질린 짹짹 선생 가족은 당장 방을 바꿔달라며 부영 영감을 깨웁니다. 곰곰씨네 역시 맞은편에 살고 있는 캥거루 가족이 뛰는 소리에 잠을 잘 수 없다며 부영 영감에게 하소연 합니다.

부영 영감의 지혜가 다시 한 번 필요한 순간입니다. 부영 영감의 조언에 따라 다시 이사를 하는 동물가족들. 그런데 이번에는 부영 영감이 시끄러운 소리에 잠을 자지 못하겠다고 아파트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릅니다. 1층에서 지른 소리가 3층까지 들릴 정도로 아주 큰 소리로 말이지요.

부영 영감은 세입자를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누가 어떤 곳으로 이사를 가야 이 지긋지긋한 소음 문제가 해결될지 저마다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눕니다. 각자의 이야기에 서로 존중하며 귀 기울이다 보니 부영 영감의 머릿속에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역시 인생을 오래 산 부영 영감의 지혜는 따라올 동물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사입니다. 부영 영감의 진두지휘 아래 마지막 이사를 시작하는 여섯 동물가족.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이사겠지요?

다시 찾아온 등지아파트의 평화

자, 여러분 각자 생각해봅시다. 부영 영감은 어떤 해답을 내놓았을까요? 쥐는 고양이를 무서워하고, 부영이와 곰은 작은 소음에도 진저리를 칩니다. 캥거루 가족은 긴 다리로 매일매일 방에서 땀박질을 하고 고양이는 밤낮없이 피아노를 칩니다. 여섯 동물이 한 지붕 아래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어떤 동물이 몇 층으로 이사하는 것이 좋을지 친구와 상의해 보세요. 아마 다양한 해결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해결책은 모두 다 정답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다행히도 큰 다통 없이 평화롭게 층간 소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뉴스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시비가 붙었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 있지요. 많은 친구들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층간 소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등지 아파트처럼 쉽게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이 있을지 저마다 생각해보고 친구와 이야기 나누어 보길 바랍니다.

마녀를 잡아라

로알드 달 글 ; 키티 블레이크 그림 ; 지혜연 옮김. 시공주니어, 2016.

281p. : 삽화 ; 21cm.

ISBN : 978-89-527-5581-0 74840 : 7,5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군포시 산본도서관 (아808.9 시15사)

초등학교 5학년 이상

📖 동화속에 등장하는 마녀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을 해결해 줄 수 있음



마녀를 소탕한 생쥐!

엄정란 (시흥시 정왕어린이도서관 사서)

동양의 동화에서는 흔히 귀신이 등장하지만 서양의 동화에서는 마녀가 등장한다.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귀신이나 마녀보다는 이와 반대로 사람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이들 존재이다.

이 책은 평범한 권선징악이나 해피엔딩 스토리가 아니다. 저자는 어린이들에게 마녀를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는데 작가 특유의 유쾌함과 기막힌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특히 마녀에 대한 세세하고 조금은 억지스러운 묘사가 흥미를 주고 마치 실제로 존재할 것만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야기의 시작은 좀 슬프게 전개된다. 영국에 사는 부모님과 아이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노르웨이에 사는 외할머니를 뵈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아이만 남는다. 주인공은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다음, 할머니와 단 둘이 살게 된다. 할머니는 얼토당토한 이야기 같지만 마녀에게 손자가 잡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마녀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준다. 할머니가 알고 있는 마녀에게 희생된 다섯 명의 아이 이야기부터 마녀를 구별하는 6가지 신체 특징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정말이지 마녀들이 그런 말투와 생김새를 갖추고 있을 것만 같다.

할머니는 각 나라별 마녀들의 비밀조직이 있고 1년에 한번 여왕마녀가 참석하는 비밀집회가 열린다는 사실. 그리고 마녀를 소탕하는 전담반까지 있다는 얘기를 해 준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은 할머니와 함께 떠난 여행지에서 마녀들의 정기총회를 우연히 엿보게 된다. 할머니가 말씀하신 내용이 옳았다는 것을 안 순간, 소년은 어느새 마녀들에게 들켜 생쥐로 변하게 되는 위기를 맞는다. 하지만 기지를 발휘, 무 히 탈출해 할머니에게 돌아가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한다. 친구인 브루노도 생쥐가 되고 영국에 있는 어린이들을 싹 다 생쥐로 만들어 버릴 정도의 치명적인 약을 마녀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이다. 할머니는 예전에 마녀 퇴치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잘 알았다. 할머니와 소년은 마녀들을 생쥐로 만들어 버릴 기막힌 계획을 세운다.

소년은 생쥐가 된 장점을 잘 활용해 총회에 참석한 마녀들은 싹 생쥐로 만들어 버렸다. 노르웨이에 돌아간 할머니와 소년은, 계속 생쥐로 살아가야 하는 소년의 상황에 실망하지 않고 여왕마녀의 본부를 추적해서 새 여왕이 사는 성을 알아내 마녀를 소탕할 제2의 계획을 짜게 된다. 생쥐가 된 주인공이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새롭게 희망을 품은 모습이 예상치 못한 결말이었다.

하지만 속편을 기대하게 될 만큼 열린 마무리였다고 생각이 든다. 마녀에 대한 호기심을 충분히 충족시켜주었으리라 보고 주제가 참신하고 전개가 지루하지 않아 초등고학년이 읽기에 적합할 것이다.

민서와 함께 춤을

이승민. 보림출판사. 2016.
ISBN : 9788997367771
동화책
초등고학년



민서와 함께 춤을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현대 사회에는 수많은 직업이 존재한다.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고민하며 자신의 직업 선택을 인생의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 직업을 가지는 방법은 그 종류만큼이나 방법 또한 다양하다.

사람들이 이 직업이란 것에 대해서 계속하여 고민하는 이유 중 하나에는 자신이 정말 좋아해서 하고 싶은 직업과 자신의 편안한 미래와 노후를 위한 직업. 이 둘을 가장 많이, 그리고 깊게 고민하지 않나 싶다.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 내가 되고 싶은 직업,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직업,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 등등 우리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기 나름이다.

이번에 소개하려고 하는 ‘민서와 함께 춤을’의 주인공 민서는 언제나 바쁜 직장인 부모님 아래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 뭔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며 살아간다. 하지만 어느 때와 조금 다른 어느 날 우연히 학교 운동장에서 발

견한 노란색 구두로 민서의 생각들은 바뀌게 된다. 노란 구두만 신으면 자신이 아는 춤들을 잘 추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 민서는 춤추는 것이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같은 반 친구와 춤 연습도 참을성 있게 하는 장면에서는 민서가 그저 춤을 잘 추게 되는 마법의 노란 구두 때문이 아니라 정말 춤추는 것 자체가 즐거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서는 노란 구두로 자신의 적성을 알게 되고 부모님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며 꿈을 키워보려는 노력도 시도한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청소년들의 진로 고민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책 내에서는 가볍게 이야기를 풀어 나갔지만 담고 있는 이야기는 그리 가볍지 않다는 것 또한 느꼈다. 자신의 적성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없이 그저 안정적인 직업 또는 편안한 직업만 찾는 세대가 바로 미래를 이끌어갈 지금의 청소년 세대이다.

책의 주인공 민서로 인해 알 수 있듯 사회적으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을 찾아 올바른 진로를 찾아 나가도록 애쓰며 진로교육 등을 늘리고 있지만 아직도 아이의 학부모 중 대다수는 자신이 아이를 생각하는 만큼 아이가 안정적인 직업만을 가지기를 꿈꾼다. 민서의 부모님 또한 그런 부모님이라고 볼 수도 있다. 민서가 생일선물로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 발레 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그저 생각해볼 필요도 없다는 듯 책들만 주구장창 선물해 주는 것은 학생의 진로를 그저 성공의 길로만 보는 학부모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온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부모님이 있지만 민서는 꾸준히 연습도 하여 작은 오해도 있었지만 노란 구두 또한 버리게 된다.

민서가 자신의 실력 그대로를 키워 나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나는 이 책을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길 초등학교 고학년 민서의 나이쯤 아이들에게 추천한다.

별나라 마트 습격 사건

김경민. 밝은미래. 2016.
ISBN : 9788965462453
동화책
초등저학년



별나라 마트 습격 사건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고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부모님, 그중에서도 주로 밖에서 돈을 벌어 오시는 일을 하는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에게 얼마나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며 좋은 관계를 맺는 편일까? 대다수의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일이 적고, 인색한 편이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부모님 전체에게 속을 내비치지 않는 자녀도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바깥일을 하시는 아버지와 어색한 경우가 많다. 언제나 자신의 가족들을 생각하며 힘든 일에도 노력을 다하시거나 자기 일에 온 힘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잘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직접 실천하지는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옳은 것일까? ‘별나라 습격 사건’이라는 책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떠나보낸 이야기를 아이들을 관점에서 풀어낸 책이다.

올해 2학년인 한별이네 엄마는 ‘별나라 마트’라는 가게를 운영하신다. 원래는 부모님 모두 같이 운영하셨던 가게이지만 아빠가 돌아가신 뒤로는 엄마 혼자서 꾸려나가고 계신다. 그러던 어느 날 별나라 마트에 도둑 아닌 도둑이 들고 만다. 그것도

단팥빵만 노리는 이상한 도둑. 아빠가 유독 좋아하셨던 단팥빵만 파먹고 도망가는 도둑이 한별이는 희한하다는 생각이 든다. 계속해서 잡히지 않는 도둑에 잠복근무도 해보고, 범인의 발자국도 추측해 보고, 구멍이란 구멍은 다 막아 봐도 잡히지 않던 도둑이 카메라에 잡혀 들통이 나고 만다. 범인은 하얀 족제비. 한별이는 아빠의 흰 머리를 생각하며 더욱더 아빠를 떠올린다. 그렇게 잡은 하얀 족제비를 팔려고 하는 옆 가게 팔봉 아저씨에게서 하얀 족제비를 지키기 위해 한별이는 하얀 족제비를 구하려는 방법들을 찾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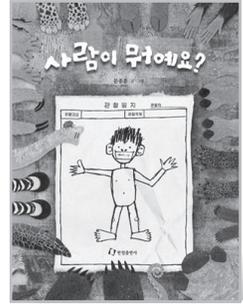
돌아가신 아빠를 하얀 족제비라는 동물에서 떠올리는 한별이가 나이다운 순수함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닐 걸 알면서도 아빠가 좋아했던 음식들을 좋아하고, 아빠의 습관들을 가지고 있는 하얀 족제비에게 아빠가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한별이가 결국에는 하얀 족제비를 팔봉 아저씨에게서 구해서 누나와 도망치는 장면을 보면 결국 한별이는 하얀 족제비가 아빠라고 확신했다는 생각이 든다. 후에도 계속 하얀 족제비를 아빠라고 부르며 애지중지 다루기 때문이다. 한별이가 더욱 아빠라고 믿는 하얀 족제비에게 집착하는 것은 아빠의 마지막 순간을 한별이가 거짓말을 하고 지키지 않아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믿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것에서는 한별이가 솔직하게 누나에게 말하고 털어놓는 장면에서는 한별이가 하얀 족제비를 구하기 위해 했던 노력까지 모두 이해가 된다는 것이다.

결국, 한별이는 우리에게 위치 추적기까지 달아놓은 팔봉 아저씨를 피해 도망쳐 멀리 있는 산에 하얀 족제비를 방사해준다. 그 부분은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까지 뿌듯함을 주기에 충분하며 이 책의 숨겨진 주제까지 확실히 한다.

이 책은 어린아이에게도 좋지만, 두께가 조금이라도 있는 만큼 초등학교 고학년의 아이가 읽는 것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다.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리며 하얀 족제비를 구하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은 어린아이의 가벼운 생각보다 이러한 사건을 겪으며, 자기 자신의 감성과 생각을 돌아보고 되고, 성장해 나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뭐예요?

문종훈 글, 그림. 한림출판사, 2016
46p. : 삽화 ; 27cm.
ISBN : 9788970948683 : 13,0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아동 499.9-문75사)
초등학생



사람이 뭐예요?

김세롬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사서)

이 책은 다양한 동물들이 ‘사람’을 주제로 관찰한 관찰일기입니다. 매년 여름방학이면 학교 선생님께서는 으레 관찰일기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여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곤충인 매미를 가지고 관찰일기를 썼지요. 매미의 생김새, 매미의 울음소리, 사는 곳 등 매미의 여러 가지 특징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실제로 매미를 채집하여 집에서 키워보기도 하면서 ‘매미가 이렇게 신비로운 곤충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이 책에서 ‘사람’을 관찰하는 동물들도 사람의 생김새, 신체구조, 살아가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가며 ‘사람이 이렇게 신기하구나.’라며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동물들의 관찰일기를 읽으며 내가 알고 있었던 나의 모습, 내가 모르고 있었던 나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침팬지와 기린이 그린 사람관찰일지

어린이들이라면 글씨가 많은 책보다 그림이 많은 책을 더 선호합니다. 도서관에 있는 많은 책 중에서 학습만화책이 여느 책보다 너털너털하다는 것을 보면 그러하

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이 책을 펴면 칠판지가 사람에 대해 탐구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소 우스꽝스럽게 그린 사람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합니다. 눈이 두 개, 배꼽은 땃줄의 흔적, 손톱과 발톱은 얼마나 자라는지 등을 글자가 아닌 그림으로 배울 수 있어 재미있습니다. 기린이 그린 관찰일지는 조금 무섭습니다. 우리도 병원에 가지 않는 이상 들여다보지 못하는 몸 속 모습을 관찰하여 그렸습니다. 심장, 뼈, 근육 등등 사람의 신체구조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적어주었습니다. 칠판지와 기린의 관찰일지를 참고한다면 여러분도 쉽고 재미있는 관찰일지를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멜레온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피부색은?

상황에 따라 몸의 색이 자유자재로 변하는 카멜레온이 사람의 피부색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피부색이 왜 다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저도 어렸을 적에 한국인은 황인종, 미국인은 백인종, 아프리카인은 흑인종 이라고 막연히 3가지로 분류한 사람의 피부색에 대해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과 같은 단어는 차별적인 단어라고 해서 쓰지 않지요. 크레파스에 ‘살색’이 ‘살구색’으로 바뀐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사람들 중에는 피부가 하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기도 하구요. 얼마 전 보았던 미국 영화의 주인공의 피부가 검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피부색이 저마다 다른 이유는 그 지역의 날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밝은 피부는 햇빛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추운 곳에 적합하고, 어두운 피부는 햇빛을 적게 흡수해서 더운 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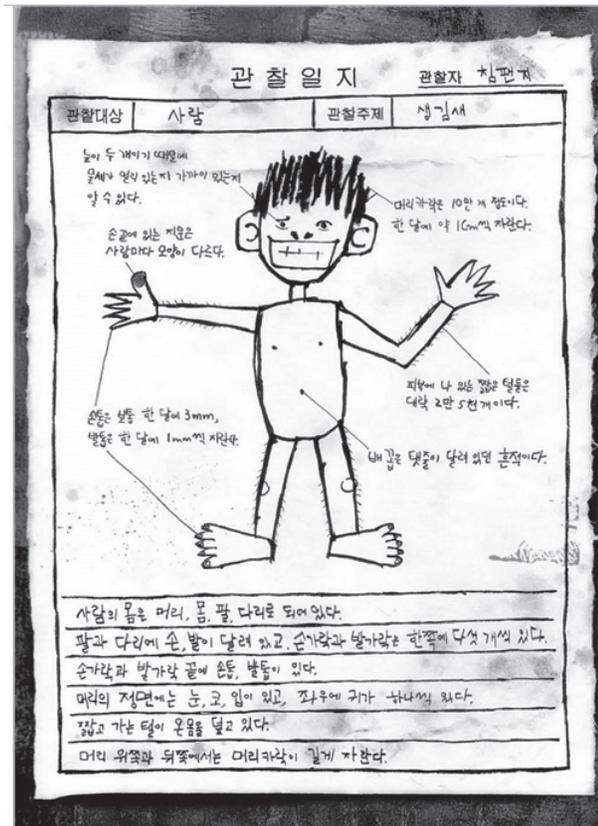
그 밖에 신비로운 사람의 생활모습

사람의 성장, 의식주, 의사소통방법 등을 설명하며 다른 동물, 곤충 등과 비교한 설명을 재미나게 곁들였습니다. 사람에 대한 것 보다 각종 동물들에 더 관심이 갈 정도니까요. 이 책에 등장하는 동물 중 흥미롭게 느껴졌던 동물을 하나 선정해서 본인만의 관찰일지를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0년 후, 미리 써보는 사람관찰일지

사람이 태어나기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지구상에는 많은 동물들이 살았습니다. 지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닌 셈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인 행세를 합니다. 동물을 포획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땅을 빼앗기 위해 전쟁도 서슴지 않습니다. 동물들의 사람관찰일지 중 일부는 저러합니다. 그래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지구와 지구상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적혀있습니다.

50년 후에는 동물들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지금 우리들이 지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내용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평가받고 싶은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춘기 가족

오미경 글, 조승연 그림 한겨레아이들, 2012.

215p. : 삽화 ; 크기cm.

ISBN : 978-89-8431-590-7(73810) : 9,0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성남시 중앙도서관 (아 808.9 ㄴ77ㅎ 25)

초등학생

📖 **맞벌이 부부(특히 직장맘) / 왕따를 도와주고 싶은 학생**

나 자신에게 예의 지키기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사춘기가족』은 2012년 한국도서관협회 우수문학도서로 선정된 작품으로 초등학생 서단오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단오에게는 치매에 걸린 할아버지, 남편 병수발과 살림을 도맡아하는 할머니,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는 소설가 엄마, 자신의 감정에 따라 집 밖을 떠도는 사진작가 아빠가 있다. 집이 시골로 이사하면서 단오는 전학을 가지만 예전에 다녔던 학교에서처럼 다시 왕따가 된다. 이제 그녀 곁을 지키는 것은 짝꿍 마루와 강아지 단월, 고양이 단비이고, 가족들은 자신의 앞가림에만 충실할 뿐 단오의 학교생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루하루 힘들게 학교를 다니던 중 마루의 도움으로 용기를 낸 주인공은 친구들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며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된다.

소설 속의 등장인물들은 모두 개성이 넘치고 생동감이 있어 마치 우리 곁에 함께 있는 누구누구를 연상시킨다. 특히 ‘뒤바뀐 허수아비와 장승’, ‘해를 도둑맞은 할아버지’, ‘엄마랑 할머니의 콩깍지’ 등의 목차를 읽으면 작가가 설정해놓은 가족들의 성격에 대해서 쉽게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손님’과 관련된 세 개의 챕터(「목신과 함께 찾아온 손님」, 「초대받지 않은 손님」, 「가족손님 그리고 낫달」)와 「나 자신

에게 예의 지키기」는 가족관계와 왕따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먼저 저자가 ‘손님’에 대한 단어를 연거푸 언급하는 것은 가족 간에도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함을 알려주는데 이 점은 단오의 대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나는 손님방에서 혼자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수첩에 시도 썼다. 혼자 있으니까 정말 좋다. 할아버지, 아빠, 엄마가 집을 나가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가족은 가까워 좋을 때도 있지만, 어느 땐 너무 가까워 성가셨다. 너무 가까워 서로 예의를 지키지 않을 때도 많고.”

단오의 대사를 통해 아이들도 어른들처럼 독립된 인격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작가의 생각이 들어난다. 또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주인공에게 마루는 “애들이 널 함부로 하는데도 바보처럼 가만있지 말라고! 그건 너 자신에 대한 예의가 아니야.”라고 이야기 해준다. 그리고 엄마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자꾸 기대고 싶고 약해진단 말이야. 누구든 자기 문제는 자기가 헤쳐 나가는 거야. 아무도 대신해 줄 순 없어.”라고 말한다. 이렇듯 저자는 힘든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 스스로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상황과 맞서라고 이야기 해준다.

작품 속 주인공 엄마는 씩씩하지만 엉뚱하고, 늘 재미를 추구하는 명랑한 사람이다.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빠 앞에서는 쓴 소리도 하지만, 어린 딸을 집에 두고 가출을 하는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녀의 성격은 작품의 제목인 “사춘기”시기와 맞아떨어지며, 주인공보다 더 철없는 캐릭터로 등장한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포기한 친구에 대해, “개한텐 소설이 생명줄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런데 가정에, 시덕에 충실 하느라 그걸 놓아 버렸다니깐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거, 그게 가족들에게 명예를 씌우는 거라고요. 가족들이 평생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잖아요.”라고 말하며 소설가로서의 자신의 꿈을 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준다.

이러한 내용은 이 소설이 어린이문학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부모가 읽는다면 자녀와 함께 공감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부분으로 사춘기로 향해가는 초등학교와 사춘기를 넘기지 못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는 언뜻 가벼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묵직한 여러 주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어른이 되고 싶은)
사춘기 소녀의 성장일기

조 오스랑트 글. 거인. 2016.
ISBN : 978-89-6379-136-4
동화책
초등고학년 이상

사춘기 소녀의 성장 일기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간. 때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버거운 시간이 있다. 신체의 변화와 함께 많은 감정의 기복을 불러오는 그 시기. 바로 사춘기이다. 사춘기라고 하면 반항, 싸움, 감성, 변화 등등의 단어가 쉽게 연상되는데 이것은 바로 사춘기에 찾아오는 감정 기복 때문이다. 사전에서는 육체와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라고 하는 사춘기는 겉으로 보이는 변화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면의 생각에서도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사춘기 소녀의 성장 일기' 라는 제목을 가진 이 책은 바로 그 시기, 사춘기가 온 열 살 소녀 조에게 찾아온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평범한 소녀 '조'는 엄마와 남동생과 함께 바닷가에서 숙소를 잡고 휴양을 가게 된다. 휴양지에서 조는 자신에게 사춘기의 많은 변화가 온 것을 알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바닷가에서 만난 자신과 비슷한 또래의 소년 '병상'이 신경 쓰인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엄마가 직접 떠준 약간 따뜻한 줄무늬와 녹색의 수영복 팬츠가 마음에 들지 않으며, 세 번째는 백화점에서 산 것 같은 원피스 수영복을 입고 자신과 다

르게 우아한 르나타에게 부러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 책은 조의 심리를 잘 다뤄준다. 많은 변화 중에 하나인 조금 나온 가슴에 대해 이야기하는 어른들에게 화가 난 조는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알아채고 파란색에 하얀 땡땡이가 박힌 새로운 수영복을 사준 엄마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느낀다.

이 책은 제목처럼 이야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양하고 크게 변하는 조의 사춘기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새로운 인물을 만났을 때나, 상대방에 대한 작은 마음들까지 감정 변화를 솔직하게 나타내어 더욱 읽는 재미를 유발한다. 또래 소년 병상에 대한 설렘, 남동생 실리와와의 다툼에서 일어나는 분노, 르나타에 대한 부러움까지 사춘기 소녀가 느끼는 당연한 감정들이다. 그러한 감정들은 사춘기라면 누구나 느껴 보았을 것이기에 사춘기가 지난 독자가 이 책을 읽는다면 자신과 같은 경험에 공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춘기 소녀의 성장 일기』는 마음 뿐 만 아닌 신체의 변화에 소녀가 보이는 반응을 솔직하게 담아냈다. 조가 자신의 살짝 나온 가슴을 보고 갖게 되는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을 자연스럽게 그대로 나타내어 소녀의 심정을 더욱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든다. 표지와 삽화들은 읽는 이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유발하며, 조금 더 아가자기한 느낌을 더해준다. 글의 상황에 맞는 배경을 상상으로 하여금 동떨어지지 않게 만든다.

주인공 ‘조’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자신에게 찾아온 변화에 당황하거나 놀라지 않고, 사춘기라는 급격한 성장기가 모두에게나 찾아오는 당연한 일임을 알기를 바란다. 더불어 지혜롭게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길 바라면서 사춘기에 막 접어드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에게 추천한다. 물론, 아이들이 변화를 잘 받아드릴 수 있도록 다이내믹 한 감정선을 이해해 주고, 도움을 줄 부모들에게도 권한다.



생쥐 우체부의 여행

마리안느 뒤비크 글 ; 임나무 옮김. 고래벧속, 2016

24p. : 삽화 ; 30cm.

ISBN : 978-89-9250-555-0 : 12,0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유아 808.9-고293세-11)

유아

👁 여러 동물의 사는 곳, 먹는 것 등을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다.

생쥐 우체부의 여행

김새롬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사서)

유아 그림책을 선택할 때에는 그림책 본연의 가치를 생각하며 고르게 됩니다. 오로지 그림만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며 대강의 이야기를 상상합니다.

이 책은 여느 그림책과는 다르게 그림 자체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생쥐 우체부가 우편물을 전달하기 위해 멈추는 곳 마다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사는 집 내부를 섬세하게 그려 놓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동물들이 사는 집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생쥐우체부가 우편물을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저마다 각기 다른 집을 가진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엇을 먹는지를 그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기자기한 그림들로 가득 차 있어 친근하게 다가올 뿐 아니라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좋은 책입니다. 굳이 어른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림 안에 등장하는 볼거리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하나씩 짚어가며 눈에 담는 데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한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두고두고 볼 만 합니다.

그림을 유심히 보다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을 법한 동화의 한 장면이 그림 속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생쥐우체부가 도착한 늑대의 집 주변에 돼지 삼형제가 모여 있는 장면에서는 「아기 돼지 삼형제」이야기가 떠오르는 식으로 말이죠. 동화 속 숨겨진 동화를 찾으며 수수께끼를 푸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숨어있는 볼거리들을 찾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그림책은 2016년 캐나다 퀘벡 서점 대상 수상작입니다.

생쥐우체부와 함께 떠나는 여행

월요일 아침, 생쥐우체부는 자기 몸집보다도 큰 짐수레를 끌고 여행을 떠납니다. 우편물의 주인을 찾아 같이 떠나봅시다. 맨 처음 도착한 곳은 곰 아저씨네 집입니다. 곰 아저씨 집 벽시계가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침을 먹고 있는 곰 아저씨. ‘곰 돌이 푸우’ 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주인공 푸우가 항상 벌꿀을 찾아 돌아다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곰 아저씨네 집 옥상에도 꿀통이 달려 있네요. 아저씨는 아마도 아침식사로 맛있는 꿀을 먹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끼 가족입니다. 토끼 가족은 땅을 파서 만든 굴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습니다. 토끼 가족이 사는 집 지붕에는 당근이 예쁘게 열 맞춰 심어져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나 많은 당근을 심어놓은 것을 보니 대가족이 사나 봅시다. 그림책 속 토끼가족은 몇 마리인지, 그리고 당근은 몇 개가 있는지 한 번 세어 봅시다. 아참, 여기 저기 숨어 있는 토끼도 있으니 잘 찾아보아야 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토끼 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나요? 갑자기 똥 이야기를 하니 의아하지요? 토끼가족이 사는 집 화장실을 보세요, 작고 동그란 토끼 똥이 보이나요? 집에서 토끼를 기른 적 있는 제가 보았을 때, 그림에 나온 토끼 똥과 아주 똑같답니다.

다음에 만날 뱀 아저씨네 집은 대체 어디가 끝일까요? 무려 네 페이지에 걸쳐 그려진 뱀 아저씨네 집을 보니 뱀 아저씨가 얼마나 길고 긴 동물인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도착한 새들의 집도 구경해 봅시다. 나무에 등지를 틀고 사는 새들은 모두 부리가 겁니다. 긴 부리로 나뭇가지를 모아 등지를 지었을 겁니다. 까마귀는 어디서 물어왔는지 온 집 안에 반짝거리는 귀금속이 가득 하네요.

다람쥐 아저씨네 도토리 배달은 참 쉽습니다. 나무 위에서 땅바닥까지 연결되

어 있는 도르레에 도토리꾸러미를 올려놓기만 하면 그만이지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언제나 이 방법이거든요.

용의 집에 들러 벽시계를 보니 시간은 어느덧 11시 15분입니다. 뜨거운 불길을 입 속 가득 뿜어내 소시지를 구워주는 용의 모습이 친근하게만 느껴집니다. 불을 뿜는 용은 상상속의 동물인가요? 현실 속 동물인가요?

두더지 아주머니네 집은 미로입니다. 생쥐우체부가 들어갔다간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두더지 집 안에는 연장이 가득합니다. 땅굴을 얼마나 열심히 팠는지 여기 저기 방이 많은 두더지 아주머니입니다. 맨 구석에 있는 방에는 아주머니의 먹이가 가득합니다. 두더지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천천히 살펴봅시다.

다음으로 만난 거북이 아주머니는 주로 물속에 삽니다. 생쥐우체부는 오늘 느리게 기어 다니는 아주머니께 플러스케이트를 전달했습니다. 느리다고 소문난 거북이에게 잘 어울리는 선물이네요.

악어네 집은 바다 속에서 육지까지 연결된 4층 집입니다. 맨 꼭대기 다락방에는 악어가 낳은 알 3개가 폭신한 이불위에 놓여있습니다. 곧 태어날 아기 악어가 기다려집니다. 3층 화장실에는 악어새가 있습니다. 악어와 악어새는 서로 돌도 없는 친구 사이입니다. 악어새는 악어의 치아 사이에 낀 음식찌꺼기를 먹고 악어는 그 덕분에 양치를 하지 않아도 치아가 썩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어낸 이야기일 뿐,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요.

늑대 아저씨 집은 불거리가 많습니다. ‘빨간 모자’라는 동화를 읽은 적이 있는 어린이라면 나무 뒤 얼굴만 삐뚤고 있는 어린 소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늑대 아저씨네 집에는 어린 양들이 잡혀 있어요. 늑대 아저씨가 몰래 잡아온 것이 분명해요. 양떼를 구출하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아기돼지 삼형제’도 찾아봅시다. 늑대에게 들키지 않게 모든 양을 구해내길 바라면서요.

자, 이제 마지막 소포가 남았습니다. 생쥐아저씨가 향하는 곳은 다름 아닌 자신의 집이네요. 알고 보니 오늘은 생쥐아저씨의 아들인 토미의 생일이었네요. “토미야, 생일 축하해!”

이렇게 생쥐 아저씨의 긴 여행이 끝이 납니다. 아저씨는 내일도 여김없이 여행을 떠날 거예요. 우체부를 기다리는 많은 동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소년 명탐정 정약용

한이 글 ; 오윤화 그림. 청어람주니어, 2016.

171p. : 삽화 ; 23cm.

ISBN : 979-11-86419-03-8 74810 : 11,0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군포시 산본도서관 (아911 숨56)

초등학교 3~4학년

📖 우리나라 전통 과학수사 소설에 대한 흥미를 불러 일으켜줌



정약용과 함께 하는 과학 수사놀이!

엄정란 (시흥시 정왕어린이도서관 사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약용은 너무나도 유명한 정조시대 학자이다. TV 사극이나 영화에서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정약용이 아닐까 싶다. 정조가 그 어떤 신하보다 아꼈던 정약용은 조선 후기 개혁과 보수의 갈림길에서 실학이라는 학문을 집대성한 업적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 여러 신하의 시기어린 질시를 받아 18여년의 긴 유배생활을 겪어야만 했다.

저자는 이러한 정약용을 소년 명탐정이라는 인물로 재탄생시켜 딱딱한 위인전이 아닌, 유쾌한 탐정소설로 그려냈다. 그의 어릴 적 시절 단짝인 쇠돌이와 함께 뛰어난 추리력과 관찰력을 동원하여 미지의 사건을 하나 둘씩 파헤쳐가는 모습을 보면 흥미진진하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학식과 재능을 겸비한 실학자로서의 정약용 보다는 호기심 많고 재치 넘치는, 인간미가 드러나는 소년 명탐정으로서의 모습을 담아냈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또한 탄탄한 스토리와 풍부한 역사적 사실을 실감 나게 전해준다.

어릴 적에 천연두를 앓아 약용의 오른쪽 눈썹에 그 자국이 남아 눈썹이 셋으로

나뉘어 ‘삼미(三眉)’라 불린 이유에서 이 책의 이야기는 시작되는데 어린아이답지 않은 명석한 두뇌, 착한 심성이 인상 깊다.

어린 시절 자신이 잘 따랐던 봉금이 누나의 죽음을 둘러싼 사건 추리를 향해, 정약용은 남다른 관찰력과 추리력으로 누나가 자살이 아닌 타살을 당한 것을 밝혀내고야 만다. 나아가 사건들을 치밀하게 파헤쳐 조선 시대 치밀한 과학수사 현장으로 안내한다.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우려는 약용은 서양의 ‘셜록 홈즈’처럼 미궁의 사건들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간다. 또한 범인을 추리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선 시대의 과학수사 기법, 재판 과정, 형벌이 어떻게 적용 되었는지 까지를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이를 위해 저자는 독자의 이해도를 돕기 위해 삽화와 설명을 따로 첨부해 놓았다. 이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추리소설에 대한 환상 및 흥미가 있는 어린이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어린이들이 이 책을 통해 정약용이 어떻게 범인을 잡아내고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는지 숨을 죽이며 같이 공감하고 파헤쳐 나가길 바란다. 혹시나 미래의 법의학자나 수사관이 되지않아 배출되지 않을까 살며시 기대해 본다.

소에게 친절하세요

베아트리체 마시니 글, 빅토리아 파키니 그림. 책속물고기, 2015.

212p. : 삽화 ; 2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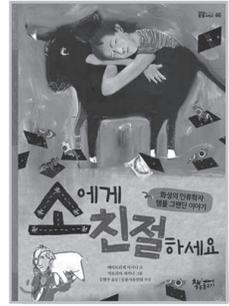
ISBN : 978-89-36442-81-1 73810 : 9,8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군포시 산본도서관 (아808.9 공15ㄷ)

초등학교학년

📖 나와 다른 친구를 이해하고 배려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 /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생명존중을 배울 수 있음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엄정란 (시흥시 정왕어린이도서관 사서)

동물과 인간은 떨어져야 떨 수 없는 인류상의 가장 가까운 존재이다. 인간은 동물을 사육하고 때론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얻고 착취한다. 그러나 동물은 인간에게 꾸준히 약자로 살아오며 인간의 삶에 깊숙이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은 주인공 템플 그랜딘이 태어났을 때부터 청소년기를 거쳐 성년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남들과는 다른 템플 그랜딘은 자폐증을 가진 아이이다. 자폐증을 가진 이들은 흔히 자기만의 세계에 산다고들 말한다.

같이 살면서도 이해받을 수 없는 자폐인들의 삶은 절망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템플 그랜딘은 흔히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살지 않고 그 특별함이자 단점을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데 이용하여 동물학자가 되었다. 템플은 웃지도 울지도 않는 아이로 태어나 남들과는 다른 삶을 시작하였다. 두 살 반이 되었을 때 템플의 엄마는 가정교사를 들었는데 이 가정교사는 템플에게 끊임없이 놀이를 시켰다.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산만해지는 것을 그대로 두지 않고 색칠공부, 모양 카드, 집짓기 등과 같은 놀이를 한 것은 모두 효과가 있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템플은 유치원에 가고 네 살

이 되었을 때 드디어 말하는 법을 배웠다. 또한 친구들과 지낼 때 지켜야 하는 규칙을 배우게 되면서 드디어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

학교에서는 통제가 안될 때도 많았는데 인내심 많은 선생님을 만나 조금씩 성장하였다. 그러나 중학교에 가면서 템플은 어려움을 겪는다. 친구들과 사이에서 늘 놀림거리의 대상이 되어 분노와 좌절을 경험하다 중대한 사고를 치고 만다. 친구에게 책을 던지는 사건으로 인해 템플은 학교를 옮겨야 하는 지경까지 가는데, 이 것이 템플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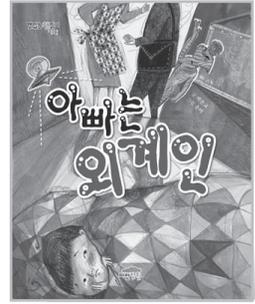
햄프셔 컨트리 스쿨이라는 학교는 푸른 초원과 숲에 둘러싸인 특수학교였다. 소와 돼지, 말을 기르는 목장도 있는 학교에서 템플은 과학 교사인 칼록을 만난다. 칼록 선생님이로 인해 템플은 동물학자로서의 꿈을 키우게 되었다. 이 중 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데 이는 앤 고모네 목장을 찾아가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고모네 목장은 차에서 내려 문을 여달아야 하는 불편한 구조였는데 이를 보고 템플은 문을 고쳐서 차에 탄 채로 문을 열 수 있게 만들었다. 이렇듯 템플은 불편함을 보면 해결하였다. 또한 템플의 남다른 점은 동물들이 불편해 하는 점을 개선하고 해결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의 눈으로 불편함을 알아보고 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소의 편안한 삶과 죽음을 위해 애썼다.

소가 머무는 축사와 도축장의 구조를 바꿔 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우리는 소의 축사엔 신경을 쓸지 언정 도축시설엔 무신경하지 않은가! 하지만 템플은 동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친절한 도축시설을 만들어 그들이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노력하였다.

생명 감수성이 메마른 사회에 살면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동물들의 삶을 이해하며 나와 같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며 소통하는 삶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추천연령은 초등고학년이지만 책 내용이 그리 길지 않아 읽기에 무리가 없으며 지루하지 않으므로 3학년 이상에게 추천하고 싶다.

아빠는 외계인

박은교. 파란정원. 2016.
ISBN : 9791158680985
동화책
초등저, 중학년



아빠는 외계인

박지원 (안성시립공도도서관 사서)

어렸을 적, 아버지나 어머니가 늘 바쁘셔서 놀아주지 않으셨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특히나 많은 아버지들이 야근이다 뭐다 하며 자식들을 놀아주시지 못한다. 혹 주말이 되어도 피곤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놀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그런 상황을 아이 특유의 감직한 상상력으로 그린 한 편의 이야기이다.

작 중 아빠와 함께 노는 숙제를 손꼽아 기다릴 만큼 아빠를 좋아하는 찬우는 최근 과장으로 승진하고 난 뒤 자신과 놀아주지도 않고 양말을 아무데나 집어던지며 엄마와 허구 현 날 싸우는 아빠를 이상하게 느낀다.

평소 찬우의 아빠는 다정했고, 깔끔했는데 승진한 이후에는 완전히 변해버린 것이다. 그러다가 찬우는 텔레비전에서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외계인에 대해 다루던 것이었고 아빠가 변한 것과 외계인이 관련이 있다고 믿었던 찬우는 결국 아빠가 외계인이라고 단정 짓게 된다. 찬우는 외계인과 아빠에 대한 내용을 일기장에 적었고 그 내용을 담임선생님께서 보시게 된다. 찬우의 담임 선생

님은 이 내용을 엄마와 아빠, 각자에게 알리는데 아빠는 자신을 되돌아보며 찬우에게 이메일을 보내 하나씩 찬우가 변할 수 있는 미션을 제시하고 미션 수행시 진짜 아빠와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찬우는 미션을 성실히 수행했고, 아빠는 사실을 고백하고 사과하며 이야기는 막을 내린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의 따뜻한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각자에게는 사정이 있고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들을 놀아주지 않고,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부모님은 아이들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 뜻을 알고 부모님을 이해할 리가 만무하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것이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실망하며 어쨌면 반항적인 아이가 될지도 모른다. 아이들이 사랑을 갈구할 때 부모님은 그 기대에 보답하지 않고 아이들이 훌쩍 커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비로소 자식들과 함께하기 원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광고로도 제작된 적이 있는 이 이야기는 요즘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 물론 그것만이 장점은 아니다. 찬우가 아빠를 외계인이라고 의심하게 되는 과정, 친구에게 고민 상담을 하는 과정 등 익살스럽고 재미있는 내용도 많고 그려져 있는 그림들도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그렇지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그러한 메시지를 부담스럽지 않게 잘 풀어냈다는 것이다. 독자의 연령층은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겠지만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만큼은 아이들의 부모님에게 전달되었으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읽었으면 한다.

어느 날 구두에게 생긴 일

김려령 글. 비룡소, 2014.

118p. ; 20cm.

ISBN : 9788949121598 : 9,000

아동도서 (문학)

성남시 분당도서관 (아808.9○965 v.94)

어린이, 청소년

📖 학교에서 친구들 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어린이 / 초등 고학년
자녀를 둔 부모님



괜찮다고 생각하고 싶었어

이선희 (성남시 중앙도서관 사서)

낭떠러지 앞 눈을 질끈 감은 소녀가 역수같이 내리는 비를 맞고 서있다. 한쪽 손에는 구두 한 짝을 아래로 던지려 하고 있고, 나머지 손은 주먹을 굳게 쥐고 있다. 도대체, 이 아이에게 무슨 일 있는 것일까? 아이의 표정이 너무 괴로워보여서 보는 사람이 다 안타까운 이 책의 제목은 황선미 작가의 2014년 작품, 『어느 날 구두에게 생긴 일』이다.

주경은 반장 혜수에게 체육시간에 실수했다는 이유만으로 반에서 괴롭힘을 당한다. 아이들의 은근한 따돌림에 지쳐가던 중, 전학생 명인이가 혜수의 눈 밖에 나가 된다. 혜수는 주경에게 명인이의 구두를 버리라고 압박하고 주경은 왕따에서 벗어나기 위해 괴롭지만 그의 말을 듣는다. 하지만 그 일을 목격한 친구가 나타나게 되고 주경은 심적으로 괴로운 상황이 가중되지만, 그런 주경에게 손을 내미는 친구들이 있어 다시 주경이 행복을 찾는다는 것이 이 책의 이야기이다.

‘전에는 혼자라는 게 뭔지 몰랐다. 난 조용한 성격이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런데 이제는 혼자라서 외롭고 슬프다. 같이 있어주는 친구가 없다는 건 바보라는 뜻이다. 억울하고 힘들어도 참기만 해야 하는 바보. 그러니 기다리는 수밖에. 나를 놀려먹는 재미가 빨리 없어질 때까지.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글은 주경이 따돌림을 당할 때의 마음을 표현한 문단으로 어조는 담담하지만 아이의 참담한 심정이 고스란히 들어난다. 자신을 향한 어긋난 친구들의 행동들을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 꺾꺾 참아내고 있는 것이다. 주경의 얘기가 책장 가득 펼쳐질수록 책표지의 아이가 서 있는 낭떠러지를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된다. 이 소녀에게는 매 순간 매 순간 떠밀리고 떠밀려 이제는 더 이상 발 디딜 수 없는 절벽 끝에 다다른 것이다. 더욱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명인의 구두를 차마 버리지 못해 주먹을 쥐고 눈까지 꼭 감은 주인공의 위태로운 모습은 요즘 아이들이 겪고 있는 학교 속 세상과 닮아 있어, 독자로 하여금 더욱 더 가슴 아프게 느껴진다.

이 소설은 현실적이지만 희망을 이야기해준다. 다시 말해, 누구나 타인에 의해 힘든 상황에 놓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자신을 지켜보고 있고 사랑하고 있으므로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저자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나는 누군가의 단 한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고 이야기 한다. 이 문구는 읽는 이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데, 누구나 등장인물의 상황을 이미 경험했거나, 앞으로 겪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은 초등학생에게 추천하고 싶다. 아이들의 현재 그리고 미래에 펼쳐질 그들의 교우관계를 현명하고 행복하게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 작품 속 친구들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엄마, 우리 이젠 울지 마요!

노경실 글 ; 문보경 그림, 물망초, 2017.

80p. : 삽화 ; 2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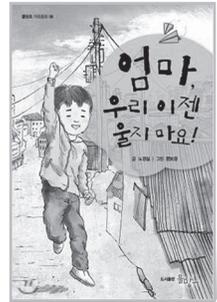
ISBN : 979-11-87726-11-1 73810 : 12,0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군포시 산본도서관 (아813.8 물32 v.6)

초등학교 1학년 이상

📖 탈북민에 대한 선입견을 벗어날 수 있게 도움을 줌



탈북 가족들에게 따스한 위로를!

엄정란 (시흥시 정왕어린이도서관 사서)

탈북 어린이들은 북한을 탈출하는 부모를 따라 목숨을 걸고 자유로운 삶을 찾아 한국으로 건너왔다. 그들에게는 희망의 땅이자 기회를 주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러나 남한 사람들의 차별과 멸시, 그리고 녹록하지 않은 한국 생활에 그들은 지쳐가고 있다. 오죽하면 자기네들이 조선족보다 못하다고 느끼는가!

그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치열하면서 고달프다. 희망을 품고 찾아온 한국이지만 생각지도 못한 더 큰 차별에 그들은 또 다른 절망에 처해 있다.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의식이 탈북민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 책은 북한을 탈출한 한 가족의 적응과 치유기를 그린 동화이다. 주인공 강철이와 그 가족이 한국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렸다. 강철이는 또래 남한 애들보다 키가 작고 몸짓도 왜소하다. 더구나 말투까지 특이하다 보니 종종 남한 친구들에게 놀림의 대상이 되어 학교가기가 두렵다. 하지만 그런 내색을 부모님한테는 절대로 보이지 않고 언제나 씩씩하게 적응 잘하는 척 한다. 왜냐하면 집

에는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애쓰는 엄마가 있기 때문이다. 어린 강철이 눈에도 부모님의 남한 살이가 뻑뻑해 보였던 것이다.

강철이는 반에서 짝꿍이자 반장인 소울이와 가장 친하다. 소울이는 다른 친구들보다 강철이를 잘 챙겨주려고 노력하지만, 강철이는 문득 북한 친구들과 다른 남한 친구들의 모습이 어색하다. 북한에서는 공부보다는 종이, 철, 고무 등 버려진 것들을 학교에 갖다 내야 했는데 남한은 오로지 공부에 힘쓰니 말이다. 모든 것들이 어리둥절한 환경이지만 강철이는 적응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어느 날 강철이의 뒤떨어진 성적을 걱정한 담임선생님은 방과 후 특별수업을 실시하여 강철이가 학교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준다. 선생님의 그런 배려심과 강철이의 노력이 배가 되어 점차 나아져 간다. 그리고 몸이 불편했던 아버지도 기력을 회복하여 강철이네 집을 웃음이 찾아온다.

이 책은 분단의 아픈 역사를 아이의 시선에서 들여 봤다. 북한의 인권과 탈북자의 문제는 우리의 역사가 남긴 커다란 상처인 동시에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숙제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탈북민을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말고 두 팔 벌려 환영하며 보듬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피고 사랑해야 한다. 언젠가는 통일되는 날이 올 것이기에 우리는 한민족 되는 예행연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엄마 친구, 아저씨가 나타났다

박현숙 저. 좋은책어린이. 2016.

ISBN : 978-89-2831-571-0

동화책

초등저학년 이상



엄마의 남자 친구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경우의 가정이 존재한다. 엄마, 아빠, 자녀의 일반적이라고 하는 가정도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아빠, 엄마 중 한명이 홀로 아이들을 기르는 가정도 있다. 이런 다양한 가정이 있는 우리 또한 어떠한 한 가지 유형의 가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주변 친구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신과 같은 종류의 지인들도 있을 것이며 아니면 아예 다른 종류의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이렇게나 다양한 종류의 가정이 있는 사람들 중 우리는 어떤 한 이혼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고 즐겁게 풀어낸 한 가족에 이야기를 담은 책 『엄마 친구, 아저씨가 나타났다』를 읽어보려고 한다.

“할머니. 엄마랑 아빠, 이혼했어요?”

초등학생 소리는 미술시간에 하는 가족 그리기를 하는 중 짝꿍인 동승이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엄마의 웃는 얼굴이 좋아 앞니를 커다랗게 그리고, 자신의 얼굴 또한 눈도 크고 예쁘게 그리던 소리에게 동승이는 말한다.

“가족 그리기인데 왜 아빠는 없어?”

소리는 아빠가 외국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동승이는 소리의 부모님이 이혼한 것 같다고 말한다. 결국 의심하던 소리는 할머니에게 이혼 사실을 물어보고 그것이 진실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 책은 소리가 부모님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된 후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는 것을 알고 엄마의 남자친구를 엿보고 미워하는 과정에서 시작된다.

평퍼짐한 엉덩이를 가진 아저씨. 소리가 미워하는 엄마의 남자친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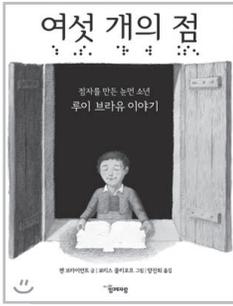
엄마에게 꽃바구니도 갖다 주고, 차도 고쳐주고, 소리가 좋아하는 돈가스도 사준 것을 보면 확실하다. 소리는 아저씨가 엄마와 친하게 지내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한 원인에서 시작된 아저씨의 차를 굶고, 일부러 돈가스를 먹지 않는 등 작은 장난 같은 앙탈을 우리는 마냥 미워할 수 없다.

소리는 자신의 하나뿐인 엄마를 남일 뿐인 아저씨에게 뺏긴 것 같아 기분이 말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소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소리는 여태껏 엄마와 둘이서도 잘 지내왔고, 아빠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아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나타난 언젠가 소리의 새 아빠가 될지도 모르는 아저씨는 소리의 입장에서는 불청객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는 독자는 아저씨를 대하는 소리의 나름 쌀쌀맞은 처사에도 심하다며 비난할 수 없는 것이다. 소리의 입장에서는 아저씨는 평화롭던 자신의 집에서 엄마를 데려가려는 도둑이나 마찬가지로 일 테니까. 그러던 와중 소리가 아프게 되고 엄마와 할머니가 소리를 돌봐줄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온다. 어린아이인 소리 혼자서는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처 소리를 돌봐주지 못할 상황에 놓은 엄마와 할머니는 소리를 위해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소리는 잠에 들었지만 다시 잠에서 깨어나 자신을 돌봐준 아저씨를 보게 된다. 자기가 토했던 베갯잇도 빨아주고, 자신에게 물수건도 올려준 아저씨가 고맙게 느껴지고 아저씨의 목소리도 따뜻하다 느끼게 된다. 그리고 난 후, 자신을 돌봐주고 나가는 아저씨의 차를 보며, ‘음, 엄마의 남자 친구라도 괜찮을 거 같아.’ 라는 독백을 통해 소리의 마음을 보여준다. 소리가 아저씨에게 결국은 마음을 열고야 말았다는 이야기다.

엄마와 무작정 결혼하는 줄 알고 경계심을 가지고 미워하기만 했던 아저씨가 사실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들끼리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듣게 된 소리가 고맙기도 하고, 감동도 받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만약 엄마가 정말 소리의 마음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여 남자친구와의 일들을 결정한다면 소리 또한 큰 상처였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와 남자 친구는 소리를 생각해왔고 계속 소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리가 편견을 가지고 아저씨를 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엄마 또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리만 바라보며 살 수 없는 것도 맞다. 소리는 계속 성장해나갈 것이고, 그렇다면 언젠가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소리의 가족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엄마에게 배신감을 느끼는 소리와, 갑자기 달라진 딸의 변화에 당황하는 엄마, 엄마와 좋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소리에게 잘하려는 아저씨. 이러한 등장인물들이 껍이나 귀엽다. 서로를 위해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고 상대의 마음 또한 헤아리는 인물들은 자신의 행복함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만 봐도 우리에게 작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소리와 같은 고민들을 겪고 있거나, 작고 귀여운 감동을 받고 싶은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여섯 개의 점

젠 브라이언트. 함께자람. 2017.

ISBN : 978-89-0919-986-5

동화책

초등저, 중학년

보이지 않지만, 읽을 수 있어요.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감각들을 가지고 태어난다. 눈으로 다양한 풍경을 볼 수 있는 시각, 음식 등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후각,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각 등 다양한 감각들이 있다. 타고난 감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 일부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감각들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 등이 이러한 예이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몸이 불편한 친구들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며 살아야 한다고 배웠는데 오히려 그것들은 머릿속 편견으로 남아버렸다. 장애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며, 그들도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여섯 개의 점』이다.

이 책의 주인공인 ‘루이 브라유’는 시각을 잃은 시각 장애인이다. 선천적 장애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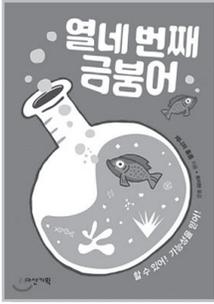
던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의 작업장에 놀러갔다가 그만 시력을 잃게 되고 만다. 하지만 힘든 시기를 겪던 루이 브라운은 고난을 이겨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 천천히 자신에게 찾아온 역경을 받아들인 루이는 책을 읽고 싶어 한다. 하지만 맹인들을 위한 책이 없다는 것을 안 루이는 맹인들을 위한 시설은 조금이라도 더 있는 왕립맹아학교를 찾아 간다. 그곳에서도 루이가 원하던 책들은 발견하지 못한다.

하지만 루이는 거기서 포기하거나 그치지 않고 맹인들이 글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점자’라는 글자를 만들어낸다. 나는 책을 읽으며 책의 주인공인 루이 브라운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만약 내가 루이 브라운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금세 좌절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선천적 장애가 아닌 후천적 장애를 가진다면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감각을 상실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울 것이 당연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적응하는 것에서 나아가 새로운 점자라는 것을 창조해내었기 때문에 더욱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일지 모른다.

‘루이 브라운’의 업적을 아이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소개한 이 책이 더욱 의미 있는 것일지 모른다. 평소에는 별로 주의 깊게 느끼지 못해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점자가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것이었고 발명으로 인해 루이 브라운이 자기 자신 뿐만 아닌 다른 시각장애인들에게까지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점자’라는 새로운 문자의 발명을 성공한 루이 브라운. 혹자에겐 생소한 이름일지 모르겠다. 이 이름이 생소하다면 그런 사람에게 바로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열 네 번째 금붕어

제니퍼 홀름 글, 최지현 옮김. 다산기획, 2015.

199p. ; 21cm.

ISBN : 978-89-7938-097-2 73840 : 11,0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군포시 산본도서관 (아808.9 텡16)

초등고학년

 과학의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책

과학의 시작은 호기심

엄정란 (시흥시 정왕어린이도서관 사서)

이 책은 제목부터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왜 하필 『열네 번째 금붕어』일까? 책을 읽기도 전에 독자들과의 흥미를 자아내며 과학 이야기를 현실과 접목시켜 과학이 어떤 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일깨워 준다.

주인공 ‘엘리’는 이혼한 싱글맘 엄마와 살고 있는데 연극 선생님인 엘리의 엄마는 참 흥미로운 사람이다. 머리는 보라색에 개성 넘치는 옷차림을 하고 있다. 일반적인 엄마의 모습은 아니다. 전 남편 엘리의 아빠와도 친구로 지내는데 그도 역시 연극배우이다. 예술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고자 엘리의 부모님은 노력하셨던 것 같지만 그것이 엘리의 재능은 아닌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따로 사시던 엘리의 할아버지인 멜빈 사카스키 박사는 평생 동안 노화를 멈추는 연구에 몰두하다 정말로 젊음을 되돌릴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한다. 그리고 그 약을 직접 먹고 십대 소년의 모습이 되어버린다. 그 노화치료제는 티멜비너스라는 해파리에서 추출한 것이었다.

어려져 버린 할아버지는 자신의 실험실에서 쫓겨나게 됐다. 76살 할아버지에서 갑자기 열두살 소년이 된 할아버지는 엘리의 집에 들어오게 된다. 딸이 과학자가 되길 바랐던 할아버지는 늘 엘리의 엄마와 부딪치기만 해서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이 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함께 생활하게 된 것이다. 이웃과 학교에서 할아버지는 엘리의 사촌인 멜빈으로 소개되어 생각은 저명한 과학자, 몸은 열두살 소년인 채로 크고 작은 사건을 일으킨다.

이 책은 과학이야기 속에 엘리의 가족, 우정, 사랑 같은 이야기가 따뜻하게 녹아 있다. 조너스 쇼크, 오픈하이머, 마리 퀴리 등 실제 과학자들의 업적을 들려주며 자칫 딱딱해질 수 있는 과학이야기를 엘리의 시선에서 순진무구하게 풀어가고 있다. 엘리는 할아버지에게서 과학의 가능성을 배우며 자신에게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과학에 대한 열정과 재능을 알아보게 된다. 어린 시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죽어 버린 열세 마리 금붕어가 인생을 가르쳐 준 것처럼 할아버지가 열네 마리 금붕어였다는 것을 엘리는 깨닫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엘리는 훌쩍 성장하게 되어 할아버지의 신약 개발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어른스러워져 할아버지가 약 개발을 멈추고 여행을 떠날 수 있게 깨우쳐 준다.

과학에 대한 흥미가 생긴 학생들이 읽기에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된다. 초등고학년에게 추천하고 싶으며 젊어지는 약을 뛰어넘어 젊은 시절로 돌아 갈 수 있는 ‘타임머신’이라도 개발되기를 간곡히 소망한다.



열세살, 불안해도 괜찮아

장희정, 송은하 글 ; 김예슬 그림, 정주연 사진. 스킨라, 2015

149p. : 삽화 ; 22cm.

ISBN : 978-89-6247-670-5 : 11,0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어린이 183장970)

초등고학년, 청소년, 사춘기 부모님

📍 사춘기를 앞두고 있거나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 또는 그 부모님

열세살, 불안해도 괜찮아

이연순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사서)

나하고만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다른 아이들과도 잘 지내는 친구를 보면 속상하다. 차마 표현도 못하고 속앓이 했던 어린시절의 추억을 떠올릴 때면 다같이 친하게 지내면 될 것을 무엇이 그렇게까지 힘들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 때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도 하게 된다.

이 책은 요즘은 시기가 내려와 중학교도 아닌 초등학교부터 시작되는 사춘기 시절의 갖가지 걱정과 불안들을 6학년 신학기가 되어 첫 등교하는 민서와 그의 친구들의 마음을 따라가며 보게 한다. 두 명의 공동저자는 이화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아동·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다. 저작자들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척도지와 이론으로 다양한 불안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춘기 아이들을 위해 이 심리 포토 에세이를 내놓았다고 한다.

불안(anxiety)이란 달려드는 개 등 명백한 위협이나 위협이 있을 때 느끼게 되는 긴장과 불쾌함인 두려움(fear)과 달리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위협에 대해

막연히 걱정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불안은 유쾌하지 않은 감정이지만 안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생산적 감정이라고 말한다.

새 학기 친구관계에 대한 불안, 외모의 변화와 미숙 등 신체적 성장에 대한 불안, 시험성적에 대한 불안, 부모와의 갈등에 대한 불안, 비교 당하는 것에 대한 불안, 다른 사람의 시선에 대한 불안 등 사춘기 시절에 겪을 만한 모든 불안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정상적인 불안과 장애에 가까운 비정상적인 불안도 언급하고, 불안에 따른 신체적 반응을 해결하기 위한 이완법도 소개하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읽고 난후에는 하나라도 빼놓아서 안 되는 것임을 인정하게 되지만 처음 책을 접했을 때는 에세이 중간 중간에 삽입된 전문적 내용이 지나치게 많은 것 같아 부담스럽다. 사진과 일러스트를 다소 줄여 이런 이유로 책 선택을 머뭇거리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

사춘기 불안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성장을 위한 통증은 힘들지만 응시하고 견뎌내야 한다는 깨달음을 준다. 불안에 대해 회피하지 말고 직면함으로써 불안이 괴물처럼 커지는 것을 막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 이 책은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과 그 시기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읽으면 걸어야 할 길고 어두운 터널을 조금은 더 빨리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원원하는 마음이 필요해.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인생에는 승자-패자만 있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니고 있어. 하지만 성공, 인정, 칭찬, 사랑, 우정은 다른 사람이 얻는다고 해서 내 몫이 줄어들지 않아. 사람들끼리 서로 신뢰하고 지지하면 함께 성공할 수 있어.(p103)

소풍이고 뭐고 당장 지구가 멸망해서 아무도 안 봤으면 좋겠다. 울고 싶었다. 학교까지 가는 10분이 10년 같았다.(p110)



욕대장

박현숙 글 ; 김미진 그림. 생각하는 책상, 2016.

140p. : 삽화 ; 25cm.

ISBN : 978-89-97943-19-7 74080 : 11,0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군포시 산본도서관 (아813.8 학15)

어린이

📌 친구들에게 욕을 많이 하는 어린이들이 읽기에 좋음 / 친구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줌

욕하면 안돼요!

엄정란 (시흥시 정왕어린이도서관 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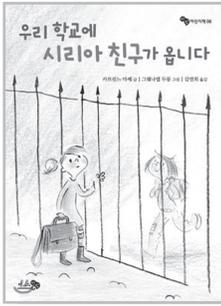
요즘 길 가다가 지나가는 초등학생들의 대화를 지켜보면 대화 중에 욕이 섞여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듣게 된다. 이들의 대화를 듣다보면 마치 일상에서 욕을 하는 게 당연시 된 것 같다. 예를 들면 그냥 짜증난다고 말하면 되는 것을 개짜증 난다느니, 어른들이 쓰는 법할 듯 한 단어선택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 무엇이 이 어린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찾는다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좋은 본보기가 될 언어선택과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언어폭력은 단순하지 않다. 이는 행동을 파생시키기도 하고, 그 언어를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 영향은 타인과 본인, 그 옆의 3자도 포함된다. 언어폭력은 실제 육체의 폭력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한 것처럼...

이 책은 작가가 어렸을 때 친구의 말에 상처받은 아픈 경험을 모티브로 삼아 쓰여 졌다. 그때의 가슴 아픈 추억이 어른이 된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하니 말로 받은 상처가 정말 오래 가는 것 같다. 몸에 난 상처는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하면 금세 낫

지만 마음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으니까 말이다.

작가는 총 8개 주제의 틀에서 언어폭력의 정의·시작시기, 언어폭력에 상처받는 이들, 인터넷과 스마트폰 언어폭력 등을 다루고 있다. 나아가 아이들의 일상생활로 들어가 욕 뿐 만 아니라 언어폭력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말의 세계를 폭넓게 그리고 있다. 각 주제가 끝날 때 마다 그 주제에 맞는 ‘생각해 보아요’ 라는 작가의 조언과 교훈적인 말들이 담겨 있는데 이것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장점 중 하나이다. 또한 책 속 삽화도 익살스럽고 재미나게 그려 아이들이 그림만 보더라도 유쾌하게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어린이들은 자신의 언어습관을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욕하는 아이와 그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욕하는 아이들의 심리를 제대로 풀어냈다.



우리 학교에 시리아 친구가 옵니다.

카트린느 마쎌 글, 그웨나엘 두몽 그림, 김연희 옮김 천개의바람. 2016.

114p. :삽화 ; 22cm

ISBN : 978-11-87287-23-0 : 10,000

어린이책(어린이 문학) 800

863 마54o

초등고학년

 난민, 인권에 대하여 알고 싶은 아동

난민으로 산다는 건...

이연수 (수원시 일월도서관 사서)

『우리 학교에 시리아 친구가 옵니다』. 제목을 보고는 단순히 다문화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책을 읽어보니 다문화가 아닌 전쟁, 난민에 관한 주제로 어린이들이 읽기에는 다소 무거운 주제였다. 그러나 작가는 어린이들에게 난민과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어린이 관점에서 친구라는 관계를 통해 흥미롭게 풀어 나간다. 또한 책 말미에 「시리아 전쟁과 떠난 사람들」이란 부록을 수록하여 시리아 사람들은 왜 시리아를 떠나야 되는지, 시리아 난민이 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를 사실적 배경을 실제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이로써 시리아와 난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독자의 이해를 도운 점이 돋보인다.

우리는 방송을 통해 종교적, 정치적 이념의 차이로 많은 사람들이 영문도 모른 채 테러를 당하는 세계 곳곳의 모습과, 전쟁을 피해, 배고픔을 벗어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살기위해 탈출하는 난민들의 모습을 자주 보고 있다. 어른들은 이념의 차이로 빚어지는 이런 사건들에 대해 억지로라도 이해를 하려하지만 어린이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이념적인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매일 함께 생활하고 학교를



다니던 친구가 눈앞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격리되어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또한 난민은 왜 생길까? 난민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할까? 라는 물음에 우리 어른들은 어떤 현명한 답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줄 수 있는 책이라 생각된다.

이 책은 전쟁과 이념의 차이로 생긴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프랑스 초등학교에 함께 다니는 프랑스인 ‘리사’와 시리아인 ‘누’의 관점에서 펼쳐진다. 전쟁과 배고픔을 피해 프랑스로 온 누의 가족이 어느 날 프랑스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경찰에게 잡혀가 억류된다.

리사와 누는 친한 친구였기에 프랑스 어린이 리사는 ‘누’가 잡혀가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 더불어 텔레비전에서 살기 위해 보트를 타고 온 난민들이 바다에서 구출되는 장면을 본 후로는 물에서 허우적대는 악몽을 꾸며 공포감을 느낀다, 이렇게 전쟁을 겪은 시리아 어린이 ‘누’와는 다른 공포를 ‘리사’는 경험한다.

‘누’는 어릴 때부터 프랑스에서 살았기에 시리아에 대한 기억도 없고, 시리아 말도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가족 모두 경찰에 끌려가게 된다. 더럽고 열악한 난민 수용시설에서 다른 난민들과 같이 감시 카메라와 철조망 있는 생활을 하

게 된다. 그런 난민 수용소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떤 것도 해결 할 수 없음에 절망을 느낀다. 그런 모습을 지켜봐야하는 누 또한 다른 공포로 힘들어한다.

친한 친구 리사는 누를 그리워하며 하루 빨리 돌아오기를 희망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리사와 같지 않다. 아이들 중에 소수지만 프랑스와는 난민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난민 가족인 누 뿐 아니라 난민을 도우려는 리사와 리사 가족까지도 배척하며 조롱한다.

누의 가족은 과연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누는 과연 리사와 학교를 다시 다닐 수 있을까?

작가의 난민에 대한 사람들의 여러 생각을 솔직하게 그려냄으로써 어느 한 면에 치우쳐서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에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함께 읽어보고, 시리아 내전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책이면서도, 각자의 입장에서 이야기 해보거나,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면을 책을 읽고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책을 읽는 내내 결말이 궁금해지는 책이다.

위니를 찾아서

린지 매틱 글 ; 소피 블래콜 그림 ; 정성희 옮김. 미디어창비, 2016.

58p. : 삽화 ; 2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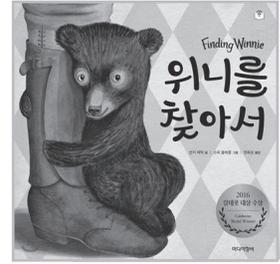
ISBN : 979-11-8662-109-7 77840 : 15,0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군포시 산본도서관 (아843 매888○)

유아

 동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아이를 위한 책



영원히 기억되는 곰돌이 푸!

엄정란 (시흥시 정왕어린이도서관 사서)

1914년 1차 대전 당시 캐나다의 해리 콜번이란 수의사가 입대를 하게 된다. 부대로 가던 중 우연히 사냥꾼에게 잡힌 새끼 곰을 보게 되고 뭇가에 이끌려 그 곰을 20달러에 사서 부대까지 동행한다. 그러고는 자신이 살던 캐나다의 도시 위니펙의 이름을 따 “위니(Winnie)”라 이름 짓는다. 위니는 수의사가 속한 부대에서 함께 지내게 되고 참전을 위해 대서양을 건널 때 그들과 함께 영국으로 간다. 하지만 부대가 유럽 대륙의 전투에 참가해야 할 때 수의사 해리는 어쩔 수 없이 위니를 런던 동물원에 맡기게 된다. 여기서 해리와 위니의 이야기는 끝나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

런던 동물원에 있는 위니를 특별한 친구로 여긴 한 아이가 있었고, 아이의 아버지는 그 모습에 영감을 받아 ‘곰돌이 푸’ 이야기를 쓰게 된다. 아이의 아버지가 쓴 이 ‘곰돌이 푸’ 이야기를 통해 위니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곰이 되었다. 전쟁을 겪어 내는 힘든 시기에는 병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 동화가 출간된 1926년 이후로는 전 세계의 많은 어린이들에게 웃음과 따스함을 나누어주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자리 잡은 것이다.

“해리 아저씨가 프레드를 낳고 프레드가 로린을 낳고 로린이 린지를 낳고 린지가 콜을 낳고…” 결국 이렇게 세대를 이어오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위니가 너무 사랑스럽다. 이렇게 세대를 이어오며 전해지는 책을 어떻게 구상했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위니를 찾아서』의 작가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수의사 해리 콜번의 실제 증손녀이며, 책 속에서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구성으로 독자들에게 실제 이야기와 작품을 연결 짓도록 돕는다. 또한 도서 뒷부분에 영어 원서 판면을 줄여 전문을 실었다. 게다가 3가지 형태(한국어, 영어, 한국어-영어) 오디오북을 핸드폰을 이용해 학습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 책을 한글과 영어로 읽을 수 있고 들을 수도 있다.

도서의 작품성과 영어 학습을 위한 기능성에서 모두 뒤지지 않는 이 도서는 학습용 책과는 달리 독자들이 지루하지 않게 영어를 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더구나 그림책의 노벨상이라고 일컫는 2016 칼데콧상 대상의 영광을 안은 책으로 그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동물과 인간의 지극한 우정과 교감에 독자들은 감동을 느낄 것이고 곰돌이 푸에 대한 가슴 찡한 향수에 젖어들 것이다. 곰돌이 푸를 좋아하던 어른이나 동물에 대한 관심이 막 생기기 시작한 아이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가슴이 말랑말랑해지면서 행복한 느낌을 이 책을 읽는 모든 이가 느끼길 바란다.

위험한 게임 마니또

선자은 글, 고상미 그림, 푸른숲주니어, 2015.

ISBN : 979-11-5675-070-3

978-89-7184-535-6(세트)

생활동화

초등고학년

📖 친구, 양따, 수호천사, 마니또



진정한 수호천사

공정자 (안성시 진사도서관 사서)

마니또의 뜻은 수호천사로 누군가에게 마니또가 생긴다는 것은 설레는 일이다. 우리의 삶에 마니또가 있다면 어렵고 힘들 일이 있을 때 도와줄 것이라는 든든한 믿음이 있다. 이 책은 선생님께서 마니또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한 반에서 벌어졌던 친구간의 관계와 갈등, 초등학생의 심리상태를 사실적으로 잘 드러내었다.

책을 펼치면 등장인물이 간략적으로 소개된다. 지울, 모모, 은석, 아름, 시현이 이 책의 주요 등장인물이지만, 주 이야기는 지울과 모모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각 장마다 다른 주인공들이 화자가 되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자신의 입장에서 다른 친구간의 관계와 상황을 설명하여 끝까지 몰입도가 높다. 마니또 게임을 하면서 주인공들이 자신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다른 친구를 바라보는 시선도 사실적으로 표현된다.

부반장이 된 지울이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지울의 마니또인 모모는 마니또로서 지울을 관찰하면서 지울을 괴롭히는 친구가 누굴까 계속 추측한다. 모모는 아름과 은석을 계속 의심했지만 뜻밖의 인물이 마지막에 드러난다. 그사이 내성적이

고 소심했던 지율은 가식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반에서 인기가 좋았던 반장은 지율을 괴롭히는 범인으로 몰리고 전학을 간다. 뜻밖의 지율을 괴롭히던 친구와 시현의 마니또가 밝혀진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친구 간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잘 풀어낸 책이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드러나야 하고 돋보여야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다. 질투심이 많은 친구가 한 친구를 교묘하게 괴롭히자 반 친구들 간에 또 다른 갈등이 일어나는 모습은 우리가 사는 인간관계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다. 좋은 의도의 마니또 게임이 질투와 거짓으로 위험한 상황으로 변하지만, 책 속에서 진정한 마니또를 만날 수 있다.

삽화는 주로 연필로 그려졌으며 노랑색으로 그렸다. 연필로 인물의 표정과 심리 상태를 주로 그렸고 노랑색으로 주요 내용을 포인트있게 그린 그림이 책을 내용을 잘 드러내 준다. 책 표지의 그림에는 책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과 연관시켜 본 내용에는 없는 진정한 마니또인 인물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노랑색 선물을 사물함에 넣고자 들고 있는 남자 아이의 모습에 외로움이 느껴진다.

뉴스를 통해 종종 접하는 학생들 간의 왕따 문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상처를 남긴다. 나의 마니또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취지의 마니또 게임이 이 책의 제목처럼 위험한 게임으로 변질 될 수 있다. 이 책속의 진정한 마니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까지 친구를 지켜주려고 했고 끝까지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진정한 친구나 마니또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책으로 초등 고학년부터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추천한다.

이게 정말 천국일까?

요시타케 신스케 글·그림 ; 고향옥 옮김. 주니어김영사, 2016

32p. : 천연색삽화 ; 26cm.

ISBN : 978-89-349-7531-1 : 12,0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아동 813.8-주198그-14)

초등 1~2학년

👤 가족, 상상력과 관련된 단원과 연계하여 읽으면 좋습니다.



천국을 상상하며 오늘을 살다

김세롬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사서)

『이게 정말 사과일까?』라는 책으로 유명한 ‘요시타케 신스케’의 신작인 『이게 정말 천국일까?』는 기존 책에서와 같이 작가 특유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참신하고, 재미있게 표현한 책입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방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할아버지의 일기장. 그 일기장의 겉표지에는 ‘천국에서 뭐 할까?’라고 적혀있고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적은 글씨와 그림이 빼곡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죽기 전, 회고록을 많이 쓰곤 하죠.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무엇을 반성하며 무엇을 후회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아쉬운지에 대해 적어 내려가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일기장은 조금 특별한 내용들로 가득 합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천국에서의 삶을 상상하다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는 공책을 하나 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죽고 나서 펼쳐질 세계는 어떤 모습일지 수 만 가지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써

내려 갑니다. 천국에 가면 물론 좋겠지만, 지옥에 갈 때를 대비해서 지옥의 모습도 상상해봅니다. 생일 선물로 주사를 맞아야 할 수도 있다는 끔찍한 상상도 해보았죠. 또 천국에 갈 때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챙겨 갈지, 수호천사에게는 어떤 선물을 줄지도 미리 생각해 놓습니다. 수호천사에게 부잣집 고양이나 예쁜 꽃나무로 환생시켜달라는 소원도 빌어볼 참입니다. 또 할아버지가 늙게 될 무덤의 모습도 그려봅니다. 보통의 무덤이 동그랗게 봉긋 솟은 형태지만 할아버지가 원하는 무덤은 아주 다양합니다. 어느 날은 등대모양의 무덤, 또 어느 날은 기념사진 찍기 좋은 그런 모양의 무덤이 갖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생각나는 것을 그림과 함께 적어봅니다. 나중에 아들과 손자가 꼭 이 공책을 보고 참고해서 무덤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말이지요.

손자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보며 할아버지가 죽음을 기다렸던 것은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할아버지 일기 속 천국에서는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낸 할머니도 만날 수 있고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을 해주는 행복한 곳이기 때문이죠. 아니, 죽음을 기다렸다고보다는 죽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까요?

이제 할아버지는 우리 곁에 없어요. 따라서 할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일기장을 써내려갔을지는 알 수가 없지요. 다만 추측할 뿐이죠. 할아버지가 일기를 쓰며 부디 행복해 하셨길 바라면서요.

천국보다 중요한 오늘 이 순간

아이의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공책을 사러 갑니다. 앞으로 내가 가게 될 천국에서 무엇을 할런지 적어보려고요. 하지만 아이에겐 천국의 삶은 너무 먼 이야기에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도 많은데, 천국까지 신경을 쓰려니 마음이 바빠 옵니다. 생각 할 것이 너무 많아진 것이지요.

아이는 공책을 두 권 샀습니다. 그것으로 ‘천국에서 뭐 할까?’ 공책과 ‘오늘은 뭐 할까?’ 공책을 만들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천국 못지않게 현재, 지금 이 순간의 삶도 소중한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작가는 두 권의 공책을 통해 먼 미래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의 삶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에게는 천국의 삶이 좀 더 가까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했지만 젊은 우리에게 지금의 삶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으면 하는 것이 작가의 의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해주는 책, 추천합니다.

나는 오늘의 내 삶을 잘 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서평을 쓰는 지금은 ‘아, 열심히 살고 있구나.’란 생각이 드는 뿌듯한 순간입니다. 그 동안 내가 살아온 수많은 ‘오늘’은 잘 살아왔는지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긴 인생을 산 것은 아니기에 내 삶에서 중요했던 많은 순간들이 뇌리를 스칩니다. 아름다운 순간도 있지만 아픈 순간도 있습니다. 좋은 추억도 있지만 나쁜 기억도 있네요. 슬픈 장면도 있었지만 나름 괜찮은 단편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삶이 말이죠. 자 이제는 과거는 그만 생각하고 오늘에 충실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할 일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할 일이 많아 행복한 사람이기도 하구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뿌듯하고 값진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잔소리 로봇

김아로미 글 ; 김은경 그림. 파란정원, 2015.

108p. : 삽화 ; 23cm.

ISBN : 978-89-94813-73-8 73810 : 10,0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군포시 산본도서관 (아808.9 맛68ㅍ)

초등학교 3학년 이상

📖 스스로의 힘으로 학교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
어린이들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움을 줌

엄마의 잔소리는 싫어!

엄정란 (시흥시 정왕어린이도서관 사서)

어린시절 우리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왔다. 부모라면 자식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잔소리를 하는 것이겠지만 그때 부모님의 잔소리가 지겹게 느껴지고, 반항끼가 생겨 그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막상 어른이 되고 나서 그 시절 잔소리가 그리워지는 이유는 왜 일까? 그것은 어떤 일을 선택해서 계획하고 책임지려하는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버거워 부모님의 잔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 책은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민이가 짝꿍인 한울이를 통해 스스로 성장해나가는 이야기를 그렸다. 엄마의 잔소리 노트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지민이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엄마의 잔소리를 잘 지키는 모범적인 아이이다. 지민이 엄마는 매일 지민이가 해야 할 일들을 잔소리 노트에 적어 지민이가 로봇처럼 움직이기를 재촉한다. 여기에는 학교와 학원 가는 일정 외에 해야 할 숙제가 들어있다. 엄마는 특히 중요한 것을 별표 표시를 해서 지민이가 더 신경써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어느 날 지민이는 엄마의 실수로 미술시간 준비물을 안 챙기고 학교에 갔다. 준비물 챙기는 것을 엄마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믿는 지민이는 당황스러워한다. 또한 토론수업 시간에도 엄마가 적어준 글을 그대로 읽어 토론왕에 뽑혔는데, 이 모든 것은 스스로의 생각이 아닌 엄마의 의견이었다. 장래희망을 토론하는 시간에 엄마가 적어준 직업을 발표하는 지민이와 달리 짝꿍 한울이는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직업을 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런 한울이를 이해할 수 없는 지민이와 그런 지민이를 이해 못하는 한울이는 의견충돌로 서로 싸우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잔소리 노트까지 잃어버리고 만다.

지민이는 그 어떤 일이든 스스로 해본 적이 없어 불안하고 머릿속이 뒤죽박죽 꼬이기 시작한다. 마치 먹이를 스스로 찾지 못하는 등지 위의 새끼 새처럼 느껴졌다. 이미 엄마의 잔소리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되어버린 것이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 많은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지민이가 진정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잘 소개되어 있고 귀엽고 유쾌한 그림이 속속 등장하여 이야기의 재미를 배가시켜 준다. 부모님의 권유나 반강제로 인해 학원생활을 하는 현 세대의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워 진짜 어른이 되어가길 진심으로 소망한다.



진실은 힘이 세다

필립 드레이 글, 스티븐 알콘 그림, 신재일 옮김, 북비, 2016.

ISBN : 978-89-7440-271-6 77840

전기서

초등저학년

흑인여성, 인권운동, 언론인, 아이다웰스

흑인 여성 언론인 아이다 웰스

공정자 (안성시 진사도서관 사서)

미국에서 흑인 인권운동을 위해 싸웠던 여성으로 로자 파크스는 많이 알려져 있다. 이 책에 소개된 아이다 웰스는 1955년 버스에서 백인이 앉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않아 흑인의 인권운동에 불을 지핀 로자 파크스(1913-2005)보다 앞서 흑인의 인권침해에 대해 저항했던 여성운동가이다. 책의 부제는 ‘흑인 여성 언론인 아이다 웰스 이야기’이며, 그녀는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운 미국 최초 흑인 여성 언론인이다.

아이다 웰스(1862-1931)는 1862년에 태어났는데 그 다음해 1863년은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으로 흑인들이 노예에서 자유를 얻게 된 해이다. 150여 년 전에 태어난 그녀는 신문에 글을 통해 흑인의 인권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았던 여성이다. 그녀는 백인 전용이었던 일등 칸 기차표를 구매하고 앉았다가 강제로 쫓겨나 재판에서 패하기도 했다. 1892년 친한 친구 톰 모스가 억울하게 ‘린치’로 살해 당한 이후 아이다 웰스는 대부분 ‘린치’의 희생자였던 흑인들의 인권유린을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렸다. ‘린치’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누군가를 법의 테두리 밖

에서 제멋대로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그녀는 <뉴욕 에이지>를 비롯한 여러 언론지에 린치에 관한 기사를 제공하고 린치 반대 강연을 하였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1931년에는 미국에서 린치가 거의 사라졌다. 책 제목처럼 글의 맨 마지막 문장은 “진실은 힘이 셉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로 끝맺듯이 그녀의 일생 자체가 진실의 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

책의 뒷부분에는 아이다 웰스의 사진, 연대표, 린치에 대한 설명도 같이 수록되어 있어 아이다 웰스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 책의 그림 작가는 아이다 웰스의 이야기 내용에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주제를 잘 전달하였다. 아이다가 한 말 중 “잘못을 바로잡는 방법은 진리의 불빛을 그들에게 밝혀 주는 것이다”라는 글에 삽화는 미국 자유의 여신상이 횃불을 들고 있는 장면과 함께 아이다는 한손에 펜을 잡고 또 다른 손에 등불을 잡고 있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등 미색 종이 바탕에 아이다 웰스를 중심으로 그림을 그렸다.

아이다처럼 수많은 흑인 인권운동가가 지속적으로 인간다운 권리를 찾기 위해 불의와 싸워왔다. 국내에 출간된 어린이 도서 중 흑인 여성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인물에 관한 책들은 다음과 같다. 로자 파크스에 관한 책으로 『일어나요 로자』(웅진주니어, 2006), 『로자 파크스의 버스』(담푸스, 2013)가 있다. 이외에 미국 뉴올리언스의 백인학교에 처음으로 학교를 다녔던 흑인 소녀 루비 브리지스를 다룬 도서 『까만 얼굴의 루비』(웅진주니어, 2008), 『용기 있는 어린이 루비 브리지스』(나무상자, 2016)도 함께 읽으면 좋겠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읽을 수 있는 전기서로 추천한다.



참 다행인 하루

안미란 지. 낮은산. 2016.
ISBN : 97-91-15525-054-9
동화책
초등저학년

참 다행인 하루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당신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가? 생각해 보면 무엇을 하였는지 기억에 남지 않을 수도, 자신이 한 일 하나하나가 머리속에 기억되었을 수도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잠들기 전 밤까지. 기억을 하든 못하든 간에 하루 동안 여러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 24시간 동안의 일을 기억에 남게 보내는 것이 하루를 뿌듯하게 보내었다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 다행인 하루』라는 책은 믿기지 않고, 대견하고, 자랑스럽고 다행스러운 하루를 보낸 이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총 세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이야기들은 각각의 매력을 지닌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태풍이 다녀간 뒤」이다. 주인공인 우람이네 동네에 태풍이 오게 되어 학교가 휴교를 하게 된다. 씩씩하게 집을 보기로 한 우람이는 심심함을 이기지 못하고 태풍의 아기 ‘꼬마 아기’와 만나 재미있게 시간을 보낸다. 그러던 중 둘은 헤어지게 되고 우람이는 믿을 수 없는 하루를 보낸 것에 감탄하며 자신이 ‘꼬마 아기’와 놀았다는 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임을 깨닫는다.

이 책은 캐릭터가 잘 설정되어 있다. 한 캐릭터마다 겹치지 않고 튀지 않으며 이것은 후에 다른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태풍이 다녀간 뒤」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이들이 빙수를 만들어먹고, 선장 놀이를 하며 노는 것뿐만 아니라 태풍이 다녀간 후의 상황과 ‘꼬마 아기’와 놀았던 것을 믿지 못하는 우람이에게 빙수 모양의 구름을 선물한 것을 묘사하는 장면이 정말 어울리는 것 같다. 태풍이 오고 난 후에는 하늘이 맑아지는데, 이를 잘 표현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는 책 제목인 「참 다행인 하루」이다. 주인 없는 떠돌이 개가 우연히 단팥빵을 줌게 되면서 시작한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떠돌이 개는 사흘 만에 먹는 음식인 빵을 안전하게 먹을 곳을 찾아 헤맨다. 완벽한 곳을 찾지만 결국 빵이 반이나 뜯기고 다쳐버린 떠돌이 개는 한 소파 뒤에 안락한 공간에서 또 다른 개를 만나며 편안함을 얻는다. 나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떠돌이 개가 참 피곤할 것 같다는 당연한 생각부터 들었다.

평소에 개의 생각까지 들여다보지는 않지만 만약 생각한다면 개들은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문장을 읽으면서 생각 전달까지 확실히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더 잘 된 것일지 모른다. 이해를 돕는 요소는 이것 뿐이 아니다. 어린이를 위한 책이니만큼 그림이 주를 이루는데 거의 장면마다 그려진 삽화는 이해뿐만 아니라 재미까지 찾을 수 있다.

귀여운 그림체로 그려진 그림이 흥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로 봤을때 이 책은 충분히 읽을 만한 적당한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한다. 적당한 길이로 읽는 데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는다.

이 책이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싶은 이들에게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는다면 알차게 보내자는 목표에 이 책이 시간을 보태주지 않을까 싶다. 내가 소개한 두 이야기 뿐 아니라 나머지 하나의 이야기 또한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므로 책을 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플레이볼

이현 글, 최민호 그림. 한겨레 아이들, 2016.

44p. : 삽화 : 23 x 21 cm.

ISBN : 978-89-98751-17-3 : 10,000

어린이책 (동화책)

평택시립도서관 (아 813.8 0947파)

초등 고학년

🔍 진로를 고민하는 아이에게 / 나 혼자만 재능이 없는 것 같은 좌절감이 물러올 때

무슨 일이든 일어 날 수 있다. 내게도 야구에게도!

유현미 (평택시립도서관 사서)

야구를 너무 좋아하지만 특출한 재능은 갖지 못한 아이가 있다. 박찬호, 이대호처럼 뛰어난 선수는 고사하고 프로야구 선수가 될 가능성이 0.1%로 없다면 이 아이는 일찌감치 야구 따위 때려치우고 공부나 하는 게 맞을까? 밥벌이로 연결되지 않을 것이라면 더 늦기 전에 갈아타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이 책이 던지는 화두이다. 당연히 이성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나의 문제, 내 아이의 문제가 되면 결코 쉽게 답할 수 없다. 우리 사회의 극심한 존재의 불안, 삶의 공포가 초등학생의 놀이까지 잠식해 버린 지 오래다. 아이가 조금 재능을 보이면 사활을 걸고 뒷바라지에 뛰어 들거나, 안될 성 부르면 애시 당초 짝을 잘라 버리 것 외에 부모가 가진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다.

이 책의 주인공 한동구는 구천초등학교 야구부 주장이다. 열렬한 야구팬인 엄마와 야구를 그만 두라고 다그치는 아빠 사이에서 고민하는 초등 6년생이다. 아빠와 엄마는 동구가 어릴 때 서로 헤어졌고 동생 민구는 엄마가 형만 좋아한다고 생

각해서 마음의 병을 얻었다. 하필이면 이 때 나타난 친구 영민이는 동구가 4년간이나 노력해서 얻은 주전 자리를 입단 6개월 만에 위협하는 야구 천재다. 아무리 노력해도 친구를 따라갈 수 없다는 열패감에 동구는 난생 처음 경기장에 서는 것조차 두렵게 느껴진다. 아이들에게도 삶의 무게와 복잡성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 책이 가진 매력은 이야기를 마냥 무겁게 끌고 가기보다는 (우리 삶이 그렇듯) 순간순간의 삶의 재미도 놓치지 않는다. 탄탄한 드라마 구성과 등장인물들의 입체적 성격 덕분이다. 야구에 대한 묘사도 정교하고 흥미진진한 승부가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도록 한다. 부산 사투리는 또 얼마나 맛깔 나는 지 ‘아! 이런 표현이 있었지’ 잃었던 고향의 말을 찾은 듯 무릎을 치게 만든다. 작가가 어린이 책이 결코 마이너 장르가 아님을 작품의 완성도로 보여 주고 있다.

『플레이볼』은 아이들의 상처와 성장이 고스란히 잘 담긴 성장 동화이다. 아이들에게는 야구하는 시간이 결과로서 만이 아니라 매 순간 삶을 체득하는 과정이다. 야구를 하면서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잘 지는 것을 배우고, 질 줄 뻔히 알면서도 경기를 끝내기 위해 마운드에 오르는 법을 배운다.

‘야구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끝나지 않는다. 아무리 안타를 많이 맞아도 야구는 저절로 끝나지 않는다. 경기를 끝내야 한다. 피로운 자리에도 서야하는 것이 야구다. 이기는 날도 지는 날도 잘하는 날도 못하는 날도 나는 야구를 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감독님, 인자부터 제가 던지겠습니다. 오늘 경기 끝내겠습니다.”

두려움에 뒷걸음치던 동구가 패배할 게 뻔한 경기를 끝내겠다고 나섰다. 이 녀석들! 좀 멋지다.(책의 표현대로 하면 진짜 까리하다!) 최고가 아니면 야구를 그만두라는 어른들에게 아이들은 멋지게 한방 날린다. “프로 선수가 안 되면 어때? 직장인 야구라도 할테다!”, “뛰어난 선수가 되고, 안 되고는 나중 일이고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갈테야!”라고….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 말하지 않는 어른들을 향해 아이들은 묻는다. “왜 그래야 해요?” 일방적으로 어른들의 잣대로 부여한 질서에 “이의 있습니다!” 라고 손을 높이 쳐들고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낸다.

‘나는 미래를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려워 지금을 잃고 싶지는 않다. 메이저리그 선수였던 호아킨 안두하르는 야구에 대해 딱 한마디 남겼다. “알 길이 없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 내게도 야구에게도.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야구를 한다. 플레이 볼!’

아이들이 이토록 멋진 호연지기를 품고 자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는 일. 그것이 바로 어른의 역할이자 동화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하는 책이다.

할머니 주름살이 좋아요

시모나 치라올로 지음 ; 엄혜숙 옮김. 미디어창비, 2016

33p. : 천연색삽화 ; 27cm.

ISBN : 979-11-8662-117-2 : 120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유아 843-치292할)

유아~초등저학년

📖 5월 가정의 달, 가족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좋은 책



주름살이 들려주는 할머니의 삶

김새롬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사서)

노란 옷을 입은 소녀가 백발의 할머니를 ‘꼬옥!’ 껴안고 있는 이 책의 표지를 처음 보았을 때 문득 나의 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할머니를 떠올려 본 것입니다. 새삼 할머니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할머니께 전화를 해볼까 했으나 ‘언제 내가 할머니께 전화를 해 본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에 수화기를 드는 일부터 어렵고 멧쩍기만 합니다. 그 멧쩍은 마음을 숨겨볼까 하고 책의 첫 장을 슬쩍 넘겨봅니다.

할머니, 주름이 많아 슬퍼요?

어린소녀의 집에는 할머니의 생일을 맞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소녀의 눈에는 할머니가 슬퍼 보이기도, 걱정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 기쁜 날, 기뻐 보이지 않는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소녀의 마음도 걱정이 많습니다. 소녀는 할머니에게 왜 그런지 묻지요. 할머니는 얼굴에 주름이 많아 그럴 거라고 대답합니다. 가만히 할머니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주름이 여간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말씀하시죠. 본인의 주름살 속에는 할머니가 그동안 살아온 삶의 기억이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소녀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어떻게 주름살에 기억이 담길 수 있을까?’ 하고요. 소녀는 할머니 얼굴에 있는 주름살을 하나씩 짚으며 주름살마다 숨어있는 할머니의 인생을 천천히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습니다.

인생이 담긴 할머니의 주름살

할머니는 소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소녀보다 더 일찍 세상에 나왔고, 소녀보다 더 오랜 세월을 흘러보냈지요. 하지만 소녀는 할머니가 살아온 세월을 알지 못합니다. 소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할머니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그런 소녀에게 할머니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얼굴에 가득한 주름살마다 할머니의 인생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할머니의 주름살에는 그녀의 손녀와 같은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 더웠던 어느 여름, 친구들과 소풍을 갔던 해변에서 만난 태풍에도 자지러지게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 말이죠. 할머니 이마의 맨 꼭대기에 있는 주름살에는 첫사랑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첫 데이트였죠. 그 때 탔던 청룡열차가 어찌나 무서웠던지 타는 내내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찡그린 탓에 이마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눈가 옆 자글자글한 주름살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여동생의 웨딩드레스를 손수 만들기 위해 며칠 동안 밤낮없이 재봉틀 앞에서 고생하던 할머니의 젊은 시절이 담겨 있지요. 동생을 향한 언니의 사랑이 아주 가득했던 탓에, 할머니 눈가 주름도 여느 주름보다 많고 깊습니다. 할머니 입술 옆 잔주름은 슬픈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남편 다음으로, 아니 어쩌면 남편보다 더 친구처럼, 연인처럼, 엄마처럼 의지했을 그녀의 딸이 어른이 되어 시집을 가던 날, 엄마의 품을 떠나던 딸을 껴안고 펄펄 울었던 그날의 슬픈 기억이 할머니 얼굴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소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할머니! 날 처음 보았을 때도 기억하세요?” 할머니가 생긋 웃으면 생기는 입가 주름에 할머니와 소녀의 첫 만남이 담겨있습니다. 할머니는 소녀를 처음 본 그날 이후부터 소녀를 볼 때마다 미소를 머금습니다. 소녀는 할머니에게 언제나 기쁘고 행복이니까요. 할머니 입가 옆 주름살은 소녀를 보며 웃을 때만 생기는 신기한 주름살입니다. 쉽게 볼 수 없기에 더 소중하고 귀합니다.

할머니 주름살이 좋아요

소녀는 할머니의 주름살을 통해 그녀가 살아온 긴 삶을 공유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의 주름살이 슬프게만 보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과 슬픔, 행복이 가득했던 삶의 기억이 온전히 주름살로 남아있었기에 할머니의 소중한 경험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할머니의 얼굴에 생길 또 다른 주름살이 기대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줄 테니까요.

이제 소녀는 할머니의 주름살이 좋기만 합니다.

이 책의 마지막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할머니의 생일을 축하해주는 행복한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아마도 할머니의 얼굴에 또 하나의 행복한 이야기를 품은 주름살이 생겼을 겁니다.



호로로 히야, 그리는 대로

차나무, 창비, 2017.
ISBN : 9788936451462
동화책
초등저, 중학년

호로로 히야, 그리는 대로

박지원 (안성시립 공도도서관 사서)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상상들을 하곤 한다. 학교가 가기 싫은 날이면, 학교가 화재에 불타 사라지는 상상, 먹기 싫은 반찬이 밥상에 오르는 날이면, 그 종류가 어느새 전부 없어져 버리는 상상, 다음날 학교 시험이 있다면 그 시험지를 미리 보여주는 상상 같은 것들이다. 우리는 뻔히 일어나지 않을 것을 다 알면서도 그냥 한 번쯤은 바라보는 일들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한 상상들은 일상에서도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든다면 돈이 궁할 때 복권이 당첨되는 상상 같은 것. 이러한 것들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적어도 한 번쯤은 누구든 해보는 상상이 아닐까 싶다.

만약 이러한 상상들이 내가 그림 그리는 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돈이 모자라면 통장에 돈이 차는 그림을, 싫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감기 같은 작은 골병이 들게 하는 그림을, 가지고 싶은 옷이 있다면 그 옷을 입은 나를 그리면 된다. 이는 생각만 해도 행복한 상상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생겨버린 주인공, 바우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호로로 히야, 그리는 대로>라는 책의 첫 장을 먼저 펴보아라.

바우는 1학년 하루 장터에서 어떤 아이에게 ‘그리는 대로 되는 크레파스’를 산다. 바우는 그 크레파스가 정말로 효과가 있을 거라 믿지는 않았지만, 장난삼아 자신에게 혼을 낸 선생님을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가는 그림을 그린다. 그런데 다음 날 선생님이 정말로 사라지고, 바우는 깜짝 놀라며 선생님이 사라진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선생님을 구하러간다. 이러한 환상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을 보며 읽는 동안 신기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면 어떨까 하는 작은 상상들이 불어왔다.

어릴 적에는 상상을 하는 빈도수가 잦았다면 점점 커가며 그 경우가 조금씩 줄어든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가 아닌 이런 일에는 어떻게 해야한다가 머릿속에 박혀버린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상상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다시금 불러오기 참 좋은 책인 것 같다. 여러 동화나 어린이 도서들이 그러하듯 실제 생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타나곤 하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생각들을 불러오기가 딱 좋은 책인 것이다. 무엇보다 읽으면서 흥미를 불러오고, 다음 이야기를 궁금하도록 만든다.

다양한 상상을 넓게 펼쳐갈 수 있는 어린 아이들이 읽는다면 정말 상상력의 폭이 더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러가지 방면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구체적인 그림이나 묘사들이 상상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모험을 통해 바우는 성장하였고 그 과정을 잘 담아냄으로써 성장소설로서의 방면도 충실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철이는 설날이 가장 즐거워요

이호철 글, 박소정 그림, 고인돌, 2017.

136p. : 삽화 ; 23cm.

ISBN : 978-89-94372-81-5 74810 : 13,0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시흥시 중앙도서관 (아813.8 살62)

초등저학년

📖 우리 옛 명절인 설에 대해 자세하고 재미있게 설명한 책임

예전 설 풍경은 어땠을까?

엄정란 (시흥시 정왕어린이도서관 사서)

호철이의 설 이야기는 예전, 공동체가 살아 있던 그 때 그 시절을 보여준다. 과거 시골의 설 풍경을 바라보고 묘사한 책이다. 그 때는 먹고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시절이어서 모든 것이 풍족한 지금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이 책은 어려운 시절에도 온 집안, 온 마을이 함께 온정을 나누고 마음만은 넉넉했던 그 때 그 모습을 온전히 담아냈다. 더구나 작가의 이름이 이호철이기도 해 마치 저자가 자신의 어릴 적 이야기를 그린 것과 같이 느껴졌다.

우선, 책 표지부터 설에 관한 주제를 잘 표현하여 흥미를 끌었으며 호기심 많은 호철이와 개구쟁이인 마을 아이들이 겪는 설날과 정월대보름 이야기를 주요 소재로 삼았다. 또한 설빔, 설음식, 차례, 세배, 동제, 풍물놀이, 쥐불놀이, 정월 대보름, 오곡밥, 부럼, 귀밝이술, 달집태우기, 윷놀이 등과 같은 세시풍속을 마을 공동체의 전통 문화 속에 아이들의 놀이로 신명나게 묘사해 우리 전통문화를 맛깔스럽게 표현하였다.

파스텔톤의 따뜻한 색채와 정감 있는 그림이 글과 잘 어우러져 있으며 초등학생에게 자칫 어려울 수 있는 사투리 말과 전통문화 용어는 각 페이지 하단에 풀이를 해 놓아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설날이 다가오자 호철이는 설빔을 손꼽아 기다린다. 장에 갔다 온 엄마 보따리에 새 옷, 새 신발이 들어 있자 날아갈 듯 신나한다. 엄마는 동생 인철이 설빔까지 사왔는데 그 둘은 서로 자기 것이 좋다고 우기기까지 한다. 흰 고무신과 검정고무신. 그리고 털실로 짠 목티와 골덴 옷이 전부인데도 새 물건에 대한 고마움이 진심으로 느껴졌다. 마을 집집마다 설음식 준비에 바쁘고 아이들은 설렌다. 호철이와 마을 아이들은 뽕튀기 아저씨 옆에 둘러앉아 뽕튀기를 나눠 먹고 방앗간에서 만드는 가래떡과 부엌 가마솥에서 고는 조청도 얻어먹는다. 도시로 일하러 떠났던 동네 누나들과 형들까지도 선물 보따리를 안고 고향에 내려와 설을 보내는데 가족 간의 정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지금과 많이 다르지 않나 싶다.

부족함 없이 자라는 요즘의 아이들과 비교해 보면 그 시절 아이들은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았지만 넉넉하고 따뜻한 정이 있었다. 우리 사회가 개개인의 삶이 중심이 된 사회가 아니라,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삶이 중심이 된 행복한 마을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면서 이 책을 추천한다. 또한 각박한 도시물질문명에 시들어 가는 아이들에게 마음속 훈훈한 기운이 피어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희망을 찾는 아이, 러키

수전 페이트런 글 : 보물창고, 2014.
199p. : 삽화 : 20cm
ISBN : 978-89-6170-369-7 048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843 페68호)
초등고학년

📌 성장통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거나 보낼 시기의 아이들 / 고난과 역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 분투중인 경우

희망을 찾는 아이, 러키

이연순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사서)

작가 수전 페이트런은 로스앤젤레스 공공도서관에서 35년 근무 후 은퇴하여 청소년을 위한 추천도서 목록을 개발하고 있다. 그녀의 대표작인 이 책은 2007년 뉴베리상을 수상했으며, 전 세계에 12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황량하고 가난한 캘리포니아의 사막마을 하드팬

전선을 밟는 사고로 엄마를 잃어 고아신세가 된 12살 소녀 러키는 프랑스에서 온 아빠의 전 부인 브리지트 아주머니의 임시보호 아래 트레일러에서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엄마를 잃은 충격과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다정한 아주머니와의 이별에 대한 염려로 늘 생존가방을 가지고 다니며 내면의 강력한 힘을 찾게 된다. 어느 날 러키는 그 나이 때 아이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오해를 하게 되면서 온 세상을 날려버릴 듯 한 모래 폭풍 속으로 뛰어든다.

불행을 딛고 성장하게 하는 힘

마을 사람들은 단 43명으로 주정부가 제공하는 식품을 정기적으로 배급받는 처



지지만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 우정으로 러키가 불행을 딛고 성장하게 하는 힘이 된다. 한바탕 몰아닥친 모래폭풍을 통과한 러키는 2년 동안 보관하고 있는 엄마의 유골을 모래사막으로 날려 보낸다. 오랜 방황이 끝나고 이름대로 ‘러키’한 아이로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군더더기 없는 문체와 담담한 서술, 마을의 독특한 캐릭터들이 짜임새 있게 연결되어 있어 흥미와 몰입을 더해준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성장의 의미를 찾는 친구들에게 추천한다.

어린이 비문학

길바닥 세계사 음식이야기! / 오늘, 이은정 글	엄정란 · 시흥시 정왕어린이도서관
공룡 엑스레이 / 경혜원 저	김현주 · 수원시 지혜샘어린이도서관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오페라 이야기 / 신정민 저	엄정란 · 시흥시 정왕어린이도서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목민심서 / 정약용 저	박지원 · 안성시 중앙도서관
우리가 원주민 마을에 간 이유 / 오렌 긴즈 버그 저	이시영 · 군포시 산본도서관
짚신 신고 도롱이 입고 동네 한바퀴! / 정인수 저	공정자 · 안성시 중앙도서관
최고의 서재를 찾아라 / 김주현 저	공정자 · 안성시 진사도서관
커럼포의 왕 로보 / 윌리엄 그릴 저	공정자 · 안성시 진사도서관



길바닥 세계사 음식이야기!

오늘, 이은정 글 ; 민경미 그림. 가교출판, 2015.

139p. : 삽화 ; 24cm.

ISBN : 978-89-7777-241-0 74900 : 12,000

군포시 산본도서관 (아909 오197ㄱ)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세계 유명음식과 그에 대한 역사까지 알 수 있어 유익함

우리가 몰랐던 길바닥 세계사 음식이야기!

엄정란 (시흥시 정왕어린이도서관 사서)

흔히 피자, 떡볶이, 햄버거, 토르티야 등은 어른아이 할 거 없이 즐겨먹는 음식이다.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세계 곳곳 어디를 가도 먹을 수 있는 길거리 음식이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 식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누구나 좋아하는 세계 길거리 음식을 통해 재미난 역사를 배우는 『길바닥 세계사 음식 이야기』는 세계 길거리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변해 왔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졌다. 그리고 세계 다양한 길거리 음식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

이 책은 세계를 대표하는 길거리 음식 열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들 음식이 어떻게 탄생하고, 어떤 변화를 거쳐 세계 곳곳으로 퍼져 나갔는지 그 유래와 역사까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책을 읽은 후 그 나라 음식에 관한 고유문화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야기 마지막에는 직접 그 음식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레시피도 제공하여 책을 읽고 난 후 독후 활동으로 요리도 할 수 있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 이 책을 읽는다면 세계사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생길 수 있고 여러 문화까지 두루두루 배울 것이다.



쌀국수 - 전쟁으로 널리 퍼진 음식 (베트남)
쌀로 국수를 만들어 먹는 베트남만의 식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데 프랑스 식민 지배를 겪으며 쌀국수에 고기 국물을 더한 지금의 '퍼(쌀국수)'가 되기까지 쌀국수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다.

덴푸라 - 개항기에 들어온 튀김 요리 (일본)
일본 나가사키 개항과 함께 알려지고 발전한 음식인 덴푸라는 기름에 튀기는 음식 문화가 없던 일본에서 덴푸라가 일본 대표 음식이 되기까지 포르투갈 선교사들과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떤 사연



으로 얽혀져 있는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준다. 또한 에도 시대에 길거리 음식이 유행하게 된 배경과 부산항 개항으로 덴푸라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역사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게 해 준다.

마파두부 - 진마파 아주머니의 야심작 (중국)

‘곰보 아주머니가 만든 두부 요리’라는 소박한 뜻의 마파두부는 이 두부를 탄생시킨 진마파 아주머니가 두부 요릿집을 연 사연과 이 음식이 중국을 넘어 세계로 널리 퍼지게 된 과정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매운 음식을 좋아했던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통해 중국의 근현대 역사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떡볶이 - 궁중 음식에서 서민의 간식으로 (한국)

영조의 어머니가 좋아했다는 궁중 음식 떡볶이. 그 옛날의 떡볶이는 간장 양념에 재어 둔 쇠고기를 떡과 같이 볶아서 만들었다. 조선 시대 말부터 조금씩 알려진 떡볶이가 지금처럼 매콤한 맛을 입고 순식간에 국민 간식으로 등극한 과정을 알 수 있다.

토르티야 - 동글넓적하게 구운 옥수수빵 (멕시코)

옥수수 가루로 만든 멕시코의 빵 토르티야. 고대 아즈텍 문명 때부터 재배한 옥수수가 멕시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에스파냐의 침략 이후 멕시코 음식 문화가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 그 역사를 들춰볼 수 있다. 토르티야로 만든 멕시코의 대표 빵인 타코가 어떻게 세계 시장으로 뻗어 갈 수 있었는지 배경을 이해할 수 있다.

햄버거 - 아시아에서 유럽을 거쳐 미국으로 (미국)

몽골 유목민들이 먹던 말안장 스테이크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일대 변화를 맞으며 ‘함부르크 스테이크’가 되고, 이후 미국에서 ‘햄버거’로 변하기까지의 시대를 관통하는 역사가 담겨 있다. 오늘날 햄버거가 패스트푸드의 대명사로 미국에서 인기를 끌게 된 배경을 알 수 있다.

피자 - 이탈리아의 근대사가 담긴 둥근 빵 (이탈리아)

유럽의 역사를 그대로 담은 음식인 피자. 나폴리 서민들의 배고픔을 달래 주던 피자가 이후 전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간식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크레이프 - 우연한 실수가 만든 화려한 맛 (프랑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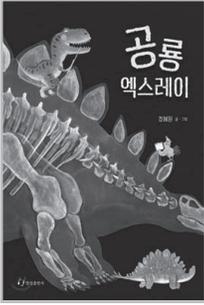
실수에 실수가 더해져 지금처럼 눈으로 즐기고, 입으로 즐기는 요리가 된 크레이프. 얇은 크레이프 한 장에 담긴 프랑스 혁명의 배경과 근대 만국박람회의 세계화가 담겨 있다.

케밥 - 유목민의 전통이 꼬치에 쏙쏙 (터키)

동서 문명의 교차로라는 수식어로 표현되는 터키는 케밥을 통해서도 그 독특한 문화를 잘 알 수 있다. 유목민들이 쉽고 간편하게 만들던 케밥은 이제 터키를 대표하는 음식으로 전 세계로 뻗어 가고 있다. 동서양의 문화가 빚어낸 터키의 식문화를 통해 케밥의 발전을 이해할 수 있다.

코샤리 - 쓱쓱 비벼 먹는 재미 (이집트)

쓱쓱 짹짹 비벼 먹는 코샤리는 세계인의 건강식품으로 주목받는 렌틸콩을 주원료로 한다.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단번에 잡은 코샤리. 이 소박한 음식이 이집트 혁명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었는지, 이집트의 현대사를 살펴볼 수 있다.



공룡 엑스레이

경혜원 글, 그림. 한림출판사, 2017.

52p. : 삽화 ; 29cm.

ISBN : 978-89-7094-963-5 : 13000

어린이책 (그림책)

수원시 지혜샘어린이도서관(813.8 경94 ㄱ)

유아 ~ 초등저학년

📖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 공룡에 대한 지식을 재미있게 알려주고 싶을 때
아이들과 재밌게 놀고 싶을 때

공룡은 내 친구

김현주 (수원시 지혜샘어린이도서관 사서)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하는 말이다.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환자는 좀 특이하다. 바로 공룡. 여기저기 아픈 공룡들이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는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공룡전문병원의 대기실. 간호사가 첫 번째 환자 이름을 부른다.

“스테고사우루스님, 진료실로 들어가세요.”

다른 공룡들이 바보라고 놀려서 왔다는 스테고사우루스는 등에 붙어 있는 골판이 거추장스럽다고 한다. 엑스레이를 찍고 진단을 내리는 의사선생님. 느리고 답답하다고 해서 바보는 아니라고, 골판에는 핏줄이 지나가서 체온 조절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라고 걱정을 덜어주는 말들로 위로를 건넨다. 다음으로 디플로도쿠스, 마이아사우라, 스테고케라스, 오비랍토르, 프로토케라톱스, 티라노사우루스가 진찰을 받고 엑스레이를 찍는다. 오비랍토르와 프로토케라톱스가 서로 자기 알이라고 우기며 싸우는 장면도 나오는데 알 엑스레이를 찍어서 판결을 내려주는 의사선생

님이 마치 솔로몬 같다.

이 책에서 특이한 것은 환자들이 말하는 증상을 통해 각 공룡들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과 엑스레이를 통해 공룡의 뼈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그렇게 흥미롭게 특징과 뼈모습을 보고 난 다음 장에서는 각 공룡들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의사선생님은 트로오돈. 작가는 트로오돈이 머리가 푹 푹하고 환자를 따뜻하게 돌봐 주는 의사 선생님의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리고 간호사는 닭. 학계에서는 새가 공룡에서 진화했다고 생각했다. 공룡 학자 호너 박사가 공룡과 닭은 닭을 만들려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니 궁금해지기도 한다.

「한림지식그림책」이라는 총서명을 보면 이 책이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식전달에도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어렵지 않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점이 높이 살 만하다.

이 책의 작가 경혜원은 공룡매니아다. “언제 처음 공룡을 알게 됐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공룡을 알게 되자마자 반해 버린 것은 확실합니다.”라는 작가는 공룡을 직접 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한다.

『공룡 엑스레이』를 읽고 흥미를 느낀 친구들은 경혜원 작가가 쓰고 그린 또다른 공룡 그림책 『특별한 친구들』(시공주니어, 2014)과 『엘리베이터』(시공주니어, 2016)에 나오는 공룡들도 비교해서 만나보면 좋을 듯하다.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오페라 이야기

신정민 글, 콜레몽 그림, 풀과 바람, 2017.

130p. : 삽화 ; 25cm

ISBN : 978-89-8389-683-4 73670 : 12,000

어린이책 (어린이문학)

군포시 산본도서관 (아674 신74o)

초등저학년

📍 서양 음악 연극인 오페라에 대해 재미있게 설명한 책임

알고 보면 오페라도 어렵지 않아요!

엄정란 (시흥시 정왕어린이도서관 사서)

오페라는 쉽게 말해 노래로 하는 연극이라고 한다. 성악가들의 노래와 연기, 춤이 무대 위에서 펼쳐지고 여기에 문학(대본)과 미술(무대, 의상 등)까지 섞여 있어 종합 예술이라고 칭해도 될 것이다. 이 책은 어린이가 알아야 할 오페라의 정의, 주제, 상식에 이어 세계에서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 및 가수까지 알려준다.

흔히 클래식을 비롯한 오페라, 뮤지컬과 같은 음악들은 접하기가 쉽지 않아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어렸을 때부터 이 음악과 가까이 했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관점을 가졌으리라 생각한다. 오페라는 쉽게 말해 ‘유럽의 판소리’로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한국에서 판소리가 우리의 전통 문화이듯이 유럽에서는 오페라가 전통문화인 것이다.

오페라가 시작된 지는 500여년이 넘었는데 이탈리아 피렌체가 그 기원이다. 그 당시 오페라는 그리스 신화 속 슬픈 이야기나 영웅들 이야기가 대부분이어서 음악도 좀 무겁고 내용도 심각한 편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오페라 주제도 다양해지고 여러 나라로 전해져서 오늘날과 같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오페라나 음악 동화는 줄거리 위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오페라의 유래나 발전 과정, 장르 등을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또한 오페라 극장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다루고 무대장치나 양식도 알려주어 아이들이 오페라에 대한 거부 의식 없이 잘 이해하도록 했다. 더불어 오페라 속 오케스트라의 기본 편성과 연주석 구조도, 오페라를 이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소개해 놓아 음악적 기본 지식과 소양을 기를 수 있었다. 책 읽는 내내 마치 음악수업을 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오페라 줄거리도 간략하게 소개하고 등장인물을 만화로 재미있고 재치 있게 표현하여 읽는 내내 지루하지 않아 초등학교 저학년이 읽기에 무난할 것이다. 또한 작곡자에 대한 부분도 빼놓지 않아 이 책 한권으로도 오페라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책의 마지막에는 오페라 상식 퀴즈를 넣어 마무리를 했는데 이 또한 이 책의 장점이다. 책을 읽는 데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책을 바르게 읽었는지를 테스트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욕심내어 책을 읽을 것 같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목민심서

정약용. 보물창고. 2015.
ISBN : 9788961705165
어린이비문학
초등고학년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목민심서

박지원(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지금 우리 시대의 리더는 어떠한가? 우리가 생각하는 리더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요즘 시끌시끌한 현 시국만 보더라도 진정 우리의 리더는 모두가 생각하는 리더가 아니다, 혹은 잘못된 리더이다라고 모두들 생각할 것이다.

정말 올바른 리더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며 어떤 면모를 지니고 있어야 과연 진정한 리더일까? 우리는 현재의 리더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리더를 원하고 있다. 게다가 고위직 공무원들의 비리는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리더라는 이름의 이러한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과연 이러한 사람들을 리더라고 볼 수 있을까?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진정한 리더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이다. 리더가 무엇인지, 어떠한 일을 해야하는지 말이다.

이 책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렴한 마음가짐, 아랫사람 통솔, 빈민 구제부터 시작하여 올바른 손님맛이 같은 것들도 빠짐없이 적혀있다. 예를 들어 아랫사람 통솔이라고 한다면 벼슬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두 공정히 대해야 하며 조

금의 치우침도 있어서는 안된다거나 빈민 구제라고 한다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가족 또는 친척이 있다면 좋은 말로 타이르거나 엄한 말로 경계하여 그로 하여금 어려운 사람을 거두게 한다는 등의 큰 것에서 작은 것까지 뻘뻘히 적혀있다.

책을 읽으며 특히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책이 조선시대의 유명 실학자에 의해 씌였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정약용인데 책에서는 지방 관리는 언제나 청렴결백하고 벼슬과 재물을 탐내지 않으며, 백성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일꾼이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백성을 '지배'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섬김'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다.

당연한 생각이지만, 이 당연한 생각을 실천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뿐더러 이 책이 조선시대에 쓰인 점을 보아 정약용은 굉장히 선진적인 사상을 가지고 추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지도자 위한 책만은 아니다. 물론 나랏일을 하는 지도자들의 지침서 역할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법, 인간을 사랑하는 법, 바른 사람이 되는 법, 건강한 사회를 가꾸는 법 등 지도자가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또한 적혀 있다. 그렇기에 이 책은 건강한 사람이 되는 안내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 구성 또한 깔끔하고 읽기 좋게 되어있다. 차례로 부임, 율기, 봉공, 애민 등 각각 6조씩 이루어져 있으며 부연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자리에 사진 등이 있어 더욱 이해를 돕는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는 공무원 대란이 일고 있다. 언제 정직원이 될 수 있는지, 언제 퇴직 당할지도 모르는 고용의 불안정성 탓이 크다. 그런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한 권씩 쥐어주고, 비리를 일삼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이 책을 선물해야 하지만 가장 이 책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현 시대의 청소년들이다. 아무래도 아이가 읽기에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니 만큼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청소년이 좋을 것 같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그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가 원주민 마을에 간 이유.

오렌 긴즈 버그 글그림, 임영신 옮김. 초록개구리, 2015.

41p : 삽화 ; 규격외변형

ISBN : 979-11-57820-08-5 : 11,000

어린이책(어린이 사회과학) 300

863 마540

초등저학년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시영 (군포시 산본도서관 사서)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돈이 많으면 잘사는 것인가?

우리 모두는 돈을 풍족하게 벌어먹을 것, 입을 것 등이 넘쳐나는 삶이 행복한 삶인가?

양복차림의 문명인 남자 둘이 원주민이 사는 마을에 찾아간다. 목적은 잘살게 해주기 위해서다. 양복바지에 벨트를 매고,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한 그들은 아랫도리만 가리고 희귀한 장신구에 뽀족한 창을 들고 다니는 원주민들은 불쌍해 보였나보다. 그래서 자신들처럼 옷을 입고 가방을 들고 다니며 즉 잘 살게 해주기 위해 마을을 찾은 것이다. 원주민들의 삶의 방식을 고쳐서 자신들처럼 잘살게 해주고 싶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다. 아무리 봐도 그들은 먹을 만큼만 사냥을 해서 먹거리를 해결하고 물고기들과 놀면서 그물로 잡기도 하고 커다란 아주 커다란 그리고 열매가 가득 열린 나무에 올라가 과일을 따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모

여 충분히 즐겁게 지내고 있다. 그래도 개발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이야기 해보려고 했는데 모두 관심이 없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려 했는데 원주민들은 돈을 아쉬워하지도 않았다.

마을을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을 불러들여 마을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트랙터를 끌고 와서 아름드리 큰 나무를 베고, 넓게 길을 냈다. 그리고 일하는 기술도 가르쳤다. 벽돌을 쌓고 베어낸 나무를 운반하고, 자연을 완전히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남겨 놓은 곳에는 자연환경 보호의 목적으로 철망으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다.

이제 돈을 벌지 못해 살기 어려운 원주민들을 위해 사회 복지 혜택을 마련했다. 드디어 처음 그곳을 찾은 두 문명인은 마을 개발에 성공했다. 원주민들이 새로 개발된 마을에 곧 적응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둘은 이렇게 외친다. “새로운 지구촌 마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지구촌 마을에는 공장 굴뚝 연기가 가득하고 차들이 매연을 뿜고 달리고 있으며 인공호수 같은 곳에는 쓰레기가 둥둥 떠 있다.

돈이 많아서 갖고 싶은 물건은 무엇이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원주민은 미개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가? 물질만능사회에서 사는 우리 모두는 잘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짚신 신고 도롱이 입고 동네 한 바퀴!

정인수 글, 최선혜 그림. 분홍고래, 2016.

ISBN : 979-11-85876-28-3

정보책

초등고학년

📖 짚풀, 전통문화, 공예

선조들의 생활 속 짚풀 공예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그림책 중 『망태 할아버지가 온다』가 있고, “말 안 들으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는 속담이 있다. 실제 망태를 보지 않은 사람들은 망태가 무엇일까 궁금할 것이다. 두산백과사전에 의하면 망태는 “새끼 등으로 꼬아 만든 주머니로 물건을 담아 가지고 다니는 데 쓰는 기구”이다. 이 책 속에는 망태를 비롯하여 짚풀로 만든 다양한 공예품과 생활용품들이 소개된다. 짚풀 공예란 벼의 줄기인 짚과 풀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 내는 기술을 말한다.

저자는 전남 곡성의 미성짚풀공예문화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책은 전남 무형문화재 제55호 초고장이신 임채지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지어졌다. 초고장은 ‘마른 풀로 물건을 만드는 장인’이라는 뜻으로 짚풀 공예가와 같은 말이라고 한다. 책의 말미에는 짚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는 임채지 할아버지의 사진이 실려있다.

우리나라 전통공예에는 금속 공예, 한지공예, 도자공예, 칠보, 목공예, 전통 자수, 유기 등 다양한 공예품이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부유층에서 많이 사용되었고 짚풀은 서민들이 주로 사용한 재료였다. 짚은 주거생활, 농사생활의 도구, 집안의 생

활소품, 놀이도구, 복을 비는 주술적 도구였다. 이 책은 크게 짚과 함께한 생활, 목숨처럼 소중한 짚풀 공예, 짚으로 만든 신들의 세계 등 3장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으로 초가집, 짚신, 삼태기, 달걀꾸러미, 금줄, 줄다리기 등 짚풀로 만들어진 것들을 광범위하게 소개한다. 지금은 잘 볼 수 없지만 짚으로 만든 실제 물건들의 사진과 삽화가 이해를 돕는다. 부록에는 새끼 꼬는 법과 달걀 꾸러미 만드는 방법도 알려줘 실제 체험해 볼 수 있다.

서민들이 살았던 초가집은 콘크리트, 벽돌, 유리 등 다른 재료로 변화되었고 생활용품은 플라스틱으로 많이 대체되었다. 선조들은 벼농사를 짓고 추수를 한 뒤 짚풀을 생활 깊숙이 곳곳에 활용하였다. 이 책을 보다보면 우리 선조들이 짚풀을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했는지 알 수 있다. 점점 사라져가는 짚풀로 만든 물건들은 이제 민속촌이나 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잊혀져가는 선조들의 짚풀 공예에 대해 글 작가가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그림은 이전 세대의 생활방식을 보여주어 짚풀 공예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잘 전달한다.

머리말에 정인수 작가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의견을 담았다. “짚풀 공예 속에는 매우 다양한 것들이 담겨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슬기와 멋이 듬뿍 담겨 있고, 전설과 설화와 같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재미있는 속담도 많고, 정겨운 이름도 가득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이며,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작가의 말처럼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에 전통을 지키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농촌에서 자라난 어른들에게는 익숙한 다양한 짚풀 공예가 어렸을 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어린이들에게는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책이다. 초등학교 학년 이상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추천한다. 어린이 도서 중 짚을 소재로 한 다른 책으로 유아 대상 『짚』(사계절, 2008), 초등 저학년 대상 『짚으로 만들어요』(북큐레이터, 2015) 등의 책을 함께 권한다.



최고의 서재를 찾아라

김주현 글, 지혜라 그림. 창비, 2016.

ISBN : 978-89-364-4694-9 73910

정보책

초등고

📖 서재, 독서왕, 공부

너만의 서재를 만들어 볼래?

공정자 (안성시 진사도서관 사서)

서재를 소재로 책을 사랑하며 독서로 자신의 영역을 확장하고 후대에 훌륭한 저서를 남겼던 인물들을 흥미롭게 소개한 책이다. 부제목은 「조선을 움직인 인물들의 삶과 공부법」이다. 책의 구성도 다른 책과 달리 최고의 서재를 공모해서 소개한다. 들어가는 글 첫 페이지에 『최고의 서재를 찾아라』는 공고문이 있다. 공모대상은 남녀 누구나, 공모 내용은 내 서재, 심사 기준은 책 향기가 나며 서재 주인의 깊은 뜻이 담겨있는가이다. 최종 후보자 명단에는 정약전, 홍대용, 정조, 정약용, 박지원, 황상, 김정희, 이덕무 등이다. 먼저 대화체 글로 서재를 중심으로 공모에 선정된 후보가 자신을 소개한다. 이어서 ‘최종 후보 인물 탐구’ 지면이 구별되게 있어 인물을 전반적으로 소개하고 독자로 하여금 최고의 서재를 선정하라고 질문을 던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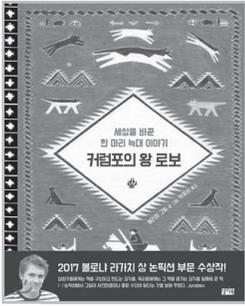
책 속 인물들은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같은 시대를 살았으며 서로 친분이 있었다. 차례에서 각 인물이 자신의 서재를 말풍선으로 이야기하듯 한마디로 소개한 점도 독특하다. 소개된 서재는 바다를 품은 서재 정약전의 복성재, 하늘을 품은 서재 홍대용의 담헌, 목숨을 지켜 준 서재 정조의 존현각, 마음을 지켜 준 서재 정약

용의 사의재와 다산초당, 세상에서 가장 큰 서재 박지원의 연암, 좁쌀 한 알만 한 서재 황상의 일속산방, 무뚝뚝한 돌이 놓인 서재 김정희의 잔서완석루, 우정으로 지어 올린 서재 이덕무의 청장서옥 등이다. 서재를 소개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책과 벗하며 살았던 인물들의 배움의 태도도 배울 수 있다.

추사체로 유명하며 「세한도」를 남긴 김정희를 소개한 글을 인용해 보고자 한다. “사람들은 그를 천재라 불렀지만 그는 평생 누구보다 치열하게 배우고 깨우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김정희는 가슴속에 만 권의 책이 들어 있어야 그것이 흘러넘쳐서 그림과 글씨가 된다고 말했어요. 가슴속에 담은 만 권의 책과 그가 구멍 낸 열 개의 벼루, 몽땅 닳은 천 자루의 붓이 있었기에 김정희의 그림과 글씨는 오랜 시간을 뛰어넘어서도 향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김정희와 같이 책 속 인물들은 뛰어난 위인들이면서 누구보다도 자신을 갈고 닦은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쓴 대부분의 전기서는 각 인물을 한 권으로 출판하거나 각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다룬다. 이 책은 서재를 소재로 전체적인 책 구성이 잘 짜여 있으며 인물들을 흥미롭게 전한 작가의 주제접근방식이 새롭다.

인터넷과 스마트 폰 등 디지털기기의 사용으로 점점 독서하는 인구가 낮아지고 있는 시대이다. 유배지에서 책을 많이 읽고 연구했던 정약전, 정약용, 김정희, 사도 세자의 아들로 목숨의 위협과 두려움을 책을 벗 삼아 누구보다 훌륭한 임금으로 칭송받았던 정조, 정약용의 유배지에서 제자 황상, 가난하지만 책 읽기를 부지런히 했던 이덕무 등이 새롭게 느껴지기를 바란다. ‘나는 일생동안 어떤 서재를 꾸밀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책으로 ‘창비 좋은 어린이책 수상작’이다.



커림포의 왕 로보

윌리엄 그릴 글, 그림, 박중서 옮김, 찰리북, 2016.

ISBN : 978-89-94368-54-2 77840

정보책

초등저학년

시튼, 자연보호, 동물보호, 늑대

시튼과 늑대

공정자 (안성시 진사도서관 사서)

『시튼 동물기』의 저자 시튼이 늑대 사냥을 멈추고 동물보호에 앞장서게 된 실재 이야기를 소재로 한 책이다. 부제는 「세상을 바꾼 한 마리 늑대 이야기」이다. 저자는 어니스트 톰프슨 시튼의 책 『시튼 동물기(Wild Animals I Have Known)』에 수록된 단편 소설 “커림포의 왕 로보”를 바탕으로 시튼과 이 시기에 대해 추가로 조사한 내용을 덧붙여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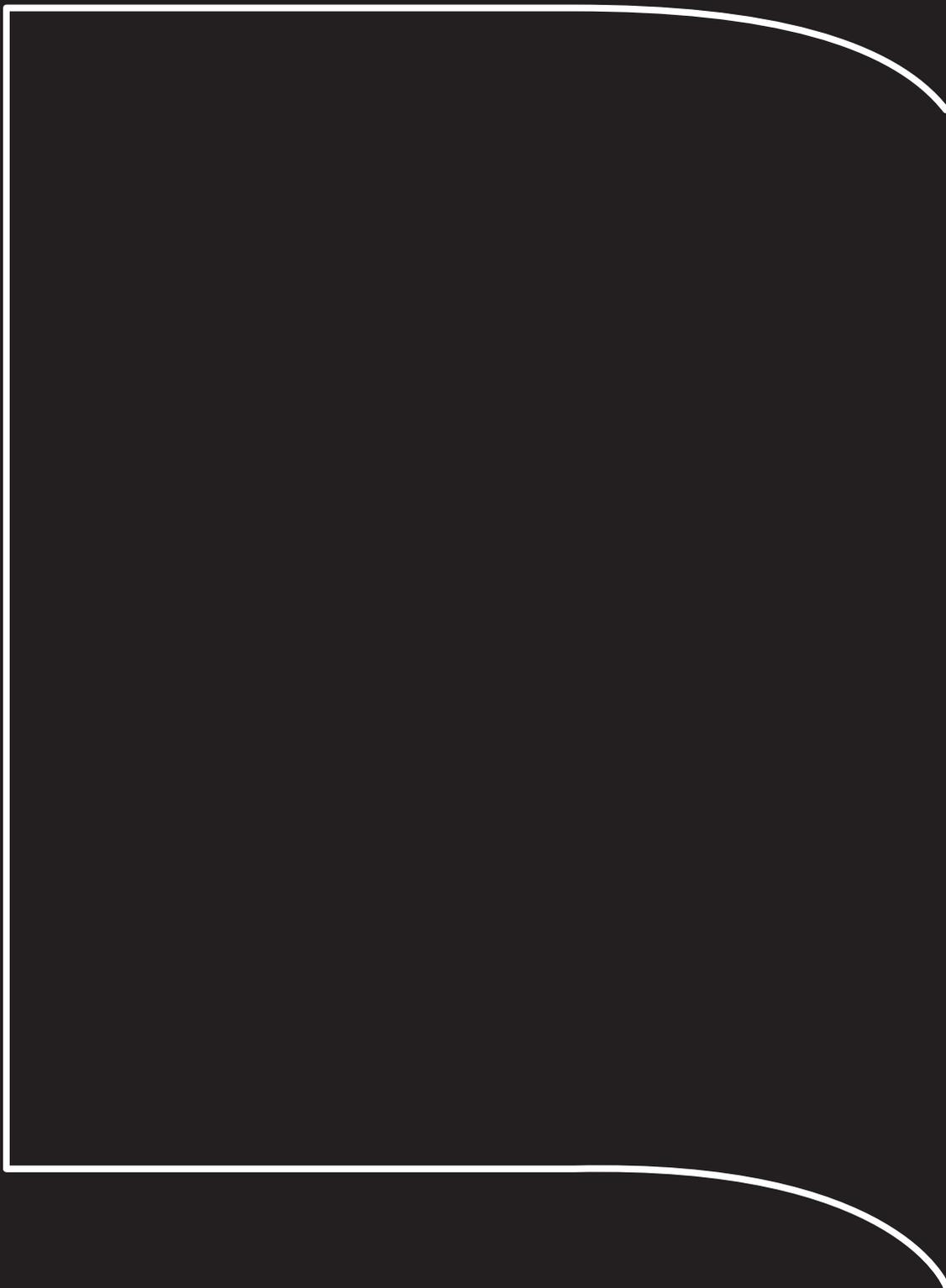
책 제목의 로보(lobo)는 에스파냐어로 ‘늑대’를 뜻한다. 1890년대 뉴멕시코 주 커림포에 사는 늑대무리들은 농장의 가축을 잡아먹었는데 어떤 사냥꾼도 잡을 수 없었다. 시튼은 늑대를 잘 잡은 사냥꾼이어서 농장 주인의 초대로 커림포에 사는 늑대를 사냥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묘안을 생각해 내지만 맘대로 되지 않는다. 늑대무리 중 덩치가 크고 대장인 로보는 매번 보란 듯이 시튼을 따돌린다. 고심 끝에 시튼은 로보의 여자 친구 블랑카를 유인한 뒤 마침내 로보를 생포하고 로보는 죽음을 맞이한다. 시튼은 이 사건을 계기로 두 번 다시 늑대를 죽이지 않았고 늑대 종과 큰 위기에 처한 미국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데 남은 생애를 바쳤다.

책의 말미에 있는 시턴의 심경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로보를 만난 후에 간절한 꿈이 하나 생겼다. 그 꿈이란 이 땅의 야생 동물들이야말로 하나하나 그 자체로 귀중한 유산이며, 따라서 우리에게 그 유산을 없애거나 우리 아이들의 손길 밖에 둘 권리가 없다는 것, 이 사실을 사람들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었다.”

타이틀 화면 뒤 이 책속의 배경이 된 미국 뉴멕시코주의 지도로 시작해서 1862년부터 1894년까지의 사람들이 늑대를 함부로 죽게 한 일, 커럽포를 사냥하는 과정, 시턴이 동물보호를 위해 나머지 생을 바쳤다는 시간 흐름에 따라 책의 내용이 전개된다. 시턴이 야생보호 운동을 하면서 수많은 생물학자, 작가, 생태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으며 현재까지 늑대가 생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어린이 책 중 늑대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함부로 동물을 죽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제를 전달하는 『늑대가 돌아왔다』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다. 『늑대가 돌아왔다』는 이 책 속에 나오는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늑대방사 프로그램으로 늑대가 자연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

작가는 곁이 뚜렷한 종이 위에 색연필로 늑대와 시턴이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아름답고 독특하게 그렸다. 그림이 바둑판식으로 배열하거나 양쪽 페이지에 배경을 짝 차게 그리고, 책 속에 나오는 인물들도 작게 또는 크게 표현하면서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그림 속에서 글에서 표현 못한 다양한 이야기를 그려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판형이나 그림 양식이 비슷한 작가의 다른 책으로 남극탐험을 주제로 한 『20세기 최고의 탐험가 어니스트 새클턴』(2014)이 있다. 초등중학년년부터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추천한다.



**사서들이 찾은
도서관책.
2017**

청소년을 위한 책

HO! / 역수씨 저	이병희 · 안성시 보개도서관
기시고백 / 김려령 저	안미아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나는 밥 먹으러 학교에 간다 / 박기복 저	유현미 · 평택시립도서관
더 빨강 / 김선희 저	안미아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릴리에게, 할아버지가 / 앨런 맥팔레인 저	이선희 · 성남시 중앙도서관
아몬드 / 손원평 저	이병희 · 안성시 보개도서관
조커와 나 / 김중미 저	이선희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충주성심학교 야구부, 1승을 향하여 / 윤미현 저	이병희 · 안성시 보개도서관



HO!

역수씨 글·그림. 거북이북스, 2015

310p. ; 21cm.

ISBN : 978-89-6607-119-7 : 13,800

일반도서 (800)

안성시 보개도서관 만810 역56호 1

청소년 및 성인

📖 '나와 다른 사람' 혹은 '사람들과 다른 나' 때문에 /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책

‘다름’을 ‘평범하게’ 바라보는 예쁜 마음

이병희 (안성시 보개도서관 사서)

왜 백설공주는 왕자와 결혼했을까??

여러분들도 아마 동의하시겠지만, 사람은 참 ‘구분’과 ‘분류’를 좋아하고 잘 하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람은 들에 가득히 핀 꽃을 보면 애써 ‘계-문-강-과’의 생물학적 기준으로 구분과 분류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체계를 만들어 둘 만큼, 구분과 분류는 인간의 본질적 습성에 닿아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에 선뜩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분과 분류는 필연적으로 차이와 차별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다소 엉뚱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그림형제의 동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의 내용을 다들 아시겠죠?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백설공주는 난쟁이가 아닌 왕자와 사랑에 빠지게 될까요? 난쟁이는 오갈 데 없는 공주를 자신의 집에 받아들여서 지극정성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주는 잠깐의 고민조차 하지 않고 생면부지의 왕자에게 가버립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 난쟁이는 키가 작잖아요. 사실 이

이유 말고는 백설공주의 배은망덕한(?) 선택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정말로 정당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 답에 자기도 모르게 수공을 한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난쟁이와 공주를 같은 ‘인간’으로 보지 않고 ‘선천적으로 키가 작은 인간’과 ‘정상인’으로 구분해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자가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존재라고 단정해 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슬픈 일이지 않나요?

‘다름’을 인정하기 위한 노력

유명 웹툰 작가 ‘억수씨’의 만화 『Ho!』는 바로 인간의 그러한 습성에 일침을 가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백수 ‘김원이’와 청각 장애인 ‘윤호’입니다. 둘은 과외 선생과 학생의 관계로 처음 만나게 됩니다. 원이는 예기치 못한 장애인 제자에 당황합니다. 하지만 곧 여느 아이들과 똑같이 수업을 합니다. 물론 말이 아닌 필기로 이해를 시키고, 똑같은 문제를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수업과는 조금 달랐지만 원이에게 호는 그저 수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평범한 초등학교 제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지요. 그러다가 원이는 입대를 하고, 호도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둘의 인연은 잠시 끊어지지만 원이가 회사에 취직을 한 후 두 사람은 다시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이미 선생과 제자의 관계는 끝이 났지만, 둘은 서로를 여전히 선생과 제자로 여기며 관계를 이어갑니다. 회사 내부의 비리문제로 실직을 하게 된 원이는 자괴감에 빠져 호를 비롯하여 주변 사람들 모두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호는 오랫동안 숨겨온, 원이를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호가 원이를 사랑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원이가 자신을 평범하게 대해주기 때문이죠. 원이는 뭐 당연한 소리를 하나며 통을 놓지만, 사실 그건 대단한 겁니다. 사람이 ‘구분’과 ‘분류’를 좋아하는 존재라는 걸 생각해본다면 말이죠.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사람을 A와 B로 나누기에 아주 편한(?) 기준입니다. 실제로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을 우리는 ‘청각장애인’, 혹은 ‘귀머거리’ 등의 이름으로 ‘일반인(혹자는 무려 정상인이란 명칭을 쓰기까지 합니다.)’과 구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남다르게 대하죠. 남다르게 대하는 태도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친절을 베풀거나, 배척하거나입니다. 둘 중에 어떤 태도가 좋은가요? 물론 친절을 베푸는 쪽이 더 낫겠죠. 하지만 친절을 베푸는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저는 기본적인

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장애인이라는 칭호를 왜 부여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백 번 양보해서 장애인이라는 칭호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단지 몸이 불편한 ‘보통’ 사람입니다. 비 정상인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당연하고 좋은 일이겠지만, 측은지심을 가지고 시혜적 태도로 친절을 베푸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배척을 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이가 호를 대하는 그 마음이 참 좋습니다. “성생니쁜 날 평범하게 봐뉜.”라는 호의 말에, “뉜, 당연한 소릴 하고 있노.”라고 대답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어찌 예뻐 보이지 않을 수 있을까요.

물론, 사람은 타인에게서 본능적으로 나와 다른 점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이는 무리생활을 하던 원시사회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일종의 DNA와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원시인이 아니자나요? 사람을 대할 때 편리와 불편, 유리와 불리 따위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인간으로 바라보고 온전히 그 사람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그 길로 걷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책을 읽어 보고 원이와 호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도 그런 노력의 작은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시고백

김려령 글. 비룡소, 2012.

292p. ; 2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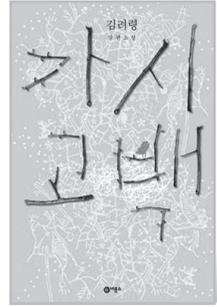
ISBN : 978-89-4912-314-1 : 11,500

일반도서 (문학)

성남시 중앙도서관 (813.6 771957)

청소년, 성인

📍 친구나 가족들에게 상처를 고백하고 싶은 청소년 / 우정과 가족애를 느끼고 싶은 청소년과 성인 / 학생들을 이해하고 소통하고 싶은 선생님



꺼내 놓아도 정말 괜찮을까요?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완득이』와 『우아한 거짓말』로 스타작가가 된 김려령의 장편소설인 『가시고백』은 톡톡 튀는 필체로 쉽게 읽히는 책이다. 작가의 전작들이 그렇듯 청소년들의 삶을 입체적이면서 감각적으로 표현하지만, 주인공들의 인생 앞에 놓인 문제들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다.

『가시고백』은 예민한 손을 가진 직업 도둑 ‘해일’과 반듯한 육쟁이 ‘진오’, 재혼 가정의 대찬 소녀 ‘지란’, 반장 직업병에 혼란스런 ‘다영’을 중심으로 고2학생들의 우정과 사랑에 관한 이야기이다. ‘해일’은 자신의 도둑질에 대해 말하지 못하는 가시, 재혼가정의 ‘지란’은 친아빠와 새아빠 사이에서의 자신의 역할과 진정한 가족에 대한 열망에 대한 가시, ‘다영’은 완벽한 반장이지만 반의 모든 아이들을 챙기는 것도 어렵고, 짝사랑은 더더욱 어려운 가시, ‘진오’는 육을 무기로 자신과 주변을 통제하지만 마음에 맞는 친구가 도둑이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여야 하는 가시를 가지고 있다. 복잡할 것만 같은 여러 사건들이 병아리 부화실험과 어우러져 자신만의 방식으로 내어놓고 치유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어렸을 적 외로움과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불안감을 간직한 채 성장한 해일은 자신을 몸이 먼저 움직이는 태생부터 직업 도둑이라 생각한다.

“...걸리면 빌어야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맹세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가져온 건전지다. 비겁한 겁쟁이. 건전지는 큰 것을 물어 버리고 작은 것으로 용서받고자 하는 마음이 그만큼 쌓인 것이다. 훔치는 행위보다 더 자신을 초라하게 만드는 비겁함. 너무 많은 건전지는 한 번쯤 해 보는 치기가 아니라 상습적인 도둑임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었다.”

쌓인 건전지만큼 용서받고 싶은 해일은 자신의 비겁함을 한탄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지만, 언젠가 가시고백을 해내고 말 것 같은 작은 희망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다.

우연치 않게 실험하게 된 병아리 부화과정을 따라 해일, 지란, 진오, 다영 뿐 아니라 담임인 조용창까지 자신의 가시를 치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세대가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다. 따뜻한 해일의 가족, 어색함 속에 단란함을 유지하고 있는 지란의 가족, 상대방의 약점만을 바라보는 미연 등 각각의 캐릭터들이 다양한 삶과 생각의 형태를 보여주며, 어른에게 도둑질이 발각되어 반성하는 뻔한 스토리가 아니라 자신의 가시를 믿고 의지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스스로 고백해 비난도 받고, 이해도 받을 수 있는 따뜻한 성장소설이다.

나는 밥 먹으러 학교에 간다

박기복 글 행복한 나무. 2015.

200p. : 삽화 ; 21 x 15 cm.

ISBN : 978-89-93460674 : 8,800

청소년 성장소설

평택시립도서관 청 813.7 B212 L

청소년 ~ 성인

👁 친구관계를 고민하는 청소년 / 남에게 듣기 싫은 말을 못하는 사람



자신의 감냥만큼 짐을 지는 용기-

유현미 (평택시립도서관 사서)

하마터면 이 책을 그냥 지나칠 뻔했다.

선뜻 손이 가지 않는 표지 디자인에 책 제목도 ‘너무 가난해서 급식으로 끼니를 해결한다는 말인가?’ 하는 선입견을 부추긴다. 설상가상 표지에 잔뜩 붙은 광고문구들은 -십대들의 힐링캠프, 청소년 권장도서, 아침독서추천도서- 지나치게 건전하여 유익하고 재미없는 책이 아닐까?’ 의심을 촉발한다. 이런 요소들이 종합하여 더욱 더 격렬(?)하게 읽고 싶지 않은 마음에 불을 지핀다. 아마도 ‘평택시 올 해의 한 책’ 후보도서가 아니었다면 쉽게 책장을 넘겨보지도 않았을 터다. 하지만 선입견을 거두고 막상 책을 읽기 시작하자 단숨에 읽혔다. 학창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경험해 보았을 법한 고민과 갈등들이 몰입도를 높인다. 작가가 청소년들의 곁에서 오랫동안 멘토로서 활동해온 이력 덕택인지 마치 곁에서 보는 듯 생생한 현장감을 더한다.

어른들에게는 자칫 사소해 보이는 일조차도 아이들이 받아들일 무게는 자 못 다르다. 청소년들에게 학교생활은 그 자체가 하나의 세계이자 전부일 수도 있다. 전



교생이 다 보는 앞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 은 그저 흔한 ‘혼밥’이 아니라 만천하에 자신이 왕따임을 고하는 일이자 동시에 투명인간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혼자 밥을 먹느니 차라리 굶는 편을 택하거나 교실에 혼자 남아 눈물의 빵을 삼킨다. 더 이상 학교가는 것 자체를 포기하기도 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아침에도 왕따를 당해 혼자 밥을 먹어야하는 자식을 걱정해서 엄마가 보낸 문자와 아이의 답글이 인터넷 화제기사로 소개되었다. “밥 먹으러 가냐?”, “밥은 먹었나?” 계속된 엄마의 문자와 그런 엄마를 안심시키려 (눈물을 참고) 점심을 먹고 있다는 인증사진을 보낸 딸의 사연이다. 사연의 학생은 SNS에 자신의 사연을 고백하며 “딱 한명이라도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자살 시도도 했던 나 자신이 밍다. 부작용이 안 생기고 행복한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남겼다.

책의 주인공 지민이는 혼자 밥을 먹게 된 친구가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 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친구가 느낄 두려움과 외로움에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친구가 겪는 외로움에 가슴은 아프지만 자신이 어떻게 도와주지도 못하고, 야단맞는 친구

를 위해 어떤 몸짓도 보여주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할 뿐이다. 남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거의 못하는 자신의 성격을 탓하면서도 선불리 친구를 돕다 혹여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혼자서 밥을 먹게 될까봐 두렵기도 하다.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그런 두려움 때문에 곤경에 처한 친구들을 모른 척 외면하거나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방관하는 편에 선다. 개중에는 용기내어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아이들도 있지만 한 두 명의 선의로 허물기에는 왕따 매커니즘은 생각보다 견고하다. 그 세계의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이분법으로 구분할 수 없는 복잡다단한 관계망이 존재하기도 한다.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 사이에서 방황하던 지민이는 고민을 끝내고 드디어 용기를 내어 ‘딱 한명’이 되기로 결심을 한다. “싫으면 싫다고 하자. 옳으면 옳다고 하자. 내 감냥만큼은 짐을 지자.” 지민이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견고한 벽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앞으로 지민이가 겪을 일들이 ‘그래서 모두는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라는 동화의 세계처럼 펼쳐지지 않을 것임을 잘 알기에 그녀가 통과해야 할 좌절과 절망의 시간들에 마음이 저려 오지만 아마도 깨끗하게 잘 헤치고 성장해 나갈 것임을 믿는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옳으면 옳다고 하는 것, 자신의 감냥만큼 기꺼이 짐을 지고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두렵지만 용기를 낸 지민이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



더 빨강

김선희 글. 사계절, 2013.

212p. ; 23cm.

ISBN : 9788958286875 : 10,000

일반도서 (문학)

성남시 중앙도서관 (808.3 ㅅ116 87)

청소년, 성인

📍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청소년 / 부모와의 관계와 집안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화끈하게, 매콤하게, 더 강렬하게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더 빨강』의 책표지에는 빨간 옷을 입은 남학생이 지붕 위에 앉아 콘돔을 붙고 있다. 그의 눈길은 풍선처럼 부풀은 콘돔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썹 모양을 보아하니 뿔가 단단히 화가 난 표정이다. 표지를 처음 보았을 때는 풍선의 정체를 잘 알아차리지 못했다가 소설을 다 읽고 나서야 소년의 입에 있는 물건이 어떠한 것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 책의 내용도 마치 표지와 같아서 완독한 후에야 엇나간 퍼즐이 맞추어진 듯하다.

이 작품은 제 11회 사계절문학상 대상 수상작으로 작가는 이미 두 차례 청소년 소설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김선희 작가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고등학생 길동이다. 동이에게는 사고로 일곱 살의 지능을 갖게 된 아버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치킨가게를 하는 엄마, 취업에 실패 후 치킨 배달하는 명이 형이 있다. 동이는 간간히 가게 일을 돕고 학교생활과 집안 살림도 챙기지만, 열여덟살에게는 아버지를 돌보는 스트레스와 피로는 답답한 일상이며, 가족 모두가 돌봐야할 대상일 뿐 그의 삶에 큰 도움을 주지 못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유일한 탈출구는 ‘야동’뿐인 그에

게 웬지 관심이 가는 오미령이 나타나고, 짝사랑하는 그녀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더 빨강’에 가입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소설의 마지막 장에는 이런 문구가 나온다. “인간은 누구나 외롭지만, 그래서 인간인 거다. 나는 그 사실을 계속 부정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나를 인정하고, 내 힘으로 외로움을 극복해 볼 생각이다. 스물여덟 살이 될 때까지 극복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노력은 해 보기로 했다.(203p.)”

이렇듯 작가는 길동이를 통해 힘든 현실 이지만 받아들이고 용기를 내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작가의 솔직하고 과감한 문장들이 스토리에 더 집중하게 하고, 작품을 읽는 내내가 가볍고 경쾌하며 현실적이다. 하지만 그 속에 담은 내용은 어둡고 힘들고 슬프게 한다. 이런 상반된 느낌이 사춘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현주소일 것이다. 이러한 점은 독자가 청소년이라면 길동이의 이야기를 공감하며 집중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독자가 성인이라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자녀 양육태도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을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추천하며, 소설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릴리에게, 할아버지가

앨런 맥팔레인 글, 이근영 번역. RHK, 2015.

363 p. ; 14cm.

ISBN : 978-89-255-5672-7 : 14,000

일반도서 (문학)

성남시 중앙도서관 (848□394스3)

청소년 및 성인

 철학적 물음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부모 / 자아 찾기에 나선 청소년

나는 네가 온전히 너의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선희(성남시 중앙도서관 사서)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혹은 사람들 속 관계를 맺으며 만나게 되는 의문들이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그 해답은 『릴리에게, 할아버지가』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사회, 관계, 자아에 대해 인간의 근본적인 여러 궁극증에 대하여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역사 인류학, 문화 인류학 교수, 앨런 맥팔레인이 손녀에게 보내는 삶에 대한 28통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죽더라도 이 책을 통해 손녀와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하며 손녀가 10년 후에 이 책을 읽을 것을 예상하며 쓴 글이다, 작가의 프롤로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손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데, 글을 읽는 내내 그 따뜻한 마음이 독자에게도 전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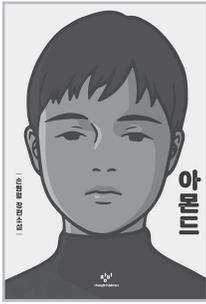
책은 「나에 대하여(존재, 개인, 즐거움, 정신, 놀이)」, 「관계에 대하여(사랑과 결혼, 우정 등)」, 「세상에 대하여(학교와 조직, 불평등, 인류의 미래 등)」 크게 세 주제로 나뉘져 있으며 저자는 각 주제마다 자신의 경험 혹은 인류사에서의 경우를 예로

들어 자신의 생각(혹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벽은 왜 생기는 걸까?”에서는 ‘현대 사회의 기본적인 이상인 개인주의적이고 평등한 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며, 가족 내에서 불가피하게 위계질서를 만들어 내거나 자식에 대한 사랑이나 부모에 대한 사랑, 자기애나 자긍심 사이에 긴장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작가는 설명한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이 이루지 못한 바를 아이들을 통해 대신 이루려는 마음을 버려야 사랑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나이를 먹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외로워지는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이야기 해준다. 이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작가는 객관적인 어조로 부모, 자식의 입장에서 따듯한 시각으로 가족 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원인과 그 해결 방법에 대해 담담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유교적 권위주의의 영향을 받은 기성세대와 서구화된 교육 및 문화에 익숙한 신세대 사이에서 일어나는 한국의 여러 가정이 겪고 있는 고민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고등학생 이상의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책은 너무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지만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심도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육아서로 적합하다.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자식이 부모에게 던지는 존재, 우정, 병 등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몬드

손원평 글. 창비. 2017.
263p. ; 19cm.
ISBN : 978-89-3643-426-7 : 12,000
일반도서 (800)
안성시 보개도서관 813.7 손66
청소년 및 성인
📖 혼자가 편한 사람들을 위한 책

진정 조화로운 삶이란?

이병희 (안성시 보개도서관 사서)

너 지금 나를 바라보는 거니? 할 말이 있는 거니?

언제인가, 표지의 디자인이 책의 완성도에도 일정부분 기여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 2016년 ‘올해의 출판인상 디자인부분’의 수상자 ‘석윤이(미메시스 디자인)씨’가 “책이 예쁘면 읽고 싶고,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인터뷰한 것을 읽은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에 그다지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내용이 좋으면 책은 알아서 독자에게 접근한다는 것이 평소 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손원평의 장편 소설 ‘아몬드’를 만나고 나서는 저의 그런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표지의 중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고 할까요? 적어도 표지 자체만으로도 전해지는 표정과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은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창비에서 펴낸 ‘아몬드’의 표지에는 한 아이의 상반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주인공의 모습이겠지요? 반쯤 감긴 눈, 굳게 다문 입술, 단정한 머리스타일, 모나지도 둥글지도 않은 얼굴형. 아이의 모습은 아주 평범합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모습 속에서 저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뜨고 있긴 하지만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는 듯한 두 눈에서. 앙다문 것도 아닌데 웬만해선 절대 열릴 것 같지 않은 입술에서. 알 수 없는 호기심이 무럭무럭 자라나더군요.

‘이봐, 넌 지금 누구를, 아니 무엇을 보고 있기에 그렇게 표정이 없는 거니? 나를 보고 있니? 아니 무언가를 보고 있기는 한 거니? 화가 나 입을 다물고 있는 거니? 그냥 할 말이 없는 거니? 말해 줄 생각조차 없니? 너무 답답하고 궁금하구나. 좋아! 그럼 내가 다가갈게. 이제부터 너의 이야기를 들려주렴!’

강렬한 첫 장면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불편함

이야기는 시작부터 아주 강렬해서, 보는 이이 몰입감을 급속도로 높여줍니다. 한 아이가 길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나이는 여섯 살. 낮 선 곳에 홀로 남겨진 여섯 살 아이. 무섭고 혼란스러울 법도 하지만 아이는 그저 걷습니다. 그렇게 걷고 걷다가 우연히 어느 중학생이 집단 구타를 당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중학생은 많이 다쳤는지 움직이지도 못하죠.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한 아이는 근처 구멍가게로 들어가 도움을 청합니다.

“아저씨. 골목에 누가 쓰러져 있어요.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렇게 심각한 내용을 전달하는 아이의 말투와 태도는 너무나 평온합니다. 전혀 서두르는 기색도 없고, 목소리에서도 놀람이나 두려움과 같은 감정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습니니다. 6살 아이가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서도 이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요? 아이의 말이 장난이라고 생각한 가게 주인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아이는 아저씨를 설득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저 같은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죽을지도 몰라요..” 뒤늦게 경찰을 불러 현장을 찾았을 때 중학생 아이의 목숨은 이미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놀랍게도 죽은 아이는 가게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슬픔에 몸부림치는 주인 아저씨는 아이에게 사대질 하며 외칩니다.

“네가 조금만 진지하게 말했더라면 늦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아이는 아저씨의 그런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했기 때문이죠.

옆에서 경찰이 유치원생이 뭘 알겠느냐며 고꾸라지려는 아저씨를 간신히 받아

세웠다. 나는 아저씨의 말에 동의하기 어려웠다. 나는 줄곧 진지했다. 단 한 번을 웃지도 흥분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왜 그런 질책을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여섯 살의 짧은 어휘로는 그런 의문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잠자코 있었다(본문 19p)

어떤가요? 이야기의 첫 장면만 보아도 우리는 이 아이가 심상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 무엇이 이상한 걸까요? 아이는 위기 상황을 보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 달려가서 위급함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지요. 누구나 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문제는, 아니 이상한 점은 바로 아이의 행위가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보통의 6살 아이라면 그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두려움에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중학생의 아버지도 단박에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챌겠죠. 하지만 아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른들보다 침착하고 냉정했습니다. 마치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혼자일 수밖에 없는 아이의 이야기

앞서 말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바로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아이의 태도입니다. 평범하지 않다. 보통의 기준에서 벗어났다. 나아가 나와 다르다는 느낌은 대개 우리에게 불편한 느낌을 주기 마련이고, 아이의 태도는 이런 요소를 충분히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이의 이런 태도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아이는 알렉시티미아, 즉 감정 표현 불능증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천적으로 작은 뇌의 편도체 때문에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아이. 그 아이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 ‘윤재’입니다.

감정을 느낄 수 없다면 삶이 어떨까요? 아무래도 불편한 부분이 없을 수 없겠지요. 아니 어쩌면 생존에 꼭 필요한 요소가 결여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공포를 느끼지 못한다면, 집에 불이 나도 왜 빠져나가야 하는지 이유를 찾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와도 마음의 교류를 나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런 감정을 느낄 수 없다는 건 타인이 어

떤 감정을 느끼는지,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공감의 부재죠. 공감을 못한다는 것은 곧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야기 속 윤재 역시 그런 문제로 고통을 느낍니다. 아니 고통을 느끼는 건 아니죠. 윤재는 감정이 없으니까요. 고통을 느끼는 건 윤재의 가족입니다. 특히 윤재의 엄마는 이대로 가면 윤재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지를 알기에, 아이를 고치기 위해 부단히 애를 씁니다. 윤재의 할머니 역시 그런 어머니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줍니다. 비록 증상에 차도는 없었지만, 두 분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윤재는 큰 문제없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단 한 명의 친구도 없이 외롭게 지내야 한다는 것이 문제였지요. 아니 윤재는 외로움도 느낄 수 없는 아이이니 문제가 아닌 건가요? 이럴 때는 감정을 못 느끼는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찌됐든 윤재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항상 혼자인 삶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윤재를 진정한 혼자인 삶으로 밀어넣은 비극이.

진정 조화로운 삶이란?

윤재에게 일어난 비극은 바로 ‘묻지마 살인’ 이었습니다. 윤재의 생일날, 그 일은 일어났죠. 세상에 대한 분노로 뿔뿔몽친 어느 남자가 이유없이 윤재의 엄마와 할머니를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엄마는 크게 다쳤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윤재는 공포도, 연민도, 분노도 느낄 수 없었기에 그저 그 상황을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윤재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세상과 연결되어 있던 끈과 같은 두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완벽하게 세계와 단절이 된 것이죠. 하지만 재미있게도 그 사건 이후에야 윤재가 조금씩 세상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바닥을 한 번 쳐보야 일어날 용기를 얻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윤재에게 두명의 친구(?)가 생깁니다. 이수와 도라. 그들은 각자만의 방법으로 윤재의 삶에 개입을 하고, 조금씩 윤재를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윤재는 혼자만의 틀 속에서 벗어나 세상과 살을 맞대기 시작합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처음에는 혼자만의 삶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윤재를 보며 흐뭇한 기분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윤재가 끝내 그 만의 고치 속에 묻혀 살았다고 해서 문제될

게 있었을까? 윤재는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할 아이가 아닙니다. 엄마의 훌륭한 교육 덕분에 사람이 고통에 빠졌을 때는 도와야 한다는 것도 잘 아는 아이였습니다. 감정이 없다는 것은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지만, 뒤집으면 불행을 느끼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윤재를 굳이 세상 속으로 끄집어 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저대로 사는 것이, 사람과 억지로 교류하기 위해 온갖 고통을 감내하는 것보다 낫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마도 정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에 따라 ‘윤재의 부화(孵化)’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겠지요. 그렇기에 저 역시 굳어 여기에서 저의 생각을 밝히지는 않으려 합니다. 다만 논어에 나오는 다음 구절을 소개하면서 끝내겠습니다.

君子和而不同(군자화이부동) 小人同而不和(소인동이불화)*

*뜻 풀이 : 군자는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루나 같음을 강요하지 않는다. 허나 소인은 같음만을 원하고 조화를 이룰 줄 모른다.

조커와 나

김중미 소설집/ 창비, 2013

267p. : 삽화 ; 2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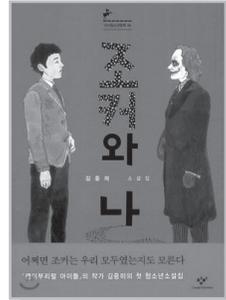
ISBN : 879-89-364-5648-1 : 9,500

일반도서 (문학)

성남시 중앙도서관 (808.3ㄷ158 v.48)

청소년

📖 어려운 상황에 놓인 청소년 / 그런 청소년을 돕고 싶은 누구든



외로운 너에게

이선희 (성남시 중앙도서관 사서)

김중미 작가는 오랫동안 아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곁에서 지내왔다. 작가는 ‘기차길옆작은학교’의 농촌 공동체를 운영하며 아이들의 아픔을 함께하려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 아이들은 여러 가지 불평등, 부조리가 집약된 곳에서 살고 있어요. 폭력을 내면화하고 길들여지고 노예도 되죠. 아이들이 외부폭력으로부터 ‘아니요’라고 말하게 하고 싶었어요.’

이런 작가의 시각으로 묶은 소설집 조커와 나는 폭력의 한가운데 놓인 우리 청소년들이 주인공이다.

『조커와 나』는 무기력한 나와 장애를 가진 정우, 그 둘을 괴롭히는 조커의 이야기이다. 학교폭력에 관한 이야기로 진행되나 싶었으나, 조커의 아픔이 드러나면서 모두가 폭력에 대한 피해자가 된다. 하지만 정우의 죽음을 통해 남겨진 아이들은 상처를 딛고 자신의 모습을 되찾고 스스로 일어선다.

「불편한 진실」에서는 어른들이 내어주는 권력을 휘두르는 학교폭력에 맞선 현서가 친구들에게 린치를 당하고, 그런 모습을 민우가 동영상 찍어 세상밖으로 내보내면서 학교는 그제서야 해결에 나서지만

현서는 ‘어쩌면 이제부터 진짜 용기가 필요할 때인지 모르겠다. 더는 피하지 않고 모르는 척하지 않는 용기가 말이다.’ 라고 생각하며 굳은 마음을 갖는다.

「꿈을 지키는 카메라」는 재개발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아람이가 학교 내에서 도명품반과 상,중,하 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하는 학교에 보충 수업을 거부하고, 카메라를 통해 선생님께 지지를 얻고 자존감을 지키고 꿈을 찾는다.

“보충 안 한다고 저를 포기하는 건 아니죠. 전 절대 저를 포기 안해요. 이미 학교에서는 포기했을지 몰라도...”

어른들이 주는 상처에도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나 강하게 스스로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주먹은 거짓말이다」는 가정 폭력에 지친 석이가 학교 폭력까지 당하게 되자 걸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폭발한다. 그런 모습은 엄마를 결심하게 만든다.

‘나는 아이들한테 놀림을 당할 때도, 까닭 없이 쥐어박힐 때도, 따돌림을 받을 때도 억울한 마음을 밀어 넣고 또 밀어 넣으며 참았다. 그런데 이제 더는 참을 수가 없다. 내 앞에 문득 아버지의 성난 얼굴이 떠오른다.’

「내게도 날개가 있었다」는 따돌림에 못 이겨 자살한 친구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을 갖고 살던 가은이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을 겪게 되며, 이번엔 피하지 않고 상황들을 풀어가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 한다. 어떤 것이 제일 억울했냐고 물어본 말에,

“수진이 죽은 거요. 그런데 아무도 책임이 없는 거요. 그리고 아무도 미안해하지 않은 거요. 자기도 그 아이한테 잘못된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미안해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을 모른다면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셔야 하잖아요”라고 대답하는 가은이,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지는 부분이다.

소설집에서는 아이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어른들(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얼마나 괴롭히기 쉬운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나 비관적이기 보다는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 그려져 독자들에게 희망을 갖게 한다. 또한 더 이상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피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결코 해결책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이들은 그 누구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들이 자신의 상황을 똑바로 인식하고, 더 이상 피하지 않을 때 비로소 상황을 바꿀 수 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선택이고, 그 선택에 따라 희망은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있다.



충주성심학교 야구부, 1승을 향하여

윤미현, 이소정 글. 살림FRIENDS, 2014

326p. 사진 ; 21cm.

ISBN : 978-89-5222-836-9 : 13,000

일반도서 (600)

안성시 보개도서관 695.7 윤38

청소년 및 성인

📖 몸이 불편한 친구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은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

마음 보살피기 연습

이병희 (안성시 보개도서관 사서)

여러분 ‘장애우’라는 말을 아시나요? 장애인을 보다 친근하게 부르기 위해 생겨난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만들어진 취지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장애우’라는 말에 반감을 드러냅니다. 그 이유는 장애우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정상인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보는 관점에서 생성된 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반대편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건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이다. 장애인을 꺼려하지 않고 친구처럼 지내고자 하는 의미일 뿐’이라고 강변합니다. 양쪽의 말 모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쪽이 말이 맞다고 정확한 선을 그을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굳이 저의 의견을 밝힌다면, ‘장애우’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이나 관점의 차이, 용어의 정확성 여부 등 복잡한 요소를 고려한 것은 아닙니다. 직관적인 의견입니다. 다시 말해 그냥 ‘장애우’라는 말이 듣기에 썩 좋지 않을 뿐입니다. ‘장애우’라는 말 자체가 한 사람의 존재를 ‘장애’라는 색안경을 끼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역량이 부족하여 글로, 제 생각



을 명확히 정리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네요. 그리고 저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강요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찌됐든 온당치 않은 태도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생각의 든든한 지원자가 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충주성심학교 야구부, 1승을 향하여’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MBC 휴먼다큐멘터리 PD로 유명한 윤미현 PD와 MBC PD수첩의 이소정 작가가 동명의 다큐 프로그램을 글로 정리하여 발간한 책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많겠지만, 충주성심학교는 청각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야구부가 하나 있지요. 이 야구부에서 ‘1승’을 목표로 야구를 하는 아이들의 성장과정이 이 책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쉬운 운동은 없겠지만 야구는 특히 어려운 스포츠입니다. 단순히 한 가지 운동능력으로 잘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타격, 수비, 투구, 주루 등 다양한 분야에 소질이 있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해집니다만,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끝이 없으니 생략하도록 하지요. 어쨌든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야구를, 귀가 들리지 않는 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들의 목표는 1승입니다. 아주 소박하지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전국 54개의 팀 중 랭킹 54위에 위치할 정도로 실력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대부분의 경기에서 콜드패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세부 지표를 보면 더 형편없습니다. 한 경기에 안타를 5개 이상 쳐내기는 하늘의 별따기고 어이없는 실책은 밥 먹듯이 저지릅니다. 아무리 열심히 훈련을 해도 실력은 좀처럼 늘지 않습니다. 운동장은 비만 오면 진흙밭이 돼버리고, 야구 장비도 하나 같이 낡았습니다. 어때요? 이들의 처지가 불쌍한가요? 동정심이 들지 않나요? 하지만 이 책의 주인공들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야구부 아이들의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릴 그런 눈으로 보지 말아주세요!’라고 외치는 듯 합니다. 아이들은 ‘귀도 안들리는 우리에게 1승은 대단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달라!’는 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야구를 할 때도 상대 팀의 동정어린 플레이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 치고 달리고 구를 뺏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소리 높여 응원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그저 하나의 야구팀을 응원해 주는 것이야말로 그들이 바라는 것 아닐까요?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을 바라보는 저의 이러한 생각도 어쩌면 틀린 것이고, 오히려 그들에게 상처만 줄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중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만큼 약하고 여린 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어루만져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연습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죠. 이 책을 읽는 것도 그 연습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읽어보고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을 위한 책

CEO 칭기스칸 / 김종래 저	유향숙 · 성남시 판교도서관
거대한 전환 / 제럴드 라이언스 저	유향숙 · 성남시 판교도서관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 수 클리블드 저	이연순 ·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다른방식으로 보기 / 존 버거 저	김보라 · 화성시 시립도서관
다이애나 : 사랑을 찾아서 / 앤드루 모튼 저	유향숙 · 성남시 판교도서관
대성당 / 레이먼드 카버 저	김보라 · 화성시 시립도서관
동물농장 / 조지 오웰 저	이병희 · 안성시 보개도서관
따스한 흑한 / 김정조 저	유향숙 · 성남시 판교도서관
마씨부자 / 라오서 저	이병희 · 안성시 보개도서관
사진으로 만나는 인문학 / 함철훈 저	이병희 · 안성시 보개도서관
샤넬, 미술관에 가다 / 김홍기 저	유향숙 · 성남시 판교도서관
생존자 / 이창래 저	이선희 · 성남시 중앙도서관
오늘 내가 사는게 재미있는 이유 / 김혜남 저	안미아 ·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적폐역사 개념역사 / 오룡 저	유향숙 · 성남시 판교도서관
허클베리 핀의 모험 / 마크 트웨인 저	이병희 · 안성시 보개도서관
호모데우스 / 유발 하라리 저	유향숙 · 성남시 판교도서관



CEO 칭기스칸

김종래 저. 삼성경제연구소. 2004
ISBN : 978-89-7633-213-4
사회학

디지털 시대에 다시 칭기스칸

유향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이 시대에 다시 칭기스칸이 답이다. 바로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는 오프라인의 유목민이 살았던 삶과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저자는 과거를 진단하되 현실과 접목하고 교훈을 받아야 하는 점을 소개하고 있다.

삶이 간편하다.

미니멀라이즈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목민의 삶에서 배울 수 있다. ‘수적 열세에서 세계 정복에 나선 몽골 유목민들은 사람 수를 당장 늘릴 수는 없었지만 속도는 늘릴 수 있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몸에도 꼭 필요한 것만 지니고 다녔다고 한다. 또한 군사 식량을 위해 보급 부대가 필요 없도록 소 한 마리를 잡아서 말리면 소의 오줌보에 다 들어간다고 한다. 말에서 자고 말에서 먹으며 세계정복에 효율성을 가진 것이다.

칭기스칸은 위대한 정복자이자 리더다.

칭기스칸은 뉴욕포스트가 선정한 지난 천년 가장 중요한 인물로 선정되었다. 그

것은 최초로 동서양의 문명과 문물을 하나로 연결시켰고 그것이 서양의 과학과 문명발전의 시초가 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세계화는 바로 칭기스칸이 세운 몽골 제국에 의해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세계 4대 정복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다. 알렉산더대왕, 나폴레옹, 히틀러 그리고 칭기스칸이다. 칭기스칸 시대에 정복한 땅이 777만 평방킬로미터이다. 이는 알렉산더 대왕(348만 평방킬로미터)과 나폴레옹(115만)과 히틀러(219만), 세정복자가 차지한 땅을 합친 것보다 넓다.

리더로서의 덕목도 배울만 하다. 비전의 공유.- 비전을 공유한다는 것은 함께 꿈 꾸고, 함께 실현해 가는 것이다. 유목민들은 정착민과 다르게 상속하는 제도가 아니고 능력있는 자가 무리의 리더가 된다. 자연을 가장 잘 이해하고 유목민을 초목이 있는곳으로 데려가는 것은 생존과 너무나 밀접해 있기 때문에 감히 무능력한 자에게 상속이라는 제도도 물려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전쟁의 전리품은 공동의 몫으로 선봉에 선 사람은 싸운만큼 능력에 따라 분배하여 준다. 절대 먼저 정복지에 도착했다고 해서 개인적 약탈은 엄격히 통제했다. - 이 시대에 합리적 배분과 스톡옵션 활용이다.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달한 사회는 망하고 열린사회만이 영원하리라는 이 말은 글로벌 인터넷이 시대에 모든 이에게 매서운 교훈이다. 아침이면 달려야 하는 아프리카의 사자와 가젤 처럼, 인류에게 질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현대사회도 아프리카의 사자와 가젤의 삶과 다르지 않은 대목이다. '숨이 끊어지는 법은 있어도 말 타기를 포기하는 법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몽골의 성인식은 눈보라가 가장 휘몰아 칠 때 말을 타고 80km를 가로질러 돌아오는 의례에서 나온 말이다. 가만히 죽는 것 보단 나아가다 죽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 하나의 교훈은 칭기스칸은 유목민의 후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가 있다. '내 자손들이 비단옷을 입고 벽돌집에 사는 날, 내 제국이 망할 것이다.' 바로 고인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썩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안주하면 끝난다' 것이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변화의 속도속에 계속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낡은

정보를 흘러보내야 한다.

프로토콜 시대에 역참제

역참제는 지금의 정보 인프라이자, 물류 시스템이며 군사 고속도로라 할 수 있다. 일종의 말 정거장이지만 중앙집중식이 아니라 점조직으로 되어있어, 한군데가 손상되었다고 해도 정보는 다른 프로토콜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월드와이드웹의 오프라인식이 아니었나 싶다. 그 외에도 몽골 유목민의 실용적인 제도는 생각해 볼 것이 몇 가지 더 있다.

36개 조항으로 법조항은 최소화 하지만 실행하는 데는 확실했다. 대자사크 제1조, 간통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2조 수간 한 자 사형에 처한다. 제3조 거짓말을 한자, 다른 사람을 몰래 훔쳐본 자, 마술을 부리는자, 남의 싸움에 개입해 한 쪽을 편드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제4조 물과 재에 오줌을 누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참으로 심플하지만 확실하다. 오늘날 거미줄 같은 법망을 피하여 오리조리 재산을 축적하거나, 잘못하고도 법을 잘 알아 살아남는 힘있는 정착민 법에 유목민의 법조항으로 통치하자고 제안하고 싶어진다.

유목민의 문화는 정착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등했다. 생존이 우선 이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래서일까 150년을 통치하면서 정복지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종-언어-종교-문화 차이에 거의 구애 받지 않았던 사회, 정권과의 연고(?)가 아닌 실력에 따라 누구라도 쉽게 등용되는, 능력주의-실력주의적 인물 선발이 당연시되는 사회, 압도적 다수 농민과 서민을 비롯한 하층 대중에게 출세와 성공기회가 열린 사회... '세계화된 사회'였다고 본다. 우리가 잘 아는 고려시대때 이혼혈-잡종 사회가 바로 유목민이 지배했었던 사회의 특징이다.

나는 내 몸에 몽고반점을 통해 알 수 있는 유목민의 피에 자랑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유목민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새겨서 삶에 적용하고자 한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도 문화적 충격뿐만 아니라 세계관을 바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마친다.

거대한 전환

제럴드 라이언스 지음, 김효원 김혜민 역. 골든어페어. 2017.
ISBN : 979-11-95323-14-2
경제학



세계는 어떻게 재편될 것인가

유향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초보가 서평에 관심이 있고, 써가며 발전하고, 싶다면 가능한 얹고 다양하게...

이번엔 경제학 책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책을 집어 들었다. 이렇게 비록 얹지만 다양하게 써가다 보면 나에게 맞는 전문분야가 생각날 것이라고 기대하며 『거대한 전환』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지인의 소개로 읽게 되었다. 책을 접하는 기회 중 지인의 소개가 제일 좋은 듯하다. 왜냐면 지인의 사고와 일치하거나 다른 견해를 들을 수 있고 무엇보다 인간관계가 더 심오해 지기 때문이다.

1부. 과거와 현재(세계 경제사와 현 상황) :

1부에서 도덕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민주주의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경제사로 근대 경제학, 1차 2차 산업혁명 그리고 세계전쟁 후의 황금시대를 거쳐 분리와 단절에서는 정책의 딜레마를 소개하고 있으며, 숨 가쁘게 발전하며 달려와 세계 경제의 대열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경제를 설명하고 있다.

2부. 전환(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네가지 영역) :

2부에서는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네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한다. ‘첫째 경제와 금융(economic and financial power)이며, 둘째는 다른 국가를 포섭할 수 있는 소프트파워(soft power)이고, 셋째는 군사력을 토대로 타국을 강제할 수 있는 하드파워(hard power)이며, 마지막은 글로벌 시스템과 정책(political institutions and policy)이다. 통상 힘의 균형에 변화가 일어나면 네가지 영역은 일제히 변화한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현재 세계경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훨씬 복잡하다.- 저자서문 중’ 이렇듯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동력으로 중국, 무역, 신기술, 인구, 소비, 도시화 등 여섯가지로 분류했다. 이러한 여섯 가지 동력을 핵심영역 네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세계 경제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3부. 미래(희망과 위로의 메시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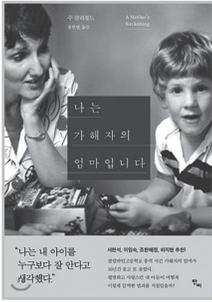
3부는 희망과 긍정적 시각으로 미래를 위한 포지셔닝, 경제학 새로 세우기 / 숫자보다 사고방식 / 흥미로운 시대 / 사람 / 기업 / 투자자 / 신흥강국 / 개혁 / 유럽 / 미국과 서구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다. 저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현재의 유럽연합 위기를 예측하고 브렉시트는 영국 역사상 가장 올바른 선택이며 유로존은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의 천명은 협상을 위한 수사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책의 효용가치가 적어도 향후 10년간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며 범위와 한계를 밝혔으며,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이코노미스트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현재 제러드 라이언스는 유럽과 아시아, 특히 중국 경제 전문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중국은행 이사, 넷웰스 수석 경제 전략가, 중국과 영국 간 비즈니스 협력을 장려하는 48그룹 클럽의 부의장, 홍콩협회 위원, 영국 왕립경제협회 위원, 유럽의 급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오픈 유럽 자문위원등을 맡고 있다.

여럿 추천인들 중 한마디로 간략하게 이 책과 저자를 소개한 듯한 표현이 있어 적어 보고자 한다.

“지겨우리마치 우울한 경제 전망만을 내놓는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를 상대로 앵글로색슨적 상식으로 한 방 먹였다.” - 현 영국 외무부장관 보리스 존슨 (Boris Jhonson)

말하고 싶은 것은 긍정적 경제전망이든 미래의 통찰이든 좋은 책을 소개하고자 하나 또한 견제하고 읽어야 할 것은 앵글로-색슨다운 사고방식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토대로 취해야 할 것은 취하되, 세계경제의 전환이 동아시아로 그리고 다시 한국 경제로 나의 삶이 나아지는대로 세계경제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란 문제에서는 이 책을 다 읽고 우리가 다시 사고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수 클리블드 지음; 홍한별 옮김. 반비, 2016.

471 p.; 20 cm.

ISBN : 978-89-8371-786-3 : 17,000

성인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A370.4클298L)

고등학생이상 성인

🔍 **우리아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모 / 아이의 변화가 신경 쓰이는 부모 / 집이나 주위에 우울한 사람이 있는 경우**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이연순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사서)

솔직히 도서관 신간코너에서 우연히 이 책의 표지를 봤을 때는 일각의 망설임도 없이 다시 제자리에 꽂았다. 그렇지 않아도 차라리 소설이나 꿈이었으면 하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을 통해 다뤄지고 있고, 피해자를 애도할 슬픔과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는 마당에 가해자까지 나서서 무슨 변명을 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려나 하는 섭섭한 마음까지 들었다.

이 책은 1999년 4월 20일 미국 콜럼바인고등학교 총격사건을 일으킨 두 명의 가해자 중 ‘딜런 클리블드’의 엄마가 아들의 충격적 살해와 자살사건에 대해 16년에 걸쳐 되 집어 보며 쓴 참회의 책이다.

책의 전반부는 압도적으로 슬프고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미국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한 가정이 콜럼바인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처절하고도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되는 생생한 묘사 때문이다. 아들이 초래한 비극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 지역과 국가를 넘어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질타와 책임을 받아들이고, 어떤 해명과 고통 분담도 통할 수 없는 가혹한 현실에 처한 저자와 그

너 가족의 형벌적 삶은 일반적 상상력을 넘어선다. 후반부는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양육자로서 자녀가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해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신호를 놓치거나 과소평가할 때 우리가 치러야 할 무참한 대가를 헤아려보게 함으로써 부모 역할의 막중함을 깨닫게 한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미국의 정서와 사회시스템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가해자를 향한 비난일변도의 윤리, 도덕적 잣대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주장도 공감하고, 한편으로 변호하는 모습은 인상적이다.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에서 “누군가를 정말로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 사람 살갓으로 들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걸어 다니는 거지”(1부3장)라고 말하는 핀치 변호사처럼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속에서 자신과 다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선행도 놓치지 않으려는 미국사회의 일면은 시간을 두고 곱씹어 볼 일이다.

책을 읽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다. 참사의 규모, 사랑으로 키우며 잘 성장하고 있다고 믿었던 자식의 배신, 평범하고 행복했던 가정의 몰락, 피해자 가해자 할 것 없이 함께 처해진 안타까운 현실, 범위와 기간을 가늠할 수 없는 과급의 정도는 실로 참담하다. 그럼에도 이 책이 지닌 가치는 대부분이 피해자 시선에서 사건을 다룬 것에 반해 가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함으로써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 재발방지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이가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아 보일 수 있다는 수 클리볼드의 뼈아프며 두려운 고백은 오늘 우리아이의 모습에 미묘한 변화는 없는지 살피게 하고, 아이와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는 성찰로 이끈다.

우리가 과거(역사)를 알려고 하는 것은 과거(역사)란 반복되기도 하고 피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우리 가정에서, 사회공동체에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나아가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삶이 위기에 처하기 전에 감지하고 도울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모든 이에게 더 안전한 장소가 될 것이다. 더 이상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니면 사건의 범위와 충격이 최소화되어 소중한 한사람이 누려야 할 마땅한 미래가 지켜지길 간절히 바란다.



다른 방식으로 보기

존 버거 지음, 최민 역 열화당, 2012.
190 p. : 삽화 ; 22cm.
ISBN : 978-89-3010-427-2 : 13,000
일반책 (미술비평, 에세이)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609-버14c)
청소년, 일반
📖 예술 감상 / 시선, 관점

‘보는 방식’이 아닌 ‘보는 방식들’

김보라 (화성시 시립도서관 사서)

우리는 무수한 이미지에 둘러싸여 산다. 어떤 이미지든 접하고 난 후에는 짧거나 길게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된다. 이미지 중 미술이라고 분류되는 것들을 말할 때 특히 필요한 단어들어가 많아진다. 이전에 권위 있는 학자이자 비평가들이 했던 것처럼, 분류해 놓은 갈래들을 따라가며 수식어를 쓰면 쓸수록 나도 미술을 제대로 보고 평가하고 있는 것만 같다. 일련의 기준에 빚대어 예술을 말한다는 것, 사실 이것은 예술이라는 현상의 속성과 가장 배치되는 입장이 아닐까. 앞의 예가 고전적인 미술 감상의 행태였다면, 요즘은 상황이 좀 달라져 자유로운 미술 감상이 대중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아마 존 버거(John Berger, 1926-2017)의 영향이 클 수도 있겠다.

영국의 비평가 존 버거가 쓴 『다른 방식으로 보기(Ways of Seeing)』는 1972년 BBC TV에서 책과 동일한 제목인 <Ways of Seeing>이라는 4회에 걸쳐 진행한 강의가 기반이 된 책이다.

존 버거는 『다른 방식으로 보기』를 통해 일관된 감상법을 제시하는 미술 비평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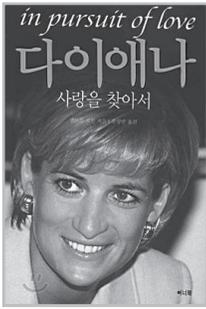
의문을 던진다. 명화 속 표현기법이나 의미 등을 분석하는데 치중하고, 화가의 개인사를 들여다보며 같은 결론을 내는 것이 과연 감상일까. 결론은 부정적이다. 같은 사람이란 한 명도 없듯이, 어떤 것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완전히 같을 수 없다. 감상은 매우 사적영역에 속하는 행위라, 비평가가 고른 작품을 동일한 방법으로 맹목적으로 의견을 따르는 것은 개인의 능동적 감상이 되기 어렵다고 본다. 또, 미술을 보는 다양한 시선에 대한 논의 외에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와 미술 관계, 작품 속 여성의 이미지와 젠더 문제, 또 유희와 광고를 통해 보는 경제원리 등 다양한 보기 방식들로 미술 작품 감상의 장을 넓혀 주고 있다. 책은 모두 7개의 에세이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4개는 글과 이미지,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오로지 이미지로만 구성되어 있다. 흑백으로 된 이미지들이 텍스트와도 같아 보인다.

작가는 미술비평가, 사진비평가이자 소설가로 예술과 인문, 사회 전반에 걸쳐 명쾌하고 깊은 관점을 제시했다. 중년시절 프랑스 시골로 옮겨 농부들과 함께 소박한 삶을 살며 주옥같은 책들을 펴냈다. 올 해 2017년 1월에 그가 노환으로 사망한 해이기도 하다. 전 세계에서 많은 이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다른 방식으로 보기』 외에 『본다는 것의 의미』, 『사진의 이해』, 『피카소의 성공과 실패』, 『이미지-시각과 미디어』 등 비평서와 『G』, 『여기 우리가 만나는 곳』, 『A가 X에게』 같은 소설 속 간결하고, 힘 있는 문장들로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존 버거는 다른 책 『여기, 우리가 만나는 곳』에서 그의 사상이 오롯이 묻어나는 구절을 쓴다.

존. 인생이라는 건 본질적으로 선을 긋는 문제이고, 선을 어디에 그을 것인지는 각자가 정해야 해. 다른 사람이 선을 대신 그어 줄 수는 없어. 다른 사람이 정해놓은 규칙을 지키는 것과 삶을 존중하는 건 같지 않아.

표준적인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의 감상을 권하는 이 적극적인 제안은 사십년이 지났지만 신선하다. 자신의 삶을 존중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다이애나 : 사랑을 찾아서

앤드루 모튼 지음, 유향란 옮김. 이너북, 2005.
ISBN : 978-89-91486-11-8
전기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유향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어려서 다이애나의 화려한 결혼식 장면을 사진을 끼워 놓는 앨범의 첫 장에서 본 적이 있다. 아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로망과 같은 모습이었기에 아름다운 모습의 장식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는 두 아들을 낳고 영국 왕족의 삶을 잘 사는가 했는데,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별거와 이혼, 그리고 뜻밖의 사고로 죽음이라는 귀결을 가져왔다.

나는 한 여인의 왕족의 삶과 죽음으로서 다이애나에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이혼 후에 에이즈 퇴치를 위한 활동을 벌였고, 가난한 나라에 가서 아이들을 안아 주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아름다운 모습에 더 감명을 받고 그녀를 궁금해 했었다. 그리고는 드라마틱한 죽음에 뭔가 더 드라마틱한 숨은 이야기가 있을까 하여 평소 다이애나에 늘 호기심을 갖고 있었다. 우연히 이 책을 접한 것은 나의 다이애나에 대한 관심의 첫 걸음이었을 것이다.

내용은 그녀가 얼마나 결혼 후 왕실에서 겪은 수많은 사건들과 음모, 고독, 사랑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했으며 사망할 때까지의 파란만장한 삶과 사망 후에 벌어진 일련의 후속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데 1997년 여름, 왕세자비가 파리에서 불의의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이래 7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녀를 놓고 이루어진

수많은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고자 시도한 책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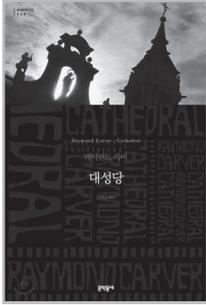
찰스 왕세자의 결혼과 배신, 왕실에서 직 간접적으로 일하고 있는 조신들의 조직적인 은폐와 20대 초반의 미처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불행했던 결혼과 왕실의 짜여진 보이기 위한 생활로 인해 숨 막혀 오는 일상. 폭식증과 외로움과 고독이 같은 여자로서 생생히 전해오는 듯 했다. 그리고 왕실에서는 그녀를 정신병자로 몰아 붙이며 경멸적인 냉담한 시선, 허위와 기만을 둘러싸고 진정한 사랑을 찾아 몸부림 치다시피 살아온 과정 등을 생생이 전달하고 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수동적인 왕세자비가 아니라 당당하고 용감하며 독립적인 여성으로 변신하는 과정이나 범세계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봉사 활동, 지뢰 사용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헌신했던 그녀의 삶은 일반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Queen of people'다운 고결하고 숭고한 모습으로 기억 될 것이다.

영국에서는 2002년의 BBC 여론조사에서 그녀의 죽음은 20세기에 일어난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보고 있으며, 다이애나비는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윈스턴 처칠과 이삼바드 킹덤 브루넬의 뒤를 이어 가장 위대한 영국인 3위에 오를 정도로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심지어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사이의 갈림길에 위치한 무정부상태의 산악 그곳에서도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사람들이 영웅이 되는 곳에서도 그녀의 명성이 긍정적이고 높다. 러시아와 미국의 잦은 공격으로 수 천 명이 죽고 수많은 여자와 어린이들이 중상을 입고 불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종합병원을 지어 지금도 다이애나, 웨일즈 왕세자비의 커다란 사진아래에서 선량하고 힘없는 여자와 어린이들이 인공사지를 맞추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서양에 대해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곳에서 다이애나가 칭송을 받는 것은 대칭을 이루는 기이한 일이지만 인도주의적 사명과 희망으로 동양과 서양을 화해시키려고 애쓴 그녀의 도전과 용기를 참으로 기억할 만하다

자신의 삶을 가엾다고 감히지 않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다이애나의 이야기가 더 많이 출판되어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기억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소개한다.



대성당

레이먼드 카버 지음 ; 김연수 옮김 문학동네, 2014.

348 p. : 21 cm.

ISBN : 978-89-5462-486-2 : 13,500

일반책 (소설)

동탄북합문화센터도서관 (843-카43e)

일반 성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김보라 (화성시 시립도서관 사서)

단편 소설이 가지는 매력이 있다. 일단 짧다. 다들 바쁜 시절이라, 장편소설을 시작하기 어려운 이들에게도 부담 없다. 짧지만 짜임새가 있고, 함축적인 메시지가 있어 짙은 울림을 안겨주기도 한다. 단편이 ‘사건을 겪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라면, 장편은 ‘인간이 겪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라고 소설가 김중혁이 정의한 적 있다. 멋진 정의라고 생각한다.

단편소설을 말 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작가가 있다. 바로 레이먼드 클레비 카버 (소설가·시인, 1938~1988)이다. 카버는 ‘미국의 체호프’로 불리며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38세에 『제발 조용히 좀 해요(1976)』를 출간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83년에 발표한 『대성당』은 인간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삶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 주목할 만한 작품집으로 풀리처상과 전미도서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대성당(1983)』에는 표제작 「대성당」 외 11편이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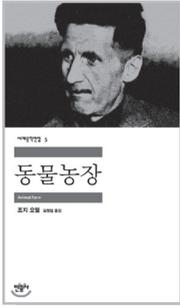
카버는 주로 큰 이야기 보다 우리 주위의 위태로운 일상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귀에 낀 귀지 때문에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 아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케익을 찾아가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는 사람, 맹인, 또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 등 소통 불가능한 인간상이 주로 등장한다. 그러나 상호간의 대화와 몸짓을 통해 상대방이라는 건너편에 있는 ‘무언가’를 뜨겁하게 느끼게 되며 소통이라는 희망에 한 걸음 가까이 가게 된다. 그 ‘무언가’란 단어 혹은 문장으로 명확히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정서가 우리 삶에 분명히 있고, 희망적 모습을 어렵פות이나마 보여준다는 점에서 카버의 단편은 참으로 소중하다.

화려한 수식이 아닌 간결한 문체와 일상적 대화로 드러나는 공간과 상황은 오히려 인간의 내면을 엿볼 수 있게 한다. 그 가운데 감정이 샘솟는 그런 광경을 카버의 단편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그 감정은 희망적이라 읽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특히 표제작 「대성당」과 「별것 아니지만, 도움이 되는」은 특히 그렇다.

일본에서 무라카미 하루키가 카버의 작품을 소개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소설가 김연수가 번역했다. 2014년 2쇄로 발행된 책에선 카버의 문학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역자의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오늘 보낸 일상이 차갑고 딱딱하고 비루하고 공허했다면 그래서 마음을 따뜻하게 할 문장 하나가 필요하다면, 단편 하나를 읽을 짧은 시간과 따끈한 롤빵 하나 그리고 카버를 추천한다. ‘별것 아니지만 도움이 될’ 것이다.



동물농장

조지 오웰 글. 도정일 옮김. 민음사, 1998

160p. ; 23cm.

ISBN : 978-89-3746-000-5 : 7,000

일반도서 (800)

안성시 보개도서관 843 066c

청소년 및 성인

📖 '깨시민'이 되길 원하는 분들께 추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병희 (안성시 보개도서관 사서)

쇼생크의 탈출과 마가복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을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마가복음 13장 35절)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당연히 하느님의 말씀 같은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위에 소개한 성경 구절도 영화를 보다가 우연히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영화는 『쇼생크의 탈출』입니다. 사실 이 작품은 고등학교를 다닐 때 처음 접한 이후로 최소한 스무 번은 보았을 정도로 아주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런데도 영화 속에 이 구절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최근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주인공 앤디 듀프레인과 교도소장 노튼이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중범죄인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특했던 노튼이 앤디에게 좋아하는 구절이 있느냐고 물었고, 앤디가 그 답변으로 마가복음 13장 35절을 암송했던 것입니다. 이 구절은 저에겐 그저 많고 많은 영화 대사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기억 속에 남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하나씩은 다 있을 것입

니다. 어떤 영화를 한 번 보았을 때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장면이나 대사가 훗날 다시 봤을 때는 눈에 확 띄거나 감동적으로 다가왔던 경험 말입니다. 쇼생크의 탈출 속 마가복음 13장 35절이 저에겐 그랬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 구절을 발견하게 된 것은 올해 초,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우리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있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마 찬가지였겠지만 저 역시 ‘어쩌다 우리나라가 이 꼴이 되었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날도 잠이 오지 않아 밤늦게까지 뉴스를 보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한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하던 『쇼생크의 탈출』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성경 구절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소름이 돋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억울해할 처지가 아니구나! 집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게으름을 피우다 벌을 받은 하인의 변명이 구차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에 관심조차 없다가 이제 와서 누구 책임이냐고 따지는 나의 태도가 참 우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나, 그리고 우리의 무관심과 태만이 우리나라를 바로 잡을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래 전 읽었던 책이 한 권 떠올랐습니다. 바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입니다.

가장 위대한 정치우화소설

『동물농장』은 1945년 8월에 발표되었습니다.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에 의해 착취당하던 매너 농장의 동물들이 돼지의 지도 아래 혁명을 일으켜, 인간들을 내쫓고 착취가 없는 ‘모든 동물이 평등’ 한 이상사회(理想社會), 즉 동물농장을 건설하고 다음과 같은 7가지 동물주의 원칙을 정합니다.

1. 두 다리로 걷는 자는 모두 적이다.

2. 네 다리로 걷거나 날개가 있는 자는 친구다.
3. 어떤 동물도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
4. 어떤 동물도 침대에서 잠을 자서는 안 된다.
5. 어떤 동물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6. 어떤 동물도 다른 동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
7. 모든 동물들은 평등하다.

이 7개 원칙 아래 동물농장의 동물들은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동물농장은 돼지 만이 특권을 누리는 곳으로 변질됩니다. 특히 암투 끝에 권력의 한 축인 돼지 스노볼이 추방된 후에는 나폴레옹에 의한 노골적인 독재정치가 펼쳐집니다. 그리고는 인간에게보다 더 가혹한 착취에 시달리게 되죠. 나폴레옹을 필두로 한 돼지들은 동물주의 원칙마저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 바뀌가며 동물농장의 구성원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돼지들은 인간의 탐욕에 물들어 버렸는지 그 외양마저 인간을 닮아버렸고, 동물들은 더욱 큰 절망을 느끼며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동물농장은 1984와 더불어 조지 오웰이 써 낸 대표적인 정치비판 소설입니다. 두 작품의 차이점이라면 1984가 암울하고 비관적인 분위기로 일관한 반면, 동물농장은 해학적, 풍자적 요소가 짙은 우화형식을 취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화형식의 동물농장이 1984에 비해 보다 더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웃으며 하는 충고가 훨씬 날카롭게 느껴지듯이 말이지요. 오웰 스스로도 “내 평생 피담을 쏟아 완성한 유일한 작품”이라고 평할 정도였습니다. 많고 많은 정치소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작품의 하나로 동물농장이 손꼽히는 것은 바로 농담과 같은 우화 속에 감춰진 메시지의 예리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오웰은 전체주의, 즉 집중된 권력은 변질되고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설 속에서 돼지들이 동물주의원칙을 제 멋대로 고치는 모습을 보

면 집중된 권력의 추악한 속성이 잘 드러납니다. 특히 돼지들이 마지막 원칙인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를 수정하는 장면이 압권입니다. 그들은 이 원칙을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욱 평등하다(However, some animals are more equal than others.)’라고 바꿔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제7원칙을 문맥조차 맞지 않는 억지 원칙으로 탈바꿈해버리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집중된 권력이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 특권계층의 존재를 합리화, 합법화 시키는지 알게 됩니다.

오웰의 이 소설이 실제 일어났던 일을 기반으로 한 우화소설인 만큼, 소설 속 동물농장은 얼마든지 현실 세계에 펼쳐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는 당시 우리나라는 이미 동물농장이었습니다. 한줌도 되지 않는 일부 세력들이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제 배를 불러댔고, 국민들은 국가에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똑 닮았습니다. 말 그대로 판박이입니다. 한 번 당하면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두 번 당하면 변명조차 할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 군부정권 하에 혹독한 동물농장의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러고도 얼마 전 또 동물농장이 우리나라에 재현되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세 번은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마가복음 13장 35절의 가르침처럼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듯, 권력은 언제 변질될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깨시민(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잠깐만 졸고 있는 사이에도 동물농장의 무대가 펼쳐질지 모를 일입니다.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우리의 잠을 쫓아줄 시원한 물 한 바가지와 같은 책입니다. 진정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면 항상 가까이 두고 틈틈이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따스한 흑한

김정조 지음, 문학의 전당, 2015.
ISBN : 979-11-86091-21-0
시문학

몽환의 꽃길

유향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시문학. 이번에는 시집을 소개하고자 한다.

시집은 얇아서 읽기 쉽다고? 천만에 말씀이다. 쓰기도 힘든 것이 시이겠지만 읽고 공감하고 느끼기에도 참으로 어려운 것이 시인 것 같다. 시를 대하는 나의 소견은 마치 그림을 대하는 것과 같다. 그림도 아는 만큼 보일 진데, 시도 마찬가지다. 언어의 연금술사, 정제된 언어의 의미전달, 은율과 은유와 시적 상상력을 통해 전달되는 감상. 이 모든 것이 많이 공부하지 않으면 시는 그저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의 종이의 여백으로, 읽는다는 행위는 더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다.

김정조 시인의 『따스한 흑한』이라는 시집을 소개하고자 한다. 시집을 소개한다고 해서 내가 많이 알고 시 읽는 법을 배웠기 때문은 아니고, 시는 문학 중에 정수라는 정도와 그리 쉽지 않으나 시에 관심이 있어서 조심스런 마음자세로 이 시집을 소개하고 평하고자 한다.

시인은 나의 지인의 동생분이다. 우연한 만남에 시집을 선물 받았다. 기대하지 않고 읽었는데 한 편 한 편 읽으면서 언어들 의 어간 사이에서 느껴지는 친근함과 고단함을 노래하는 내용과 왠지 모를 애잔함이, 누가 나를 툭! 쳐주면 확 울어버렸으면 좋게끔 시인은 누군가를 울리기 위해 쓴 글은 아니고 덤덤히 적어간 내용인데 잔잔히 내면을 울렸다. 시인은 시속에 자신의 영혼을 이식 시켜 놓았나 보다.

...

나라 잃은 설움 할아버지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살기 위해 밥을 위해

죽도록 일만 하던

시베리아 벌판 헐벗은 겨울나무 할아버지는

늘 고향 쪽을 바라보았다

- 「물목거리 인력시장 고려인」 중 일부

할아버지는 떠난 고향을 그리워했고, 물목거리 인력시장의 고려인은 가족이 있는 우즈베키스탄 어디쯤을 그리워하고 있다.

「배티고재 무명 순교자」, 「안성 장바닥 세근이」, 「옥자언니」, 「행려병자」, 「노숙자」, 「기증」 등의 시 제목에서 보면 작가는 아름답고, 고상하며, 추상적인 사물에 대한 시가 아니라 우리 주위의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을 소재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를 읽어보면 화려한 미사어구가 아니여도 어렵지 않고, 담담하게 아름다운 시를 무슨 내용인지 알게 전달하고 있다.

...

아홉 살에 전쟁으로 고아가 된 옥자 언니

외로운 눈빛이 떠오른다.

평생을 품앗이로

노동이 몸에 밴 맑은 모습

풀밭 언덕 외딴 초가집에
방 하나, 부엌 하나
1.4후퇴 때 월남한 농부 아저씨와
신혼의 달콤한 황토방에서
방금 찌넌 노란 물고구마
어린 방문객을 대접하던 정이 떠오른다.
- 「옥자언니」 중 일부

시인의 기억에 어린 시절 옥자 언니를 그리면서 지은 시인 듯하다. 시인의 어린 시절은 그리 가난하지는 않았던 듯싶다. 전쟁고아인 옥자 언니와 한 집에 살았던 기억과 그 언니가 시집을 가서 방문했던 기억을 시로 적어냈다.

현재 시인은 미용실을 하면서 방송통신대 국어국문학과를 수학 중에 계신다. 힘겹고 바쁜 일상 중에도 시를 놓지 않고 쓰고, 다듬고, 출판하게 되기까지의 수고가 「벽」이라는 시에서 느껴진다.

이 시집은 우리 가까이에 구체적인 소재와 담담한 표현들이 정제되고, 아름다운 언어로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시적 감정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시로 현실화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마씨부자

라오서 글. 고점복 번역. 창비, 2013

373p. ; 21cm.

ISBN : 978-89-3646-413-4 : 13,000

일반도서 (800)

안성시 보개도서관 823.7 라650

청소년 및 성인

📖 누군가와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책



진정한 화해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병희 (안성시 보개도서관 사서)

『마씨 부자』는 루쉰(魯迅), 바진(巴金)과 더불어 중국의 3대 문호로 꼽히는 라오서(老舍)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작가가 영국에서 체류하면서 얻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써낸 작품이라고 합니다. 라오서가 서른 살이 되던 해에 발표한 『마씨 부자』는 베이징에서 런던으로 이주해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는 '마씨 부자'의 생활을 통해 세대와 인종 간 갈등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 하층민이 겪는 어려운 삶'은 라오서 작품의 주된 소재입니다. 『마씨 부자』역시 이 점에서 큰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단순한 경제적 궁핍이나 삶의 고통에 머무르지 않고, 두 중국인이 낯선 땅에서 겪는 멸시와 고난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라오서는 당시 가지고 있던 사회적 문제의식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양 열강의 군사적, 경제적 침략으로 처한 국가 존망의 위기를 극복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태세습을 끊고 서양문물과 선진교육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작품 속 마씨 부자의 아버지 마씨런을 아주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도 마씨런이 바로 변화를 거부하는 구세대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쩌런 역시 ‘오래된’ 민족의 ‘오래된’ 사람이었다. 그를 수식하는 두 개의 ‘오래된’이라는 단어를 통해 단정할 수 있었다. 그는 평생 동안 두뇌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게다가 하나의 사물을 삼분 동안 주시한 적도 없다고. 왜 사느냐고? 관리가 되기 위해서였다. 어떻게 관리가 될 수 있느냐고? 먼저 한턱을 내고 손을 써주십사 부탁하면 되었다. 왜 아내를 얻었느냐고? 나이차 찾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아내를 얻었느냐고? 중매쟁이를 통해서였다. -중략- 오래된 민족의 구성원들은 그런 것들을 평생 동안 충분히 누렸다. 마쩌런 역시 마땅히 그러할 뿐이었다.” (본문 중)

마쩌런은 인생의 목표가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리’가 되고 나서 해야 할 일과 그 책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체통을 지키기 위해 관리가 되려할 뿐입니다. 관리 외에는 체통에 맞는 직업이 없다고 단정합니다. 어찌 어찌하여 스스로도 골동품상을 운영하는 장사꾼이 되었지만 장사꾼만큼 천박한 직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장사에도 큰 관심도 없습니다. 성심 성의껏 자신의 사업을 도와주는 ‘리쯔룽’도 항상 속물이라고 멸시해버립니다. 그저 관심 있는 것은 집주인 ‘웬델’부인의 환심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수에 맞지도 않게 큰돈을 서슴없이 써버리죠.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마웨이는 분노를 느낍니다. 물론 마웨이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자식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사가 망하면 굶어죽게 생긴 판에 허투루 장사를 하는 것도 모자라 쓸데없는 일에 과지출을 일삼는 아버지와 반목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마웨이는 그런 아버지를 견디지 못하고 그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떠나 버린 마웨이의 결단은 아마도 중국의 구태를 단호히 끊어버려야 한다는 작가의 의지가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마씨 부자』에는 세대 간 뿐만 아니라, 인종 간의 반목 문제도 나타납니다. 영국인이 갖고 있는 말도 되지 않는 중국인에 대한 편견. 그에 따른 차별과 모욕 등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어깨를 나란히 한 형제의 관계는 가능해도 호랑이와 쥐가 갖는 우정은 기대할 수 없다고! 그리고 다시 강변합니다. 중국이 받고 있는 모멸과 무시를 없애기 위해서는 역시 스스로 강해지는 수밖에 없다고!

『마씨 부자』는 이처럼 크게 세대와 인종 간의 갈등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어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처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자국민의 의식 개혁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작품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물론 저 역시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작품 속에 등장하는 마씨 부자와 웬델 모녀의 성탄절 저녁 식사 장면은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서로 다른 세대와 인종의 사람들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웃고 떠들며 즐겁게 저녁 식사를 하는 장면은 아름다운 화해의 장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아마도 라오서는 약육강식이 유일한 원칙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찌할 수 없이 강성한 목소리를 내질렀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진정한 이해와 화해를 바탕으로 한 평화의 관계를 꿈꾸었던 건 아닐까요? 그것이 세대 간의 갈등이건 국가 간의 적대이건 모든 것을 초월한, 완전한 화해의 장. 그것을 바랐던 것 아닐까요? 저만의 착각일까요? 판단은 이 책을 읽고 난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진으로 만나는 인문학

함철훈 글, 교보문고, 2013

269p. ; 21cm.

ISBN : 978-89-9723-597-1 : 14,000

일반도서 (000)

안성시 중앙도서관 001.3 함83

청소년 및 성인

 다양한 방법으로 인생공부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책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 사진도 그렇다

이병희 (안성시 보개도서관 사서)

나는 사진 찍히는 것이 항상 거북합니다. 그 상황과 장소가 어떠한 사진에 찍히기 위해 어색한 포즈와 웃음을 짓고 있는 그 시간이 마치 형벌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쓸데없이 신중한 사진가를 만나기라도 하면, 셔터가 눌러지기까지의 그 긴(?) 시간 동안 내 얼굴과 온몸의 근육이 ‘못 살겠네’ 아우성치며 경련하곤 합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리 경치 좋은 곳을 가도, 뜻 깊은 이벤트가 있는 날이라도 ‘사진 한 방 찍자!’는 말은 영 달갑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진을 찍는 것과는 별개로, 사진을 감상하는 일은 꽤 즐기는 편입니다. 사진에 조예가 깊기는커녕, 일반적 상식조차 부족한 제가 뭐라 말하긴 어렵지만, 사진은 그 특유의 ‘날 것’과 같은 생동감으로 보는 이에게 아주 강렬한 감동을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림이나 조각과 같은 예술도 충분히 생동감을 담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피사체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한 사진의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사진이 감동을 주는 것은 촬영된 그 순간의 ‘바로 그 장면’은 두 번 다시 오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버트 카파의 저 유명한 사진 「어느 인민전선 파병사의 죽음」(왼쪽 사진)은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이 교묘하고

잔인하게 담겨짐으로 인해 충격과 감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끝없이 긴 여운을 남기는 것이 아닐까요?

찰나의 예술 or 세월과 인고의 예술

섬광과 같은 찰나에 거짓과 꾸밈없이 피사체(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의 진실을 확 움켜쥐는 사진! 그래서 사진을 흔히 ‘찰나의 예술’이라고 하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사진가 함철훈은 그의 저서 『사진으로 만나는 인문학』을 통해서 어쩌면 사진은 ‘찰나의 예술’이 아닌 ‘세월과 인고의 예술’ 일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 첫 장의 제목이 「오래 보아야 아름답다」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유명한 시 「풀꽃」의 시구에서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글쓴이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듯합니다.

‘셔터를 누름으로써 피사체를 필름에 담아, 사진을 완성하는 것은 순간일지 모르지만, 피사체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담기 위해서는 천천히, 오래도록 살펴보아야 하고, 가장 적절한 순간을 기다려 기도하는 마음으로 셔터를 눌러야 한다.’고…

실제로 글쓴이는 비오는 날에만 만날 수 있는 세상의 아름다움, 거대한 산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은 작은 들꽃의 힘 등을 사진을 통해 비로소 깨달았노라고 고백합니다. 이 책의 ‘2장(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다)’와 ‘3장(작은 힘으로 세상을 흔들다)’는 물론 1장과는 별개의 내용을 다루지만, 큰 틀은 대동소이합니다. 피사체에 대한 주의 깊은 탐구, 수없이 반복되는 노력, 세월이 흐를수록 깊어지는 고민 등에 의해 비로소 아름답고 힘 있는 사진이 탄생하는 것이라고 강변합니다. 이는 비단 ‘사진’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예술이 과연 붕어빵 찍어내듯이 순식간에 완성될 수 있을 까요? 아니, 예술에 완성이라는 경지가 가능하기는 할까요?

사진은 또 다른 인문학 수업

이 책의 제목은 『사진으로 만나는 인문학』이지만 텍스트에서는 ‘인문학’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연이 아닌 의도에 의한 누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작가는 그저 자신이 사진을 찍으면서 느끼고 겪었던 감정, 경험, 깨침 등을

꽤나 솔직하고 담담하게 써내려갈 뿐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 깊은 독자라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글쓴이가 바라보는 ‘사진’과 ‘예술’, 나아가 ‘인생’의 가치에 대한 생각을!

이 책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작가와 더불어 깊이 고민하고 공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역시 ‘인생공부’인 것이고, 그 자체가 ‘인문학 수업’이 되지 않을까요? 전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생존자

이창래 글, 나종길 번역. RHK, 2013.

661p. : 삽화 ; 2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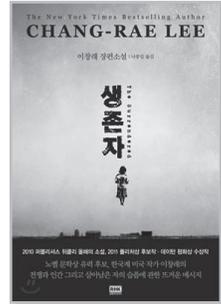
ISBN : 978-89-255-4711-4 03840: 15,800

문학(800)

성남시 판교도서관 (8430898사)

성인

📖 전쟁의 참상을 알고 싶은 성인 / 기성세대에 대해 이해하고 싶은 성인



종전 후 다시 시작되는 전쟁

이선희 (성남시 중앙도서관 사서)

얼마 전 미국인 대학생이 북한여행 중 억류되었다가 혼수상태로 귀국했다. 그는 가족들과 재회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사망하고 말았다. 이 일로 인해 북한의 민간인 학대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이 높아지는 가운데 휴전 상태인 한반도 상황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6·25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는 생존자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지구 상 어느 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카메라 넘어 세상의 이야기일 뿐 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극히 미비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전쟁이든 종전 후 살아남은 자들은 분명히 우리 곁에 숨 쉬고 있고, 인류는 그들의 자손, 이웃들을 통해 그 당시 치열했던 삶에 대해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다.

이창래 장편소설, 「생존자」는 6,25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세 남녀에 대한 이야기이다. 미군 참전 용사인 헥터는 종전 후 아사상태로 길거리에 쓰러져있는 10대 소녀 준을 만난다. 그들은 함께 고아원의 일원에 되어 살아가는 중 미국인 테너목사와 그의 부인 실비를 만나게 된다. 실비는 외적으로는 아름답고 활기찬 모습이지만, 만주사변 때 부모가 눈앞에서 처참히 살해된 후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였

다. 부모와 쌍둥이 언니오빠를 전쟁 중 차례로 잃은 준은 쌍둥이 동생 데리고 부산으로 피난을 가지만 그 여정에서 동생 둘을 한꺼번에 잃고 만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 죽어가는 동생을 뒤로하고, 달리는 기차에 몸을 실었던 준은 실비를 만나면서 그녀를 어머니처럼 의지하고 연인처럼 사랑하게 된다. 한편,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 입대 후 겪은 한국전쟁은 헥터의 평범한 삶을 뒤흔들었다. 종전 후에도 폭력적으로 얼룩진 나날을 보내던 그에게 실비의 등장은 삶의 구원임과 동시에 사랑의 대상이었지만, 세 남녀의 사랑은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못했고, 20년이 지난 후에 준과 헥터가 재회하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된다.

세 명의 주인공의 비참한 삶은 피 흘리며 죽어가는 동생을 뒤로하고 기차를 탔던 준에 대한 작가의 글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끝이 아니었다. 준은 기차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마지막 객차가 그녀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 그녀는 맨발이었다. … 준은 뒤돌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그들 모두를 사랑했지만 뒤돌아보게 되면 자신은 끝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언젠가는 멈추게 될 터지만 아직은 멈추고 싶지 않았다. 무언가를 갈망한다는 것은 결국 시간을 갈망하는 것이다. 그녀는 그저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싶었을 뿐이다. … 그녀의 뒤쪽으로 세상이 빠른 속도로 멀어졌다. 누군가가 그녀를 끌어올려 품어주었다, 그녀는 지면에서 발을 뺐다. 살아남은 것이다”

실비와 준은 전쟁 속에서 가족을 잃고 그로인한 상처로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 전쟁에 직접 참전했지만 전우들의 시체를 수습하는 일을 했던 헥터 또한 전쟁의 광기에서 남은 삶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렇듯 작가는 독자들에게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끔찍한 기억을 눈과 가슴에 품고 남은 생을 연명해야 했음을 알려준다. 휴전 상태의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 전쟁은 적을 죽고 죽이는 단순한 논리에 해당하는 개념이 아니다. 전쟁은 그 소용돌이에 있던 모든 사람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파괴하는 악의 개념임을 이 작품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소설 『생존자』는 성인에게 추천하고 싶다. 내용 중간 중간, 잔혹한 인간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묘사되는 부분이 있어 감수성에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자칫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하는 염려 때문이다.

샤넬, 미술관에 가다

김홍기 저. 아트북스. 2017
ISBN : 978-89-6196-286-5
의상학



엘레강스 : 심혈을 기울여 선택하다

유향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이 책은 서양 명화를 패션이라는 렌즈를 통해 읽은 것이다. 패션의 역사와 여기에서 파생된 지식이 한 점의 그림을 읽는 데 얼마나 유용한지를 알게 된다. 저자는 ‘패션은 사회의 일원인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심리, 예법, 사회적 지위, 라이프 스타일 등을 모두 망라하는 지호이자 정신적 형상을 찍어내는 거꾸집’이라고 한다. 패션은 인간의 몸을 감추거나 드러냄으로써 은밀한 욕망을 표현한다. 이때 웃은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어 사는 집이 된다.

“패션은 인간의 집단적인 열망이 짓는 집이다.”

명화를 볼 때 한 벌의 옷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디테일이 그림 전체의 의미를 설명하는 단서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촘촘하게 접힌 주름의 형태, 시접, 소매의 형상, 단추의 소재, 비딱하게 쓴 모자의 각도, 직물 프린팅에는 모든 사람의 기억이 담겨있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패션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중세부터 1980년대까지의 다양한 그림

을 훑었다. 여기에 수록된 명화들은 중세부터 시작하여 르네상스, 바로크, 신고전주의, 인상주의, 그리고 현대미술에 이르는 긴 스펙트럼을 자랑한다, 그중에서도 빅토리아 시대의 패션을 많이 다루었다. 패션으로 보는 서양의 역사의 흐름을 읽을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자본주의의 태동과 세계 최초의 백화점인 프랑스의 봉마르세가 당시 귀족과 프롤레타리아로 양분된 사회에 어떻게 중산층 개념을 만들어 냈는지 살펴보는 것도 패션의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흥미로운 사실이다. 역사가 반복되듯 패션의 순환도 당연한 일이다. 옛것을 새롭게 변형해서 당대의 정신을 덧붙여가는 과정을 통해 패션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패션과 명화를 통해 설명하는 방식이며 어느 순간 인문학의 지식이 풍부해 지는 느낌이다.

패션을 시대정신의 단층을 읽어내는 렌즈로 쓰기 위해서는 옷을 입는 인간의 역사를 중심에 세워야 한다. 지금 우리가 입고 먹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씩 만들어져 쌓인 것이다. 우리가 흔히 ‘우아하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엘레강스 *élégance*’의 라틴어 어원은 “심혈을 기울여 선택하다”라는 뜻이 있다. 나 자신을 아름답게 만드는 미의 기준을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며, 아름다움은 결국 나를 통해 완성된다는 뜻이다. 꼼꼼하게 나를 성찰하고 그 배경위에서 외양을 꾸미기 위한 장치를 하나씩 고르는 것, 이것이 바로 ‘엘레강스’라고 한다.

우리가 입고 있는 다양한 옷과 액세서리와 보석도 오랜 시간을 통해 빚어진 언어다. 그 언어의 속살을 뚫고 들어가 깊은 의미를 깨달을수록 우리 자신의 외양을 가꿀 논리는 풍성해지고 정교해 진다.

이 책은 2008년에 처음 출간했으나 2017년에 증보개정판이 나왔는데 케이프와 스카프, 니트 슌, 클러치, 레이스, 안경 등 다양한 패션 아이템의 역사를 넣어 증보판을 만들었다고 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패션을 단순한 싸구려 소비재에서 명화와 역사의 축적물로 설명함으로써 인문학의 경지에 올랐다고 보며, 최초의 패션 큐레이터라는 패션을 기획, 전시, 인문학적 설명이 풍부한 보편적 학문으로 접근했다고 본다.

새로운 시각으로 패션을 풍부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을 소개했다.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김혜남 글. 갤리온, 2015.

288p. ; 21cm.

ISBN : 978-89-0120-328-7 : 14,000

일반도서 (문학)

성남시 중앙도서관 (818 79870)

성인

기혼 여성, 흔들리고 있는 30, 40대 성인 /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20-40대 성인 / 불행하더라도 여기는 모든 사람들, 자녀교육서



어차피 사는 거, 재미있게 살다 가면 좋지 아니한가?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저자인 김혜남은 정신분석 전문의이며 부모님의 딸이자, 아내, 두 남매의 엄마, 딸며느리, 아내, 교수로 열심히 삶을 사는 사람이다. 또한 2002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는 걸까?』, 2006년 『어른으로 산다는 것』, 2008년 『서른 살이 심리학에게 묻다』, 2009년 『심리학이 서른 살에게 답하다』 등의 심리학 관련 서적을 발표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남들이 보기에는 평탄할 것만 같았던 그녀의 삶에 파킨슨병이 찾아왔고 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하지만 저자는 쉽게 절망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유쾌한 짐이 되고 싶다고 말하며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는 이러한 작가의 강인한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자신의 질병과 투병생활(1장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에 대해 독자에게 알려준 후, 어떻게 삶에 대한 태도를 바뀌게 되었는지(2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내딛는다는 것) 설명해준다. 그리고 3장에서는 자신의 삶이

재미있는 이유에 대해 치료 및 삶의 경험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말해준다.

1. 지금껏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때 삶을 즐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2. 어떤 이유로든 꿈꾸기를 포기하지 말자. 꿈이 주는 가슴 설렘을 포기하지 말자.
3. 스쳐지나가고 그냥 넘어갈 일까지 굳이 상처라고 말하며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자. 상처와 상처가 아닌 것을 구분 짓는 것. 그것은 어쩌면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첫걸음일지도 모른다.
4.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를 지키는 법
5. 몸도 뇌도 때론 쉬어야 한다.
6.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열등감의 늪에서 빠져 나와라.
7.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기억은 추억이 되고 역사가 된다.
8. 어차피 그는 당신의 충고를 듣지 않는다.
9. 이별, 그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따뜻한 이별을 준비하는 것이다. 오늘 하루 잘 살고,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작가는 정신과 전문의답게 전공분야의 학자 및 학문적 통계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객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책의 내용이 이론서처럼 무겁지 않도록 일반인 독자들의 눈높이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는 저자의 뛰어난 글쓰기 재능인 덕분일 것이다.

이 책은 성인 특히 기혼 여성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작가가 과거 그랬듯이 직장 과 가정 그리고 자기 계발에도 손을 놓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선물하고 싶다. 독자는 저자의 따뜻한 글을 통해서 삶의 무게를 공감하고 어깨를 다독여주며, 힘들 때에는 실컷 울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을 만나게 될 것이다.

적폐역사 개념역사

오룡 지음, 북수토리, 2017.
ISBN : 979-11-9522202-8-1
역사



역사를 역사답게

유향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 ‘역사를 역사답게’ 유향숙님과 함께 합니다. 2017. 06.23 오룡 드림. -

책 표지 다음 면 간지에 이렇게 적어서 작가님은 나에게 주셨다. 작가는 단국대학교 역사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역사에 대해 깊이 수련을 하시고, 성남 용인지역의 도서관과 평생학습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계신다. 바쁜 일상에서 틈틈이 역사 글 쓰기를 하셔서 나온 산물이라 참으로 고맙고 귀한 선물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선생님께 경기도 서평단의 서평을 쓰고 있는데 7월 서평으로 올리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조금 늦은 8월에야 서평을 올리게 되었다. 정확하지만 성실히 쓰셨을 것이고 나 또한 냉철하지만 성실히 읽고 서평을 쓰는 것이 도리라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

이 책의 구성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을 거쳐 일제강점기, 대한민국까지로 구성되어 있다. 역사의 흐름은 늘 그렇듯 삼국시대에서 근현대사까지다. 다만 역사서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역사적 관점을 잡아가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관점이라면 민중사관이나 왕실사관이나 일 것이다. 특히 혼돈의 시대로부터 대한민국으로 건너오던 근현대사는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어떻게 이루어 졌나 인지한다는 차원에서 역사적 관점을 더욱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작가는 역사를 이끌어 온 것은 백성이며 국민이라는 것을 일관성 있게 견지해 가고 있다. 더욱 읽기에 편리하고 쉽게 되어 있는 것은 사건이나 사실별로 되어 있으며 그 분량도 지루하지 않게 한 두 페이지 분량으로 되어 있어, 목차를 보고 흥미로운 부분만 읽고 덮었다가 다시 읽어도 부담이 되지 않게 되어 있다. 보통 역사서는 흐름이라서 지속적으로 읽어야 이해가 가는 구성도 있지만 이 책은 흐름과 단편적 독서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역사는 반복된다.’면서 현재를 깨우치고 슬기롭게 살고자 하는데 깊이 사유하지 않으면 적용하기가 참 힘들 때가 종종 있다.

책을 한 사안별로 끝까지 읽다보면 현실에서도 같은 행태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부분을 지적하는 작가의 촌철살인과 같은 견해를 밝힌 것을 읽는 재미도 솔솔하다.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관점의 혼란을 겪었던 부분은 ‘뮤지컬과 드라마는 역사가 될 수 없다. 누가 그를 조선의 국모라고 불렀나?’라는 부분이다. 정말 영화, 드라마와 뮤지컬로 극적인 삶을 살다 간 명성왕후로 불리는 민비… 백성의 혈세를 쥐어짜고, 외척 정치로 고위관직을 장악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백성을 죽이는 일에만 가책을 받지 않은 민비의 민낯을 볼 수 있었다. 선조, 이승만으로 이어지는 국가위기에 나라 버리기의 닮은 꼴과 다른꼴. 김만덕에게 경영을 배워야 한다 등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었다.

며칠 전 제주도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어서 여름휴가를 배를 이용해서 제주도로 갔다. 항구에서 출발한지 얼마 안된 길가에 ‘김만덕의 길’이 있었다. 책에는 제주 사람으로 가난은 임금도 구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임금은 하지 못한 일’을 김만덕이 이루어 낸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기근이 있던 시기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현한 김만덕의 일화는 당시 여자는 섬에서 태어나 섬에서 죽어야 하는 제도에 임금은 김만덕의 일에 은사로 소원을 들어주었는데 김만덕은 금강산을 보고 싶어하여 임금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는 따뜻한 이야기였다. 현재도 제주도는 김만덕을 기억하고 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기쁨보다는 슬픔을 기억하고 좋은일 보다는 나쁜일을 더 기억되는 세상 같지만 우리의 삶의 자세는 기쁨을 좋은 일을 더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한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

마크 트웨인 글. 북트랜스 번역. 북로드. 2014

484p ; 21cm.

ISBN : 979-11-8505-164-2 : 14,000

일반도서 (800)

화성시 삼괴도서관 843-트67호

청소년 및 성인

 세상이 당연히 요구하는 가치에 의문이 드는 사람들을 위한 책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삶을 위하여

이병희 (안성시 보개도서관 사서)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마크 트웨인의 또 다른 대표적 소설 『톰 소여의 모험』의 후속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어린 아이들이 미국의 미시시피 강을 배경으로 펼치는 흥미진진한 모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톰 소여의 모험』이 순수하게 어린아이들이 겪는 모험과 성장통을 그려내고 있다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아이들의 눈을 통해 19세기 후반, 격변기 미국사회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크 트웨인은 이 책의 서두에 다음과 같이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이 이야기의 계기가 무엇인지 알고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고, 도덕적 교훈이 무엇인지 밝혀내려는 자는 추방될 것이며, 플롯을 찾으려는 자는 총살에 처해질 것이다.”

- 작자의 명령에 따라
군사령관 G.G.

작자의 자전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 이 작품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잡스러운 관점이 반영되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하는 부탁일까요? 아니면 수수께끼를 내면서 답을 알아맞히길 바라는 아이의 마음으로 남기는 힌트이자 부추김일까요? 참으로 궁금증을 자아내는 서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작품은 미시시피강 유역을 무대로 허클베리 핀(이하 혁 핀)이 겪는 모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혁 핀의 모험 동료로는 주인집에서 도망을 친 검둥이 노예 짐이 있습니다. 혁 핀은 전작 『톱 소녀의 모험』에서 모험을 끝내고 마을의 인정 많은 과부 더글러스 부인댁에서 교양 있는 아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나타난 혁 핀의 아버지에 의해 납치당해 외딴 섬의 나무집에 갇히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환각을 일으키는 아버지 때문에 죽을 위기를 겪은 혁 핀은 천신만고 끝에 탈출해서 도망을 치는 중 우연히 짐과 합류하게 됩니다. 혁 핀은 아버지의 마수에서 벗어나기 위해, 짐은 노예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주’로 들어가기 위해 뗏목을 구해서 미시시피강의 하류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여행을 하면서 수 없이 많은 위기에 봉착하지만 그 때마다 기지와 우정으로 극복해냅니다. 여행의 말미에 짐은 결국 소원하던 자유를 찾게 되고, 혁 핀은 또 다른 모험을 위해 톱 소녀와 떠날 것을 다짐합니다.

당연한 게 과연 당연한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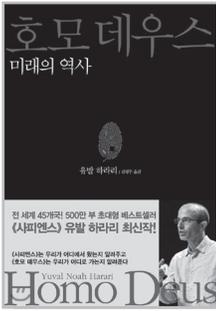
이 작품은 철저하게 혁 핀의 눈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못 하고, 그저 자연 속에서 하루하루를 자유롭게 살아왔던 혁 핀의 마음은 순수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혁 핀의 눈은 어른들의 세상 속에 숨어있는 허위와 가식, 부조리 등을 그야말로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당시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작자의 고민을 엿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규범과 양심의 충돌은 이 작품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야기 전반에 나타납니다. 이야기의 후반부에 사기꾼에게 속아서 잡혀간 짐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혁 핀의 고민은 그 화두를 극명하게 드러내죠.

당시의 법과 교리, 문화 등은 단호하게 외칩니다. 짐을 주인에게 돌려주라! 그렇지 않으면 법과 하느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므로 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

이다! 당시의 법규범에 따르면 흑인은 자유로울 수 없으며 주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죄악이었던 것이죠. 혁 핀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짐의 탈주를 도우는 와중에도 혁 핀은 내내 고민을 합니다. 본인의 도움으로 인해 짐의 주인은 유일한 노예를 잃게 되고 큰 불행에 빠질 텐데 내가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것은 도둑질을 돕는 것과 다를 것이 없지 않은가? 하지만 혁 핀의 양심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잘못으로 독사에 물려 죽을 뻔했으면서도 자신을 나무라지 않은 짐. 피곤해하는 핀을 위해 기꺼이 불침번을 대신 서주던 짐. 죽은 줄 알았던 혁 핀이 살아서 돌아왔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던 짐. 그런 짐이 가까스로 잡은 자유의 기회를 잃도록 두고 봐야 만 할까? 선택의 기로에 선 혁 핀은 괴로워합니다. 긴 고민 끝에 결국 혁 핀은 짐을 도와주기로 결심합니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나는 종이를 집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나는 덜덜 떨렸다. 숨을 죽이고 잠시 생각한 끝에 스스로에게 말했다. “좋아, 나는 지옥으로 가겠어” - 중략 - 우선 다시 짐을 빼낼 방법을 생각해보자. 그 보다 더 나쁜 짓이라도 하자. 결심을 굳힌 이상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

짐을 주인의 손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당시 사회 속에서 혁 핀은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본인의 양심에 귀를 기울인 결과일 것입니다. 또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만 받아들이다면 세상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세상이 적어도 과거보다 나아진 점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로 혁 핀처럼 말이죠. 이 작품은 서문의 경고를 따라 가볍고 즐겁게 읽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그 경고를 살짝 무시하면 나름의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혁 핀도 그런 경고는 무시해 버리지 않았을까요?



호모데우스

유발 하라리 지음, 김명주 옮김, 김영사, 2017.

ISBN : 978-89-349-7784-1

인류학

인간은 사피엔스가 아니라 데우스가 되고자 한다.

유향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1부에서는 무엇이 우리 종을 이처럼 특별하게 만드는지 이해하기 위해 호모 사피엔스와 여타 동물들의 관계를 살펴볼 것이다. 미래에 대한 책에서 왜 동물에게 이토록 주목하는지 의아해하는 독자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동료인 동물들에서 이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는 인류의 본성과 미래를 진지하게 논할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호모사피엔스는 자신이 동물이라는 사실을 잊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동물이다. 또 우리가 스스로 신이 되려고 시도하는 시점에 우리의 기원을 기억하는 것은 두 배로 중요하다. 동물로서의 우리 과거, 또는 다른 동물들과의 관계를 무시하고는 신이 된 우리의 미래를 살펴 볼 수 없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미래에 전개될 초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예측하는 데 가장 좋은 모델이기 때문이다. 초인적 지능을 지닌 사이보그가 살과 피를 지닌 보통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지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인간이 자기보다 지능이 떨어지는 동물 사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된다. 물론 이것이 완벽한 유비는 아니지만,

상상만 하지 않고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최고의 모델이다.

2부에서는 1부의 결론을 토대로 호모 사피엔스가 지난 천 년 동안 창조한 기이한 세계와 우리를 현재의 교차로로 데려온 길을 살펴볼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는 어떻게 해서 우주가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모든 의미와 권위가 인간에게서 나온다는 인본주의 신조를 신봉하게 되었을까? 이 신조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 신조는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예술 그리고 우리의 가장 은밀한 욕망을 만들어내는가?

마지막 3부에서는 다시 21세기 초로 돌아와 인류와 인본주의에 대한 훨씬 더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가 처한 곤경과 우리에게 가능한 미래들을 이야기할 것이다. 왜 인본주의를 살현하려는 시도가 도리어 그 이념의 몰락을 초래할까? 불멸, 행복, 신성의 추구가 어떻게 인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뒤흔드는가? 일상에서 내리는 결정에 어떻게 반영될까? 그리고 인본주의가 실제로 위태롭다면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까? 3부에서 나는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데이터 관행, 직업시장 등을 살살이 파헤칠 것이다.

과격적이고 신선한 관점이다. 그리고 과학적·역사적·철학적 근거를 갖고 적절히 제시하면서 미래를 예견해 간다. 통찰력이 있으며 과거로부터 현재의 우리와 미래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제시하고 있다. 먼 우주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데 시·공간을 다 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공평하게도 보다가 선두를 치는 생명체를 연구한 것 같은 기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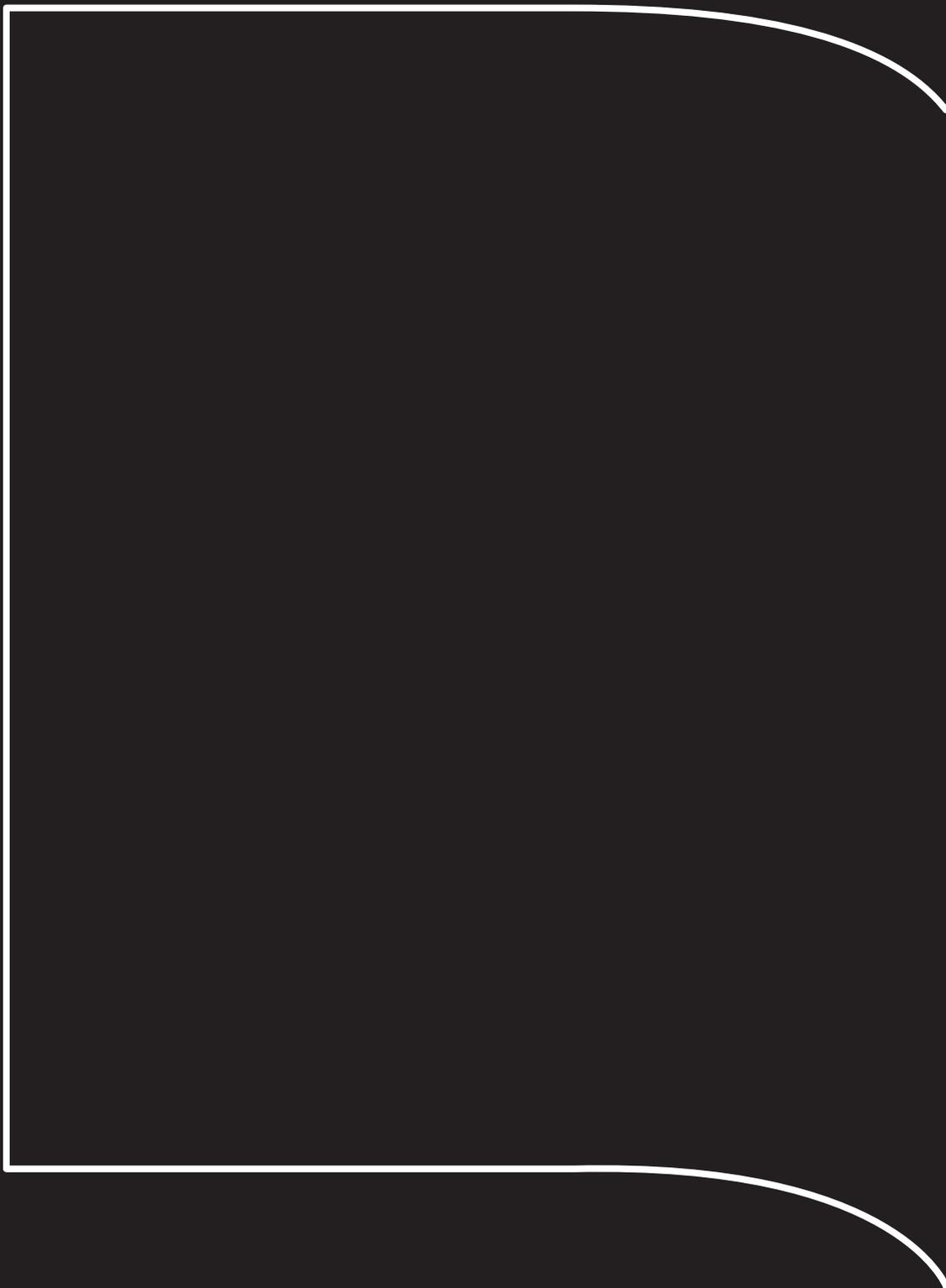
그 동안의 역사에서 많은 종교, 제국, 문화가 흥하고 망했다. 그러한 격변들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인본주의는 3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는데, 파라오가 이집트를 3,000년 동안 지배했고, 교황은 유럽을 1,000년 동안 지배했다. 타임머신을 타고 랍세스 2세 시대의 이집트인에게 ‘파라오는 사라질 거라고 말한다’면 그는 아연 실색해서 이렇게 대꾸할 것이다. “파라오 없이 어떻게 삽니까? 누가 질서와 평화, 정의를 보장 합니까?” 또 중세시대로 가서 사람들에게 ‘몇 백 년 안에 신이 죽을 거

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공포에 질릴 것이다. “신 없이 어떻게 삽니까? 누가 인생의 의미를 주고, 우리를 혼돈에서 보호해 줍니까?”

후대에 와서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들은 파라오의 몰락과 신의 죽음을 모두 긍정적인 변화로 생각한다. 어쩌면 인본주의의 붕괴도 결국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은 본래 두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위대한 상수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이다. 작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Everything changes”

유발 하라리는 이스라엘 하이파에서 태어나 2002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중세 전쟁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역사와 생물학의 관계, 호모 사피엔스와 다른 동물과의 본질적 차이, 역사의 진보와 방향성, 역사 속 행복의 문제 등 광범위한 질문들에 연구 중이다. 유튜브를 통해 MOOC 강의 <인류의 간략한 역사>는 전 세계 8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등록하였다. 2014년 두 번째 강의에는 개강 3주 만에 3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접속하였다. ‘사피엔스 신드롬’을 일으키며 45개국에 출간된 세계적 베스트셀러 『사피엔스』가 2015년에 『호모 데우스』로 출간하여 인류와 미래, 인간이 신으로 진화할 것인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며 서술하고 있다.





**책 권하는 사서들.
2017**

서명자 소개

서평자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김보라	화성시 시립도서관
김새롬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김정미	오산시 초평도서관
김현주	수원시 지혜샘어린이도서관
박지원	안성시 중앙도서관
송미선	화성시 태안도서관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엄정란	시흥시 정왕어린이도서관
유향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유현미	평택시 시립도서관
이가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이병희	안성시 보개도서관
이선희	성남시 중앙도서관
이수경	평택시 장당도서관
이시영	군포시 산본도서관
이연수	수원시 태장마루도서관
이연순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이윤정	평택시 지산초록도서관
조이소하	남양주시 별빛도서관
홍미정	화성시 병점도서관

기획자

정은영	경기도사이버도서관
-----	-----------

공정자

(안성시 중앙도서관 사서)

그림책을 즐겨 읽는 사서입니다. 공공도서관에 근무하지 않았다면 그림책과 어린이 도서를 읽는 즐거움을 알기가 쉽지 않았을까? 합니다. 제가 처음 우리 시 도서관에 근무할 때만 해도 어린이책의 경우는 대부분 번역 그림책과 동화, 전집류가 많았습니다. 20년이 지난 현재는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그림책 작가들이 우수한 작품을 내놓으며 주목받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 분야의 좋은 책들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서관도 자동화로 근무환경이 바뀌었고 많은 도서관이 생겨났습니다. 외부환경 변화로 사서의 업무가 조금씩 다르지만, 시간이 갈수록 빛을 발할 수 있는 일이며, 기본에 충실한 일 중 하나가 도서관 자료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는 추천도서 소개와 서평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새로 나온 책 중 다른 사람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는 사서의 역할에 권위있는 사서가 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하나 부족함이 많은 저를 봅니다.

늘 바쁜 일상 가운데 매년 경기도 사서들의 힘을 모아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가 꾸준히 출판되어 감사합니다. 이전보다는 추천도서와 서평의 역할에서 도서관과 사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기쁘고 앞으로 더욱 확장되리라 봅니다. 이를 위해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의 출판을 위해 각 도서관 사서들을 연결하고 책이 출판되는 수고로운 과정을 잘 감당해 주신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김보라

(화성시 병점도서관 사서)

유명한 프랑스 영화감독인 프랑수와 트뤼포의 말을 전합니다. “진정 영화를 좋아한다면 영화를 3번 이상 보고, 영화의 평론을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영화를 만들어라.” 이 말에 무척이나 감동을 받은 저는 영화에 책을 대입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정말 책을 좋아한다면 책을 3번 이상 읽고, 책에 대한 평론을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책을 만들어라.” 시작이 거창했지만, 전하고 싶은 마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경기도 서평단 과 함께 한 이 서평 작업이 책을 너무 아끼는 한 사람이 보내는 애정의 표시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보태자면 좋은 책을 접하기 위해 도움을 얻고 자하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하는, 사서로서의 본분을 잊지 않고자하는 노력이라는 것. 이런 진심들이 전해 질 수 있도록 경기도서평 단 여러분께 좋은 영향과 기운을 받으며, 더욱 좋은 서평을 쓰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김새롬

(남양주시 와부도서관 사서)

서평을 쓰기 위해 책을 고르는 시간이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사서업무 이외의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제가 사서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서평을 쓰는 작업은 저에게 사서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습니다. 누군가에게 저의 서평이 도서 선정에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도 같이 담아서 말입니다. 올해로 2년째 활동하고 있는 사서서평단 활동은 저에게 삶의 활력소이며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더 열심히 서평을 쓰고자 노력했습니다. 꾸준하게, 충실히 써보자 다짐했지만 되돌아보니 매달 말일이 되면 ‘써야지, 써야지.’ 라는 생각만 앞서고 막상 실천은 하지 못한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서로서의 능력을 좀 더 충실히 발휘하겠노라 다짐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사서서평단을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며 응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셨던,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나오기까지 서평단을 대표하여 고생하셨을 정은영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미

(오산시 중앙도서관 사서)

어린이자료실을 담당하다 보니 영유아부터 학부모님들까지 도서관에 오시는 다양한 분들을 뵈게 되면서 제가 사서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 2년이 채 안된 신규 사서로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도 기획해 보고, 이용자에게 다가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급한 일을 처리하느라 책을 많이 읽지 못했고, 그래서 의무적으로나마 책을 읽고 싶어 서평단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사서가 책을 읽지 않고 책을 추천할 수 있을까? 나의 전문분야는 무엇인지 그에 따른 고민으로 더욱더 서평단에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기는 쉬웠으나 서평은 어려웠습니다. 내 한마디 한마디가 글자가 되어 남는다는 생각과 이 글이 다른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글을 쓰는데 경계심과 조심성을 부여하는 바람에 뜻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많이 읽었으나 어떤 책이 좋은 책인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 그런 상태이지만 앞으로가 많이 남아있기에 천천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도서관이 책이 있는 장소이기 보다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서가 되려고 합니다. 1년 동안 보이지 않게 큰 힘이 되어주신 경기도 서평단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현주

(수원시 지혜샘어린이도서관 사서)

대학시절을 포함하여 도서관과 인연을 맺은지 24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서관과 책을 무척 사랑하고 사서라는 직업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도서관은 예전에 비해 많이 변했고 현재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랑가나단의 제5법칙 “도서관은 성장하는 유기체이다”라는 말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제가 일하는 도서관도 매일매일 성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사서서평단에 지원하게 된 것은 개인적인 성장을 위함이었습니다. “사서란 무엇인가? 현대 사회에서 사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지금 사서는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 왔는가?”. 이런 고민을 하던 중 사서서평단 모집문을 보았고 평소 서평에도 관심이 있어던 터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마친 지금은 물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평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겼으니 말입니다.

사서는 책의 전문가입니다. 누구보다 책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책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서평단 활동이 그 초석이 되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 또 참가하고 싶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제가 선택한 책들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2017년 경기도사서서평단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안성시 공도도서관 사서)

경기도 사서서평단이 된 지 2년. 여전히 책을 읽고 서평을 쓰는 일이 어렵지만 행복한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희망도서관이나 신간이 들어오는 날에는 새 책이 주는 설렘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책을 볼 수 있다는 일종의 특권의식(?)과 함께 말입니다. 신간을 RFID를 등록하고 도서상태를 정리중에서 대출가능으로 바꾸고 맨 처음 대출하고 읽을 때의 기쁨. 그 여러 권의 책 중에서 서평을 쓰는 책은 일부에 불과하지만,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 책으로 그림책읽는 성인독서회도 진행하고 사서로서의 삶은 분주하면서도 행복합니다.

그림책과 동화책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같은 위안이 되는 책입니다. 사서로서 서평을 쓰는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안미아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저는 어렸을 적 책을 많이 읽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 도서관은 공부하러 가는 곳이었고, 대학생 때 우연히 공공도서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매력적이라고 느꼈습니다. 타과를 졸업하고 다른 직장에도 다녔지만, 미래에 대해 계속 고민했고, 도서관에서 일했던 순간들이 생각났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찾아가기만 하면 아무런 질문도 던지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책을 매개로 반겨주는 휴식처 같은 곳에서 일을 한다면 어떨까 생각했었지요.

이 후 여러 과정을 거쳐 성남시 공공도서관의 사서로써의 일한지 10년차이지만, 하루하루 맡은 일을 해내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지요. 하지만 한해, 두 해가 갈수록 정체되어 있는 제모습에 독서가 처방약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서평단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글 솜씨는 커녕 말 주변도 없는 제가 서평을 제대로 쓸 수 있을까 고민도 많았습니다. 작성한 글들이 질문일까봐 지금도 염려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기 위해 서평단에 계속 참여해보려고 합니다. 부쩍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이 되어 서평단이 다시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엄정란

(시흥시 중앙도서관 사서)

안녕하세요. 저는 시흥시 중앙도서관 사서로 재직 중인 엄정란입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육아휴직중인데 아기 키우면서 조금이나마 사서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싶어 서평단 활동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서평단 활동은 올해 처음이고 서평 교육도 못 받고 시작해서 걱정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써야 내가 쓴 서평을 보고 독자가 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흥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수차례 해왔습니다.

처음 몇 달 간은 글쓰기가 참 버거웠고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나기 시작하여 새벽에 쓰는 글쓰기가 참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잠시나마 육아의 고충도 내려놓을 겸 저 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가들이 새벽에 글을 쓰나 봅니다.

서평을 쓰는 시간은 무언가 정해진 숙제를 끝마쳐야 하는 것처럼 긴장됐지만 다 쓰고 나면 정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한 달을 정말 알차게 보냈다는 자기 만족감 비슷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활동 덕분에 전 사서로서 정말 잊기 쉬웠던 책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흥시가 아닌, 주거지인 군포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대출하고 반납한 경험은 나중에 다시 직장에 복귀할 때 어떤 정책제안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향숙

(성남시 판교도서관 사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도서관은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지자체 소속의 도서관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 시작과 거의 비슷한 단계에서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들어나면, 신생 도서관들은 가야 할 길은 멀었고, 할 일은 많았고, 경험은 적었고, 열정은 높았기에 돌이켜 보면 이렇게 3번째 서평집을 발간한다는 것은 빠른 시간 안에 맺은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적인 도서관 수가 늘어나는 만큼, 적은 사서의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해오는 와중에도 도서관 서비스는 잘 지어진 공간의 서비스가 아니라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에게 양질의 도서 정보 서비스 즉, 도서 정보 안내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도서 정보 서비스는 어떤 형태로 해야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줄 것 인가를 고민한 산물로서 서평집이 발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어려운 와중에도 우리는 본분을 잊지 않고, 성실하게 길을 잘 찾아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직 부족한 어린이 서평으로 도서안내자 역할을 하지만 “한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여러 사람의 꿈은 길을 만든다” 는 어느 문구의 힘입어 경기도 사이버도서관과 동료 사서분들과 함께 바람직한 사서의 길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일조하겠습니다.

유현미

(평택시립도서관 사서)

여러 가지 일들에 치이다 보면 내가 이리려고 사서가 되었나(?)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펼쳐드는 그림책 한 권이 주는 위로가 팍팍한 현실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괜찮다 괜찮다’ 등을 토닥여 주기도 하고 ‘오늘 안 되면 내일 다시 해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린이가 세상을 보는 눈처럼 어린이 책의 세계관은 명확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 적당히 타협을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고서도 여전히 어린이 책을 통해 세상사는 법을 배웁니다. 제가 어린이 책을 좋아하고 틈만 나면 주변 이들에게 어린이 책을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매슈 아놀드는 ‘비평이란 세계에서 알려지고 사색된 가장 좋은 것을 퍼뜨리려는 공평무사한 노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평을 쓰는 마음도 이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게으름과 바쁜 일상 탓에 매년 서평을 마음만큼 쓰지는 못하지만 제가 『경기도사서서평단』에 대해 느끼는 자부심과 애정은 각별합니다. 좋은 어린이 책이 많아진다는 것은 아이들조차 힘들어 하는 현실에 신선한 공기 한 줌 불어넣는 일이자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키우는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기도 사서 서평집이 나오기까지 함께 애쓰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가영

(평택시 안중도서관 사서)

올 한 해는 사서가 된 이후 처음으로 사계절을 온전히 어린이자료실에서 보냈습니다. 봄·여름·가을·겨울을 지내보니 이제야 어린이 책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린이 책은 일반도서보다 글밥도 적고 책의 두께도 얇지만, 책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일반도서보다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좋은 어린이 책을 접했을 때,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책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를 잡아내어 책을 선택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에게 선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사서의 큰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책을 읽고, 서평으로써 어린이 책을 접하는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서가 되겠습니다.

이병희

(안성시립도서관 사서)

안성시립도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 이병희입니다. 그저 책이 좋다는 이유 하나로, 책과 함께하는 일을 하면 즐겁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사서의 길로 들어선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오래달리기를 할 때 자기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전력질주를 하는 것처럼, 저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고 싶다는 의욕만 갖고 이 길에 들어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력하고 분발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 서평 쓰는 사서모임을 하게 된 이유도 그 노력을 위한 한 방법이었습니다. 좋은 사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책을 권하고, 읽고 싶게 만들어줄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게으르기도 했거니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많은 서평을 쓰지는 못했지만, 개인적으로 뜻깊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던 ‘책을 읽고 그에 대한 글을 써보지 않으면 그 책을 깊이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한 시간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도 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서가 되어있기를 바라봅니다.

이선희

(성남시 도서관지원과 사서)

7년차 사서입니다. 사서에 대한 막연한 동경은 중학교 영어선생님 덕분인 것 같아요. 막 사춘기를 접어드는 저에게 선생님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 등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기뿐만에 가득했던 저는 소설 속 주인공들을 보면서 나를 찾는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여행을 계기로 책을 좋아하는 아이로 성장하고 항상 책과 함께 하고 싶다는 열망이 사서가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제 어릴 적 영어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사서를 하고 있습니다. 시립도서관 사서로 사서 본연의 업무보다는 사서행정에 치중되는 업무들에 지쳐있던 저에게 서평단을 시작해 볼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한 건 2015년 발간자료 집 펴내는 글을 읽고 나서입니다.

‘서평을 쓰기 위해서는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합니다. 어떤 책을 고를까, 이 책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 할까, 누구에게 권하면 좋을까를 고민합니다. 사서들이 서평을 쓰는 이유, 스스로 조금씩 더 발전하고 싶은 바람입니다.’ 이런 말들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책을 좀 더 깊이 있게 읽고, 책에 대해 많이 알게 되고 좀 더 발전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었습시다. 서평에 대해 기본 지식 없이 다른 분들의 서평을 읽고 연습해서 서평을 쓰는 작업은 쉽지 않았고, 여러 번 쓰고 고칠수록 점점 더 부족하고 어려워지만 많은 배움 또한 있었습시다. 서평단 활동은 다른 핑계대지 말고 책에 대해 더 많은 관심 갖고,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경

(평택시 장당도서관 사서)

몇 해 전부터 학교와 연계하여 독서모임을 꾸렸습니다. 올해는 「만화반」을 운영했습니다. 최규석, 김보통, 강풀, 우라사와 나오키, 호소다 마모루의 만화영화, 마지막으로 이대희 감독의 『파닥파닥』을 보았습니다. 스물여섯 청춘의 암투병기부터 휴머니즘을 장착한 로봇 이야기까지 만화는 삶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등장인물들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 제대로 살아보기 위해 고민과 선택의 기로에 서있기도 했습니다. 읽은 만화책에 대한 이야기와 친구들끼리 짓궂은 놀림, 당면한 고민까지 아이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직 삶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다는 것은 어른들의 편견일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걸어갈 삶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이로운 판단과 더불어 무엇이 더 옳은 일인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시영

(군포시 중앙도서관 사서)

저는 공공도서관에서 20년이 넘게 뛰어난 사서입니다. 도서관에 책을 보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좋은 책을 권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요. 이런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 이 서평집입니다. 이렇게 해마다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친절한 서평집을 만들어주시는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감사드립니다. 이 서평집을 많이, 많이 봐주세요. 이 서평집에는 현장 사서들이 날마다 도서관 안에서 책과 시민들을 연결해 주기 위한 고민한 흔적이 생생하게 녹아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보아도, 어른들이 보아도 좋은 책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저 역시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도서들 중에서 괜찮다고 여겨지는 책들을 골라서 읽어보고 생각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야 소개할 책을 최종적으로 고릅니다. 사서들이 골라 낸 괜찮은 책들을 읽어보세요. 마음과 영혼이 정화됩니다.

이연수

(수원시 태장마루도서관 사서)

2017년은 사서로 좀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처음 해외의 도서관을 가보았습니다. 개인이 아닌 사서로 해외 도서관을 업무적으로 가는 것은 수원시 사서로서 기회가 자주 오지 않거든요.

공직입문 23년만에 외국의 도서관을 처음 간 사서이기에 기대도 크고 욕심도 커서 누구보다 열심히 다녔습니다. 물론 다녀와서 몸이 아파 힘들었지만요. 객관적으로 보이는 시설이나 규모를 평가하는 것은 도서관마다 다르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서들의 열정은 나라와 언어를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간 타시군의 사서들의 열정이 외국의 사서들에게도 통했는지 제한시간을 훨씬 넘기고도 질문과 대답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서들의 분위기나 외국의 사서들의 분위기도 비슷해서 살짝 웃음이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비슷한 것은 책을 다루는 직업이라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언어와 나라만 달랐지 도서관과 사서는 비슷하게 닮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 사서 서평단에서 주관한 워크숍을 갔던 것이 얼마 안 되었던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이 되었습니다. 1박2일 동안 고창 책마을 해리에서 보고 듣고 체험한 신선한 감동으로 힘을 받고 열심히 쓰리라 다짐했었는데 다짐만큼 보여준 것이 없어 정은영 선생님과 여러 사서분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경기도사서서평단에 참여하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이연순

(수원시 반달어린이도서관 사서)

책을 소개해달라는 이용자의 진심어린 요청을 들을때마다 어정쩡한 웃음으로 상황이 그냥 넘어가기만 바라는 마음속에 사서에 대한 기대와 준비되지 않은 현실의 간극이 히말라야의 깊고 어두운 크레바스처럼 느껴집니다. 마침 경기도 사서서평단 활동을 알게 되었고, 혼자 하기에는 역량도 인내도 버겁지만 ‘함께라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달에 한권이 결코 만만치않다는 것을 아는 데 긴 시간이 필요치 않았지만 사서서평단이라는 무거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좋은 책 추천과 소개에 대한 사서들의 열망과 열정을 알게 되었고, ‘서평쓰는 사서들’ 카페(이름도 참 그럴 듯합니다^^)에 올라온 정성스런 서평들을 보며 기쁨과 각성의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도서관에 사람들이 왜 올까? 가끔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고 멋진 시설을 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도서관을 찾게 만드는 이유는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책에는 한사람의 우주가 들어있고, 도서관 서가에 꽂혀 있는 우주는 어떤 종류의 다양성과 가치와 창의성을 능가하지 않을까요.

좋은 책을 언제든, 한권이라도 더 소개해줄 수 있도록 오늘도 게으름과 씨름하는 사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서로서의 정체성과 성찰과 성장의 장을 마련해준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에 감사드립니다.

이윤정

(평택시 지산초록도서관 사서)

사서가 된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경기도사서서평단 활동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처음 사서가 되어 서평을 쓰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고, 서평을 쓰는 일은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서가 되어 어린이자료실을 담당하면서 그동안 멀리했던 그림책을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두껍고 커다란 책들과 달리 그림책은 얇고 알록달록한 그림이 가득해 쉽게 읽히고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림책은 참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을 하며 처음 서평을 쓰려고 하는데, 막상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누가 읽으면 좋을까, 이 책은 무얼 말하고 싶은 걸까, 어떻게 쓰면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싶을까. 서평을 처음 쓰는 입장에서 어떻게 서평을 써야 할지에 대한 수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 제가 쓴 서평은 제 경험들과 저의 생각, 감정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는데 너도 한 번 읽어보는 건 어때?”

많은 어린이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학교에 들어가면 배우는 문학작품의 해석, 작가의 의도 파악 등이 아닌 나의 경험에 빗대어, 나의 감정들로 그림책을 읽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평단 활동을 하면서 그림책을 보다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서평을 쓰면서 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림책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소하

(남양주시 별빛도서관 사서)

기억 속 가장 안쪽 공간에 항상 책이 있었다. 수레에 도서관 책들을 싣고 다니던 마틸다 만큼은 아니었으나, 동네 헌 책방의 퀴퀴한 종이 냄새와 학교 도서관의 몇 안되는 서가에서 발견한 보석같은 책들을 사랑했던 나는 꽤 긴 시간을 돌아 사서가 되었다. 사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책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거라고 생각한다. 내가 느낀 책세상의 즐거움과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갖는 가치를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서 서평을 시작했다. 그야말로 시작한 것에 불과하여 부끄럽지만 내년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

홍미정

(화성시 병점도서관 사서)

사서의 옷을 입은 지도, 경기도사서서평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지도, 햇수로 각각 25년, 8년째를 맞았다. 돌아보면 지나온 햇수가 무색하리만큼, 사서로서의 열정을 십분 발휘하지도 못했고, 서평단으로서도 몇 편 안되는 서평의 초라한 성적표만 남겼다. 한없이 초라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사서서평단이라는 ‘옹달샘’(내게는 진심 그런 존재이다)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책과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 곁을 떠나기 싫어서 일 것이다. 책의 힘을 알고 책의 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가.

‘책은 신앙과 같다’고 한 어느 사서교사의 말이 뇌리에서 잊히지 않는다. 신앙이란 성스러운 존재에 대한 신뢰를 일컫는 말로, 사람들에게 있어 개인생활을 컨트롤하는 중심적 역할을 한다. 사람들이 책을 통해 묵상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책을 신앙에 비유하지 않았을까 짐작한다. 좋은 신앙이, 깨어지고 뒤틀린 세상의 악영향을 바로잡고, 회복의 주체가 되어 바로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라면 좋은 독서도 이와 같으리라.

그런 면에서 사람들을 좋은 독서로 이끌고자 하는 경기도사서서평단의 날갯짓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도 계속 경기도사서서평단을 맴돌 생각이다. 우리의 날갯짓이 ‘나비효과’가 되어, 우리 사회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까지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복한 그날을 상상하면서 말이다.

“경기도사서서평단과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여러분! 2017년 한해도 애쓰셨어요. 사랑합니다^^”

2009년 서평집을 처음 발간했습니다. 그때는 사서서평교육을 1년 동안 진행하고, 교육의 결과물을 묶어서 발간했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같은 마음일까 싶어서 그때의 자기소개를 꺼내 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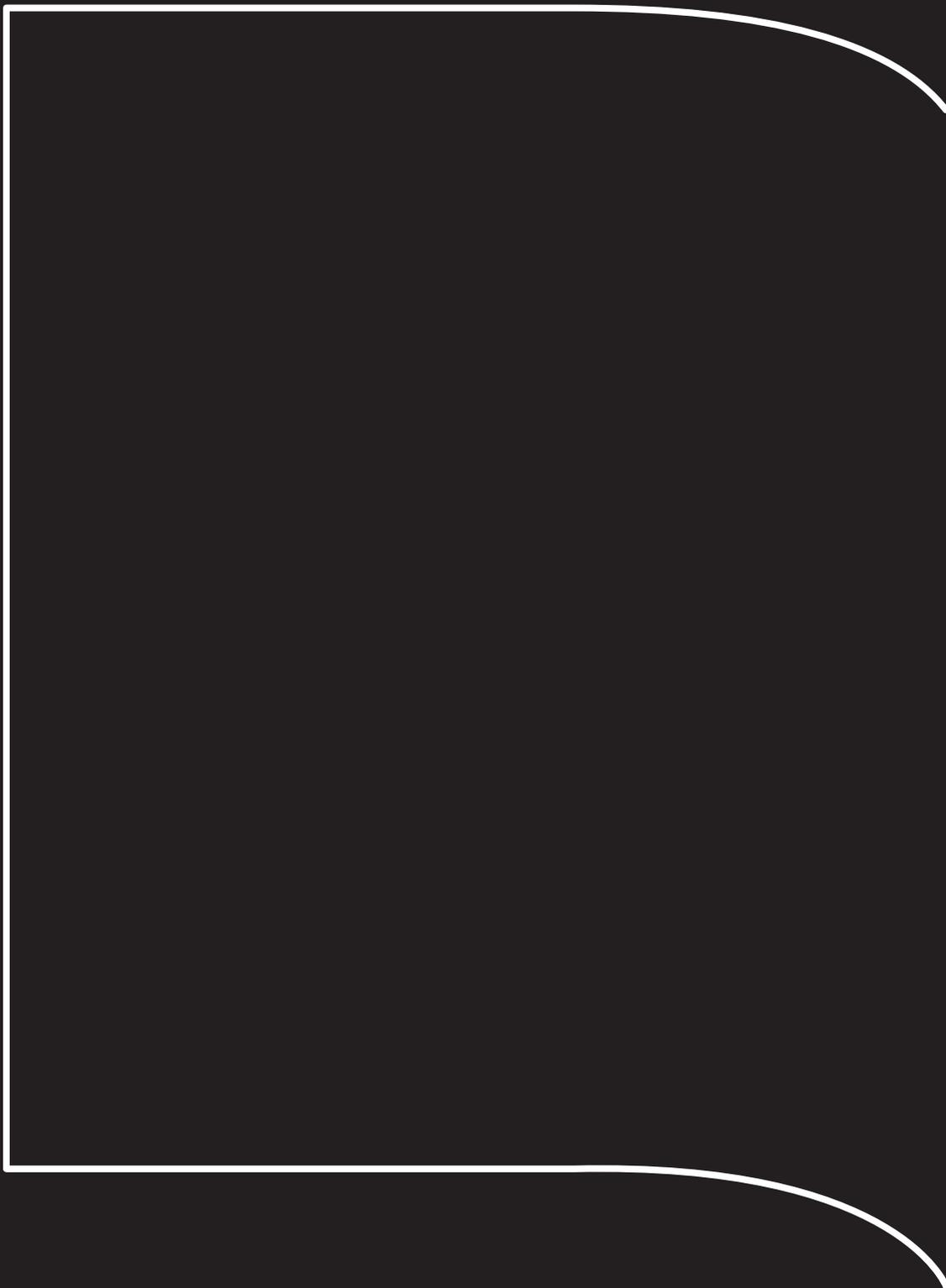
『매일 도서관에 가는 도서관쟁이죠. 가끔은 일에 파묻혀 도서관이 재미없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서’라는 이름을 너무 좋아하는 도서관쟁이입니다. 회사에 있는 도서관에서도 일했었고,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한 공간에 좋은 책들을 잔뜩 꽂아 두고서 좋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작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서서평교육을 기획하고 준비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고,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서들이 더욱 많아지고, 그 내용이 풍성해 지길 기대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수원과 의정부를 오가면서 지식과 경험을 나눠주신 좋은 강사님들, 퇴근 후 개인적인 시간을 기꺼이 반납하시며 열정을 보여주신 멋진 사서선생님들 모두에게 그 동안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더불어 저희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이번 교육을 토대로 뿌리내리고, 아름답리나 무로 커져갈 경기도 도서관을 응원합니다. 나아가 813.8뿐 아니라 모든 주제 분야에 대해 말하는 사서들이 우후죽순 쏟아내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 책만으로 시작했던 서평집이 조금씩 자리를 넓혀가다가 올해는 드디어
엇비슷한 양으로 일반도서관 어린이도서를 함께 다루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다
시 시작입니다. 도서관에 대해, 책에 대해 말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서들이 우후
죽순 쏟아내기를 기대합니다.





서평공모전
수상작

내가 원하는 어린이 책

우수작

꽃에서 나온 꼬끼리 조정현 (경기도 성남시)

강냉이 신창덕 (경기도 고양시)

장려작

어떤 목욕탕이 좋아? 김선애 (경기도 파주시)

소녀의 눈물 신창덕 (경기도 고양시)

토끼의 당근 당근 당근 박은혜 (경기도 화성시)

손 큰 할머니 만두 만들기 김경미 (경기도 부천시)

꽃할머니 신창덕 (경기도 고양시)



꽃에서 나온 꼬끼리

황K. 책읽는곰



집으로 가는 길, 산들바람이 분다

조정현 (경기도 성남시)

“집으로 가는 길, 산들바람이 분다. 바람이 풀숲을 스치는 소리가 들린다.“

한편의 시 같은 서두로 시작하는 예쁜 그림책입니다. 맑고 동그란 눈을 가진 소년이 집으로 가는 길에 처음 보는 꽃 한 송이를 발견했어요. 기다란 수술이 마치 꼬끼리의 상아처럼 생겼다고 생각한 순간 꽃 속에서 뭔가가 살금살금 걸어 나왔어요. 아주 작은 꼬끼리였어요. 소년은 가슴이 쿵쿵쿵쿵 뛰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작을까? 꽃 속에서 사는 걸까? 소년은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꼬끼리가 좋아할만한 것을 하나씩 건네어 봅니다. 바람개비를 가지고 함께 놀기도 하구요. 풀을 뜯어 꼬끼리에게 먹이로 줘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통을 구경시켜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잠시 후 꼬끼리는 필통 속 물건을 탐색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소년은 꼬끼리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겨우 고만큼 놀고 힘들었나 보다. 나는 꼬끼리가 깰까 봐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지난 여름, 시골에서 별뿔별이 떨어지는 걸 처음 봤을 때도 이런 기분이었다. 무척 신비로웠다. 그러면서도 별이 모두 떨어지면 어쩌나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세상 모든 엄마들이 잠자는 아이를 바라보며 느끼는 마음이 아닐까요? 그 작고 앙증맞은 존재가 내게로 왔다는 것이 신기하고, 잘 키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윽고 코끼리가 잠에서 깨어나 자꾸만 꽃 있는 데를 쳐다봐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봐요. 소년은 코끼리를 살포시 손위로 들어 올려 데려다 주러 갑니다. 그 때 오토바이가 부아앙~ 소리를 내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났어요. 코끼리가 놀라 바둥거립니다. 소년은 넘어지며 코끼리가 떨어질까 봐 걱정합니다. 정강이가 육신거리고 손바닥도 아팠지만 코끼리가 괜찮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이름은 한별이야. 너는…
꽃에서 나왔으니까 꽃끼리라고 부를게.
코끼리가 내 코를 간질였다.
코끝에서 꽃향기가 솔솔 풍겼다.”

꽃에서 코끼리가 나오다니, 참 기발한 상상이다. 그 이름 또한 재미있지 않은가. 꽃끼리라니. 어쩔 이렇게 예쁜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황동규 시인의 시 『풍장 58』을 읽다가 이 그림책 이야기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 시는 ‘이 세상 어느 코끼리 이보다도 하얗고 이쁘게 끝이 살짝 말린 수술 둘이 상아처럼 뻗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궁금해서 시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달개비꽃도 찾아보았습니다. 참고로 ‘풍장 58’은 달개비꽃을 보고 쓴 시입니다.

수술이 정말 상아 모양으로 살짝 구부러지며 뻗어있네요. 코끼리는 덩치가 크고 강한 동물이라는 우리의 선입견을 깨뜨리며 보호 받아야하는 존재로 묘사한 작가의 설정이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모든 생명은 다치기 쉽습니다. 코끼리처럼 힘센 동물들도 마찬가지지요. 인간보다 훨씬 크고 강한 존재라 해도 정작 인간 앞에서는 연약할 따름입니다. 꽃에서 나

은 작은 코끼리처럼요.”

인간 앞에서는 모두 나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작가의 말을 읽으며, 요즘 같은 각박한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되면서 작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준 소년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왔어요. 작가의 상상력이 놀라웠고 그림책을 통해 받은 감동이 따뜻하게 남았습니다. 이 그림책은 자신보다 작고 연약한 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주제로 한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작가는 책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책을 만든다는 건 참 행복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곱고 귀한 것들을 꿈꾸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얻은 것들을 잘 매만져 우리 아이들과 나누는 일이기도 하고요.”

2016년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선정작 『꽃에서 나온 코끼리』, 가슴을 울리는 작가의 말부터 어느 한 구절도 놓칠 수 없는 예쁜 그림책입니다.

【심사평】

책의 매력을 잘 집어낸 좋은 안내자로서의 서평에 주목

유현미 (평택시립도서관 사서)

서평은 책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독자로 하여금 책에 대한 궁금증과 읽고 싶은 마음을 이끌어내는 서평이야말로 목적 달성에 성공한 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서평 또한 ‘맑고 동그란 눈을 가진’ 소년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책을 찾아보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한다는 점에서 좋은 서평의 덕목을 지녔다고 생각됩니다. 서평자가 책보다 앞서 나서지는 않지만 기꺼이 책을 독자의 손까지 안내하는 자신만의 목소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작으로 뽑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그렇듯 서평자도 아이가 만난 ‘마법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숨 죽이며 아이를 따르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아이들은 태생적으로 신기한 것을 지나치지 못합니다. 자연에 끌리고 작고 약한 것에 마음을 주는 아이의 세계 안에서는 ‘꽃에서 사는 코끼리’도 놀랄 일이 아닙니다.

가만가만 아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이가 곧 우주(宇宙)이자 시(詩)임을 알게 됩니다. 산들 바람, 길가의 작은 꽃, 별뿔뿔을 사랑하는 아이의 마음과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했던 시인의 마음과 달개비 꽃에서 하얗고 예쁜 상아를 발견해 내는 시인의 마음이 같음을 알게 됩니다.

아이는 가방을 뒤져 코끼리에게 바람개비도 꺼내주고, 풀도 뜯어다 주고, 물도

따라 주고, 재미난 물건이 가득한 필통도 구경시켜 줍니다. 친구가 무엇을 좋아할까 이 것 저 것 내밀어 보는 아이의 손길이 정성스럽습니다. 코끼리는 아이가 준 바람개비를 돌려보고, 풀을 받아먹고, 아이에게 장난을 걸기도 합니다. 이내 피곤해진 코끼리는 잠이 들고 코끼리가 깰까 봐 꼼짝도 못하고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는 아이의 마음속에 지난여름 시골에서 별뿔별이 떨어질 때 느꼈던 신비로움이 떠오릅니다.

평자(評者)는 아이의 그 마음에서 세상 모든 엄마들이 잠자는 아이를 바라보며 느끼는 마음, 그 작고 양증맞은 존재가 내게로 왔다는 것이 신기하고, (너무 귀해서)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을 읽어 냅니다.

마지막장에 이르면 아이와 코끼리는 내일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헤어집니다.

깊은 사랑의 시간을 통과한 사람들이 그렇듯 진한 우정을 경험한 아이와 코끼리도 더 이상 그 시간 이전의 아이와 코끼리가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서평자가 고백하듯 우리가 멋진 그림책을 만나는 일도 이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냉이

권정생 시, 김환영 그림. 사계절



소년의 꿈 알갱이

신창덕 (경기도 고양시)

『강냉이』는 사계절에서 펴낸 평화그림책 시리즈 중 한권이다. 한 중 일의 작가들이 어린이들이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게 되기를 바라 선정 한 평화그림책 시리즈이다. 『강냉이』는 저자 권정생이 초등학교 시절에 쓴 동시로서 1964년 동시집 『동시 삼베치마』에 실려 이 세상에 보여 졌다.

시인은 집 모퉁이에 형, 엄마와 함께 강냉이, 우리가 여름에 잘 먹는 간식 옥수수를 심고 매일 거름 주고 보살피다가 6.25전쟁의 발발로 소년의 키 만큼 자란 옥수수를 다 두고 피난길에 오른다. 아빠, 엄마와 고향을 생각 할 때마다 낮 설은 별빛 아래서 밤별을 쳐다보며 소년은 홀로 “이제 수염이 생기고 열매가 맺힐 터인데” 하며 강냉이를 그리워한다.

전쟁이 아니면 소년은 강냉이를 마음껏 사랑 해주고 애지중지 키웠을 것이다. 한 여름, 강냉이를 수확하여 배고픈 소년과 가족들은 허기를 채우며 오손도손 가족 간에 사랑을 확인하며 다시 다음해에 씨앗을 남겨 희망을 이어 갔을 것이다. 이 전쟁은 소년의 이 작은 소망마저 앗아가 버린 것이다.

이런 소년의 소박한 꿈을 김환영은 서양화법의 두터운 유화로 담담히 밤벌의 별 속에 담대히 표현 해 주어 그림책을 보는 이에게 많은 이야기를 쏟아 놓는다. 전쟁 중에도 싱싱하게 자라고 있을 강냉이를 생각하며 강냉이는 탐스럽게 씹씹하게 그려져 있다. 전쟁의 아픔을 모르는 듯이. 입맛 다시는 소년의 머리 위에 그려진 알찬 강냉이가 소년의 허기진 배를 상상하게 하며 달고 고수한 강냉이가 그림책을 보는 이의 마음을 울린다. 투박한 사투리의 글과 투박한 그림이 아울러 시골의 정경을 표현 해주는 그림책이다. 요즈음의 아이들은 강냉이의 맛을 잘 알까? 강냉이를 키우는 소년의 마음을 알까? 이 책을 보면서 피난길의 소년이 다시는 입맛을 느껴본다.

우리 아이들에게 평화의 소중함을, 감사함을 풍요 속에서 아름다움 정서를 맛보게 하고 싶다. 작은 화초라도 키워 생명을 키우는 맛을 보게 하여야겠다.

글과 그림의 적절성에 대한 기술이 좋은 서평

공정자 (안성시립도서관 사서)

서평은 도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로 아직 책을 읽어보지 못한 독자로 하여금 책을 읽을 것인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 서평의 내용에 개인적인 감상이나 자신의 경험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있는 글은 좋은 서평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어린이 도서의 여러 장르 중 그림책 서평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내용으로 내용의 설명, 적절한 독자연령이나 학년, 같은 저자나 삽화가의 작품·유사한 작품과의 비교, 글과 그림의 조화와 적절성, 서평자의 개인적인 견해, 도서의 우수성과 단점, 교과목이나 특정한 상황에서의 이용 가능성, 간결함, 문학적 질의 판단, 예술적 질의 판단을 들 수 있다.

본 서평은 내용요약이 적절하며 그림책의 중요한 부분인 그림에 대한 평과 글과 그림의 적절성에 대한 기술이 다음과 같이 잘 기술되어 있다. “투박한 사투리의 글과 투박한 그림이 아울러 시골의 정경을 표현 해주는 그림책이다”, “서양화법의 두터운 유화로 … 그림책을 보는 이에게 많은 이야기를 쏟아 놓는다.”

서평자의 주관적인 견해도 글 흐름 상 전반적으로 잘 기술되어 있다. 마지막 부분에는 현재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에게 권정생 선생이 살았던 시대와 어려움을 잘 모를 수 있는데 “평화의 소중함을 감사, 풍요 속에서 아름다움 정서를 맛보게 하거나 화초를 키워 생명을 키우는 맛을 보게 하겠다”와 같이 요즈음 어린이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적절한 예시도 곁들여 있다.

서평 내용 중 추가로 다루었으면 하는 점은 유명한 동화작가 권정생 선생의 다른 작품이나 유사한 작품을 비교하거나 이 책의 시대적 배경정보를 소개하여 독자로 하여금 작품의 이해를 도왔으면 한다. 그림책의 경우 표지부터 면지, 본 내용 등

책 한 권 전체를 다뤄줘야 하는데 이 책의 경우 책의 말미에 ‘표준말로 고친 시’에 대한 내용이 부가적으로 다뤄지면 좋았겠다고 본다.

서평 대상인 『강냉이』는 그림책이지만 요즘 어린이들에게 쉽지 않은 주제이다. 글은 사투리와 복선이 많고 상징적으로 그려진 그림으로 한번 읽어보았을 때 이해가 어려운데 서평을 통하여 책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서평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평 공모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떤 목욕탕이 좋아?

스즈키 노리타케 지음, 정희수 옮김. 노란우산



상상력의 끝을 달리는 창작 그림책

김선애 (경기도 파주시)

이 책을 펼친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빠져들게 되는 마법 같은 책입니다. 좋은 유아 그림책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이, 빈 틈 없이 양 폭 가득하고, 글자수도 많지 않아 아이들이 온전히 그림에 집중 할 수 있습니다. 영아기 아이들은 상상력을, 유아기 아이들은 집중력과 관찰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책을 싫어하는 아이들은 미로 찾기 / 숨은 그림 찾기 놀이 책으로 활용이 가능해 책을 권하고 읽는 풍토 조성이라는 취지에 적합합니다. 해당 작품은 노란우산 그림책 어떤 무엇이 좋아 시리즈 중 한 권으로, 시리즈 중 저희 아이가 가장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양장본 형태의 세로 직사각형의 일반적 크기로, 표지 속 아이의 표정이 너무 즐거워 보여 홀린 듯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매일 똑같은 목욕탕이 지겨워 특별한 목욕탕을 상상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상에 없는, 세상에 없던 재미있고 독특한 목욕탕들을 상상해봅니다. 내 아이는 어떤 목욕탕이 가장 좋은지, 어떤 목욕탕을 만들고 싶은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고 직접 그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로 목욕탕에서 미로 찾기도 하면서 책 놀이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집안일로 피곤한 엄마와 회사일로 피곤한 아

빠를 위한 목욕탕도 있습니다. 단순히 목욕탕의 우스운 그림만 보며 아이와 재미를 추구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을 위한 목욕탕을 직접 그려보는 독후활동도 할 수 있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조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아이들이라면, 조부모님을 위한 목욕탕을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욕탕 빌딩, 놀이공원 목욕탕, 성 목욕탕, 우주 정거장 목욕탕 등 어른은 물론 아이들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목욕탕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어른들조차 처음 보는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지는데, 아이들은 오죽 재미있을까요. 책을 보는 내내 아이의 입가에 웃음이 끊이질 않고 책에서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표정,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 사람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다채롭습니다. 거기에, 중간중간 재미 요소를 추가해 그야말로 빵빵 터지는 웃음을 선사합니다.

이 책의 또 다른 재미 포인트는 숨은 그림 찾기입니다. 대표적으로 내세운 건 까만 선글라스를 낀 뽀글머리 아저씨이지만, 개구리나 오리도 페이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는 아이들의 집중력과 관찰력을 키워주고, 찾았을 때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숨은 그림 찾기 게임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사람과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3-4세의 어린 유아의 경우 비슷한 모습의 많은 사람들로 인해 뽀글머리 아저씨를 찾기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양과 색깔이 뚜렷히 구별되는 오리나 개구리를 먼저 찾는 것으로 유도한 후, 단계적으로 뽀글머리 아저씨를 찾는 것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목욕탕들을 뒤로 하고,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목욕탕은 아빠와 형이 함께하는 목욕탕으로 이야기가 맺어집니다. 그 어떤 화려하고 값 비싼 목욕탕 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미로 찾기, 숨은 그림 찾기로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다양한 목욕탕으로 상상력에 날개를 달고, 탄탄한 구성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힘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나 좋아하는 노란우산 출판사의 『어떤 목욕탕이 좋아』를 다른 친구들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

소녀의 눈물 (어느 위안부 할머니의 이야기)

박정연 글, 그림. 버튼북스



인어공주들의 아픔

신창덕 (경기도 고양시)

연일 한일 관계에서 관점은 위안부 문제이다. 일본은 소녀상 설치까지도 신경을 곤두세워 방해하려고 한다. 잃어버린 주권도 가슴 아픈 역사인데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 이모들의 희생이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다. 외면하고 싶었던 나의 마음을 곰곰이 따져보니 너무나 아픈 역사이기에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에 올라오는 붉은 화염을 대면하기 싫어서였다. 이러한 나의 태도는 진정 비겁한 처사였음을 이 그림책의 저자 박정연은 냉혹하게 지적하고 있다.

저자 박정연은 1997년생의 어린 친구이다.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 때마다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위안부 할머니의 나눔의 집을 찾아 봉사하며 그들의 인권 대사로서 자신의 은사를 기부하고 있는 옳은 일을 실천하는 실천자이다.

『소녀의 눈물』에서 작가는 많은 고심을 하였다. 소녀들의 비참함을 그림으로 더구나 아동들이 주로 읽어야 할 작품에서 표현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장면들이기에 저자는 소녀의 감성으로서 초밥 위에 올려진 인어로 표현하여 현장감과 아픔을 그대로 전한다. 우리가 익히 읽어오던 작품에서 인어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니고

있지만 말 할 수 없고,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커다란 아픔을 견뎌야 한다. 그들의 아픔이 이 작품에 겹쳐서 슬픔을 더욱 맛보게 한다.

무서운 환란을 견뎌 생사의 기로를 넘고, 전쟁이 끝나 무서운 압박에서 벗어난 소녀들은 집으로 돌아오지만 죽은 것으로만 여긴 가족들은 그들을 떠나 행방을 찾을 수 없고 위로는 커녕 더러워진 수치로 여기는 편견 속에서 그들은 눈물을 닦아주는 이 없이 깊은 상처 자국을 지니고 있다. 개인의 선택이나 부주의로 입은 상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치부로 여겼던 것이다.

그들은 우리 민족이 국권을 잃어 강제적으로 끌려가 갖은 고생을 한 우리의 할머니 어머니 이모들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일찌감치 깨닫고 편견에서 벗어나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대변하였다면 많은 영혼들이 보다 더 빨리 자유롭게 그들의 감성이 위로받고, 그들의 인권을 찾는 일에 매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작가 박 정연을 통하여 마음의 눈을 뜰 수 있음에 감사한다.

우리들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은 역사의 현실을 밝히 볼 수 있고 눈 감고 외면하는 일이 없도록 나는 아이들에게 이 책을 적극 권한다. 앞으로 이 저자와 같은 실천하는 우리들의 후손을 기대하면서...

토끼의 당근 당근 당근

케이티 허드슨 글, 그림, 최용은 역, 키즈엠



나눔이 주는 행복

박은혜 (경기도 화성시)

삽화도 너무 귀엽고 ‘나눔’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따뜻한 그림책이다. 앞표지에 토끼는 어마어마하게 쌓인 당근위에 행복하게 누워 있고, 제목도 『토끼의 당근』이 아니라 『토끼의 당근 당근 당근』인 것에서 나타나듯이 토끼는 당근을 어머 어마하게 좋아한다.

토끼의 집안에는 각종 당근대회에서 딴 트로피와 당근에 관한 책 등으로 가득 차 있다. 당근을 좋아하는 토끼는 당근을 계속 모았고, 모은 당근을 집 안에 짹짹 채워 넣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뿌듯해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토끼네 집은 당근으로 꽉 차버려 더 이상 집에서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런 토끼를 보고 거북이가 자기 집에서 같이 자자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토끼가 당근을 가지고 들어가려다 넘어지는 바람에 거북이의 등껍질이 깨지고, 둘은 잘 곳을 찾기 시작한다. 그 후 토끼와 거북이는 새에게 잠을 재워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너무 무거워 새둥지가 부서지고 만다. 이런 식으로 다람쥐, 비버네 집까지 부서진다. 거북이, 새, 다람쥐, 비버네 집이 부서진 가장 큰 이유는 동물들 때문이 아니라 토끼의 당근 때문이었다.

친구들이 춥고 힘든 것이 모두 자기 때문이라 생각한 토끼는 기분이 엉망진창이었고, 토끼의 집과 당근이 모두 그대로 있는 것이 토끼를 더욱 미안하게 만들었다. 그 순간 토끼는 당근은 모으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눠 먹는 거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게 된다.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나니 모든 것이 훨씬 더 좋아졌다. 함께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토끼는 마지막에 깨달았지만 다른 동물들은 잘 곳 없는 친구들에게 흔쾌히 자기 집에서 자는 것을 허락하는 것에서 나눔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책은 ‘나눔의 중요성과 기쁨’을 잘 알려주는 책이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 장난감, 놀이기구 등을 양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하면 즐거움이 배가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려준다. 책 내용도 재미있게 전개되어 아이가 너무 좋아하며 자주 꺼내 읽는다. 책을 읽고 난 후 아이도 친구들에게 잘 빌려주고 나누어준다는 하는 것으로 보아 내용전달도 잘 된 것 같다. 단순히 읽고 끝나는 책이 아니라 인성도 키워주는 좋은 책인 것 같다.

손 큰 할머니 만두 만들기

채인선 저. 재미마주



그림이 있어 더 돋보이는 책

김경미 (경기도 부천시)

이역배님은 1960년 용인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했다. 『솔이의 추석 이야기』, 『개구쟁이 너구리』, 『비무장 지대에 봄이 오면』 등을 쓰고 그렸다. 그림만 그린 책으로는 『손 큰 할머니 만두 만들기』(채인선 글), 『세상에서 제일 힘센 수탉』(이호백 글), 『모기와 황소』(현동염 글)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이역배님이 사단법인 어린이문화진흥회의 어린이문화대상(미술부문)을 받은 『손 큰 할머니 만두 만들기』를 소개하려고 한다. 딸이 서너 살 때 이 책을 읽어달라고 해서 처음에는 많은 글자 수에 약간 당황했다. 하지만 그림 속에 책의 내용이 다 녹아 있어 한두 번 이야기해 주다 보니 어느새 나도 그림만 보고 있었다.

첫 장부터 소쿠리를 머리에 잔뜩 이고 양손에도 여러 개 들고 계신 할머니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일을 시작하기 전의 짜증나거나 힘들어하는 얼굴이 아니라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다. 할머니는 해마다 설날이 되면 만두를 많이 빚어 나눠 주셨다. 올해도 할머니는 만두소를 만든다. 동물들은 할머니가 재료를 꺼내고 나르는 일을 즐겁게 돕는다. 할머니가 헛간 지붕으로 쓰는 함지박을 끌어와 만두소를

몽땅 쏟아 넣는 걸 본 동물들이 엄청난 양에 놀란다. 만두소를 다 섞고 이번에는 만두피를 만든다. 밀가루 반죽이 울타리 밖으로 쪽쪽 밀려나간다. 다음 날 아침 동물들이 할머니 집에 모여 만두를 빚는다. 여우는 여우 만두를 만들고 토끼는 토끼 만두를 부지런히 만든다. 만두를 점점 크게 만들어도 만두소가 많이 남자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큰 만두를 만들자고 한다. 커다란 만두피 안에 남은 속을 다 넣고 실로 꿰어 만두 입을 봉한다. 그리고는 엄청나게 큰 가마솥에 만두를 익혀 할머니와 동물들이 나눠 먹는다.

내용은 단순하지만 그림을 꼼꼼하게 살펴보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동물들이 각자 자기를 닮은 만두를 빚는 장면, 가마솥 앞에 쭈그리고 앉아 만두가 익기를 기다리는 장면, 커다란 만두를 나눠 먹는 장면 등이 익살스럽다. 특히 마지막 장면이 글로는 간단하게 표현되었다.

‘설날 아침 할머니와 동물들은 만두를 먹고 모두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에는 할머니가 마당에 서 있고 동물들이 윷놀이, 널뛰기, 썰매타기, 눈사람 만들기 등을 하면서 노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만약 이 책에서 그림이 빠진다면 어떨까? 그림을 가리고 읽어보니 지루하고 읽는 재미가 덜하다. 이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안 보이던 그림이 보여 더 재미를 느낀다. 그림책에서 글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림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다.

꽃할머니

권윤덕 글, 그림. 사계절. 2016



절망에서 일어난 꽃할머니

신창덕 (경기도 고양시)

출판사 사계절에서 펴낸 ‘평화의 그림책’ 시리즈 중의 한 권이다. 한 중 일의 3국의 작가들이 어린이들이 전쟁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되기를 희망하여 전쟁의 참혹함을 알게 해주는 그림책 시리즈이다.

이 책은 위안부로 13세의 나이로 끌려갔던 심달연 할머니의 뼈아픈 증언으로 엮어졌다. 일제 말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곡물이며 수저 등 전쟁 물자를 마구잡이로 공출해 갔다. 그중 나이 어린 조선의 소녀들을 군인들의 사기 함양의 목적으로 ‘위안부’라는 구실로 공출하여 성노예로 삼았다.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끌려간 소녀들은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일본 군인들의 성 노리게 생활을 하였다.

얼마나 참혹한 경험이었던지 공포와 모욕감, 절망감으로 소녀의 감성은 두꺼운 장막에 갇혀 버려 언어를 잊고 기억도 할 수 없게 된다. 그 후 소녀는 밤낮으로 전쟁의 공포와 비탄의 악몽에 시달리게 된다. 전쟁이 끝나고 우여곡절 끝에 동생 가족을 만났지만 그들의 따뜻한 사랑과 정성어린 간호와 보살핌을 받고도 20년 후

에야 차츰 차츰 회복되기 시작하여 50년 후 비로써 말문을 열게 되었다. 그녀를 찾아오는 이들에게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 하며, “지금 세상에는 그런 일 없어야지. 나 같은 사람 다시는 없어야지. 내 잘못도 아닌데 일생을 다 잃어버리고…”라고 이야기 한다.

심달연 할머니는 꽃누르미를 즐겨 ‘꽃할머니’라 부른다. 꽃누르미 작업을 통해 내면에 깊은 곳의 감성을 살리는 씨앗을 싹트웠다. 작가는 이 그림책에서 각 페이지마다 많은 이야기를 그림으로 이야기 해주고 있다. 피해자들의 가혹한 이야기들을 떨어진 꽃잎으로 표현하였다. 꽃잎 속에 감추어진 꿈도 육체도 널 부러져 있다. 가해자들인 일본군들은 황토색의 빈 군복의 그림으로 자신의 인간 존엄성은 내어 버리고 선동하는 일본의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허수아비들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 책을 통하여 다시는 이 세상에 참혹한 일이 없기를 기도하며 우리 어린이들이 지난 아픔을 볼 수 있고 보다 성숙하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어린이들로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도서별

CEO 칭기스칸	256
HO!	230
Zero 영	12
가시고백	233
거대한 전환	259
고양이 손을 빌려 드립니다	14
고작해야 364일	16
공룡 엑스레이	212
그 나무가 웃는다	19, 21
그래도 즐겁다	114
길바닥 세계사 음식이야기	208
꼬불꼬불 눈 놀이터	116
나 홀로 버스	23
나는 가해자의 엄마입니다	262
나는 기다립니다	25
나는 밥 먹으러 학교에 간다	235
나는 죽음이예요	27
나는 지하철입니다	29
나무는 정말 놀라워요	118
나무도장	31
나무당이!	121
나의 아버지	34
나의 엄마	34
나의 진주 드레스	124
난생 처음 히치하이킹	127
내 동무 리구철!	129
너였구나	36
너희 집은 어디니	38
넌 괜찮은 줄 알았어	40
네모 돼지	131

누나라고 부르지 말랬지!	133
다 잘될거야	135
다른 방식으로 보기	264
다이애나 : 사랑을 찾아서	266
대성당	268
더 빨강	238
덤벼!	42
동물농장	270
두더지의 소원	44
둥지아파트 이사 대작전	138
디지틀	46
따스한 흑한	274
레스토랑 sal	48
로리스의 특별한 하루	50
릴리에게, 할아버지가	240
마녀를 잡아라	141
마씨부자	277
마음은 어디에	52
만점짜리 도시락	54
모자를 보았어	56
민서와 함께 춤을	143
별나라 마트 습격 사건	145
비비를 돌려줘	58
사람이 뭐예요?	147
사랑해 꼭꼭꼭	60
사진으로 만나는 인문학	280
사춘기 가족	150
사춘기 소녀의 성장 일기	152
산딸기 크림붕붕	63
생존자	283

생쥐 가족의 하루	65
생쥐 우체부의 여행	154
샤넬, 미술관에 가다	285
소년 명탐정 정약용	157
소에게 친절하세요	159
수박만세	70
수박 대장 수박 동네	68
아몬드	242
아빠는 외계인	161
알사탕	72, 74
야호! 바다	76
어느 날 구두에게 생긴 일	163
어느 날 아무 이유도 없이	78
어딤지 요깃지	80
어린이가 꼭 알아야 할 오페라 이야기	214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목민심서	216
엄마 우리 이젠 울지 마요	165
엄마 친구, 아저씨가 나타났다	167
엄마는 해녀입니다.	82
여섯 개의 점	170
열네 번째 금붕어	172
열세살, 불안해도 괜찮아	174
오늘 내가 사는 게 재미있는 이유	287
왜냐면...	85
육대장	176
우리 학교에 시리아 친구가 옵니다	178
우리가 원주민 마을에 간 이유	218
우리는 쌍둥이 언니	87
우리 동네 정원 만들기	89
위니를 찾아서	181

위험한 게임 마니토	183
이게 정말 천국일까	185
일기쓰기 딱 좋은 날	91
잔소리 로봇	188
잘 가, 안녕	94
적폐역사 개념역사	289
조랑말과 나	96
조커와 나	247
진실은 힘이 세다	190
짚신 신고 도롱이 입고 동네 한 바퀴!	220
참 다행인 하루	192
책 고치는 할아버지	100
천만의 말씀	102
천하태평 금금이의 치매엄마 간병기	104
최고의 서재를 찾아라	222
충주성심학교 야구부, 1승을 향하여	250
커럼포의 왕 로보	224
플레이 볼	194
할머니 엄마	107
할머니 주름살이 좋아요	197
허클베리 핀의 모험 : 일반	291
호로로 히야, 그리는 대로	200
호모데우스	294
호철이는 설날이 가장 즐거워요	202
희망을 찾는 아이, 러키	204
힘이 센 장수풍뎅이야	109

저자별

강경수	34
경혜원	212
고정욱	133
고희영	82
구스노키 시게노리	54
권오준	58
권윤덕	31, 345
기르스텐 보이에	135
김경민	145
김동수	94
김려령	163, 233
김상근	44
김선희	238
김성은	38, 42
김아로미	188
김아영	127
김옥	114
김이자	60
김정조	274
김정호	100
김종래	256
김주현	80
김종미	247
김진	109
김채완	14
김태호	131
김현주	212
김혜남	287
김혜원	104
김흥기	285
김효은	29
남강한	23
노경실	165
다비드 칼리	25, 78
다이언 디살보 라이언	89
라오서	277
레이먼드 카버	268
렘니스케이트	118
로알드 달	141
린다 애쉬먼	76

린지 매틱	181
마리안느 뒤비크	154
마크 트웨인	291
문중훈	147
미토	116
바르바라 취렌	50
박기복	235
박영옥	129
박은교	161
박현숙	167, 176
백희나	72, 74
베아트리체 마시니	159
선자은	183
소윤경	48
손연자	19, 21
손원평	242
송은하	174
송미경	124
수 클리블드	262
수전 페이트런	204
스즈키 노리타케	337
시모나 치라올로	197
신정민	214
안녕달	71, 85
안미란	192
앤드루 모튼	266
앨런 맥팔레인	240
역수씨	230
에밀리 젠킨스	63
엘리자베스 헬란 라슨	27
염혜원	87
오렌 긴즈 버그	218
오롱	289
오미경	150
요시타케 신스케	185
윌리엄 그릴	224
유발 하라리	294
윤미현	250
윤지연	40
이선미	70

이소정	250
이승민	143
이은정	208
이지은	107
이창래	283
이현	194
이호철	202
장희정	174
전미화	36
정신	91
정약용	216
정인수	220
제니퍼 홀름	172
제럴드 라이언스	259
제니 오피	121
젠 브라이언트	170
조 오스랑트	152
조반나 조볼리	65
조지 오웰	270
존 버거	264
존 클라센	56
차나무	200
카트린느 마쎈	178
캐드린 오토시	12
토네 사토에	52
파스칼 헤힐러	50
패트릭 맥도넬	46
폴라 셰어	138
필립 드레이	190
한이	157
함철훈	280
홍그림	96
황선미	16
히라타 마사히로	68

서평자별

공정자	12, 46, 50, 63, 87, 183, 190, 220, 222, 224
김보라	264, 268, 303
김새롬	60, 65, 82, 109, 118, 135, 138, 147, 154, 185, 197
김정미	19
김현주	14, 44, 58, 72, 100, 212
박지원	21, 89, 91, 116, 124, 129, 133, 143, 145, 152, 161, 167, 170, 192, 200, 216
송미선	70
안미아	38, 48, 54, 56, 76, 78, 107, 150, 233, 238, 287
엄정란	114, 131, 141, 157, 159, 165, 172, 176, 181, 188, 202, 208, 214
유향숙	256, 259, 266, 274, 285, 289, 294
유현미	34, 96, 194, 235, 258
이가영	29, 74, 85, 94
이병희	270, 277, 280, 291
이선희	23, 163, 240, 247, 283
이수경	104
이시영	218
이연수	16, 31, 127, 178
이연순	40, 52, 68, 80, 121, 174, 204, 262
이윤정	27, 36, 42, 102
조이소하	25

사서들의 책 이야기

2017 경기도사서서평단 서평활동 모음집

2017 경기도사서서평단 서평활동 모음집
사서들의 책 이야기, 2017

발행일 2017년 12월 15일
글쓴이 2017년 경기도사서서평단
기획및편집 정은영
발행처 경기도사이버도서관
(1625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신흥로23번길 68 (신흥동 123-69)
TEL. 031)252-5237
홈페이지 www.Library.kr / www.BookMagic.kr
제작 디자인 달, 이미희
ISBN 978-89-9339-566-2 03020

이 책의 저작권은 경기도와 경기도사이버도서관에 있습니다. 상업적인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은 2017년 경기도사서서평단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책 속 서평과 목록은 경기도 독서포탈 북매직
(www.BookMagic.kr)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사서서평단 서평집

2009~2011

경기도 사서서평교육 결과 서평집



2012~2016

813.8 사서, 어린이책을 말한다



2017~

사서들의 책 이야기





9년 전 처음 사서들의 서평집 『813.8 사서, 어린이 책을 말하다』를 내면서 “도서관 전문가로서 사서의 자리를 매김하기 위한 작은 노력이었습니다.”라는 발간사가 떠오릅니다. 운동가처럼 목소리를 내지는 않지만 사서로서, 도서관과 책에 대한 전문가로서 경기도 사서들은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9번째 서평집 『사서들의 책 이야기, 2017』을 선보입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목소리도 필요하지만 책을 소개하며, 도서관의 유익함을 나누며 사서들의 목소리를 높여봅니다. 도서관과 책을 사랑하는 사서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 퍼내는 글 중에서 -



비매품
ISBN 978-89-93395-66-2